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SEOUL DESIGN SURVEY 2018

SEOUL UNIVERSAL DESIGN SURVEY 2018

일러두기

이 책은 (재)서울디자인재단 기획본부 사업기획팀에서 수행한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유니버설디자인 서베이'의 내용을 엮어서 만든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연구기획

신윤재 서울디자인재단 기획본부 본부장
서혜영 서울디자인재단 사업기획팀 팀장
김민정 서울디자인재단 사업기획팀 선임
정종희 서울디자인재단 사업기획팀 선임
강지혜 서울디자인재단 경영지원팀 선임 (전 시민디자인연구센터 선임)

연구수행기관

대표기관 속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수행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연구진 (가나다순)

책임연구원 민동권 속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동)책임연구원 박인석 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과 교수
(부문)책임연구원 김석균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상무이사
연구원 유한나 속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수료생
이수진 속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수료생
정원희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리서치2사업부 부장
연구보조원 박찬미 한국예술종합학교 FXCD Design Lab 연구원
배선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리서치2사업부 대리
이주희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리서치2사업부 과장
이희진 속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정태인 인포그래픽 디자이너

자문위원 (가나다순)

디자인 분야

강현주 인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교수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경아 숙명여자대학교 공예과 교수
박해천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미래연구센터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연명흠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이경돈 신구대학교 실내공간디자인과 교수
이석우 디자인스튜디오 SWNA 대표
이훈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천산건축 소장
차강희 한국산업디자인협회 회장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고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김형철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대표
김호중 ABIM 건축연구소 대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팀장
우창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전미자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자료협조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담당자

제1편
서울디자인서베이

제1편 서울디자인서베이

	요약 및 정책건의	12
제1장	2018 서울디자인(SD) 서베이 개요	23
1-1.	목적	24
1-2.	조사 범위 및 방법	24
1-3.	이론적 배경	28
1-4.	지표체계	29
1-5.	기대 효과	33
제2장	디자인산업	35
2-1.	디자인 분야 기업	36
2-2.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	43
2-3.	디자인산업 지원 사업	48
제3장	디자인문화	51
3-1.	디자인문화 자원	52
3-2.	디자인문화 사업	63
제4장	디자인교육	73
4-1.	디자인 전문교육	74
4-2.	시민디자인교육	88

제5장	디자인정책	95
5-1.	디자인 관련 제도	97
5-2.	디자인정책 추진	99
제6장	시민디자인의식조사	109
6-1.	조사 개요	110
6-2.	조사 결과	114
제7장	결론 및 제언	171
7-1.	부문별 소결	172
7-2.	정책 제언	178
부록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 조사 설문지 참고문헌	182 200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

표 목차

[표 1-1]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 조사 내용	25
[표 1-2]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 시민디자인의식조사	26
[표 1-3]	단계별 추진 내용	27
[표 1-4]	서울디자인서베이의 지표체계 수립 과정	28
[표 1-5]	조사항목과 지표	29
[표 2-1]	디자인산업 지표체계	36
[표 2-2]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와 범위	37
[표 2-3]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 및 주요 활용 디자인 분야 동향	38
[표 2-4]	디자인 전문기업 수 변화	40
[표 2-5]	디자인 전문기업의 주요 서비스 제공 분야	40
[표 2-6]	디자인 전문기업 매출액 및 평균 매출액(서비스업조사)	41
[표 2-7]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매출액(산업디자인통계조사)	42
[표 2-8]	디자인 전문기업 용역형태별 매출구성 비율	43
[표 2-9]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인 부서 평균 디자이너 수	43
[표 2-10]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 디자이너 수	45
[표 2-11]	디자인 전문기업의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45
[표 2-12]	프리랜스 디자이너 수 및 산업 규모(추정치)	47
[표 2-13]	디자인 창업시설 분야별 현황	48
[표 2-14]	디자인 창업시설 내 평균 디자이너 수	48
[표 2-15]	디자인 창업시설 매출현황	49
[표 3-1]	디자인문화 지표체계	52
[표 3-2]	서울 소재 디자인 관련 박물관(가나다 순)	53
[표 3-3]	서울 소재 등록 미술관(가나다 순)	55
[표 3-4]	서울 소재 디자인 관련 도서관	56
[표 3-5]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된 디자인/공예 관련 문화행사	58
[표 3-6]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내용	65
[표 3-7]	도시가로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내용	67
[표 3-8]	교통서비스 이용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내용	67
[표 3-9]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사업 내용	69
[표 3-10]	지역명소화 디자인 사업 추진 내용	70
[표 3-11]	근린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내용	71
[표 4-1]	디자인교육 지표체계	74
[표 4-2]	디자인 관련 학과 구분	75
[표 4-3]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 중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를 개설한 대학원	76

[표 4-4]	2017년 서울 소재 대학 중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를 개설한 대학	78
[표 4-5]	2017년 서울 소재 전문대학 중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를 개설한 전문대학	79
[표 4-6]	2017년 서울 소재 고등학교 중 디자인과 및 공예과를 개설한 고등학교	79
[표 4-7]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수	81
[표 4-8]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수	82
[표 4-9]	2017년 서울 소재 대학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수	82
[표 4-10]	2017년 서울 소재 전문대학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수	83
[표 4-11]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학생 수	83
[표 4-12]	2017년 서울 소재 대학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재학생 수	84
[표 4-13]	2017년 서울 소재 전문대학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재학생 수	84
[표 4-14]	2017년 서울 소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디자인전공 재학생 수	85
[표 4-15]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자 수	85
[표 4-16]	2017년 서울 소재 대학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졸업자 수	86
[표 4-17]	2017년 서울 소재 전문대학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졸업자 수	86
[표 4-18]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졸업자 취업률	87
[표 4-19]	2017년 서울 소재 대학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졸업자 취업률	87
[표 4-20]	2017년 서울 소재 전문대학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졸업자 취업률	88
[표 4-21]	시민디자인교육 운영기관(서울시 및 산하기관)	90
[표 4-22]	생애주기별 시민디자인교육	93
[표 5-1]	디자인정책 지표체계	96
[표 5-2]	서울시 디자인 심의·지원제도 현황	97
[표 5-3]	서울시 디자인 심의·지원제도 운영 현황	98
[표 5-4]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제도 운영	98
[표 5-5]	서울시 디자인정책 조직	100
[표 5-6]	서울시 자치구 디자인정책 조직(가나다 순)	100
[표 5-7]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임용등급별 인력현황	102
[표 5-8]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전공별 인력현황	102
[표 5-9]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인력 근속기간	103
[표 5-10]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인력 고용형태	103
[표 5-11]	서울시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 임용등급별 인력현황	104
[표 5-12]	서울시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 전공별 인력현황	104
[표 5-13]	서울시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 인력 근속기간	104
[표 5-14]	서울시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 인력 고용형태	105
[표 5-15]	서울디자인재단 전공별 인력현황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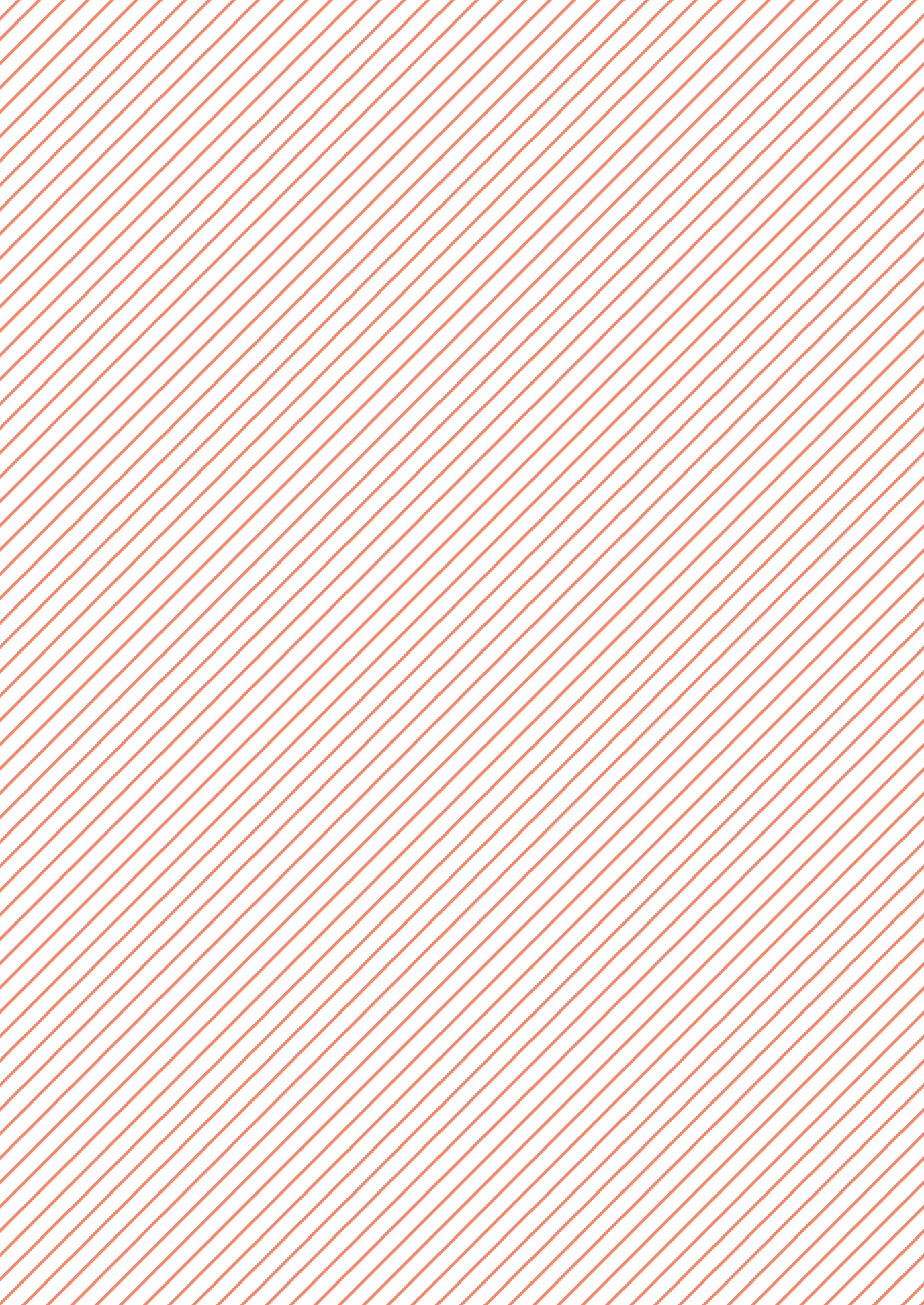
[표 5-16]	서울디자인재단 인력 근속기간	106
[표 5-17]	서울디자인재단 인력 고용형태	106
[표 5-18]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예산	106
[표 5-19]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 예산(가나다 순)	107
[표 5-20]	서울디자인재단 예산	107
[표 6-1]	시민디자인의식조사 응답자 구성 및 세부사항(일반 시민)	111
[표 6-2]	시민디자인의식조사 응답자 구성 및 세부사항(디자인계 시민)	112
[표 6-3]	최근 1년 내 일반 시민을 위한 디자인 교육 강좌 수강 경험	115
[표 6-4]	최근 3년 내 일반 시민을 위한 디자인 교육 강좌 수강 경험	116
[표 6-5]	디자인 교육 수강처	117
[표 6-6]	디자인 교육 만족도	119
[표 6-7]	디자인 교육이 시민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120
[표 6-8]	디자인 교육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121
[표 6-9]	최근 1년 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	122
[표 6-10]	최근 3년 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	123
[표 6-11]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만족도	124
[표 6-12]	최근 1년 내 디자인 행사 방문·참여 경험 여부	125
[표 6-13]	최근 3년 내 디자인 행사 방문·참여 경험 여부	126
[표 6-14]	디자인 관련 행사 만족도	127
[표 6-15]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여부 및 방문 의향	128
[표 6-16]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연간 방문 횟수	129
[표 6-17]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목적	130
[표 6-18]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디자인 관련 행사 참여 여부	131
[표 6-19]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차별적 특성	132
[표 6-2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134
[표 6-21]	여가, 취미 활동으로 경험한 디자인 관련 활동	136
[표 6-22]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 빈도	137
[표 6-23]	여가, 취미 활동으로 경험한 디자인 관련 활동	138
[표 6-24]	공공시설물 충분 정도	140
[표 6-25]	공공시설물 디자인 만족도	142
[표 6-26]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정도	143
[표 6-27]	범죄예방디자인 정책 필요성	145
[표 6-28]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 인지 정도	146
[표 6-29]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	147

[표 6-30]	공공미술에 대한 만족도	148
[표 6-31]	공공미술 작업 참여의사	150
[표 6-32]	디자인 거버넌스 정책 필요성	151
[표 6-33]	디자인 거버넌스 참여의사	152
[표 6-34]	업사이클링 디자인정책 필요성	154
[표 6-35]	공공디자인 동의 정도	155
[표 6-36]	공공디자인 만족도	157
[표 6-37]	공공디자인 정책 형성에 중요한 활동 우선순위	159
[표 6-38]	일상에서의 디자인이 도시환경과 문화경험에 미치는 영향	160
[표 6-39]	2018 서울디자인키워드 적합성	165
[표 6-40]	2019 서울디자인키워드(일반 시민)	167
[표 6-41]	2019 서울디자인키워드(디자인계 시민)	168
[표 6-42]	2019 서울디자인키워드(최종)	169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 그림 목차

[그림 2-1]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	38
[그림 2-2]	디자인 전문기업 수 변화	40
[그림 2-3]	디자인 전문기업의 주요 서비스 제공 분야	41
[그림 2-4]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매출액(서비스업조사)	42
[그림 2-5]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매출액(산업디자인통계조사)	42
[그림 2-6]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인 부서 평균 디자이너 수	43
[그림 2-7]	디자인 활용기업 연령별 평균 디자이너 수	44
[그림 2-8]	디자인 활용기업 성별 평균 디자이너 수	44
[그림 2-9]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 디자이너 수	45
[그림 2-10]	디자인 전문기업의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46
[그림 2-11]	디자인 전문기업 연령별 평균 디자이너 수	46
[그림 2-12]	디자인 전문기업 성별 평균 디자이너 수	47
[그림 2-13]	연도별 프리랜스 디자이너 수	47
[그림 2-14]	연도별 프리랜스 디자이너 산업 규모	47
[그림 2-15]	디자인 창업시설 업체 수	48
[그림 3-1]	디자인 관련 문화시설 권역별 분포	57
[그림 3-2]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65
[그림 3-3]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68
[그림 3-4]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69
[그림 4-1]	서울 소재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를 개설한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권역별 분포	81
[그림 4-2]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권역별 분포	89
[그림 4-3]	시민디자인교육 운영 지역공동체시설(마을예술창작소) 권역별 분포	91
[그림 4-4]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운영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분야별 분포	91
[그림 4-5]	지역기반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 권역별 분포	92
[그림 4-6]	지역기반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 분야별 분포	93
[그림 5-1]	서울시청 조직도	99
[그림 5-2]	서울디자인재단 조직도	101
[그림 6-1]	최근 1년 내 일반 시민을 위한 디자인 교육 강좌 수강 경험	115
[그림 6-2]	최근 3년 내 일반 시민을 위한 디자인 교육 강좌 수강 경험	116
[그림 6-3]	디자인 교육 수강처	117
[그림 6-4]	디자인 교육 만족도	118
[그림 6-5]	디자인 교육이 시민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119
[그림 6-6]	디자인 교육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120
[그림 6-7]	최근 1년 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	121

[그림 6-8]	최근 3년 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	122
[그림 6-9]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만족도	123
[그림 6-10]	최근 1년 내 디자인 행사 방문·참여 경험 여부	124
[그림 6-11]	최근 3년 내 디자인 행사 방문·참여 경험 여부	125
[그림 6-12]	디자인 관련 행사 만족도	126
[그림 6-13]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여부	127
[그림 6-14]	연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횟수	128
[그림 6-15]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목적	129
[그림 6-16]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디자인 관련 행사 참여 여부	131
[그림 6-17]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차별적 특성	132
[그림 6-18]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133
[그림 6-19]	여가, 취미 활동으로 경험한 디자인 활동	136
[그림 6-20]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 빈도	137
[그림 6-21]	향후 여가, 취미 활동으로 희망하는 디자인 활동	138
[그림 6-22]	공공시설물 충분 정도	140
[그림 6-23]	서울의 공공시설물	141
[그림 6-24]	공공시설물 디자인 만족도	141
[그림 6-25]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정도	143
[그림 6-26]	범죄예방디자인 정책 필요성	144
[그림 6-27]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 인지 정도	145
[그림 6-28]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	147
[그림 6-29]	공공미술에 대한 만족도	148
[그림 6-30]	공공미술 작업 참여의사	149
[그림 6-31]	디자인 거버넌스 정책 필요성	151
[그림 6-32]	디자인 거버넌스 참여의사	152
[그림 6-33]	업사이클링 디자인정책 필요성	153
[그림 6-34]	공공디자인 동의 정도	155
[그림 6-35]	공공디자인 만족도	156
[그림 6-36]	공공디자인 정책 형성에 중요한 활동 우선순위	158
[그림 6-37]	일상에서의 디자인이 도시환경과 문화경험에 미치는 영향	160
[그림 6-38]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실시 중인 디자인정책·사업 인지도	161
[그림 6-39]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서울디자인재단의 정책·사업	163
[그림 6-40]	2018 서울디자인키워드 적합성	165
[그림 6-41]	MaxDiff 평가	166



요약 및 정책건의

요약 및 정책건의

제1편 서울디자인서베이

서울디자인서베이는 디자인과 관련된 서울의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의 디자인 의식을 조사항으로써 지속성 있는 디자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디자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08 서울디자인서베이’를 실시한 이후 ‘2010 월드디자인서베이’와 ‘아시아디자인서베이’를 실시하였고, 이후 2014년부터는 다시 ‘서울디자인서베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올해까지 매년 과업을 수행하였다. 이 5년간의 과정에서 서베이의 지표체계와 구성 내용에 변동이 있었다. 우선 서베이의 영역이 2014년엔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정책’을, 2015년엔 ‘디자인교육’과 ‘디자인문화’를 다루었다. ‘디자인산업-문화-교육-정책’ 4개 영역을 모두 통합하여 실시한 것은 2016년부터다. 2018년 올해까지 5년간 서베이의 지표체계 및 구성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다듬었다. 또한 올해는 신규로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를 추가하였다. 기존의 디자인서베이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도 산업-문화-교육-정책 영역의 정성적·정량적 자료를 수집하여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현황과 시민 의식을 파악하였다.

서울의 디자인정책은 서울시의 발전과 시정기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어왔다. 서울시 디자인 정책은 ‘시민중심의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목표로 한 서울시 민선 6기 출범 이래, 2018년에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디자인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네 가지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즉, ‘일상 속 예술로 매력 있는 도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기업의 디자인 활용으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다.

본 조사는 이와 같은 서울의 디자인정책 수립과 시행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서울의 디자인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현장 및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추진되었다. 본 조사를 통해 서울 디자인 정책이 급속한 디자인 환경의 변화와 고도화되고 있는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개요

- 연구명 : 2018년 서울디자인서베이
- 연구목적 : 서울디자인 산업-문화-교육-정책 영역 지표별 조사로 서울디자인 DB를 구축하고, 서울시 및 서울디자인재단이 시행하는 디자인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 파악 및 시민의식 분석 등으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 연구범위 : 서울의 디자인 산업-문화-교육-정책 영역 조사 및 시민디자인 의식조사
- 연구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월
 - 문헌조사 및 분석 : 2018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전문가 FGI : 2018년 11월 12일(1차), 2018년 12월 28일(2차)
 - 시민디자인의식조사 : 2018년 11월 30일 ~ 12월 7일
- 조사방법: 관련 문헌 내용분석,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

2. 디자인산업

① 디자인 분야 기업

- 디자인 활용기업 :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은 30.9%(14년) → 37.8%(15년) → 41.6%(16년)로 증가. 디자인 자체개발 비율은 건수 기준(64.2%) 비용 기준(64.0%)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평균 매출은 838억원(14년) → 295억원(15년) → 240억원(16년)으로 감소하였으나, 평균 매출 대비 디자인 투자는 0.3%(14년) → 0.6%(15년) → 0.6%(16년)로 증가
- 디자인 전문기업 : 기업 수는 2670개(13년) → 2803개(14년) → 3054개(16년)로 증가. 서비스 제공 분야는 시각디자인(40.3%), 공간디자인(24.3%), 제품디자인(15.8%) 순 등임. 전체 매출은 1조8천억원(13년) → 1조7천억원(14년) → 2조원(16년)으로 증가. 평균 매출은 6.6억원(13년) → 6.0억원(14년) → 6.6억원(16년)으로 변동하였으며, 디자이너당 매출은 2.1억원(13년) → 1.9억원(14년) → 1.7억원(16년)으로 감소

②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

- 디자인 활용기업 : 디자이너 수는 4.2명(14년) → 3.3명(15년) → 3.1명(16년)으로 감소하였으며, 디자이너 분포는 30대(1.7명), 여성(1.8명)의 비율이 높음
- 디자인 전문기업 : 디자이너 수는 3.2명(13년) → 3.2명(14년) → 3.8명(16년)으로 증가하였으며, 디자이너 분포는 시각디자인(1.8명), 30대(1.7명), 여성(2.0명)의 비율이 높음
- 프리랜스 디자이너 : 디자이너 수는 전국 3만7천명(14년) → 4만1천명(15년) → 4만8천명(16년)으로 증가. 산업 규모는 전국 7.2천억원(14년) → 8.2천억원(15년) → 1조원(16년)으로 증가. 디자이너당 매출은 1.96억원(14년) → 1.99억원(15년) → 2.17억원(16년)으로 증가

③ 디자인산업 지원 사업

- 디자인 창업시설 : 주요 활동 분야는 총 40개사 중 영상·멀티미디어 13개사(32.5%), 제품 디자인 12개사(30%) 순 등. 인력구성은 총 82명 중 남성 46명(42.6%), 여성 36명(34.4%)임

3. 디자인문화

① 디자인문화 자원

- 디자인 관련 문화환경 : 디자인 관련 박물관은 69개(15년) → 73개(16년) → 80개(18년)로 증가. 디자인 관련 미술관은 38개(15년) → 39개(16년) → 43개(18년)로 증가. 디자인 관련 도서관은 5개(15년) → 5개(16년) → 6개(18년)로 증가. 디자인 관련 미디어는 전국 기준 총 3719권의 도서, 88개의 잡지 발행
-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 : 22건(15년) → 38건(16년) → 170건(18년)으로 증가

② 디자인문화 사업

-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 범죄예방디자인(CPTED), 학교폭력예방디자인, 교통 및 도보 안전 디자인, 고령화 대비 디자인, 지역문제해결 디자인이 수행됨. 총 178건 중 동북2생활권 32건, 동북1생활권 30건이며, 34건(15년) → 134건(16년) → 178건(17년)으로 증가
- 공공편의 증진 디자인 : 도시가로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에는 공공시설물 개선,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수행됨. 교통서비스 이용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으로는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사업이 수행됨.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사업의 권역별 분포는 총 23건 중 도심권이 7건, 동북2생활권이 4건으로 높았으며, 23건(15년) → 23건(16년) → 23건(17년)으로 매년 동일
- 공공시설 (건축) 개선 디자인 :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사업에는 학교환경개선 디자인, 복지행정공간개선 디자인, 도시경관개선 디자인 사업이 수행됨. 권역별로는 총 196건 중 동북2생활권이 69건, 동북1생활권이 57건으로 높음. 283건(15년) → 196건(16년) → 196건(17년)으로 감소 후 동일
- 지역환경 개선 디자인 : 지역명소화 디자인 사업으로는 야간경관 조명시설 개선 사업, 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수행됨. 근린환경개선 디자인 사업으로는 희망의 벽화공원 조성 사업, 서울은 미술관 사업이 수행됨

4. 디자인교육

① 디자인 전문교육

- 디자인 전문교육 자원 : 교육기관 수는 대학원 학과 수 153개(감소), 대학 학과 수 111개(감소), 전문대학 학과 수 58개(증가), 고등학교 학과 수 49개(증가). 교육인력 수는 대학원 교원 수 473명(감소), 대학 교원 수 2085명(증가), 전문대학 교원 수 923명(증가). 학생 수는 대학원생 3568명(감소), 대학생 1만8918명(증가), 전문대학생 8414명(증가), 고등학생 6290명(감소)
- 디자인 전문교육 성과 : 졸업생 수는 대학원 졸업생 948명(감소), 대학 졸업생 3121명(감소), 전문대학 졸업생 2507명(감소). 취업률은 대학원 취업률 48.0%(감소), 대학 취업률 60.9%(감소), 전문대학 취업률 61.9%(감소)

② 시민디자인교육

- 시민디자인교육 자원 : 시민디자인교육 운영 문화기반시설 중 박물관은 13개(16년) → 22개(18년)로 증가하였으며, 미술관은 3개(16년) → 18개(18년)로 증가. 시민디자인교육 운영 지역기반시설은 19개(15년) → 18개(16년) → 22개(18년)로 증가. 시민디자인교육 운영 지역공동체는 33개소(16년) → 29개소(17년) → 44개소(18년)로 증가
-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 : 문화기반시설 운영 프로그램은 43개(16년) → 60개(18년)로 증가. 지역기반시설 운영 프로그램은 44개(16년) → 622개(18년)로 증가(아동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115개). 서울디자인재단의 생애주기별 시민맞춤형 디자인교육으로는 어린이 디자인 체험, 청소년 멘토링 세미나, 라이프스타일 강연 세미나 등이 진행됨

5. 디자인정책

① 디자인 관련 제도

- 디자인 조례 및 가이드라인 : 서울시는 7개의 디자인 심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08회가 운영되고 1019건의 안건이 처리됨
-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 디자인거버넌스는 4개의 시민제안을 반영하였고,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은 100명이 참여하여 10개의 성과물을 선보임

② 디자인정책 추진

- 디자인정책 조직 : 서울시는 문화본부 내 디자인정책과(디자인정책팀, 공공디자인사업팀, 공공디자인관리팀, 공공미술사업팀, 공공미술관리팀)에서 디자인 정책을 수행함. 또한 각 자치구별 1개 이상 디자인 전담부서를 운영함. 서울디자인재단은 4본부(기획본부, 사업본부, DDP 운영본부, 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있음

- 디자인 부서 인력 : 서울시 디자인정책과는 31명(17년) → 32명(18년)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자치구는 약 80명(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5개구 미포함), 서울디자인재단은 정원 152명 대비 현원 144명(18년)임
- 디자인 부서 예산 : 서울시 디자인정책과는 약 418억원(17년) → 453억원(18년)으로 증가. 자치구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5개구를 미포함한 총 예산이 71억 3696만원임. 서울디자인재단은 469억원(16년) → 483억원(17년) → 400억원(18년)으로 증가 후 감소(일반관리비 제외)

6. 시민디자인의식조사

① 시민디자인교육

- 강좌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19.2%(17년) → 22.4%(18년)로 3.2%p 증가. 최근 3년 내 19.1%(16년) → 24.1%(17년) → 28.1%(18년)로 증가
- 수강처 : 공공 문화센터(38.6%), 온라인 교육(27.5%), 사설 문화센터(24.5%), 학교(18.1%), 소그룹 활동(17.4%), 평생교육원(16.5%), 동호회(16.1%) 등 순임. 공공 문화센터는 34.7%(16년) → 37.0%(17년) → 38.6%(18년)로 증가. 온라인 교육은 22.6%(16년) → 23.3%(17년) → 27.5%(18년)로 증가. 학원은 3.8%(16년) → 2.3%(17년) → 0.9%(18년)로 감소
- 만족도 : 디자인교육 수강 유경험자 대상 조사 결과, 82.8%(16년) → 86.3%(17년) → 82.1%(18년)로 변동(유의하지 않음, p=0.16)
-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신규) : 디자인교육 수강 유경험자 대상 51.5%(18년)
-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 82.8%(16년) → 83.8%(17년) → 84.0%(18년)로 증가(유의하지 않음, p=0.47)

② 디자인 관련 시설 및 행사

- 방문 경험 : 최근 1년 내 67.4%(17년) → 67.0%(18년)로 감소, 최근 3년 내 64.0%(16년) → 74.8%(17년) → 75.8%(18년)로 증가
- 방문 만족도 : 방문 유경험자 대상 조사 결과, 89.2%(16년) → 90.1%(17년) → 87.6%(18년)로 변동(유의하지 않음, p=0.06)
- 행사 방문·참여 경험 : 최근 1년 내 31.6%(17년) → 33.7%(18년)로 2.1%p 증가. 최근 3년 내 32.2%(16년) → 42.2%(17년) → 44.5%(18년)로 증가
- 행사 방문·참여 만족도 : 행사 방문·참여 유경험자 대상 조사 결과, 86.6%(16년) → 88.3%(17년) → 86.5%(18년)로 변동(유의하지 않음, p=0.48)

③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방문 여부 : 55.6%(16년) → 61.6%(17년) → 64.8%(18년)로 증가
- 연 방문 횟수(신규) : 방문 유경험자 대상 조사 결과, 연 1-3회(81.8%), 연 4-6회(12.8%), 연 7-9회(3.4%), 연 10회 이상(1.9%)
- 방문 목적(신규) : 전시 관람(63.4%), 상점 이용(44.4%), 식당 및 카페 이용(35.5%), 문화행사 참여(31.7%) 순
- 디자인 관련 행사 참여 경험 : 47.9%(16년) → 45.4%(17년) → 42.5%(18년)로 감소(유의하지 않음, $p=0.012$)
- 차별적 특성(신규) : 건축물과 공간이 차별화되어 있음(41.8%), 시민 참여가 자유로움(21.4%), DDP만의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15.1%) 등 순
- 필요 프로그램 : 디자인문화행사(42.1%), 다양한 디자인 상품 판매(15.2%),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디자인 교육(13.8%), 고품격 디자인 전시(13.2%) 등 순. 디자인문화행사는 45.1%(16년) → 43.6%(17년) → 42.1%(18년)로 감소. 국제 세미나는 5.6%(16년) → 5.6%(17년) → 7.7%(18년)로 증가

④ 디자인과 여가

- 여가 취미 활동으로 경험한 디자인 관련 활동 : 미술, 디자인, 공예 관련 감상(34.3%),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25.1%), 모형 제작 활동(19.7%),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활동(18.6%) 등 순. 3D 프린터 이용이 5.2%(16년) → 6.6%(17년) → 7.7%(18년)로 증가
- 여가 취미 활동 빈도(신규) : 41.0%가 자주한다고 응답
- 향후 희망하는 활동 :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40.0%), 나무·금속·도자 공예 및 디자인 활동(37.5%), 미술디자인 공예 관련 감상(34.8%), 섬유 공예 및 디자인 활동(29.2%) 등 순

⑤ 디자인 정책 및 사업

- 공공 시설물 : 충분정도는 42.4%(16년) → 44.3%(17년) → 55.8%(18년)로 증가(증가분 유의함, $p=0.00$). 안내사인(67.1%), 교통안전시설(53.1%), 휴게시설(51.6%), 위생시설(51.2%) 순. 만족도는 72.8%(16년) → 74.6%(17년) → 75.7%(18년)로 증가. 야간경관(92.2%), 지하철 안내사인(82.6%), 시설안내 표지판(80.8%) 등 순. 시티투어버스 만족도는 70.0%(16년) → 74.8%(17년) → 77.4%(18년) 증가. 간판 만족도는 62.6%(16년) → 60.7%(17년) → 58.5%(18년)로 감소
- 범죄예방 디자인 : 적용 정도는 37.5%(16년) → 45.6%(17년) → 41.8%(18년)로 3.8%p 감소(감소분 유의함, $p=0.00$). 필요성은 97.2%(16년) → 97.8%(17년) → 96.1%(18년)로 감소(감소분 유의함, $p=0.00$)
- 공공미술 사업 : 인지도는 24.0%(16년) → 29.0%(17년) → 31.5%(18년)로 증가. 중요도는 일상생활 공간에 예술적 조형물 설치(38.3%), 기존 작품의 깨끗한 유지보

- 수(25.2%) 등 순. 그 중 서울 대표 예술작품 공모와 설치 중요도는 11.8%(16년)→13.9%(17년) → 14.5%(18년)로 증가. 도심 속 예술 공간 조성 위한 시민 참여 중요도는 28.0%(16년) → 26.1%(17년) → 22.0%(18년)로 감소. 만족도는 마을이나 건물 담장의 벽화(55.2%), 서울 주요 공원이나 광장의 유명한 조형작품(52.6%), 건축물 주변
- 여유 공간에 설치된 조형물이나 작품(48.3%), 서울시에 있는 주요 동상과 상징조형물(48.0%) 등 순. 참여의사로는 작품 설치 후, 평가 및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56.8%),
 - 작품 설치 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48.4%), 실제 제작에 참여(34.5%) 등 순
-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 : 필요성은 89.5%(16년) → 91.5%(17년) → 86.9%(18년)로 감소 (감소분 유의함, p=0.00). 참여의사는 현장에 적용된 디자인을 감상하고 평가하기(71.1%), 디자인 아이디어나 우리 주변의 문제, 생활에 불편한 점을 찾아 제안하기(68.8%) 등 순
- 업사이클링 디자인 : 필요성은 90.1%(16년) → 90.2%(17년) → 87.4%(18년)로 감소 (감소분 유의함, p=0.00)
 - 공공 디자인 : 동의 정도는 51.2%(16년) → 52.1%(17년) → 52.9%(18년)로 증가 (유의하지 않음, p=0.50). 매력(59.2%), 연결성(56.0%), 유용성(52.5%), 보편성(52.4%), 편의성(44.2%) 순임. 만족도는 58.8%(17년) → 53.6%(18년)로 감소. 공공디자인 정책 형성에 중요한 활동 우선순위는 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31.4%), 디자인을 통한 편의 증진(25.9%), 디자인 관련 문화 환경 조성(17.7%) 순. 일상에서의 디자인이 도시환경과 문화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75.4%(16년) → 76.4%(17년) → 76.0%(18년)로 변동

⑥ 서울디자인재단 사업

- 인지도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운영(58.2%), 서울패션위크 개최(44.0%),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25.4%) 등 순. 서울 패션위크 개최는 40.6%(16년) → 41.6%(17년) → 44.0%(18년)로 증가. 서울생활용플라자 운영은 6.9%(16년) → 8.8%(17년) → 12.2%(18년)로 증가
- 우선 추진 정책 : 버려지는 자원에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서울생활용플라자 운영(20.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디자인 연구 및 사업(19.5%) 등 순

⑦ 서울디자인키워드

- 서울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주제를 제시해 서울시민이 원하는 디자인 정책수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됨
- 국내외 대표적인 트렌드 문헌(2018~2019)을 검토하여 트렌드 현상 파악 및 키워드 추출, 기존 키워드 연속성 검토 및 신규 키워드를 도출함. 이후 NIA(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략센터의 소셜데이터분석 도구를 이용해 연관 키워드 파악을 위한 소셜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쳤으며, 내부 논의 및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키워드 간의 위계구조를 파악 및 정리

- 전년도에 선정한 2018 서울디자인키워드의 적합성을 시민디자인의식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77.5%가 적합하다고 응답
- 일반 시민들의 응답과 디자인계 시민들의 응답을 종합하여 최종 디자인키워드 선정 결과, 1위 ‘힐링 공간’, 2위 ‘슬로 라이프’, 3위 ‘스마트시티’, 4위 ‘스테이케이션’, 5위 ‘업사이클링’, 6위 ‘미니멀 디자인’, 7위 ‘공유경제’, 8위 ‘인공지능·사물인터넷’, 9위 ‘고객 맞춤형 서비스’, 10위 ‘1코노미(1인 경제)’ 순으로 나타남

7. 결론 및 제언

① DDP가 미래디자인 플랫폼이 되기 위한 비전 수립 및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정책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20.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디자인 연구(19.5%)’, ‘공공공간 시민편의증진 및 안전안심 서비스 디자인(16.2%)’ 등의 순으로 선택함
- 설립 10주년을 맞는 DDP가 국가를 대표하는 미래디자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디자인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전략적·융합적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동시에 글로벌 미래산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비전도 제시해야 함
- 이 과정은 시민과 함께 사회적 문제들의 발굴하는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트렌드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효과적인 디자인 참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② 디자인중심창업을 현실화하는 시민디자인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시민 응답자의 51.5%는 디자인교육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교육과정을 통하여 동시대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융합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디자인 비즈니스를 경험한 후 달라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구체적·성공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디자인 교육을 통해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③ 생애주기별 교육 확대와 함께 생활권 내 디자인문화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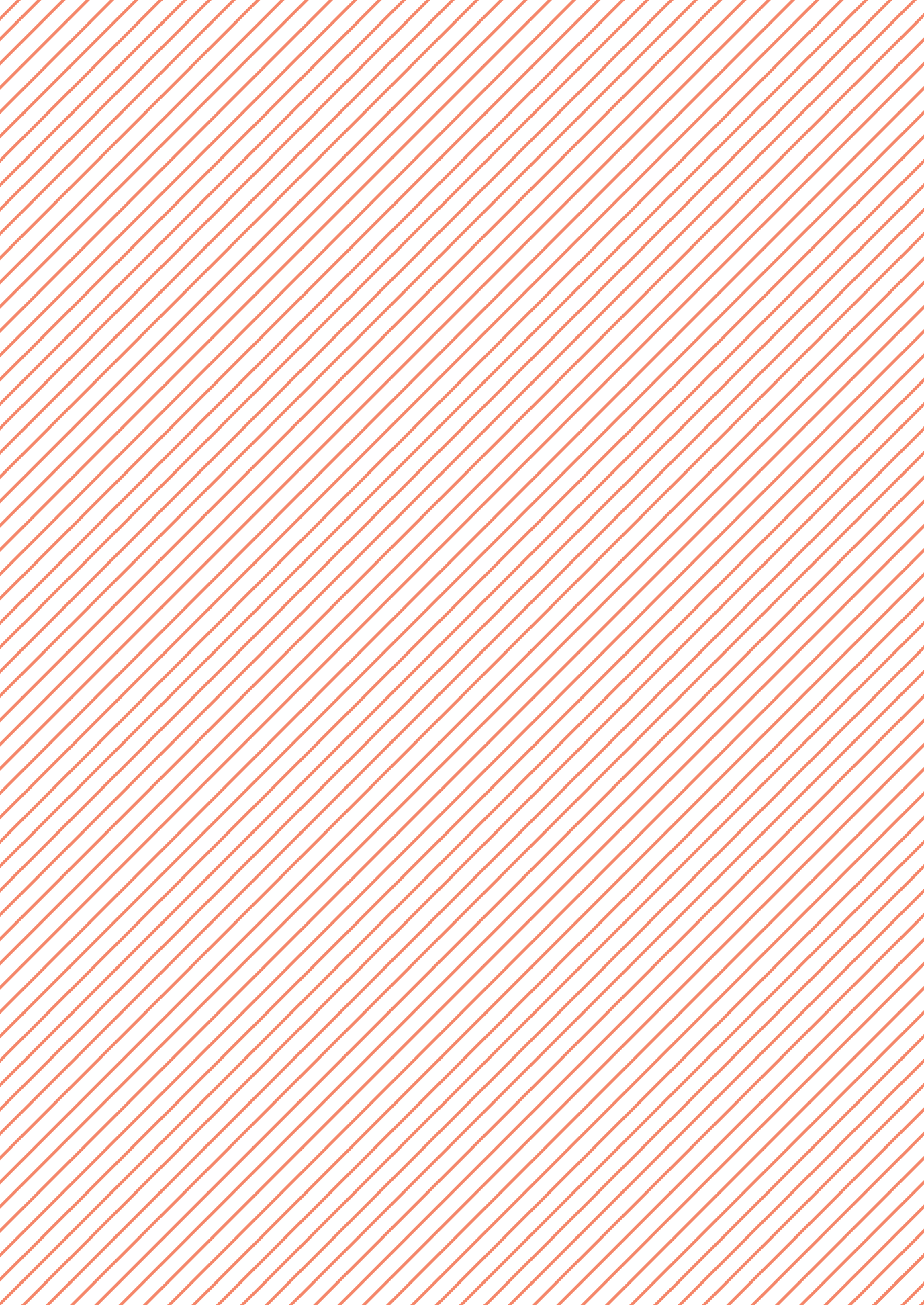
- 생애주기별 시민디자인교육의 확대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지역기반시설이 운영하는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은 622개에 달함
- 시민디자인교육은 일반인의 디자인교육 확대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전문가의 부활과 조기퇴직 디자이너들의 재활 등을 촉진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추동력을 높이고 있음
- 그러나 시민디자인교육 관련 문화시설이 도심권에 70개(54.3%)나 집중 분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디자인교육을 위한 문화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시설의 도심 편중 현상도 시급히 해결함으로써, 시민디자인교육 활동이 생활권 내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

④ 능력 있는 디자인 인재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은 전년에 비해서 251개가 증가(2016년 기준)한 3054개로서, 영세한 전문기업 및 프리랜서의 창업에 치우침(전국 프리랜서 4만8천여명, 전년 대비 7천여명 증가)
- 디자인기업의 창업은 우수한 디자인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성장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치명적이며, 특히 초기 단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적 체계(기초생활보장, 세무, 금융, 업무환경, 국제업무 등)가 매우 긴요함
- 유능한 디자인경영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며, 이에 수반하는 관련 법제화나 지원책도 필요함

⑤ 디자인 사업의 홍보 확대를 통해 디자인사업 인지도가 향상되어야 한다.

-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인지도를 보면 대부분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58.2%)과 서울패션위크(44.0%)에 집중됨
- 생활용플라자 사업, 시민디자인 연구, 공공공간 안전안심 서비스디자인 등이 그 중요성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은 사업에 대한 ‘공감도’는 높은 반면, ‘인지도’나 ‘적용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가 지속되기 때문임
- 한정된 디자인정책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의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가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시민들에게까지 체감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함
- 도출된 사업 및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되, 연령과 성별, 소득격차에 따라 중요 사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디자인정책 사업에 대한 세심한 홍보전략이 필요함



제1장

2018 서울디자인(SD) 서베이 개요

- 1-1. 목적
- 1-2. 조사 범위 및 방법
- 1-3. 이론적 배경
- 1-4. 지표 체계
- 1-5. 기대 효과

제1장

2018 서울디자인 서베이의 개요

1-1. 목적

서울디자인서베이는 디자인산업-문화-교육-정책의 지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서울의 디자인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와 동시에 시민들의 디자인 의식을 조사하여 향후 수립하게 될 사업계획이나 정책 등의 기반 자료로서 활용하며, 매년 '서울디자인키워드'를 도출함으로써 시민과 전문가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디자인 트렌드를 종단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서울디자인서베이와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완결성을 지향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기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창의적인 방안을 개발하려는 목적도 있다.

1-2. 조사 범위 및 방법

1-2-1. 조사 범위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는 1) 디자인산업, 2) 디자인문화, 3) 디자인교육, 4) 디자인정책, 5) 시민디자인의식조사 등 5대 영역에 대한 지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데이터의 종단비교를 위해 시민디자인의식조사의 문항은 예년과 같거나 비슷한 문항들을 배치하였고, 일부 문항들만이 새로운 정책 요구와 발굴의 필요에 맞춰 수정하였다. 세부적인 지표의 재분류와 유형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는데, 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부터 이루어진 서울디자인서베이 지표를 종단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체계 정립

둘째, 디자인계 내외의 현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서울 디자인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강조

셋째,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지표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디자인 트렌드와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는 양질의 서베이 전략 수립

넷째, '일반 시민'과 '디자인계 시민' 등 2개 집단으로 나누어 온라인 디자인의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수립 대상과 요구분석의 다양성 확보

다섯째, 2018년도 서울디자인서베이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인포그래픽(Infographics)화함으로써 독자의 직관적 이해를 고려함

1-2-2. 조사 방법

디자인산업, 디자인문화, 디자인교육, 디자인정책은 2차 자료조사 대상으로서 기존 행정 통계와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파악하여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고 재가공하는 작업을 거쳤다. 각종 행정데이터와 산업통계 내에 산재한 관련 통계들을 서울의 디자인과 연계해 하나의 통계지표로 활용하였다.

[표 1-1]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 조사 내용

자료조사	설문조사
디자인산업	시민디자인의식조사
디자인문화	
디자인교육	
디자인정책	

시민디자인의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사항(인구통계적 속성), 디자인 관련 활동,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년도 시민디자인의식조사와 같거나 유사한 문항과 더불어 일부 사항을 개선하여 완성도와 타당성을 향상시켰다.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시민의 디자인 의식조사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련 그룹의 응답을 별도로 수집하여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디자인 의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일부 문항의 척도를 보완하여 척도 간 대칭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문항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전년도 의식조사에서와 동일하게 명확한 응답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의 척도를 제외한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또한, 5점 척도로 유지되고 있었던 기존 문항을 수정하여 통일성을 갖추었다.

넷째, 일부 문항의 보기에 ‘없음’을 추가하여 응답자가 대답하기 어려운 항목을 ‘없음’으로 대답하도록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성을 증가시켰다.

다섯째, 사업 및 정책 변동으로 인한 문항은 기존 보기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의식조사의 시의 적절성을 높였다.

여섯째, 예년의 시민디자인의식조사 중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은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편으로 옮겨 다른 주요사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온라인 설문 전문기업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과 협력하였다. 업체의 패널을 활용해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 동안 진행하였다. 일반 시민은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총 2500명을 성별·연령·자치구별 비례대로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2018년 의식조사에서는 전년도와 다르

게 일반 시민의 디자인의식조사와 별도로 디자인계 시민을 대상으로 동일 기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디자인계 시민 의식조사는 한국디자인학회(KSDS) 및 한국산업디자인협회(KAID)의 협조 하에 이뤄졌으며 총 165명이 응답하였다. 완료된 설문은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작업을 거쳐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해 분석(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2\%$)하였다.

[표 1-2]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 시민디자인의식조사

분류	내용
조사기간	2018년 11월 30일 ~12월 7일 (8일 간 진행)
조사대행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표본	일반 시민: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 총 2,500명 표본을 성·연령·자치구별 비례 할당 디자인계 시민: 한국디자인학회, 한국산업디자인협회 관련 종사자 165명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2\%$
조사방법	온라인 서베이,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해 분석
조사내용	인구통계적 속성, 디자인 관련 활동,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
조사문항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며, 예 / 아니요 혹은 4점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

조사내용은 인구통계적 속성, 디자인 관련 활동,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 등 3개 대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폐쇄형 질문이며, 문항의 속성에 따라 예/아니요 혹은 4점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을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기본사항은 인구통계적 속성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기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성별, 연령(만 나이로 측정), 거주지(자치구 단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디자인 관련 활동 영역은 시민 디자인교육 관련 문항, 디자인 관련 시설 관련 문항, 디자인 행사 관련 문항,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관련 문항,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은 공공 시설물, 범죄 예방 디자인,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 디자인거버넌스 정책, 업사이클링 디자인, 공공 디자인, 서울디자인재단 사업 인지도 및 중요도, 서울디자인키워드 등을 차례대로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월평균 가구 소득, 직업, 최종 학력, 디자인계 소속 여부 등 인구통계적 속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서울디자인서베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강하고 서울 디자인에 대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업무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단계별 추진 내용

1	계획 수립 (Plan)	<p>조사 계획 수립 / 선행연구, 국가정책 조사(관련 정책 및 추진 사업 포함), 공개행정데이터</p> <p>① 선행연구 조사 - 2014~2017 서울디자인서베이 내 디자인 관련 조사지표 및 분류기준 조사 - 2015~ 2017 서울디자인백서 내 디자인 관련 조사지표 및 분류기준 조사</p> <p>② 서울시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추진 사업 조사 - 2016~2018년 디자인산업, 문화, 교육, 정책의 관련 사업분야 목표 및 세부내용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법규·법령 시행처 등)</p> <p>③ 국가정책 조사 ④ 공개행정데이터 - 서울시 관련 공공데이터 전체 수합(서울 열린데이터광장 등)</p>
2	지표 설계 (Design)	<p>정량·정성지표 설계 구축</p> <p>① 서울시 디자인서베이 관련 문헌 검토 - 서울시 디자인 관련 사업분야 목표 및 세부내용 상세히 검토(서울시의회 업무보고자료,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자료,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법규/법령 시행처 등)</p> <p>② 서울시 디자인서베이 지표(안)와 데이터 간 적합성 검토 - 디자인 지표 설계(디자인산업-디자인문화-디자인교육-디자인정책) -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조사지표 및 분류기준 검토</p> <p>③ 서울시 디자인서베이 지표 확정 - 선별된 지표 집중 조사 - 서울시 디자인서베이 데이터 기준년도 파악 및 통일 - 추가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관 협조요청(서울시청, 통계청, 서울디자인재단 등) -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디자인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정책 전문가, 핵심 수요층 등)</p>
3	조사 (Survey)	<p>설문 설계, 시민디자인의식조사 수행</p> <p>① 표본설계 및 업체선정 - 정성지표 설계 시 대상자별 중점사항 고려(일반 시민, 디자인계 시민) - 관련 리서치업체 비교 후 선정</p> <p>② 설문 내용설계 - 이해하기 쉬운 표현, 샘플 조사 설계 시 단계별 검증 -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디자인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정책 전문가, 핵심 수요층 등) - 국가 및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의 연계성 검토</p> <p>③ 전문용역 및 자체조사 - 공개되지 않거나 데이터 없는 경우 실시 - 직접 설문조사 및 표본조사, 인터뷰 진행, 전화조사 등(온/오프라인 조사 실시)</p>
4	분석 (Analysis)	<p>서베이 4개 대영역 변화 추이 파악, 정책의 방향과 만족도·요구사항 분석</p> <p>① 서울디자인서베이 변화 추이 파악 - 최근 3년간(2016~2018) 디자인산업, 문화, 교육, 정책 변화 추이 파악</p> <p>② 디자인정책의 방향과 만족도, 요구사항 등 분석 - 대상자별 그룹(일반 시민, 디자인계 시민)의 응답 간 차이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p>
5	활용 (Utilize)	<p>서울시 디자인정책 수요 발굴 및 새로운 정책 제안</p> <p>① 디자인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이 받아들이는 디자인정책 수요를 발굴 ② 서울 시민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p>

1-3. 이론적 배경

본 서베이의 분석 모델의 이론적 배경은 ‘시스템 접근법(System Approach)’을 바탕으로 한다. 시스템 접근법은 1950년대 최초로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1956년 경제학자 볼딩(K. Boulding)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모든 시스템이 1) 목표(objective), 2) 환경(environment), 3) 자원(resource), 4) 구성요소(component), 5) 관리(management)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상정한다(Boulding, 1956). 때문에 시스템은 특정 환경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구성요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산출하는지, 또한 전체 모델에서 각 부분 간 상호관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본 서베이는 시스템 접근법을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 현황을 디자인산업, 디자인문화, 디자인교육, 디자인정책, 시민디자인의식조사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 영역의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서울디자인서베이를 통해 생성되는 지표는 서울디자인지표(Seoul Design Indicators)로 볼 수 있다. 서울의 디자인과 연관된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 현황과 이용, 그리고 정책 및 수요에 대한 지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서울디자인지표의 작성은 서울 시민의 일상 속에서 서울의 디자인과 정책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다. 디자인산업, 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와 공공기관의 통계를 기반으로 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였다. 서울의 디자인과 관련된 많은 자료와 데이터들을 위의 네 가지 분류 작업을 한 후 시스템 접근법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분석 모델을 적용하였다. 앞서 제시한 5 가지 요소(목표, 환경, 자원, 구성요소, 관리)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투입/과정>산출>환경 영역으로 구분(투입-산출 모델 혹은 Input-Output Model, Koontz et al., 1980; 오재인 등, 2005)한다. 서울디자인서베이의 지표체계 수립 과정은 [표 1-4]와 같다.

[표 1-4] 서울디자인서베이의 지표체계 수립 과정

	영역	지표
디자인산업	디자인 분야 기업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 디자인 산업 지원 사업	디자인 활용기업 /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활용기업 / 디자인 전문기업 / 프리랜스 디자이너 디자인 창업시설
디자인문화	디자인문화 자원 디자인문화 사업	관련 문화환경 / 관련 문화행사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공공시설(건축) 개선 디자인 / 지역환경 개선 디자인
디자인교육	디자인 전문교육 시민디자인교육	전문교육 자원 / 전문교육 성과 시민교육 자원 / 시민교육 프로그램
디자인정책	디자인 관련 제도 디자인정책 추진	디자인 조례 및 가이드라인 /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디자인정책 조직 / 디자인정책 인력 / 디자인정책 예산

1-4. 지표체계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의 지표체계는 크게 1) 디자인산업, 2) 디자인문화, 3) 디자인교육, 4) 디자인정책, 5) 시민디자인의식조사로 구분된다. 디자인산업-문화-교육-정책은 정량적 지표이며 시민디자인의식조사는 정성적 지표이다. 조사항목과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1-5] 조사항목과 지표

조사 항목		지표		
디자인 산업	디자인 분야 기업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	
			디자인 자체개발 비율	
			재무 및 투자현황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기업 수	
			서비스 제공 분야	
			평균 매출액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이너 수	
			디자이너 분포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이너 수	
			디자이너 분포	
디자인산업 지원 사업	디자인 창업시설	디자이너 수		
		산업 규모		
		주요활동 분야 인력구성		
디자인 문화	디자인문화 자원	디자인 관련 문화환경	디자인 관련 박물관	
			디자인 관련 미술관	
			디자인 관련 도서관	
			디자인 관련 미디어	
	디자인문화 사업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도시가로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교통서비스 이용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공공시설(건축) 개선 디자인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사업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지역환경 개선 디자인

디자인 교육	디자인 전문교육	디자인 전문교육 자원	교육기관 수
			교육인력 수
			학생 수
	디자인 전문교육 성과		졸업생 수
			취업률
	시민디자인교육	시민디자인교육 자원	시민디자인교육 운영 문화기반시설
		시민디자인교육 운영 지역기반시설	
		시민디자인교육 운영 지역 공동체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		문화기반시설 운영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지역기반시설 운영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생애주기 시민맞춤형 디자인교육	
디자인 정책	디자인 관련 제도	디자인 조례 및 가이드라인	디자인 심의·지원제도
			디자인 심의·지원제도 운영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제도 운영
	디자인정책 추진	디자인정책 조직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 인력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 예산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디자인 의식조사	인구통계적 속성	인구통계적 속성	성별, 연령, 거주지, 가구 소득(월), 직업, 최종 학력, 현재 디자인계 소속 여부
	디자인 관련 활동	디자인교육	시민디자인 교육 수강 여부, 수강처, 만족도,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도
		디자인 관련 시설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 만족도, 디자인 행사 방문 및 참여 경험, 만족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경험, 횟수, 목적, 행사 참여 경험, 차별적 특성, 필요 프로그램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 향후 선호하는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
	디자인정책 및 사업	디자인정책 및 사업	공공시설물, 범죄예방디자인, 공공미술과 도시갤러리, 디자인거버넌스, 업사이클링 디자인, 공공디자인 인지도 및 필요성
		서울디자인재단 사업	서울디자인재단 사업 인지도 및 중요도
서울디자인키워드		2018 서울디자인키워드 적합성, 2019 서울디자인키워드 선정	

서울시의 디자인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디자인 분야 기업’,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 ‘디자인산업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다. 디자인 분야 기업 중 ‘디자인 활용기업’은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일반기업을, ‘디자인 전문기업’은 디자인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나타낸다.

먼저 ‘디자인 분야 기업’,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는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디자인 분야 기업은 디자인 활용기업의 경우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 ‘디자인 투자 금액’, ‘디자인 자체 개발 비율’을 조사하였고, 디자인 전문기업은 ‘기업 수’, ‘서비스 제공 분야’, ‘평균 매출액’을 확인하였다. 둘째,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는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모두 기업 내 ‘디자이너 수’, ‘디자이너 분포’ 등을 조사하였고, 프리랜스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수’, ‘산업 규모’를 파악하였다. 셋째, 디자인산업 지원 사업은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디자인 창업시설인 DMC 창업지원센터를 조사하여 업체별 ‘주요활동 분야’, ‘인력구성’을 제시하였다.

디자인문화는 한 사회가 디자인과 관련하여 공유하는 문화이다. 그러므로 서울의 디자인문화는 서울 디자인생태계 속에서의 소통과 공감의 현주소를 읽는 일인 동시에, 질서와 규범, 그리고 가치관을 복합적으로 의미한다. 조사는 서울 디자인생태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디자인문화 자원’과 ‘디자인문화 사업’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첫째, ‘디자인문화 자원’은 디자인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디자인 관련 문화환경,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가 포함된다. 디자인 관련 문화환경에는 디자인 및 공예 관련 콘텐츠를 보유·전시하고 있는 서울 시내 ‘디자인 관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과 ‘디자인 관련 미디어’를 조사하였다.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는 일반 시민이 접할 수 있는 디자인 및 공예 관련 교육, 전시, 행사를 조사하였다. 둘째, ‘디자인문화 사업’은 사회문제해결 및 공공편의증진과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을 나타내는데,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지역환경 개선 디자인’의 네 가지 영역을 파악하였다. 각 디자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권역별 분포를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디자인문화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범죄 예방, 학교폭력예방, 교통 및 도보 안전, 고령화 대비, 지역문제해결의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는 사업을 파악하였다. 공공편의증진 디자인은 공공시설물개선과 보행환경개선, 교통서비스 이용증진의 목적을 가지는 사업을 조사하였고, 공공시설(건축) 개선 디자인은 학교환경개선, 복지행정공간개선, 경관 및 정비개선의 목적을 가지는 디자인 사업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환경개선 디자인은 지역명소화 디자인 사업과 근린환경개선 관련 디자인 사업을 파악하였다.

디자인교육은 서울의 디자인 전문교육과 시민디자인교육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디자인 분야 구분은 ‘국가교육통계센터’의 학과 구분을 적용하였고, 시민디자인교육은 시민디자인교육 자원과 해당 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첫째, ‘디자인 전문교육’은 자원과 성

과로 나뉘었다. 디자인 전문교육 자원은 교육기관, 교육인력, 학생의 수로 파악하였다. 국가 교육통계센터 고등교육기관 구분방법을 활용하여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은 ‘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과 ‘공예’ 분야, 총 6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http://www.hifive.go.kr>)’에서 제시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둘째, ‘시민디자인교육’은 시민디자인교육 자원과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시민디자인교육 자원은 이를 운영하는 ‘문화기반시설, 지역기반시설, 지역 공동체’를 각각 살펴보았다.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은 문화기반시설과 지역기반시설에서 운영하는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디자인문화의 확산과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애주기 시민맞춤형 디자인교육에 대해 조사하였다.

디자인 정책은 디자인 관련 제도와 디자인정책 추진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첫째, 디자인 관련 제도는 크게 ‘디자인 조례 및 가이드라인,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디자인 조례 및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와 도시빛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심의·지원제도와 그 운영 내용(횟수, 안건 수 등)을 지표로 한다. 또한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는 시민 주도의 디자인거버넌스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에 의한 뉴 거버넌스 디자인 제안과 반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디자인정책 추진은 디자인정책의 조직, 인력, 예산을 파악하였는데, 각 영역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으로 나누었다. 인력구성은 전공, 근속기간 등을 파악하여 전문성을 갖춘 디자인 인력을 활용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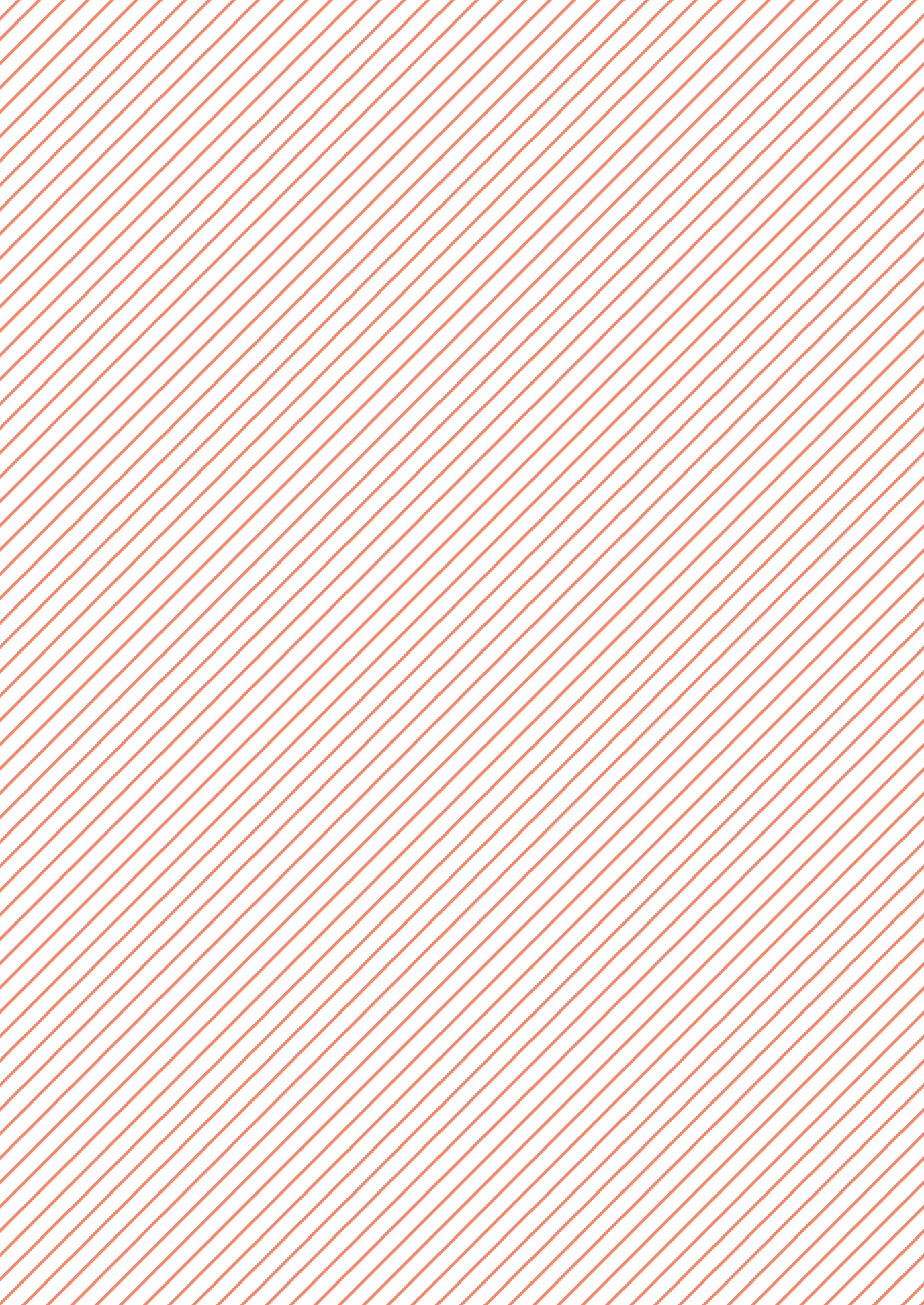
시민디자인의식조사는 디자인산업-문화-교육-정책과는 다르게 시민의 인식과 만족이라는 산출(Output)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8 시민디자인의식 조사는 작년과 다르게 일반 시민과 디자인계 시민 2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서울 거주 20대 이상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디자인계 시민 대상 조사는 학회와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서울의 디자인 관련 활동과 디자인 관련 정책 및 활동을 조사하였다. 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통계분석을 위해 필요한 인구통계적인 속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가구소득(월), 디자인계 종사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둘째, 디자인 관련 활동에서는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 디자인교육,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디자인 행사 방문 목적과 참여 횟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관련한 질문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에서는 공공시설물, 범죄예방 디자인, 공공미술 사업,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 업사이클링 디자인, 공공 디자인,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인지도 및 중요도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단순히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아닌, 서울 디자인정책에 대해 느끼는 시민들의 만족도와 정책 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등을 우선순위로 질문하여 시민의 응답이 실제 디자인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추가

적으로 일반 시민과 디자인계 시민의 응답 특성을 각각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중요한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어 정책 수립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의 미래 디자인을 선도할 키워드에 대해서도 시민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근거중심(evidence-based) 디자인키워드를 조사함으로써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주제어를 제시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DDP 유니버설디자인 등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 질문은 다음 편인 유니버설디자인 서베이의 의식조사 부분에서 다루도록 한다.

1-5. 기대효과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적 현황 조사 및 자료 발간으로 정량적인 연구 데이터를 확보한다. 둘째,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표체계와 시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증거에 기반한 디자인정책 수행에 기여한다. 셋째, 홍보 이슈를 발굴함으로써 서울디자인재단 사업계획 기반 자료로 활용한다. 넷째, ‘한눈에 보는 서울’ 디자인과 홍보 활성화로 서울시 디자인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며, 동시에 디자인정책 거버넌스 형성을 돕는다. 다섯째, 서울디자인연구소 고유의 디자인정책 연구영역을 확보하고, 활발한 디자인정책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한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와의 통합 발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디자인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미래 디자인 이슈를 제시한다.



제2장

디자인산업

- 2-1. 디자인 분야 기업
- 2-2.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
- 2-3. 디자인산업 지원 사업

제2장 디자인 산업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에서는 디자인이 서울의 경제, 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디자인산업 기반을 조사하였다. 디자인산업 현황은 디자인 분야 기업현황과 디자인 분야 일자리현황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기업은 다시 디자인 활용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프리랜스 디자이너로 구분하였다. 또한 서울의 디자인 산업 지원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디자인 창업시설의 분야와 인력구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2-1] 디자인산업 지표체계

구분	영역	지표
디자인 분야 기업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
		디자인 자체개발 비율
		재무 및 투자 현황
	디자인 전문기업	기업 수
		서비스 제공 분야
		평균 매출액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이너 수
		디자이너 분포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이너 수
		디자이너 분포
	프리랜스 디자이너	디자이너 수
		산업 규모
디자인산업 지원 사업	디자인 창업시설	주요활동 분야
		인력구성

2-1. 디자인 분야 기업

2-1-1.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인 분야 기업 현황은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일반기업(디자인 활용기업)과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매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시행하는 산업디자인통계조사의 조사 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 활용되는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의 대분류 8개 분야를 활용하였다.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는 디자인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업종을 구체화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 기술) 등 8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표 2-2]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와 범위

분야	범위
제품디자인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다목적 기계 및 공구디자인, 생활/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 디자인, 가구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非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 장식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자재디자인, 엑스 테리어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 디자인, 기타 인테리어 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잡화디자인, 기타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디자인/경험디자인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여가/레저서비스디자인, 교육서비스디자인, 커뮤니티서비스 디자인,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휴먼인터랙션디자인,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디자인, 디지털간행물디자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기타 인터랙티브미디어 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디자인 인프라 (디자인기반기술)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디자인서비스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조사표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 어떤 기업이 디자인 활용기업인지의 판단여부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먼저 해당 기업이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전문 디자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있으면 디자인 활용기업으로 분류한다.¹ 만일 둘 다 아니라면, 일단 최근 2년 동안 신제품을 출시했거나 기존 상품의 디자인을 변경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어떤 방법(자체, 외주 등)으로 신제품 출시나 디자인 변경을 했는지 조사한 뒤 디자인 활용 구분기준에 맞춰 디자인 활용기업 여부를 판단한다(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가) 디자인 활용기업

201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른 서울의 분야별 디자인 활용기업 현황은 시각 디자인이 30.3%,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17.7%, 공간디자인 17.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시각디자인이 32.2%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간디자인이 14.9%, 제품디자인이 13.9%, 서비스/경험디자인이 13.8% 등의 순으로 확인된다. 권역별로 구분해보면, 시각디자인은 강원/제주 55.5%, 대구/경북 42.7% 등의 순으로 높고, 공간 디자인은 서울 17.7%, 부산/울산/경남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보다 서울의 디자인활용기업의 수는 37.8%에서 41.6%로 3.8%p 상승하였다. 전국의 디자인활용기업은 29.0%에서 33.6%로 4.6%p 상승하여 전국의 디자인 활용기업 증가 폭이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체 산업을 기준으로, 일반기업 중 디자이너를 보유하고거나 전문디자인업체에 디자인 의뢰 경험이 있는 경우는 서울은 21.9%이며, 전국 기준 16.0%로 나타났다.

¹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디자인 특수분류 8개 대분류에 해당하는 일반 업체 중 디자이너를 보유하고거나,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디자인활용기업의 비율은 서울이 41.6%, 전국 기준으로는 33.6%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의 경우는 강원/제주 37.9%, 대구/경북이 29.9%, 광주/전라 27.1%, 대전/충청 30.7%, 인천이 26.6%, 경기도 32.1%, 부산/울산/경남 31.9%로 확인되어 서울의 디자인 활용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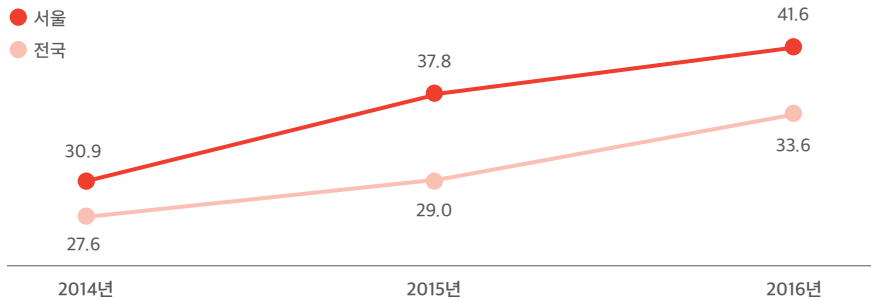
[표 2-3]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 및 주요 활용 디자인 분야 동향

구분	2014		2015		2016	
	디자인 활용 기업 비율	주요 활용 분야	디자인 활용 기업 비율	주요 활용 분야	디자인 활용 기업 비율	주요 활용 분야
서울	30.9%	시각디자인 (39.0%) 디지털/멀티미디어 (29.3%)	37.8%	시각디자인(32.5%) 디지털/멀티미디어 (21.9%)	41.6%	시각디자인 (30.3%) 디지털/멀티미디어 (17.7%)
전국	27.6%	시각디자인(46.4%) 제품디자인(26.1%)	29.0%	시각디자인 (30.3%) 제품디자인(21.3%)	33.6%	시각디자인(32.2%) 공간디자인(14.9%)

* 출처: 2015~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그림 2-1]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

(단위: %)



* 출처: 최근 3년간(2015~201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나) 디자인 자체 개발 비율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의하면, 디자인 개발 비중은 기업 내의 디자인 개발 방법으로 디자인 개발 시 사내 디자이너를 활용하는 ‘자체 디자인 개발’,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외주 디자인 개발’로 나뉜다. 이는 또한 ‘디자인 개발 건수 기준’으로 조사하는 방법과 ‘디자인 개발 비용 기준’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디자인 개발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자체디자인 개발 64.2%, 외주디자인 개발 35.8%로 나타나며, 전국은 자체디자인 개발 55.4%, 외주디자인 개발 44.5%로 나타나, 서울의 디자인 활용기업의 자체디자인 개발 비율이 전국기준보다 높다.

디자인 개발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자체디자인 개발 64.0%, 외주디자인 개발 35.9%로 나타나며, 전국은 자체디자인 개발 55.3%, 외주디자인 개발 44.6%로 서울의 자체디자인 개발 비용이 전국기준보다 높다.

다) 재무 및 투자 현황

서울의 디자인 활용기업 평균 매출액은 약 240억1079만원, 평균 인건비는 14억7532만원, 평균 연구개발비는 15억253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12억1429만원,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은 1억5438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15억7401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평균 인건비 지출은 10억9662만원, 평균 연구개발비는 12억1278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17억4700만원,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은 1억1585만원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기업 당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 지출은 1억2811만원, 평균 디자인업체 용역비가 1064만원, 그 외 디자인 용역비 평균은 90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 지출이 8823만원, 평균 디자인업체 용역비가 1375만원, 그 외 디자인용역비 평균이 847만원으로 나타나 디자인 투자금액은 전국에 비해 서울이 더 높았다.

2-1-2.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조사에서는 디자인 전문기업 수, 디자인 전문기업 서비스 제공 분야, 디자인 전문기업 매출액을 살펴보고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 현황을 분석한다.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업조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산업디자인통계조사’가 있다. 서비스업조사는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산업 구조와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관련분야의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을 제공한다. 디자인 전문기업 관련 자료는 서비스업조사의 대분류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분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소분류에 속한다. 2018 서울디자인 서베이에서는 두 조사 자료를 모두 이용하였다. 산업디자인통계조사의 경우 기업의 수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수는 서비스업조사 자료를 제시하였고, 매출액의 경우는 서비스업조사와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두 조사 자료 모두를 활용하였다.

가) 기업 수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디자인 전문기업의 수를 보면 [표 2-4]와 같다. 2016년의 경우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은 3,054개이며, 전국에는 5,502개의 디자인 전문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에 위치한 디자인 전문기업은 전국의 55.5%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3년간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 수를 전국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디자인 전문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대비 서울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2-4] 디자인 전문기업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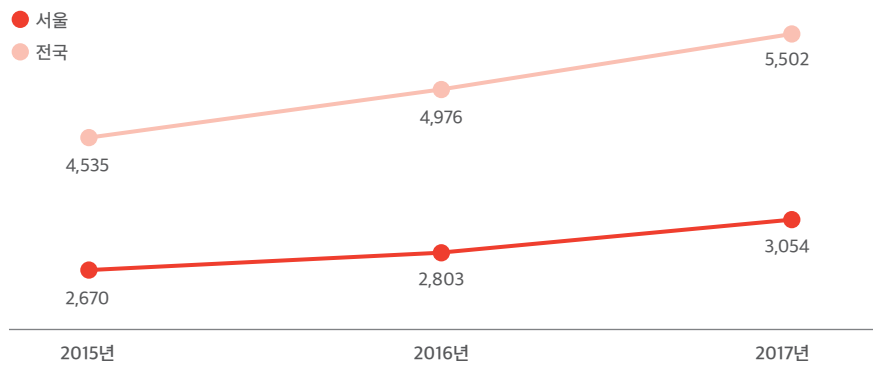
(단위: 개, 괄호 안 %)

구분	2013	2014	2016
서울	2,670 (58.9%)	2,803 (56.3%)	3,054 (55.5%)
전국	4,535	4,976	5,502

* 출처: 통계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2013~2014), 통계청서비스업조사(201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조사는 서비스업조사로 통합됨(통계청, 2018.03.01)
 ** 2015년 기준 조사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안함

[그림 2-2] 디자인 전문기업 수 변화

(단위: 개)



* 출처: 통계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2012~2014), 통계청서비스업조사(201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조사는 서비스업조사로 통합됨(통계청, 2018.3.1 기준)
 ** 2015년 기준 조사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안함

나) 서비스 제공 분야

시각디자인(40.3%), 공간디자인(24.3%) 제품디자인(15.8%), 패션/텍스타일디자인(10.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서비스 분야 중 전국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는 7.8%로 서울 지역이 2.8%p 높았다.

[표 2-5] 디자인 전문기업의 주요 서비스 제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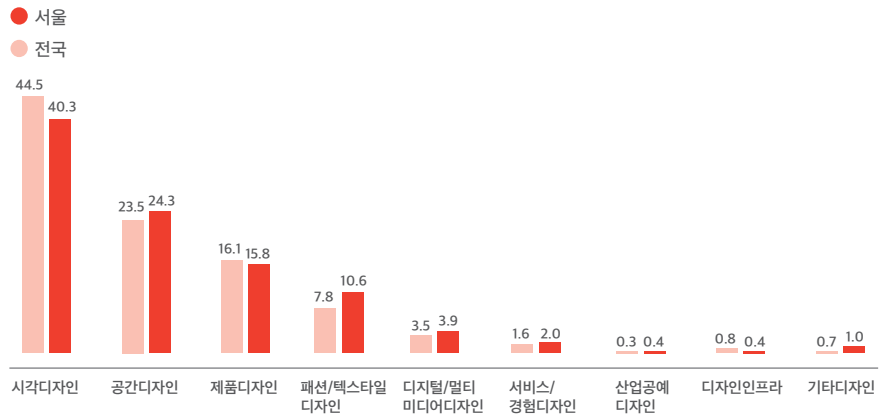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각 디자인	공간 디자인	제품 디자인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서울	40.3	24.3	15.8	10.6	3.9	2.0	0.4	0.4	1.0
전국	44.5	23.5	16.1	7.8	3.5	1.6	0.3	0.8	0.7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그림 2-3] 디자인전문기업의 주요 서비스 제공 분야

(단위: %)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재구성

다) 평균 매출액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에 의하면 2016년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 전체 매출액은 전국의 72.0%에 해당한다. 2011년에는 전국의 79.8%에 해당하였으나 전국대비 비중이 점차 감소 추세로 나타난다. 최근 3년간 디자인 전문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 추이를 보면(그림 2-4), 기업을 나눈 기업평균 매출액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서울의 기업평균 매출액은 약 6억5900만원으로 2014년 5억9600만원 보다 증가하였다.

201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 매출액이 약 7억6800만원으로 확인된다. 전국 평균은 약 6억1800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서울에 위치한 디자인 전문기업의 매출액이 다소 높았다. 2015년 대비 2016년에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매출액은 약 7800만원 감소한 반면, 서울의 경우 1억5400만원 증가하였다.

[표 2-6] 디자인 전문기업 매출액 및 평균 매출액(서비스업조사)

(단위: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6년
전체 매출액	서울	1,754,802,000,000 (75.7%)	1,671,667,000,000 (73.2%)	2,012,759,000,000 (72.0%)
	전국	2,318,238,000,000	2,284,793,000,000	2,793,862,000,000
기업평균 매출액	서울	657,230,000	596,380,000	659,060,000
	전국	511,190,000	459,160,000	507,7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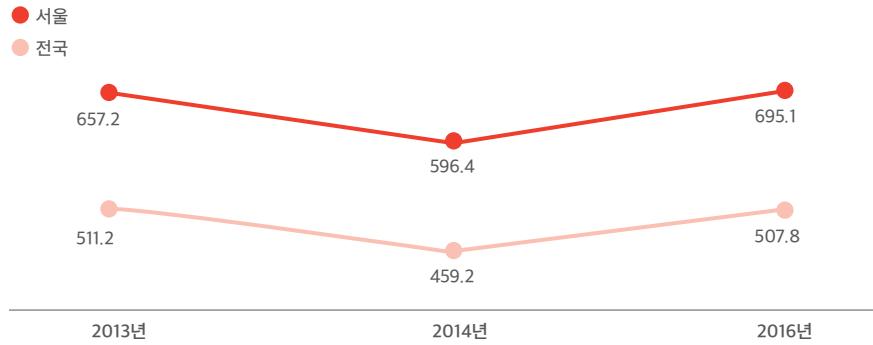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2012~2014), 통계청서비스업조사(201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조사는 서비스업조사로 통합됨, 2018.3.1 기준

** 기업평균매출액: 전체매출액/기업 수

*** 2015년 기준 조사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안함

[그림 2-4]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 매출액(서비스업조사)

(단위: 백만 원)



* 출처: 통계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2012~2014), 통계청서비스업조사(201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조사는 서비스업조사로 통합됨, 2018.3.1 기준
 ** 기업평균매출액: 전체매출액/기업 수
 *** 2015년 기준 조사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안함

[표 2-7]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 매출액(산업디자인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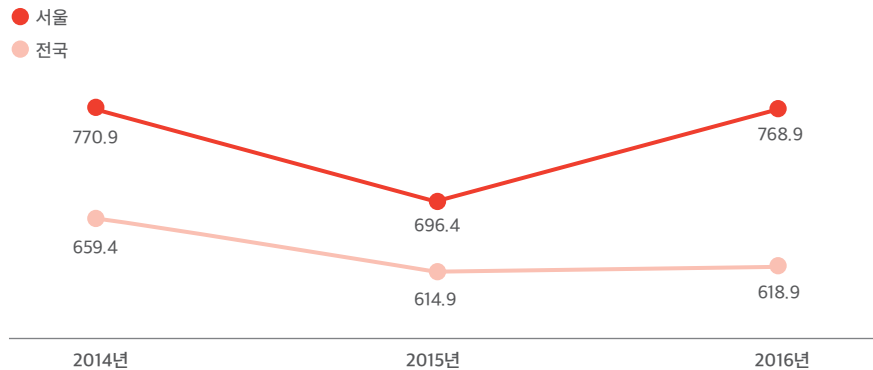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	770,900,000	696,400,000	768,900,000
전국	659,400,000	614,900,000	618,900,000

* 출처: 2015~201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그림 2-5]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 매출액(산업디자인통계조사)

(단위: 백만 원)



* 출처: 최근 3년간(2015~201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결과에서 디자인 전문기업의 용역형태별 매출 비율을 보면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에서는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컨설팅이 56.0%, 디자인개발이 27.5%로 확인되었다.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95.0%,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2.7%, 자체상품 개발 판매가 2.2%로 나타났으며, 국내고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컨설팅이 56.9%, 디자인개발이 26.7%로 나타났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중이 다른 권역에 비하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디자인 전문기업 운영형태별 매출구성 비율

(단위: %)

구분	국내고객			해외고객			자체상품 개발 판매
	디자인컨설팅	디자인개발	기타	디자인컨설팅	디자인개발	기타	
서울	56.0	27.5	9.9	2.4	1.0	0.2	2.7
전국	56.9	26.7	11.2	1.7	0.8	0.1	2.2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2.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

2-2-1. 디자인 활용기업

가) 디자이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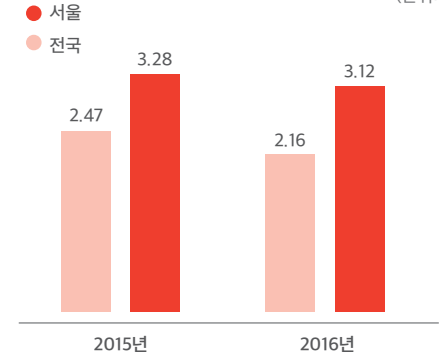
서울에 위치한 디자인 활용기업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3.1명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2.2명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비해 서울의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이너 수가 많았다.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서울의 디자인 활용기업 평균 디자이너 수는 3.3명에서 3.1명으로 줄었으며, 전국평균 디자이너 수도 2.5명에서 2.2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2-9]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인 부서 평균 디자이너 수 (단위: 명)

		2016년
서울		3.12
전국		2.16
전국	대기업	11.26
	중견기업	8.72
	중기업	3.10
	소기업	1.65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그림 2-6]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인 부서 평균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출처: 2016~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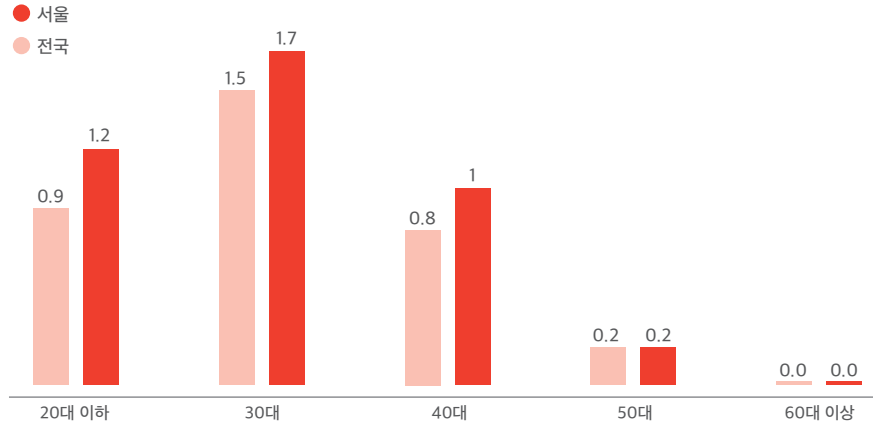
나) 디자이너 분포

서울의 디자인 활용기업의 연령별 평균 디자이너 수는 20대 이하가 1.2명, 30대가 1.7명, 40대가 1.0명, 50대가 0.2명, 60대 이상이 0.0명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20대 이하가 0.9명, 30대가 1.5명, 40대가 0.8명, 50대가 0.2명, 60대 이상이 0.0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20대 이하의 경우 평균디자이너 수는 대구/경북(1.4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1.2명)보다 많았다. 30대는 인천(1.8명)이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1.7명), 대구/경북(1.5명)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는 서울이 가장 많으며 (1.0명), 50대는 대전/충청(0.4명), 서울(0.2명)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에서 서울의 디자인 활용기업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지만, 50대 이상의 경우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7] 디자인 활용기업 연령별 평균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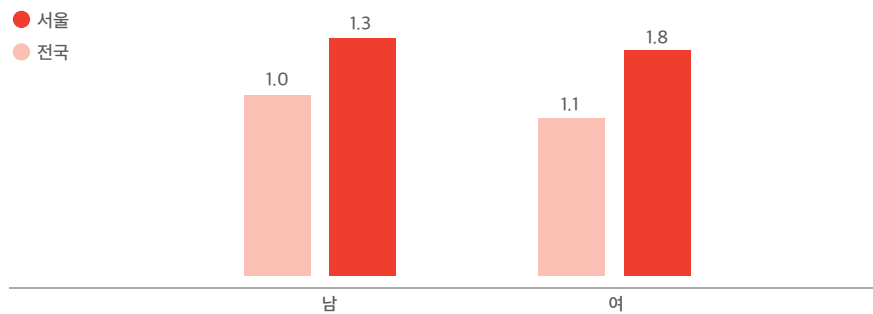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재구성

서울의 디자인 활용기업의 성별 평균 디자이너 수는 남성이 1.3명, 여성이 1.8명으로 확인된다. 전국 평균을 보면 남성이 1.0명, 여성이 1.1명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디자이너 성비에 비해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의 디자이너 수는 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8] 디자인 활용기업 성별 평균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재구성

2-2-2. 디자인 전문기업 일자리

가) 디자이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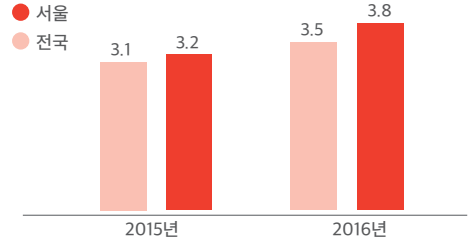
서울에 위치한 디자인 전문기업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3.8명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3.5명으로 나타나 전국평균에 비해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이너 수가 많았다.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 디자이너 수는 3.2명에서 3.8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2-10]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2016년
서울	3.8
전국	3.5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그림 2-9] 디자인 전문기업 평균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출처: 2016~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나) 디자이너 분포

서울에 위치한 디자인 전문기업을 영역별로 구분한 다음, 영역별 평균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시각디자인이 1.8명, 공간디자인이 0.9명, 제품디자인 0.5명 순으로 확인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시각디자인이 1.6명, 공간디자인 0.8명, 제품디자인 0.6명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2-10]을 보면,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각디자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서울(1.8명)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11] 디자인 전문기업의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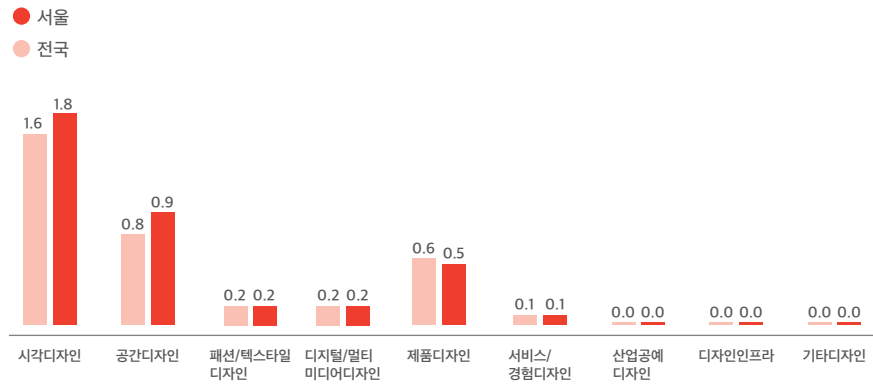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시각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지털/멀티미디어	제품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경험	산업공예	디자인 인프라	기타
서울	1.8	0.9	0.2	0.2	0.5	0.1	0.0	0.0	0.1
전국	1.6	0.8	0.2	0.2	0.6	0.1	0.0	0.0	0.0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그림 2-10] 디자인 전문기업의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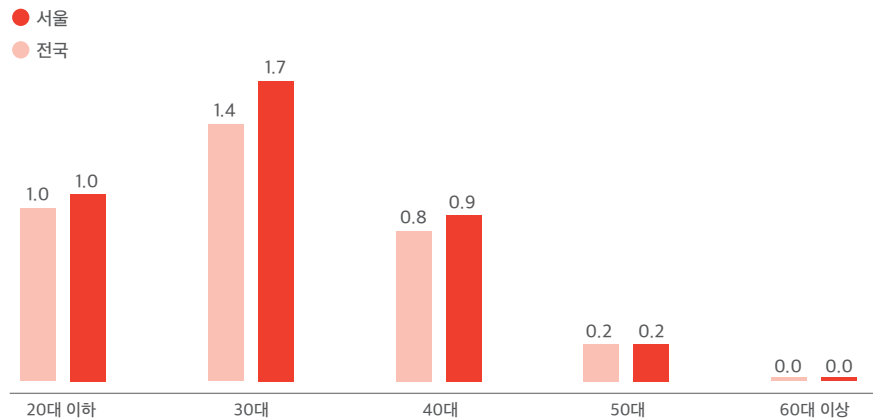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재구성

디자인 전문기업의 연령별 평균 디자이너 수는 서울의 경우 20대가 1.0명, 30대가 1.7명, 40대가 0.9명, 50대가 0.2명, 60대 이상이 0.0명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평균은 20대 이하가 1.0명, 30대가 1.4명, 40대가 0.8명, 50대가 0.2명, 60대 이상이 0.0명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젊은 층에서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의 연령별 평균 디자이너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11] 디자인 전문기업 연령별 평균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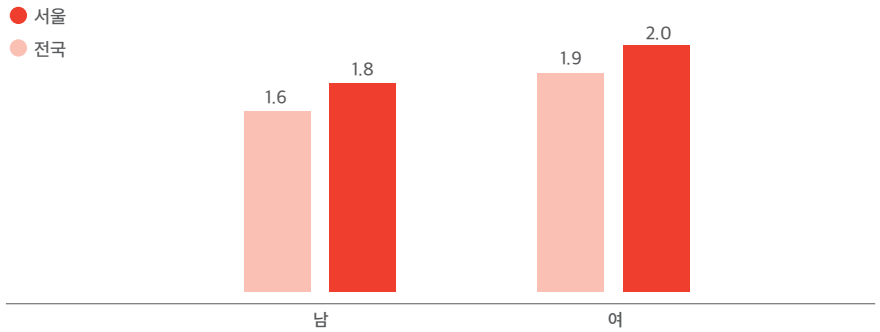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재구성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의 성별 평균 디자이너 수는 남성이 1.8명, 여성이 2.0명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평균 남성이 1.6명, 여성이 1.9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서울의 전문 디자인 기업의 평균 디자이너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12] 디자인 전문기업 성별 평균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재구성

2-2-3. 프리랜스 디자이너

가) 프리랜스 디자이너 수와 산업규모

201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프리랜스 디자이너 수는 47,655명으로 추정된다. 2015년 41,214명으로 조사된 결과에 비해 15.6% 증가하였다.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는 프리랜스 디자이너의 산업 규모 및 인력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프리랜스 디자이너 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프리랜스 디자이너 수에 디자이너 임금을 곱하여 산업 규모를 산출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디자인 관련 프리랜스 산업규모를 보면 1조342억원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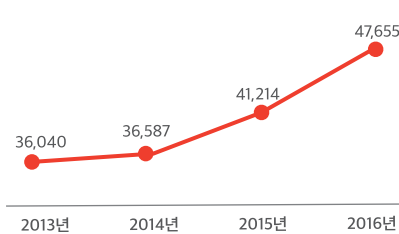
[표 2-12] 프리랜스 디자이너 수 및 산업 규모(추정치)

(단위: 명,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프리랜스 디자이너 수	36,587	41,214	47,655
프리랜스 디자이너 산업 규모	715,600,000,000	820,900,000,000	1,034,2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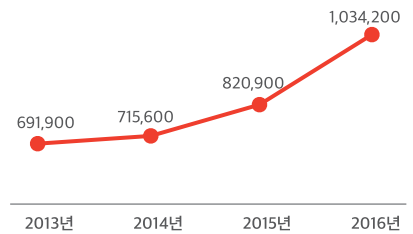
* 출처: 2015~2017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그림 2-13] 연도별 프리랜스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재구성

[그림 2-14] 연도별 프리랜스 산업규모 (단위: 백만원)



* 출처: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재구성

2-3. 디자인산업 지원 사업

2-3-1. 디자인 창업시설

가) 디자인 창업시설 주요활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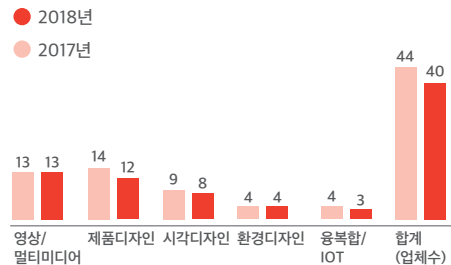
서울의 디자인산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 창업시설인 DMC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업체별 분야 현황과 인력 구성 현황을 조사하였다. 디자인 창업시설에는 영상·멀티미디어 업체가 13개, 제품 디자인 업체가 12개, 시각 디자인업체가 8개, 환경 디자인업체가 4개, 융복합·IoT업체가 3개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디자인 창업시설 업체 수는 44개에서 40개로 약간 감소하였다.

[표 2-13] 디자인 창업시설 분야별 현황

구분	업체수(개)	인원수(명)
영상·멀티미디어	13	29
제품 디자인	12	24
시각 디자인	8	13
환경 디자인	4	10
융복합·IoT	3	6
계	40	82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2018.4.1 기준

[그림 2-15] 디자인 창업시설 업체 수 (단위: 개)



나) 디자인 창업시설 인력구성

디자인 창업시설(DMC 창업지원센터)입주업체의 디자인 인력은 총 82명 중 남성은 42.6%(46명), 여성은 34.4%(36명)로 확인된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6.5%(8명), 30대 34.4%(42명), 40대 이상은 26.2%(32명)로 나타난다.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디자인 창업시설 인원은 94명에서 8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30대가 52명에서 42명으로 약 20.9%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14] 디자인 창업시설 내 평균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계 (인원수)	성별		연령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이상
2017년	94	52	42	8	52	34
2018년	82	46	36	8	42	32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2018.4.1 기준

다) 디자인 창업시설 매출

디자인 창업시설(DMC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의 매출현황은 1천만원 미만 4개(18.1%),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6개(27.2%),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7개(31.8%), 1억원 이상~3억 원 미만 4개(18.1%), 3억 원 이상이 1개(4.5%)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2016년 기준자료이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개업기업이 대부분이며 2016년에는 15개, 2017년에는 10개 기업이 확인되었다.

[표 2-15] 디자인 창업시설 매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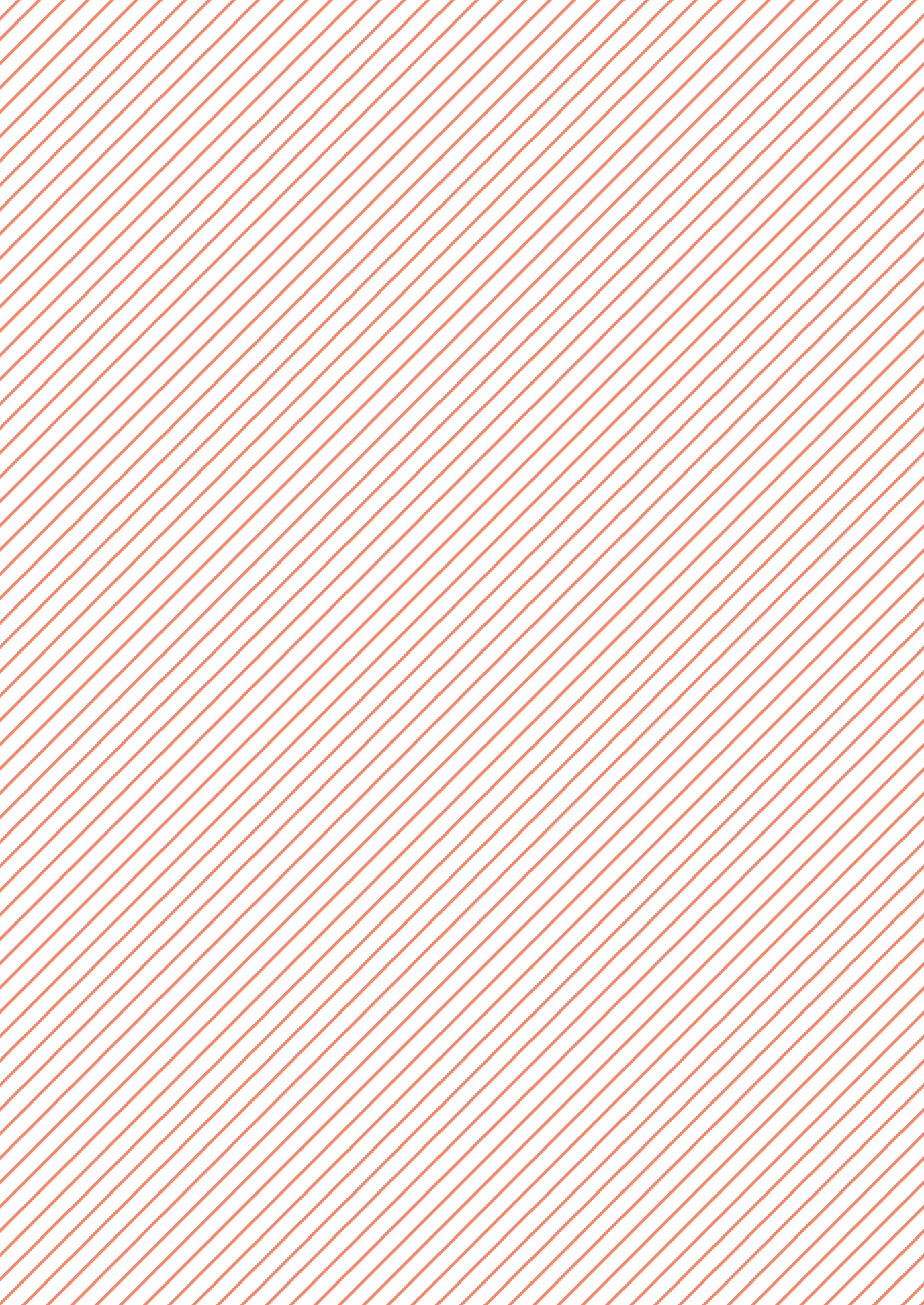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1천만원 미만	1~5천만원 미만	5천~1억원 미만	1억~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업체수	4	6	7	4	1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2018.4.1 기준

** 매출액은 2016년 기준

***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16~2017 기간 중 개업기업이 대부분임(16년 15개, 17년 10개)



제3장

디자인문화

3-1. 디자인문화 자원

3-2. 디자인문화 사업

제3장 디자인문화

서울의 디자인문화는 서울 디자인생태계에 존재하는 디자인문화, 즉 질서와 규범 그리고 가치관을 의미한다. 서울의 디자인문화를 조사한다는 것은 서울 디자인생태계 속에서의 소통과 공감의 현주소를 읽는 일이며, 이것은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이를 위해 서울 디자인생태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하나는, 디자인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현황이고, 그 둘은 사회 문제해결 및 공공편의증진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현황인데, 전자를 ‘디자인문화 자원’으로, 후자를 ‘디자인문화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표 3-1] 디자인문화 지표체계

구분	영역	지표
디자인문화 자원	디자인 관련 문화환경	디자인 관련 박물관 디자인 관련 미술관 디자인 관련 도서관 디자인 관련 미디어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
디자인문화 사업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도시가로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교통서비스 이용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공공시설(건축) 개선 디자인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사업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지역환경 개선 디자인	지역명소화 디자인 사업 근린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3-1. 디자인문화 자원

3-1-1. 디자인 관련 문화환경

일반적인 문화기반시설 중 디자인 및 공예와 관련된 콘텐츠를 수집, 보유·전시하고 있는 시설을 박물관·미술관·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록된 시설 중 서울에 위치한 디자인 관련 시설을 집계한 것이다. 문화기반시설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과 미술관을 포함하며,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 관련 도서관은 디자인에 특화된 전문 자료만 전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각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가) 디자인 관련 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의 박물관 873개 중에 129개가 서울에 위치한다. 그중 디자인 및 공예와 관련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80개로 확인되었다.

[표 3-2] 서울 소재 디자인 관련 박물관(가나다 순)

위치	기관명	소장유물	구분
강남구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고고,민속품 등	사립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고고,민속품등	사립
	탄허기념박물관	서예,도자기외	사립
	피규어뮤지엄더블유	피규어	사립
	한국자수박물관	자수사계분경도 등	사립
강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원박광훈 복식박물관	복식류	대학
	(재)박을복자수박물관	자수작품	사립
관악구	서울대학교박물관	회화,고고,민속품등	대학
	호림박물관	고고,민속품등	사립
광진구	건국대학교박물관	고고,민속품등	대학
	서울상상나라	체험물	공립
	세종대학교 박물관	복식,민속등	대학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	고고,민속품등	대학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	회화,민속품등	대학
	돌리 뮤지엄	만화 원화 및 원고 등	공립
	웅기민속박물관	웅기,민속용품	사립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고고,민속품등	대학
	서울특별시립대학교박물관	근현대도시사·생활사·문화사	대학
마포구	근현대디자인박물관	근현대사료	사립
	한국영화박물관	필름,지류	국립
서대문구	연세대학교박물관	고고,역사민속,미술,자연사등	대학
	우석뮤지엄	전각	사립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고고,민속품등	대학
서초구	관문사 성보박물관	고고,민속품등	사립
	인도박물관	회화,조각,공예등	사립
성동구	청계천박물관	청계천 발굴유물 등	공립
	한양대학교 박물관	고고,민속품등	대학
송파구	롯데월드민속박물관	고고,민속품등	사립
	서울올림픽기념관	메달,주회등	사립
	한국광고박물관	광고자료	사립
성북구	고려대학교 박물관	고고,민속품등	대학
	국민대학교 박물관	고문서,서화,민속품등	대학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천문도,고지도등	대학
	한국가구박물관	목가구,목기	사립
	혜곡최순우기념관	민속품,예술품등	사립
영등포구	한국잡지박물관	고잡지	사립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금속,토도,서화탁본등	국립	
	국립한글박물관	전적류,고문서류,서화류,민속품등	국립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고고,민속품등	대학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고고,민속품등	대학	
	한익환서울아트 박물관	도자기 등	사립	
은평구	세계다문화박물관	세계의민속품,의상,화폐,인형등	사립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민속품 등	공립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유물	국립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품 등	국립	
	종로구립 고회동 미술자료관	서적 및 서화, 민속 생활품 등	공립	
	가회민화박물관	민화,부적,민속품등	사립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고도서,미술관련단행본등	사립	
	꼭두박물관	전통목조각	사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자료 등	국립	
	명인박물관	탈,민속조각등	사립	
	목인박물관	목조각	사립	
	보나장신구박물관	노리개,자수,민속품,목기,민화,중국유물	사립	
	북촌동양문화박물관	유교,불교미술품, 민속품,차등	사립	
	북촌박물관	민속품,도자기등	사립	
	북촌생활사박물관	근현대생활물건	사립	
	불교중앙박물관	불교조각,공예,회화등	사립	
	삼성출판박물관	전적,근현대도서,출판인쇄도구등	사립	
	상명대학교 박물관	금속,토도,민속품등	대학	
	서울역사박물관	고고,민속품등	공립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역사,고고,민속품등	대학	
	세계장신구박물관	고고,민속품등	사립	
	솟대박물관	자물쇠,빗장등민속품등	사립	
	심박물관	고고,민속품등	사립	
	신문박물관	신문,관련지류,기념품등	사립	
	영인문학관	원고,서화등	사립	
	유금와당박물관	고고유물	사립	
	짚풀생활사박물관	민속품 등	사립	
	한국미술박물관	고고,민속품등	사립	
	한국색동박물관	색동한복,민속품	사립	
	한국현대의상박물관	국내외 현대의상 및 액세서리	사립	
	화정박물관	서화/공예등	사립	
	중구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공연예술자료	국립
		농협 농업박물관	민속품 등	사립
		동국대학교 박물관	고고,민속품등	대학
		서울 그레뱅뮤지엄	현대 미술품	사립
종이나라박물관		고고,민속품등	사립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		민속품 등	공립	
초전섬유·퀼트박물관		전통자수보자기,한복,장신구등	사립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나) 디자인 관련 미술관

최근에는 전시되는 시각예술품이 회화 및 조형 예술 뿐 아니라 가까운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공예품을 비롯하여 건축모형, 현대 디자인 작품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과학 및 기술 등과 예술적·기능적으로 장르를 뛰어넘어 복합적인 콘텐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혼성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에서는 서울소재의 등록 미술관을 모두 관련 시설로 포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 미술관 251개 중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미술관은 총 43개이다.

[표 3-3] 서울 소재 등록 미술관(가나다순)

위치	기관명	구분
강남구	K현대미술관	사립
	밀알미술관	사립
	코리아나미술관	사립
	포스코미술관	사립
강서구	경재정선미술관	공립
관악구	서울대학교미술관MoA	대학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대학
	인덕대학교 이정미술관	대학
서초구	(재)한원미술관	사립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사립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사립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사립
	유리지공예관	사립
성동구	헬로우유지움	사립
	한양여자대학교미술관	대학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공립
송파구	소마미술관	사립
	한미사진미술관	사립
용산구	김세중미술관	사립
	삼성미술관Leeum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대학
영등포구	63스카이아트미술관	사립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국립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공립
	OCI 미술관	사립
	JCC 미술관	사립
	금호미술관	사립
	대림미술관	사립
	사비나미술관	사립
	상원미술관	사립
	성곡미술관	사립
	세종문화회관미술관(세종미술관)	사립
	세화미술관	사립
	아라리오뮤지엄 인스페이스	사립
	아르코미술관	사립
	아트선재센터	사립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사립
	일민미술관	사립
	자하미술관	사립
	토탈미술관	사립
환기미술관	사립	
중구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관)	국립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공립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다) 디자인 관련 도서관

2018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은 총 147개이다. 그 중 디자인 도서관에 대한 분류는 없으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디자인에 특화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전문디자인도서관은 총 6곳으로 확인되었다. 개관한지 약 30년이 된 한국방송공사 광고도서관을 제외하면 모두 2000년 이후에 개관하였다. 또한 DDP 라이브러리가 2018년 8월 21일 임시 개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표 3-4] 서울 소재 디자인 관련 도서관

위치	기관명	자료	개관년도
종로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CDF아카이브센터	전시도록, 전문서적, 정부간행물과 관련기관 보고서 등 공예·디자인 관련 전문자료	2009
	현대카드 디자인라이브러리	디자인 관련 서적 16,000여 권	2013
중구	DDP 라이브러리	디자인 전반에 대한 도서 4,000여 권	2018
	서울디자인재단 패션라이브러리	국내외 패션관련 전문자료 1,600여 권	2014
성북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도서관(성곡도서관)	디자인 관련단행본, 연속간행물및해외자료	2001
송파구	한국방송공사 광고도서관	광고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국내외의 다양한 최신 광고, 마케팅 전문자료	1987

* 출처: 각 도서관 홈페이지, 2018.11.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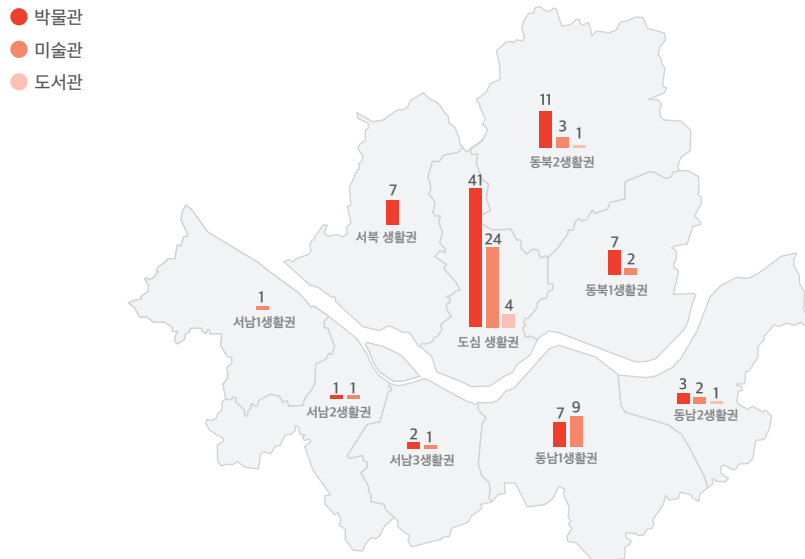
라) 디자인 관련 미디어

디자인 관련 미디어는 도서, 잡지, 방송국, 유튜브(Youtube) 동영상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도서는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예술/대중문화 카테고리에서 ‘디자인’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총 3,719권의 도서가 발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잡지의 경우,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예술/대중문화 카테고리 내 미술 관련 잡지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월간 디자인, 디자인 매거진 CA, 서울 아트 가이드 등 88개의 잡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서, 잡지 모두 서울에 귀속시킬 수 있는 미디어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한편 디자인 전문 방송국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 ‘디자인’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으나 총 개수를 알 수는 없다.

서울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중 디자인 관련시설은 박물관 80개, 미술관 43개, 도서관 6개로 총 129개로 확인된다. 이 중 도서관의 경우 디자인 전문 도서관에 해당한다. 디자인 관련문화시설은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에 69개로 53.5%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시설이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다. 동남1생활권(강남구, 서초구)이 16개(12.4%), 동북2생활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이 15개(11.6%)로 도심권에 이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서남1생활권(강서구, 양천구)과 서남2생활권(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남 3생활권(동작구, 관악구)에는 총 6개(4.8%)의 디자인기반시설이 분포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1] 디자인 관련 문화시설 권역별 분포

(단위: 개)



3-1-2.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로 디자인 전문가 및 디자이너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접할 수 있는 디자인 및 공예를 소재로 하는 교육, 전시, 행사를 조사하였다.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된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는 170건으로 확인되어 2016년 38건, 2015년 2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2017년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는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 방문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디자인문화 확산 및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디자인문화 확산을 위한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서울의 디자인 관련 교육 관련 문화행사는 12건, 전시 형태는 136건, 행사 형태는 22건으로 나타난다.

[표 3-5]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된 디자인/공예 관련 문화행사

구분	행사명	개최기간	장소
교육	[DDP 포럼 23] 디자인 & 예술교육, 새로운 흐름과 확산	2018.1.25 ~ 2018.2.1	DDP 살림터 3층
	예술교육 체험 'Arts Plus, Arts Play'	2018.2.2 ~ 2018.2.4	DDP 살림터 3층
	[DDP CREA 캠퍼스] 디자이너 브랜딩 스쿨	2018.3.21 ~ 2018.7.18	DDP 살림터 2층
	DDP 지식공유세미나 [하우스버전-서울] 오픈 세미나 2018	2018.3.24 ~ 2018.3.24	DDP 살림터 3층
	[안그래픽스 강의] 젊은 테오로스들에게 던지는 건축적 질문, 김광현 교수와의 대화	2018.3.29 ~ 2018.3.30	DDP 살림터 2층
	청소년 멘토링 세미나	2018.5.4 ~ 2018.5.25	DDP 살림터3층
	청소년 멘토링 세미나 : 공공기관x디자인	2018.6.8 ~ 2018.6.22	DDP 살림터 3층
	어린이 글로벌 창의 워크숍, 전시 및 강연	2018.6.19 ~ 2018.7.8	DDP 배움터 4층 외
	DDP CREA 캠퍼스 4인의 디자이너 유럽을 걷다	2018.7.10 ~ 2018.7.24	DDP 살림터 2층
	디자인 사고 확산 교육	2018.7.25 ~ 2018.7.27	DDP 살림터 3층
	청소년 멘토링 세미나 : 마음을 전하는 디자인	2018.7.6 ~ 2018.7.13	DDP 살림터 3층
	DDP 어린이디자인워크숍	2018.8.30 ~ 2018.9.20	DDP 살림터 1층
	전시	CREA X rmp (디자인 스튜디오) 「Behind the product」	2018.1.6 ~ 2018.1.31
구혜선 개인전 <미스터리 핑크>		2018.1.11 ~ 2018.2.5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DDP 오픈큐레이팅 vol.8 [박재풍경]		2018.1.19 ~ 2018.2.10	DDP 갤러리문
제2회 서울국제예술박람회		2018.1.23 ~ 2018.1.26	코엑스 B2홀
2018 서울삽디자인테크전시회		2018.1.25 ~ 2018.1.27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서울 뷰티인그레이스 글로벌 아트페어		2018.2.7 ~ 2018.2.13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동아시아 필묵의 힘 - 2018년 평창올림픽&패럴림픽 기념 한중 일 서예 거장전		2018.2.9 ~ 2018.4.1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 시실1 외
이동협展 "이씨산수11.서울2"		2018.2.17 ~ 2018.2.27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지오그래피스, 한국에서 만나는 멕시코 현대 미술		2018.2.26 ~ 2018.3.13	DDP 갤러리문
제36회 2018 화랑미술제		2018.3.1 ~ 2018.3.4	코엑스 D홀
2018 똑딱똑딱 수제手製 박람회		2018.3.2 ~ 2018.3.4	코엑스 B홀
2018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展		2018.3.2 ~ 2018.3.9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2018 제10회 예술의전당 작가스튜디오展		2018.3.11 ~ 2018.3.21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제2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 그날의 기억		2018.3.23 ~ 2018.4.1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 실 외
나 성숙 옷칠전 북한한옥마을에서		2018.3.23 ~ 2018.4.1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2017 예술의전당 미술영재 아카데미 작품평가전		2018.3.24 ~ 2018.3.31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한국서예사특별전 34 <명체 윤증>	2018.3.29 ~ 2018.5.13	서울서예박물관 상설 전시실
반클리프 아펠이 들려주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2018.3.31 ~ 2018.4.29	DDP 알림터
오르빛도요 서영기 달항아리전	2018.4.3 ~ 2018.4.12	한가람미술관 제2전시실
백순실개인전 <삶과 교향곡>	2018.4.3 ~ 2018.4.12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연파 신현철 "달의 미학"	2018.4.3 ~ 2018.4.12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제6회 서울현대미술페스타	2018.4.4 ~ 2018.4.11	한가람미술관 제5전시실, 제6전시실
봄 그리고 봄 see and spring	2018.4.5 ~ 2018.4.11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제4전시실
제19회세종한글서예대전	2018.4.6 ~ 2018.4.12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시실1 외
아드만 애니메이션 : 윌레스&그로밋과 친구들	2018.4.13 ~ 2018.7.12	DDP 배움터
한글서체정립을 위한 특별 한글서체별 작품전	2018.4.14 ~ 2018.4.19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시실1 외
한국구상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다	2018.4.14 ~ 2018.4.21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외
캘리는 나의 삶	2018.4.14 ~ 2018.4.21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최혜자 전	2018.4.14 ~ 2018.4.21	한가람미술관 제2전시실
오용길 작품전	2018.4.14 ~ 2018.4.21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에이엔씨아트페스티벌2018	2018.4.24 ~ 2018.5.1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외
제 39회 도림전 : 세라믹 컨버전스 Ceramic Convergence	2018.4.24 ~ 2018.5.2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황부용 힐링 그래픽즈 '춤추는 사람들'	2018.4.24 ~ 2018.5.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제26회 대한민국서예전람회	2018.4.27 ~ 2018.5.3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시실1 외
원로작가 정경자 팔순 회고전	2018.5.4 ~ 2018.5.13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제2회 박수근미술상 수상작가전 [김 진 열 Kim, Jin-yul]	2018.5.4 ~ 2018.5.27	DDP 갤러리문
2018 서울모던아트쇼	2018.5.4 ~ 2018.5.8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외
이시원 개인전, 아름다운 거래	2018.5.6 ~ 2018.5.1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제2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현물심사	2018.5.10 ~ 2018.5.10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제24회 대한민국서도대전	2018.5.10 ~ 2018.5.16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시실1 외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8	2018.5.12 ~ 2018.5.20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외
공감각 일상	2018.5.14 ~ 2018.6.8	DDP 살림터 2층
제9회 디자인아트페어 2018	2018.5.17 ~ 2018.5.26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제9회 디자인아트페어 2018	2018.5.17 ~ 2018.5.26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1전시실 외
ACF(Art Character Fanfest) 2018'	2018.5.18 ~ 2018.5.19	DDP 살림터 2층
2018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2018.5.18 ~ 2018.5.20	DDP 미래로
광개토대왕비체 부모은중경 하석전	2018.5.18 ~ 2018.5.28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시실1 외
개관30주년 기념 <어린이 붓글씨 한마당展>	2018.5.19 ~ 2018.5.27	서울서예박물관 상설 전시실
2018 국토해양환경국제미술대전	2018.5.23 ~ 2018.5.27	한가람미술관 제5전시실, 제6전시실
SNU 빌라다르 페스티벌 2018	2018.5.23 ~ 2018.5.31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외
2018서울한옥박람회	2018.5.31 ~ 2018.6.3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외
제5회 대한민국국제포토페스티벌	2018.5.31 ~ 2018.6.6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1전시실 외

제2회 여성사진페스티벌 2018 통통하는 여자	2018.6.1 ~ 2018.6.8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제43회 상형전 정기전(조형의 꽃으로 말하다)	2018.6.3 ~ 2018.6.10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제4전시실
나는 신법돈이다	2018.6.3 ~ 2018.6.10	한가람미술관 제2전시실
사갈: 러브 앤 라이프 이스라엘 박물관 컬렉션展	2018.6.5 ~ 2018.9.26	한가람미술관 제5전시실, 제6전시실
한메이린 세계순회전 - 서울 메이린의 예술세계 : 격정, 응화, 올림픽.	2018.6.6 ~ 2018.7.8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시실1 외
2018 대한민국미술문화축전	2018.6.8 ~ 2018.6.11	알림터 알림1관, 2관, 국제회의장
통영나전칠기전	2018.6.8 ~ 2018.6.17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제10회 이탈리아영화제 프롤로그	2018.6.9 ~ 2018.6.17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우리목가구의멋과아름다움	2018.6.12 ~ 2018.6.19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아트포럼인터내셔널 51회 정기전	2018.6.13 ~ 2018.6.20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실
대한민국 민화아트페어	2018.6.14 ~ 2018.6.17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영월에 가면 박물관이 보인다	2018.6.14 ~ 2018.6.20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박소형 개인전	2018.6.20 ~ 2018.6.27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대한민국 新예술인展	2018.6.20 ~ 2018.6.28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2전시실
서경자 개인전 <영상 - 더 레드 인 블루>	2018.6.22 ~ 2018.7.2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제15회서초미술협회전	2018.6.23 ~ 2018.7.1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제4전시실
조형아트서울	2018.6.27 ~ 2018.7.1	코엑스 D홀
장승업 취화선 특별전 - 조선 최후의 거장 展	2018.6.28 ~ 2018.11.30	DDP 배움터 2층 디자인 박물관
'The Loop' - 텍스타일 디자인 展	2018.6.29 ~ 2018.7.8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니키 드 생팔展.마즈다 컬렉션	2018.6.30 ~ 2018.9.25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신미식 작가 x 윤쌍용 작가 기증 작품전	2018.7.1 ~ 2018.7.12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2전시실
이미 아직	2018.7.10 ~ 2018.7.18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신카이마코토展 <별의 목소리>부터 <너의 이름은.>까지	2018.7.13 ~ 2018.9.26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제4전시실
김세중민화컬렉션 - 판타지아 조선	2018.7.18 ~ 2018.8.26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시실1 외
오! 에르베 툴레 색색깔깔展	2018.7.21 ~ 2018.10.21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1전시실 외
2018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	2018.7.26 ~ 2018.07.29	코엑스 C홀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2018	2018.7.26 ~ 2018.7.29	코엑스 D홀
루나파크전 : 더 디자인 아일랜드	2018.7.27 ~ 2018.11.6	DDP 배움터
DESIGN STORY chapter 6	2018.7.30 ~ 2018.8.30	DDP 살림터 2층
DDP 오픈큐레이팅 vol.9 NEO+	2018.7.6 ~ 2018.8.5	DDP 갤러리문
DDP 오픈큐레이팅 vol. 10 HIPHOP:on my way	2018.8.11 ~ 2018.9.8	DDP 갤러리문
2018 F/W KONAIL EXPO	2018.8.17 ~ 2018.8.19	코엑스 B홀
2018 서예초대작가전	2018.8.30 ~ 2018.9.5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시실1 외

원곡서예상 40주년 기념전	2018.8.7 ~ 2018.8.19	서울서예박물관 상설 전시실
Occupy The City: Typozimmer Nr.7	2018.9.14 ~ 2018.10.6	DDP 갤러리문
한국, 프랑스 구상회화전 - 이영희, 길	2018.9.17 ~ 2018.10.31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Design by 동대문 전시	2018.9.17 ~ 2018.9.26	DDP 살림터 1층
서울디자인브랜드전: 소통의 도구	2018.9.17 ~ 2018.9.26	DDP 배움터 디자인둘레길 지하2층~1층
휴먼시티 디자인 전	2018.9.17 ~ 2018.9.26	DDP 살림터 3층
SACCalliFe 2018 - 한국 서예의 미래 <청춘의 농담濃淡>	2018.9.21 ~ 2018.10.14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 시설1 외
DESIGN STORY chapter 7	2018.9.4 ~ 2018.9.27	DDP 살림터 2층
제15회한중일대한민국동양서예대전	2018.9.7 ~ 2018.9.16	서울서예박물관 실험 전시실
성파 옷칠섬유 예술전	2018.9.8 ~ 2018.9.15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 시설1 외
2018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2018.10.11 ~ 2018.10.30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외
텐소올 2018 전시	2018.10.12 ~ 2018.10.21	DDP 알리터 1층
2019 S/S 헤라서울패션위크	2018.10.16 ~ 2018.10.20	DDP 알리터 1관 외
명예 디자이너 박춘우 전시 '無 무로부터'	2018.10.16 ~ 2018.11.14	DDP 배움터 디자인둘레길 지하2층~1층
2018 하반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현물심사	2018.10.18 ~ 2018.10.18	SETEC 제3전시실
성각스님의 선사화-선묵의 세계, 그 여백과 여유	2018.10.19 ~ 2018.10.23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 시설1 외
제19회 대한민국문인화대전	2018.10.24 ~ 2018.10.29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 시설1 외
디지털 플래너리	2018.10.24 ~ 2018.10.31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만화와 도자기의 만남전	2018.10.26 ~ 2018.11.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2전시실
<찰나·동행> 춤 아카이브 사진전	2018.10.26 ~ 2018.11.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1전시실
2018 아트 마이닝 서울	2018.10.3 ~ 2018.10.10	DDP 살림터 2층
2018대한민국서예전람회 초대작가전	2018.10.31 ~ 2018.11.6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 시설1 외
2018 한국국제아트페어	2018.10.4 ~ 2018.10.7	코엑스 A홀 외
2018 KPAM 대한민국미술제	2018.10.4 ~ 2018.10.8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외
신현호 개인전	2018.10.4 ~ 2018.10.8	한가람미술관 제2전시실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 작가스튜디오 역대 작가전	2018.10.4 ~ 2018.10.8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K-핸드메이드 페어 2018	2018.11.1 ~ 2018.11.4	코엑스 D홀 외
2018 대한민국 회화제 (30주년 기념전)	2018.11.12 ~ 2018.11.19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제4전시실
제52회 한국미술협회전	2018.11.13 ~ 2018.11.19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외
이석보 개인전	2018.11.15 ~ 2018.11.23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바람의 연주	2018.11.17 ~ 2018.11.2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2018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	2018.11.17 ~ 2018.11.2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1전시실
	이정만, 허은만, 장세실리아 3인전 - 뷰티 인 그레이스	2018.11.17 ~ 2018.11.25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2전시실
	DDP 오픈큐레이팅 vol. 11 수남장마당: 장마당 사람들	2018.11.2 ~ 2018.12.2	DDP 갤러리문
	2018 공예트렌드페어	2018.11.22 ~ 2018.11.25	코엑스 A홀
	수곡(守谷) 손대현 옷칠전	2018.11.22 ~ 2018.11.29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선과색 아트페어 Do it Reverse	2018.11.23 ~ 2018.11.29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제4전시실
	키스해링: 모두를 위한 예술을 꿈꾸다	2018.11.24 ~ 2019.3.17	DDP 배움터
	조선목가구 재현 재창조	2018.11.25 ~ 2018.12.4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현실의 반영과 변형	2018.11.27 ~ 2018.12.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1전시실
	Life in the Textile	2018.11.27 ~ 2018.12.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이명순, 박희숙, 윤경 3인전 - 뷰티인그레이스	2018.11.27 ~ 2018.12.5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2전시실
	소목장 박명배 목가구전	2018.11.3 ~ 2018.11.12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슬로우퍼니처 '아지트' - 당신의 방은 어디인가요?	2018.11.3 ~ 2018.11.1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2018 목우미술제	2018.11.3 ~ 2018.11.9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외
	2018 G-세라믹페어	2018.11.8 ~ 2018.11.11	aT Center 제1전시장
	2018 세계한민족미술대축제	2018.11.8 ~ 2018.11.1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행사	사이마켓, 디어마켓 (SAI MARKET, DEAR MARKET)	2018.1.13 ~ 2018.1.13	DDP 알림터
	제 1회 어린이 놀이메이커스 포럼	2018.2.27 ~ 2018.2.27	DDP 살림터 2층
	라이프플러스 X 나를 디자인하다	2018.3.19 ~ 2018.3.24	DDP 살림터 2층 크레아 (CREA)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	2018.3.19 ~ 2018.3.24	DDP 알림터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 패션 필름 페스티벌 with 데이즈드 코리아	2018.3.20 ~ 2018.3.22	DDP 살림터 3층
	2018 F/W 트레이드쇼 '제너레이션 넥스트 서울'	2018.3.20 ~ 2018.3.24	DDP 어울림광장, 살림터 지하 3층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2018	2018.5.24 ~ 2018.5.27	DDP 알림터 알림1관 외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2018.6.1 ~ 2018.6.3	DDP 어울림광장
	2018 아시아프&히든아티스트 페스티벌	2018.7.24 ~ 2018.8.19	DDP 배움터 디자인돌레길
	2018 SEOUL DESIGN CLOUD '지속가능한 휴먼시티 디자인 컨퍼런스'	2018.9.17 ~ 2018.9.18	DDP 살림터 3층
	Design by 동대문 마켓	2018.9.17 ~ 2018.9.21	DDP 어울림광장 외
	2018 디자인 공예 마켓	2018.9.17 ~ 2018.9.22	DDP 미래로
	2018 SEOUL DESIGN CLOUD '디자인 공유'	2018.9.17 ~ 2018.9.26	DDP, 서울생활용품플라자
	지역 디자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2018 디자인 보호포럼	2018.9.19 ~ 2018.9.19	DDP 살림터 3층
	Design by 동대문 패널토론	2018.9.20 ~ 2018.9.20	DDP 살림터 3층
	마켓엄마꿈틀	2018.9.7 ~ 2018.9.8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2019 S/S 헤라서울패션위크 해외 패션 멘토링 세미나	2018.10.18 ~ 2018.10.18	DDP 살림터 2층
	DDP 2018 갯잇뷰티콘	2018.10.5 ~ 2018.10.7	DDP 알림터, 어울림광장
	노루인터내셔널 컬러 트렌드쇼 썬네일 이미지	2018.11.15 ~ 2018.11.15	DDP 알림터 알림1관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1주년 페스티벌	2018.11.15 ~ 2018.12.6	DDP 디자인장터
	SWDW(Seoul Work Design Week) 2018	2018.11.7 ~ 2018.11.10	DDP 살림터 2층 CREA
	2018 조선일보라이프쇼	2018.11.8 ~ 2018.11.11	DDP 알림터 알림1관 외

* 출처: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http://www.sacticket.co.kr>),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홈페이지(<http://www.ddp.or.kr>), 코엑스 홈페이지(<http://www.coex.co.kr>), SETEC 홈페이지(<http://www.setec.or.kr>), aT center 홈페이지(<http://www.at.or.kr>), 2018.11.30. 기준

3-2. 디자인문화 사업

디자인문화 사업은 디자인이 시민의 생활에 밀접히 연결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디자인문화 향유권이 증대될 수 있도록 국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활동이다. 시민의 일상 생활에 근접한 서비스, 시설(건축물), 공간(도시 공공공간)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사업을 대상으로 2017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디자인 정책 사업을 조사하여 사업 목적별로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공공편의증진을 위한 디자인, 공공시설(건축) 개선 디자인, 지역환경개선 디자인으로 구분하였다.

3-2-1.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은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디자인 활동을 의미한다. 범죄, 학교폭력, 치매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적용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활동이다.

가)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2017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사회문제 해결디자인에 해당하는 사업은 범죄예방, 학교폭력예방, 교통 및 도보 안전, 고령화 대비, 지역문제해결 등 5개로 구분된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활동은 ‘안전마을 조성사업’과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 조성사업’이 있다.

안전마을 조성사업은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통하여 지역 내 범죄요인 등 환경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며 지속시키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동작구 상도3동 등 5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 조성사업은 다가구, 연립 등 밀집지역, 침입절도 다발구역 중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가스배관 등을 이용해 침입하는 범죄를 차단하는 사업이다. 주택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 등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고사인을 부착하며, 이를 유지 관리한다. 2015년에는 12개, 2016년에는 16개 지역에 이어 2017년에는 중구 등 17개 구에 18개소와 3,520개 건물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학교폭력예방디자인은 학교폭력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구현시키는 활동으로서, 올바르고 건강한 청소년문화 조성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2017년에는 광진구와 동작구에 위치한 학교 2곳에서 시행되었다.

교통 및 도보 안전 디자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젝트인 ‘옐로카펫 설치’와 ‘도심공공 안전안심디자인 사업’이 있다.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가 고안한 보행자 안전 지대이다. 횡단보도 진입부에 설치되고 있는 옐로카펫은 색 대비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아이들은 노란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고, 운전자는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¹ 서울에는 2015년 18개소, 2016년 89개소, 2017년 148개소가 설치되었고, 2018년 8월까지 총 234개소가 설치되었다. 도심공공 안전안심디자인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위해요소 개선과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강화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2017년에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서비스디자인 개선을 통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통합관리 및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였다. 대상지는 세종로 공영주차장,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을지로 청계천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이다.

고령화 대비 디자인은 100세 시대 인지건강 생활디자인 사업, 어르신 친화거리 참여 프로그램 디자인이 있다. 100세 시대 인지건강 생활디자인 사업은 저소득 재가 치매가정,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잘 읽히며, 오감을 촉진시키는 디자인 적용으로 인지저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2016년에는 노원구 공릉동, 2017년에는 송파구 마천동, 2018년에는 금천구 시흥동 등 매년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에는 특히 인지저점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어르신을 배려한 안전하고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치유정원 조성, 감각정원 계획, 식재계획, 인지강화 사인과 그래픽을 적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어르신 친화거리 참여 프로그램 디자인의 단초가 된 ‘락히거리’는 탑골공원 일대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배려한 사업인데, 문제해결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이후 자치구와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주차장 폐지, 재활용센터 이전, ‘365 청결기동대’와 ‘노숙인 대책반’ 운영 및 순찰강화와 함께 시급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어르신의 행태를 배려함으로써,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였다. 2017년부터는 11개의 ‘상냥한 가게’ 상가번영회가 주관하는 참여형 행사와 어르신 친화거리 참여 프로그램 시민참여 예산 사업을 32차례 추진하는 등 활성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문제해결 디자인으로는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청년 공공디자이너 양성 사업이 있다. 서울시내 동(洞)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활성화를 위해 컨설턴트와 청년 디자이너를 1:1로 매칭하고 디자인컨설팅을 진행,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공유 및 확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에는 청년 공공디자이너 20명을 발굴하여 사회문제 해결과제 20개와 매칭하고, 컨설턴트와 함께 디자인컨설팅을 진행하였다.

¹ 옐로카펫 홈페이지, <http://childmaeul.org>

[표 3-6]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내용

디자인 목적	사업	시행기관	적용지역 및 성과
범죄예방	범죄예방디자인 안전마을	도시전략사업과	동작구 상도3동 등 5개 지역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종구 등 17개 구, 도포율 99%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광진구, 동작구 학교 2개교
교통 및 도보 안전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젝트 '옐로 카펫' 설치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2017년 148개소
	도심공공 안전안심디자인 사업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사업팀)	세종로 공영주차장,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을지로 청계천 공영주차장
고령화 대비	100세 시대 인지건강 생활디자인 사업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금천구 시흥동
	어르신 친화거리 참여 프로그램 디자인	서울특별시 디자인 정책과, 자치단체보조 (주민참여)	종로구
지역문제해결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청년 공공 디자이너 양성사업	서울디자인재단	청년 공공 디자이너 20인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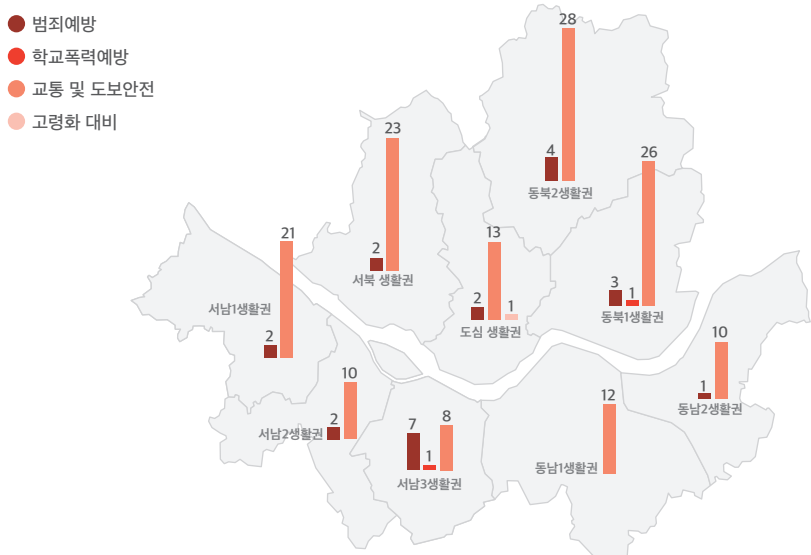
* 출처: 서울특별시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서울디자인재단, 옐로카펫 홈페이지(<http://childmaeul.org>)

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2017년(일부 자료는 2018년) 추진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은 총 178건으로 확인되었다. 권역별 비교를 위해서 지역기반으로 추진되지 않았거나 지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지역기반으로 추진된 사업 건수를 집계하면 범죄예방 관련사업은 23건, 학교폭력예방 관련사업이 2건, 교통 및 도보안전 관련 사업은 151건, 고령화 대비는 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권역별 분포를 비교하면 동북2생활권(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에서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동북1생활권(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이 30건으로 많았다.

[그림 3-2]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단위: 건)



3-2-2.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공공편의증진 디자인은 도시공공공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디자인 활동을 의미한다. 공공편의증진 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정책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사업과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제작 등이 있다.

가) 도시가로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2017년(일부 자료는 2018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도시가로편의증진에 해당하는 정책 사업은 공공시설물개선, 보행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공공시설물개선을 위한 디자인 사업은 ‘공공디자인 공모전’,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설치’,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서울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사업’이 있다.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은 시민들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 및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공모전은 수상작 설치 시범제작 사업과 병행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 디자인을 실현하려는 목표도 있다. 2018년에는 일반부 234점의 작품 중 34점의 작품을, 학생부 39점의 작품 중 26점을 선정, 시상하였다. 그중 5점의 작품 19개를 제작하여, 용산구 등 3곳에 설치하였다.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은 통합디자인이 필요한 서울시 공공시설물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디자인 개발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이다. 2018년에는 19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시민 안전과 밀접한 소방안전시설물을 2018년 표준형 디자인개발 대상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다. 서울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사업은 2016년에 5,600대, 2017년에는 10,400대의 공공자전거가 설치되었다.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 사업은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이 있다.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은 도로 다이어트, 휴일보행전용거리 조성, 광장 및 쉼터조성,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상권이 발달하고 보행량이 많은 지역이 대상이다. 2017년에는 구로구 공원로가 선정되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보·차도 구분이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에 차량의 서행과 주의를 유도할 수 있는 일체형 패턴을 사용하여 제한속도를 낮추고,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종로 통일로12길, 은평 연서로35길 등 18개 지역에 조성되었다. 또한 자치구별 디자인 초안에 주민선호도를 반영하여 주민참여를 확대시켰다.

[표 3-7] 도시가로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내용

디자인 목적	사업	시행기관	적용지역 및 성과
공공시설물개선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일반부 234개 작품 중 34개 선정 학생부 39개 작품 중 26개 선정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2017년부터 총 41종, 498개 타입) 19 건 중 소방안전시설물을 개발 진행 중
	서울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서울특별시 자전거정책과	10,400대
보행환경개선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구로구 공원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18곳 조성

* 출처: 서울특별시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나) 교통서비스 이용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스트레스 프리(stress free) 디자인은 서울시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시민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매년 스트레스와 관련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디자인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²이다. 범죄, 학교폭력, 인지장애,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2016년도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을 적용한 데 이어, 2018년도에는 지하철로 대상을 확대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1호 ‘스트레스 프리 지하철역’으로 선정하였다. 시민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환승구간 천정, 벽면, 바닥 등에 각 노선 색을 활용하여 화살표를 그려 넣었고, 시민들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란색 대기라인을 표시하는 등 배려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교통서비스 이용 편의증진에 해당하는 정책 사업 중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은 가로변 무장애 정류소 설치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무장애 정류소는 2015년 19개소, 2016년 45개소, 2017년 30개소에 설치되었다. 서울시 표준형 승차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라운드경계석 및 휠체어 대기공간, 승·하차 구간 장애물 제거, 점자블록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3-8] 교통서비스 이용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내용

디자인 목적	사업	시행기관	적용지역 및 성과
교통서비스 이용 편의증진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무장애정류소 30개소 설치

* 출처: 서울특별시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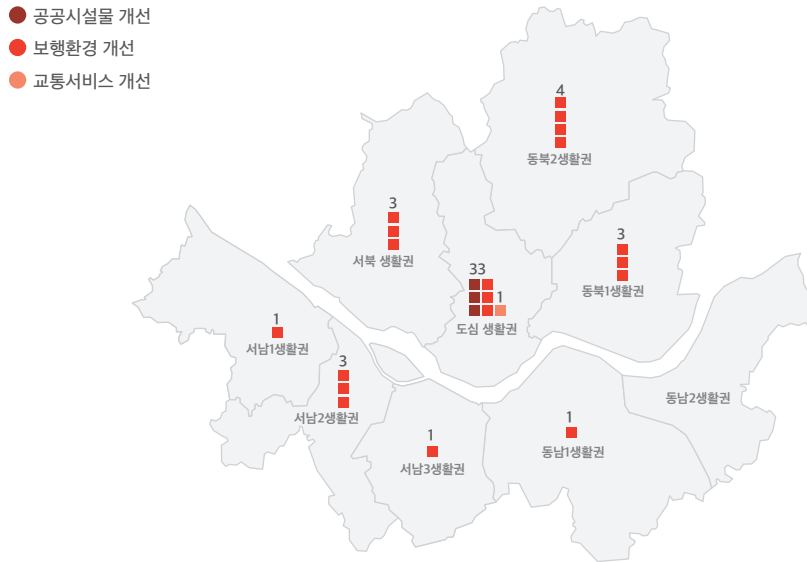
²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홈페이지, <http://stressfreedesign.co.kr>

다)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2017년(일부 자료는 2018년) 추진된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중 지역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은 총 23건으로 확인된다. 공공시설물 개선 디자인 3건, 보행환경 개선 디자인 19건, 교통서비스 개선 디자인 1건이다.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에서 3개 범주의 사업(공공시설물 개선 디자인, 보행환경 개선 디자인, 교통서비스 개선 디자인)이 7건 추진됨으로써 서울에서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사업이 많았던 지역으로 확인되며, 동북2생활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이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3-3]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단위: 건)



3-2-3. 공공시설(건축) 개선 디자인

가)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사업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에 해당하는 정책 사업은 학교환경개선 디자인, 복지행정공간개선 디자인, 도시경관개선으로 구분된다.

학교환경개선 디자인 사업은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에코스쿨 사업’이 있다.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는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 구상 및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7년에는 189개교에서 추진되었다.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은 획일적이고 열악한 학교공간을 학생의 눈높이와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색채디자인을 통해 감성을 키우고 학습능률을 향상시키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었고, 2017년에는 가이드라인이 제작 및 배포되었다.

복지행정공간개선 디자인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지원 사업이 있으며, 24개구 342개 동에서 실시되고 있다(2017년 7월 1일 기준). 도시경관개선은 경관·정비개선사업이 있으며, 2017년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 사업으로 중구 신당동 떡볶이골목 등 22개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표 3-9]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사업 내용

디자인 목적	사업	시행기관	적용지역 및 성과
학교환경개선	꾸미고 꿈꾸는 학교회장실 만들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서울특별시 교육정책담당관	189개교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복지행정공간개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중랑구 면목본동 등 342개 동
경관·정비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 사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중구 신당동 등 22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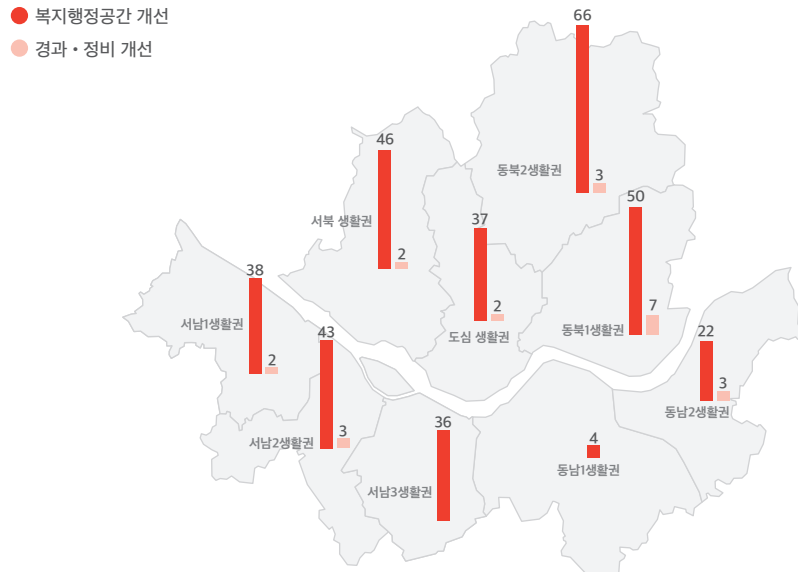
* 출처: 서울특별시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서울특별시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공간개선 백서

나)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2017년 추진된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중 지역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은 총 196건으로 확인되었다. 복지행정공간개선 디자인은 342건, 도시경관개선 디자인은 22건이다. 가장 많이 시행된 지역은 동북2생활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에서 69건, 이어서 동북1생활권(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에서 57건의 디자인 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림 3-4] 공공시설 개선 디자인 사업 권역별 분포

(단위: 건)



3-2-4. 지역환경개선 디자인

지역환경개선 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의 디자인 활동이다. 2017년에 추진한 디자인 사업을 사업목적에 따라 범주화한 결과 크게 지역명소화 디자인, 근린환경개선 디자인, 지역환경개선 디자인으로 구분된다.

가) 지역명소화 디자인 사업

2017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지역명소화 디자인 사업은 야간경관 조명시설 개선 사업, 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있다.

야간경관 조명시설 개선사업은 서울의 잠재된 지역자원에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독창적이고 다양한 서울의 밤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2017년에는 동대문구 장안동 벚꽃길, 구로구 궁동 벚꽃길, 성동구 별빛 밝은 길의 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마포 및 북촌 공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공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간구성, 창업, 판매, 관광, 교육 기능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2016년에는 공방과 판매장을 중심으로, 2017년에는 소재와 유통을 중심으로 정보와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표 3-10] 지역명소화 디자인 사업 추진 내용

디자인 목적	사업	시행기관	적용지역 및 성과
지역명소화 디자인	야간경관 조명시설 개선 사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동대문구 장안동 벚꽃길, 구로구 궁동 벚꽃길, 성동구 별빛 밝은 길
	공예클러스터 조성	서울디자인재단	북촌공예원, 마포공예지원센터

* 출처: 서울특별시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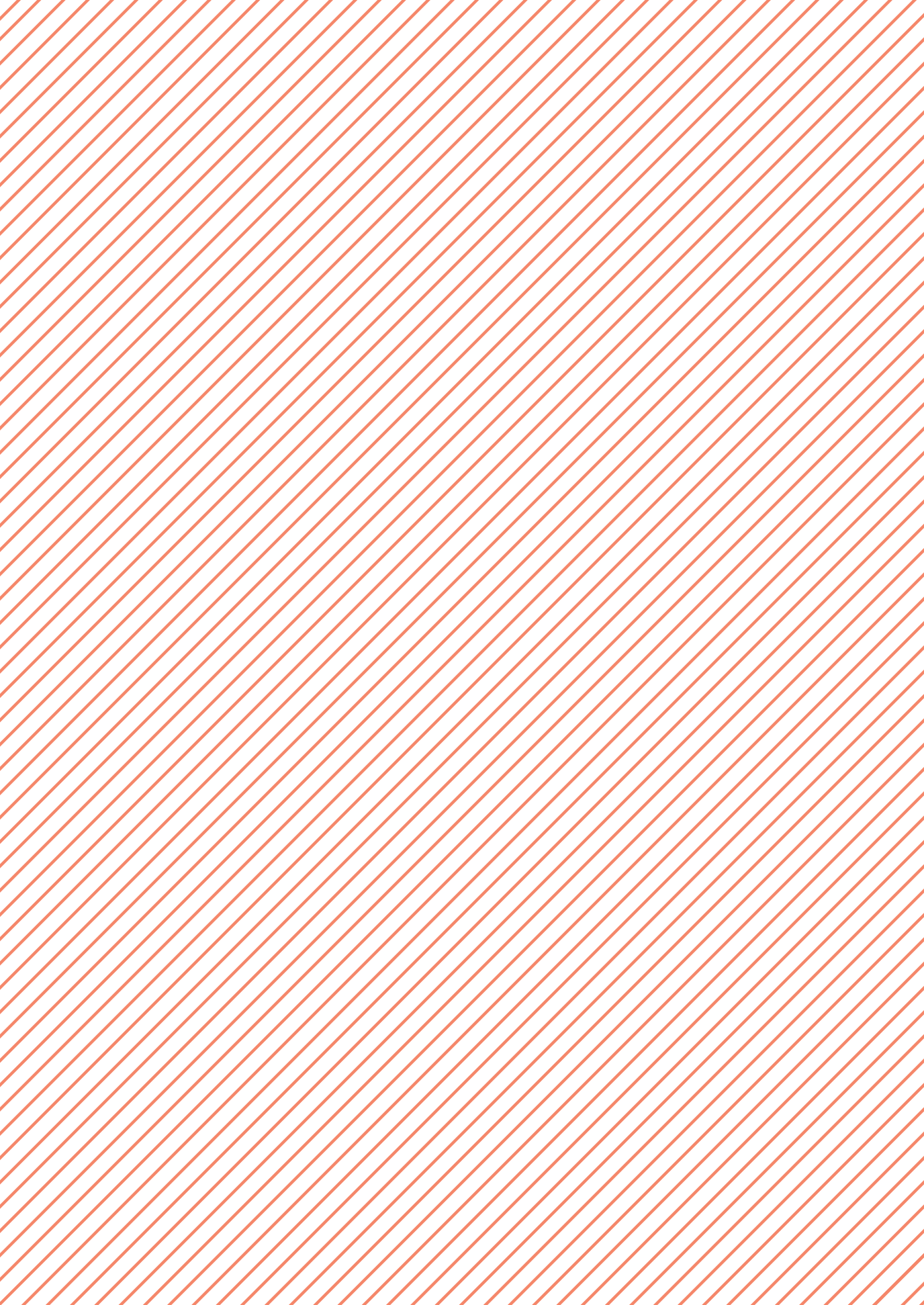
나) 근린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근린환경개선 디자인 사업에는 ‘희망의 벽화공원 조성’, ‘서울은 미술관 사업’이 있다. 희망의 벽화공원 조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추진되었다. 마포구에서 추진되었고, 성산로와 인접한 주거지역의 입구 옹벽 노후화로 발생한 도시경관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 및 여성안전과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디자인 사업(CPTED)을 추진하였다. ‘서울은 미술관 사업’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공미술로 시민의 즐거움과 활기가 넘치는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도시 공간을 활용한 예술 향유 기회 확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젝트,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기반 조성 등이 있다. 그중 생활권을 연계한 지역단위 공공미술 구현에는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치구와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있다.

[표 3-11] 근린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내용

디자인 목적	사업	시행기관	적용지역 및 성과
근린환경개선	희망의 벽화공원 조성	자치단체보조(주민참여)	마포구 청역 3번출구~성산1동 주민센터 입구
	서울은 미술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녹사평역 자치구와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 출처: 서울특별시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제4장

디자인교육

4-1. 디자인 전문교육

4-2. 시민디자인교육

제4장 디자인교육

디자인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위한 ‘디자인 전문교육’과, 일반 시민의 교양교육을 위한 ‘시민디자인교육’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한 디자인 분야의 구분은 ‘교육기관 학과 분류 기준’에 맞추어 기본 자료인 ‘국가교육통계센터’의 학과 구분을 적용하였다. 디자인교육 영역과 디자인산업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분야 구분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디자인교육 조사를 위해서는 교육통계의 구분을 적용한 것이다. 시민디자인교육은 이를 실시하는 시민디자인교육 자원 현황과 해당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4-1] 디자인 교육 지표체계

구분	영역	지표
디자인 전문교육	디자인 전문교육 자원	교육기관 수
		교육인력 수
		학생 수
	디자인 전문교육 성과	졸업생 수
		취업률
시민 디자인교육	시민 디자인교육 자원	시민 디자인교육 운영 문화기반시설
		시민 디자인교육 운영 지역기반시설
		시민 디자인교육 운영 지역 공동체
	시민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문화기반시설 운영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지역기반시설 운영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생애주기 시민맞춤형 디자인 교육	

4-1. 디자인 전문교육

‘2015 서울디자인서베이’는 디자인 전문교육의 세부 분류를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2014 디자인백서’에 근거하여 9개 디자인 범주(사물, 공간, 이미지, 뉴미디어, 서비스, 공공, 통합, 융합, 기타)를 적용하였다. ‘2016 서울디자인서베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 사용해진 디자인산업 분류체계(제품, 시각, 공간, 디지털/미디어, 패션/텍스타일, 서비스/경험, 산업공예, 디자인 인프라)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디자인 분야가 표준적으로 세밀하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는 2017년과 동일하게 ‘국가교육통계센터 고등교육기관 조사자료’의 학과계열 분류를 적용하였다. 그 범위는 ‘예체능계열’ 대계열 중 ‘디자인’ 중계열 전체를 포함하고, 여기에 ‘예체능계열’ 대계열 중 ‘응용예술’ 중계열과, ‘공예’ 소계열을 포함하였다. 종합하면, 디자인교육 분야는 ‘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과 ‘공예’ 등 총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특성화

고·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홈페이지(<http://www.hifive.go.kr>)에서 제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국가교육통계센터 고등교육기관 조사 자료’에서 활용하는 학과계열 분류를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표 4-2] 디자인 관련 학과 구분

분야 구분			내용	관련 학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체능 계열	디자인	디자인 일반	인간생활의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여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의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디자인의 육성을 목표로 함	디자인과, 디자인학과, 디자인공학과 등
		산업디자인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탐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의 창조와 관련되는 이론과 실제의 응용 방법을 연구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학과, 생산디자인전공, 홍보 디자인학과 등
		시각디자인	시각언어로 메시지를 작성 및 전달하여 수용자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의 디자인으로서, 시각디자인의 문화적 가치창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하고 윤택한 인간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멀티미디어디자인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시각문화디자인학과 등
		패션디자인	인간의 행동이나 가치관이 포함된 상태로 패션을 받아들여 풍부한 발상과 창조력이 넘치는 디자인 능력을 육성하고, 패션으로서의 새로운 조형이나 이론을 심도 있게 연구함	복식디자인전공, 의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공연의상학과,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패션디자인 정보학과 등
	기타 디자인	디자인 분야 중 산업·시각·의상디자인 분야 이외의 가구, 제품, 건축, 공업, 공예, 광고, 섬유, 실내, 컴퓨터디자인 등의 분야를 의미함	가구디자인과, 제품디자인과, 공업디자인과, 공예디자인학과, 섬유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학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 콘텐츠디자인학과 등	
응용 예술	공예	현대문화·문명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생활의 미적, 기능적 실용예술로서의 공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공예과, 도예학과, 목조형가구학과, 산업공예디자인학과, 기독교공예전공, 전통미술공예학과 등	

* 출처: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 학과(전공)분류자료집

4-1-1. 디자인 전문교육 자원

가) 교육기관 수

①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디자인 관련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정보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교육통계서비스’가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디자인 전문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을 정리하면 [표 4-3], [표 4-4], [표 4-5]와 같다.

[표 4-3]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 중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를 개설한 대학원

(단위: 개)

번호	학교	학과	학과 수
1	건국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공예학과	2
2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1
3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시각정보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전통복식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공공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7
4	경기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1
5	경기대학교 예술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공예학과 장신구·금속디자인전공	2
6	경희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조형디자인학과, 텍스타일·패션디자인학과, 도예학과	6
7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디자인·도예교육전공	1
8	고려대학교 대학원	창의융합디자인협동과정	1
9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1
10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대학원	디지털컨텐츠디자인전공	1
11	국민대학교 대학원	영상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영상·콘텐츠디자인, 금속공예학과, 도예학과	6
12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무대디자인전공, 분장예술전공	2
13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운송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의상디자인전공, 패턴·모델링·증디자인전공, 패션머천다이징전공, 패션전공, 세라믹디자인전공, 유리조형디자인전공, 일러스트레이션전공, 제품디자인전공, 주얼리디자인전공, 그린디자인전공, 전시디자인전공, 인클루시브 디자인전공, 리빙아키텍처클래스전공	15
14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전공, 엔터테인먼트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학과, VR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전공,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인터랙션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디자인전공, 디지털컨텐츠디자인전공, 건축디자인학과, 시스템디자인전공, 제품시스템디자인전공, 디자인플래닝학과, 건축디자인학과 (3년과정), 경험디자인학과, 도자전공	18
15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의상텍스타일디자인학과	1
16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1
17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실내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3
18	서경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1
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도예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4
2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IT·디자인융합프로그램	1

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공예문화디자인학과	2
22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디자인학부(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디자인역사문화전공), 디자인학부(공예전공)	4
23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뉴미디어학부 (예술)	1
24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1
25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1
26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1
27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3
2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공예학과	2
29	세종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2
30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패션산업디자인학, 실용예술포폴린학과	2
31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4
32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화예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2
33	숙명여자대학교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전공, 화예디자인전공	2
34	숭실대학교 대학원	실내디자인학과	1
35	연세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생활디자인학과	3
36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공간디자인전공	1
37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1
3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1
39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1
40	중앙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공예학과	2
41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미술-디자인학과, 디자인공예학과	2
42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과정	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운송디자인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1
43	한성대학교 대학원	미디어디자인학과	1
44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패션디자인기획학과, 뷰티예술학과	2
45	한양대학교 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2
46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기획, 디자인융합	2
47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금속조형디자인과, 디자인공예학과, 메타디자인학부, 도예과, 목조형가구학과	8
48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제품·운송디자인전공, 직물디자인전공, 산업도예전공	6
49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디자인전공, 프로덕션디자인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3
50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3
51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산업디자인전공,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광고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제품·운송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공공디자인전공, 금속·액세서리디자인전공, 서비스디자인전공, 도예·유리디자인전공	13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

[표 4-4] 2017년 서울 소재 대학 중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를 개설한 대학

(단위: 개)

번호	학교	학과	학과 수
1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 공예학과, 리빙디자인학과	6
2	경희대학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도예학과	6
3	경희사이버대학교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1
4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1
5	고려사이버대학교	디자인공학과	1
6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공업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금속공예학과, 도자공예학과	8
7	덕성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	4
8	동덕여자대학교	시각&실내디자인전공, 시각&실내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과, 미디어디자인전공, 디지털공예과	6
9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1
10	삼육대학교	아트앤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환경그린디자인학과	3
11	서경대학교	디자인학부, 디자인학부(비주얼콘텐츠디자인전공), 시각정보디자인전공, 무대패션전공, 생활문화디자인전공	5
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시각문화융합디자인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금속공예학과, 도예학과	5
13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디자인학부(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공업디자인전공, 도예전공, 디자인학부(금속공예전공), 디자인학부(공예전공)	7
14	서울디지털대학교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생활환경디자인전공)	2
15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1
16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1
17	서울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학과, 콘텐츠디자인학과, 공예전공, 공예학과	6
18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	1
19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공예과	2
20	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2
21	세종사이버대학교	게임테크디자인학과	1
22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시각·영상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4
23	송실사이버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1
24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1
25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영상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섬유·패션학부), 도자예술전공, 조소전공	9
26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1
27	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과	1
28	한성대학교	ICT디자인학부, 시각영상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글로벌패션산업학부, 뷰티디자인학과,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융복합디자인학부	9
29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1
30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계열, 디자인학부, 디지털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4
31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금속조형디자인과, 도예·유리과, 목조형가구학과	6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vedi.re.kr/index>) 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과정은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폐과는 제외함)

[표 4-5] 2017년 서울 소재 전문대학 중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를 개설한 전문대학

(단위: 개)

번호	학교	학과	학과 수
1	동양미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실내환경디자인과	3
2	명지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4
3	백석예술대학교	디자인학부, 디자인미술학부	2
4	서일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과, 생활가구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7
5	승의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전공, 주얼리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아동미술디자인전공, 주얼리디자인과	8
6	인덕대학교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디지털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과, 미디어아트 앤디자인과, 도시환경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공간장식도자디자인과, 주얼리디자인과, 주얼리디자인학과, 공간장식도자디자인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11
7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패션메이킹과, 패션디자인과(2년제), 주얼리디자인과	3
8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2
9	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의상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섬유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니트패션디자인과(3년제), 섬유패션디자인학과, 니트패션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도예과(3년제), 도예학과	17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과정은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폐과는 제외함)

서울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중 디자인·공예 계열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는 [표 4-6]과 같이 30개교로 확인되었다.

[표 4-6] 2017년 서울 소재 고등학교 중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를 개설한 고등학교

(단위: 개)

번호	학교	학과	학과 수
1	강서공업고등학교	생활디자인과	1
2	대경상업고등학교	SW디자인과, 푸드조리디자인과	2
3	대진디자인고등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컴퓨터미디어디자인과	3
4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디자인경영과	1
5	리리아트고등학교	컴퓨터미디어과	1
6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생활디자인과	1
7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뉴미디어디자인과	1
8	상일미디어고등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1
9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시각디자인과	1
10	서울공업고등학교	그래픽아트과, 섬유디자인과	2
11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패션액세서리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푸드스타일디자인과	6
12	서울문화고등학교	문화콘텐츠디자인과	1
13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스마트웹디자인과	1
14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멀티미디어과(콘텐츠디자인과)	1
15	선일비즈니스고등학교	디자인콘텐츠과	1

16	성동공업고등학교	주얼리디자인과	1
17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글로벌디자인과	1
18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웹디자인과, 의상패션디자인과, 패션제품디자인과	3
19	송파공업고등학교	하이텍디자인과	1
20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자동차디자인과	1
21	영등포공업고등학교	IT융합금형디자인과	1
22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시각디자인과, 아트디자인	2
23	에림디자인고등학교	디자인경영, 시각디자인과, 웹디자인과,	3
24	에일디자인고등학교	시각디자인과, 웹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실내장식디자인과	4
25	용산공업고등학교	도시디자인과	1
26	유한공업고등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1
27	이화여자대학교병설 미디어고등학교	미디어디자인과	1
28	인덕공업고등학교	커뮤니케이션산업디자인	1
29	한강미디어고등학교	산업디자인과	1
30	홍익디자인고등학교	디자인경영과, 시각디자인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3

* 출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http://www.hifive.go.kr>)홈페이지, 2018.11.30. 기준

교육기관별로 전체 단위학과를 집계하고, 디자인 계열별 범주로 정리하여 학과 수를 파악해보면 [표 4-8]과 같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디자인일반 계열은 20개(13.1%), 산업디자인 13개(8.5%), 시각디자인 16개(10.5%), 패션디자인은 12개(7.8%), 기타디자인은 73개(47.7%), 공예 19개(12.4%)가 각각 개설되었다.

대학 과정에는 디자인일반 계열이 14개(12.6%), 산업디자인 10개(9.1%), 시각디자인 19개(17.1%), 패션디자인 13개(11.7%), 기타디자인은 33개(29.7%), 공예 22개(19.8%)가 개설되었다. 전문대학 과정의 경우 산업디자인 7개(12.1%), 시각디자인 9개(15.5%), 패션디자인 12개(20.7%), 기타디자인 27개(46.6%), 공예 3개(5.2%)가 개설되었다. 대학원의 경우 ‘전문화된 디자인 분야’ 또는 ‘새로운 영역의 디자인 분야’에 해당하는 학과가 많아 대학 과정에 비해 ‘기타디자인’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대학은 전문적으로 특성화된 학과가 많으므로 통합적인 디자인 교육에 해당하는 ‘디자인일반’에 속하는 학과는 없었다. 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경우 학과명을 6가지 분류체계에 맞추어 구분하면 산업디자인이 4개(8.2%), 시각디자인이 14개(28.6%), 패션디자인이 4개(8.2%), 기타디자인이 24개(49.0%), 공예가 3개(6.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료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를 개설한 대학원은 50개로 2016년도(46개)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대학은 31개로 2016년도(30개)와 비슷하다. 전문대학은 9개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고등학교는 30개로 2016년도(29개)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고급과정으로 갈수록 전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대학원 과정의 ‘학과’는 총 153개로 2016년도(170개)에 비해 감소하였고, 대학 과정의 학과도 111개로 2016년도(113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대학 과정의 학과도 53개로 2016년도(57개)보다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과는 49개로 2016년도(47개)와 비슷하다. 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과정

에서 학과 통폐합 등의 영향으로 관련 학과 수가 전체적으로 소폭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인구통계적 변화, 교육기관의 융복합 경향, 전문대학 과정의 학과 통폐합 등이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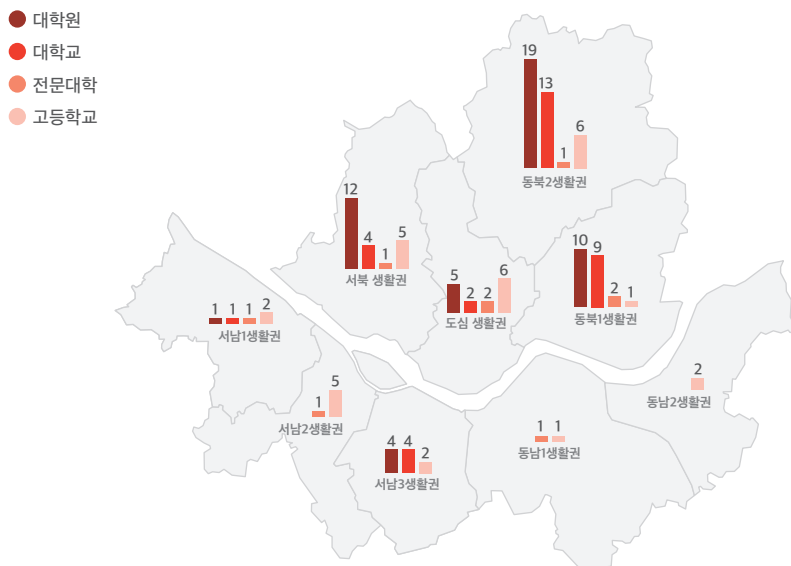
[표 4-7] 2017년 서울 소재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고등학교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수 (단위: 개, 괄호: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디자인일반	20	(13.1)	14	(12.6)	-	-	-	-
산업디자인	13	(8.5)	10	(9.1)	7	(12.1)	4	(8.2)
시각디자인	16	(10.5)	19	(17.1)	9	(15.5)	14	(28.6)
패션디자인	12	(7.8)	13	(11.7)	12	(20.7)	4	(8.2)
기타디자인	73	(47.7)	33	(29.7)	27	(46.6)	24	(49.0)
공예	19	(12.4)	22	(19.8)	3	(5.2)	3	(6.1)
계	153	(100.0)	111	(100.0)	58	(100.0)	49	(100.0)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하였으며,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http://www.hifive.go.kr>)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과정은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

서울 소재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를 개설한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를 지역별로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다.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를 개설한 교육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동북2생활권으로 19개 대학원, 13개 대학, 1개 전문대학, 6개 고등학교 총 39개 교육기관이 위치한다. 또한 가장 교육기관이 적은 지역은 동남1생활권과 동남2생활권으로 전체적으로 동남생활권에 교육기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서울 소재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를 개설한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지역별 분포 (단위: 개)



나) 교육인력 수

① 대학원

서울 소재 대학원 소속 디자인 및 공예학과 전임교원은 총 55명이며, 비전임교원은 258명, 시간강사는 160명으로 조사되었다. 전임교원의 경우 여성은 20명, 남성은 35명으로 나타남으로써, 비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4-8]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수 (단위: 명, 괄호: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디자인일반	1	(1.8)	0	1	63	(24.4)	30	33	38	(23.8)	17	21
산업디자인	11	(20.0)	8	3	24	(9.3)	12	12	15	(9.4)	7	8
시각디자인	8	(14.5)	6	2	21	(8.1)	15	6	12	(7.5)	10	2
패션디자인	0	(0.0)	0	0	17	(6.6)	3	14	11	(6.9)	1	10
기타디자인	34	(61.8)	21	13	114	(44.2)	58	56	68	(42.5)	31	37
공예	1	(1.8)	0	1	19	(7.4)	9	10	16	(10.0)	7	9
계	55	(100.0)	35	20	258	(100.0)	127	131	160	(100.0)	73	87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

**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

② 대학

서울 소재 대학에 소속된 디자인 및 공예학과 전임교원은 361명, 비전임교원은 1,026명, 시간강사는 698명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과 비교하여 전임교원(337명)과 시간강사(724명)는 큰 변화가 없으나 비전임교원(334명)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4-9] 2017년 서울 소재 대학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수 (단위: 명, 괄호: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디자인일반	94	(26.0)	85	9	210	(20.5)	92	118	142	(20.3)	55	87
산업디자인	38	(10.5)	35	3	114	(11.1)	65	49	73	(10.5)	34	39
시각디자인	51	(14.1)	33	18	126	(12.3)	59	67	88	(12.6)	32	56
패션디자인	48	(13.3)	8	40	113	(11.0)	13	100	75	(10.7)	5	70
기타디자인	60	(16.6)	36	24	204	(19.9)	94	110	145	(20.8)	63	82
공예	70	(19.4)	38	32	259	(25.2)	103	156	175	(25.1)	63	112
계	361	(100.0)	235	126	1,026	(100.0)	426	600	698	(100.0)	252	446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

③ 전문대학

서울 소재 전문대학 소속의 디자인 및 공예학과 전임교원은 194명, 비전임교원은 437명, 시간강사는 292명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비전임교원은 2016년도(113명)에 비해 영역을 불문하고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대학평가 기준 중 교수층원 관련조항의 신규적용으로 산업체 겸임교원의 임용이 증가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4-10] 2017년 서울 소재 전문대학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수 (단위: 명, 괄호: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디자인일반	-	-	-	-	-	-	-	-	-
산업디자인	29 (14.9)	20	9	58 (13.3)	28	30	41 (14.0)	17	24
시각디자인	31 (16.0)	19	12	69 (15.8)	37	32	42 (14.4)	20	22
패션디자인	33 (17.0)	4	29	73 (16.7)	8	65	46 (15.8)	5	41
기타디자인	95 (49.0)	51	44	216 (49.4)	84	132	153 (52.4)	56	97
공예	6 (3.1)	3	3	21 (4.8)	10	11	10 (3.4)	2	8
계	194 (100.0)	97	97	437 (100.0)	167	270	292 (100.0)	100	192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
 **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

다) 학생 수

① 대학원

서울 소재 디자인 및 공예 계열의 대학원에 적을 둔 재적학생 수는 3,568명이며, 여학생은 2,537명, 남학생은 1,031명으로 여학생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6년도의 전체 대학원 재적생 수(3,731명)보다 약간 감소한 것이며, 재학생 수(2,911명)와 휴학생(820명) 수도 각각 소폭씩 감소하였다. 계열별 학생 수를 보면 기타 디자인(1,604명) 계열이 가장 많고 디자인 일반, 시각디자인, 공예, 패션디자인, 공예, 산업디자인 순이다. 대학원의 경우 세분화되거나 새로운 학과전공이 많아 기타 디자인에 해당하는 학과가 많이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표 4-11]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학생 수 (단위: 명, 괄호: %)

	재적생			재학생			휴학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디자인일반	1,157 (32.4)	181	976	940 (33.2)	141	799	217 (29.4)	40	177
산업디자인	136 (3.8)	70	66	106 (3.7)	56	50	30 (4.1)	14	16
시각디자인	253 (7.1)	100	153	214 (7.6)	78	136	39 (5.3)	22	17
패션디자인	168 (4.7)	19	149	123 (4.3)	17	106	45 (6.1)	2	43
기타디자인	1,604 (45.0)	609	995	1,255 (44.3)	469	786	349 (47.3)	140	209
공예	250 (7.0)	52	198	192 (6.8)	39	153	58 (7.9)	13	45
계	3,568 (100.0)	1,031	2,537	2,830 (100.0)	800	2,030	738 (100.0)	231	507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
 **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

② 대학

서울 소재 대학의 디자인 및 공예학과에 재적하는 학생 수는 남학생 4,363명, 여학생 14,555명, 합계 18,918명으로 2016년도의 18,375명과 유사한 규모다. 재학생 수와 휴학생 수도 2016년도(14,402명, 3,973명)와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다. 여학생 비율(76.9%)도 2016년도(76.4%)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4-12] 2017년 서울 소재 대학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재학생 수

(단위: 명, 괄호: %)

	재적생			재학생			휴학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디자인일반	3,911	(20.7)	1,139	2,772	3,124	(21.0)	817	2,307	787	(19.4)	322	465
산업디자인	2,146	(11.3)	566	1,580	1,629	(11.0)	357	1,272	517	(12.7)	209	308
시각디자인	3,502	(18.5)	636	2,866	2,757	(18.6)	422	2,335	745	(18.4)	214	531
패션디자인	2,263	(12.0)	409	1,854	1,816	(12.2)	243	1,573	447	(11.0)	166	281
기타디자인	4,261	(22.5)	1,209	3,052	3,217	(21.6)	796	2,421	1,044	(25.7)	413	631
공예	2,835	(15.0)	404	2,431	2,317	(15.6)	254	2,063	518	(12.8)	150	368
계	18,918	(100.0)	4,363	14,555	14,860	(100.0)	2,889	11,971	4,058	(100.0)	1,474	2,584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
*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

③ 전문대학

서울 소재 전문대학의 디자인 및 공예학과에 재적하는 학생 수는 남학생 2,355명, 여학생 6,059명, 총 8,414명으로 조사되어, 2016년도 학생 수(8,364명)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3] 2017년 서울 소재 전문대학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재학생 수

(단위: 명, 괄호: %)

	재적생			재학생			휴학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디자인일반	-	-	-	-	-	-	-	-	-			
산업디자인	1,120	(13.3)	393	727	824	(12.8)	208	616	296	(14.9)	185	111
시각디자인	1,330	(15.8)	364	966	971	(15.1)	142	829	359	(18.1)	222	137
패션디자인	1,095	(13.0)	73	1,022	970	(15.1)	39	931	125	(6.3)	34	91
기타디자인	4,642	(55.2)	1,522	3,120	3,460	(53.8)	794	2,666	1,182	(59.6)	728	454
공예	227	(2.7)	3	224	207	(3.2)	2	205	20	(1.0)	1	19
계	8,414	(100.0)	2,355	6,059	6,432	(100.0)	1,185	5,247	1,982	(100.0)	1,170	812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
**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

④ 고등학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중에서 직업교육의 목적성을 가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범위로 하면 디자인 전공의 학생 수는 6,290명이다. 2016년도 학생 수(6,584명)에 비해 소폭 감소되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분야는 '기타 디자인' 계열로 나타났다.

[표 4-14] 2017년 서울 소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디자인전공 재학생 수 (단위: 개, 명, 괄호: %)

	계	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공예
학과 수	49	-	4	14	4	24	3
	(100.0)		(18.2)	(28.6)	(8.2)	(49.0)	(6.1)
학급 수	256	-	24	70	24	126	12
	(100.0)		(9.4)	(27.3)	(9.4)	(49.2)	(4.7)
학생 수	6,290	-	563	1,752	577	3,098	300
	(100.0)		(9.0)	(27.9)	(9.2)	(49.3)	(4.8)

* 출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http://www.hifive.go.kr>)홈페이지 정보를 재편집

4-1-2. 디자인 전문교육 성과

가) 졸업생 수

① 대학원

서울 소재 대학원의 졸업자는 여학생 687명, 남학생 261명, 합계 948명으로 2016년도(1,033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석사학위 취득자는 840명으로 2016년도(942명)보다 감소하였으며, 박사학위 취득자는 108명으로 2016년도(108명)와 동일하다.

[표 4-15]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 소속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자 수 (단위: 명, 괄호: %)

	졸업자			석사학위 취득자		박사학위 취득자		
	계	남	여					
디자인일반	245	(25.8)	34	211	211	(25.1)	34	(31.5)
산업디자인	29	(3.1)	13	16	27	(3.2)	2	(1.9)
시각디자인	46	(4.9)	12	34	38	(4.5)	8	(7.4)
패션디자인	33	(3.5)	5	28	28	(3.3)	5	(4.6)
기타디자인	532	(56.1)	181	351	473	(56.3)	59	(54.6)
공예	63	(6.6)	16	47	63	(7.5)	0	(0.0)
계	948	(100.0)	261	687	840	(100.0)	108	(100.0)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

**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

② 대학

서울 소재 대학의 디자인 및 공예전공 졸업생 수는 총 3,121명으로, 2016년도(3,372명)에 비해 소규모 감소하였으며 여학생 2,554명, 남학생 567명으로 집계되었다. 영역별로는 기타디자인(24.8%), 시각디자인(20.6%), 공예(15.3%) 순으로 졸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2017년 서울 소재 대학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졸업자 수

(단위: 명, 괄호: %)

	계		남	여
디자인일반	409	(13.1)	133	276
산업디자인	409	(13.1)	83	326
시각디자인	643	(20.6)	104	539
패션디자인	408	(13.1)	42	366
기타디자인	774	(24.8)	162	612
공예	478	(15.3)	43	435
총합계	3,121	(100.0)	567	2,554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

**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

③ 전문대학

서울 소재 전문대학의 디자인 및 공예전공 졸업생 수는 여학생이 2,180명, 남학생이 397명, 총 2,507명으로, 2016년도(2,581명)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디자인 영역(48.1%)의 졸업자가 가장 많았고, 시각디자인과 패션디자인 계열의 졸업자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2017년 서울 소재 전문대학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졸업자 수

(단위: 명, 괄호: %)

	계		남	여
디자인일반	-	-	-	-
산업디자인	244	(9.7)	60	184
시각디자인	553	(22.1)	84	469
패션디자인	419	(16.7)	13	406
기타디자인	1,206	(48.1)	239	967
공예	85	(3.4)	1	84
계	2,507	(100.0)	397	2,180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학과별 주요 현황을 재구성

**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

나) 취업률

① 대학원

대학원 취업률 통계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제외하고, 일반대학원의 취업률을 조사한 통계이다.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한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의 디자인 및 공예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48.0%로 조사되어 2016년 취업률(71.3%)보다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진학 및 해외 유학의 증가와, 최근 외국인유학생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열별로는 시각디자인 계열과 기타디자인 계열의 취업률이 각 5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졸업자 취업률

(단위: %, 명)

	취업률(%)			취업자			해외 취업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디자인일반	39.2	39.1	39.2	49	9	40	0	0	0
산업디자인	46.2	33.3	57.1	6	2	4	0	0	0
시각디자인	58.3	50.0	60.0	7	1	6	0	0	0
패션디자인	36.0	0.0	37.5	9	0	9	0	0	0
기타디자인	58.3	67.6	56.0	109	25	84	0	0	0
공예	36.8	25.0	40.0	21	3	18	0	0	0
계	48.0	49.4	47.6	201	40	161	0	0	0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홈페이지 자료, 2017년 고등교육기관 학교별 학과별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를 재구성

**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

***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 100

**** 취업자:조사기준일(12.31.)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② 대학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의 디자인 및 공예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60.9%로 2016년 취업률 69.7%보다 감소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공예 계열(74.6%)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에는 디자인일반 계열(65.7%)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이 그 뒤를 이었다.

③ 전문대학

2017년 서울 소재 전문대학의 디자인 및 공예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61.9%로 2016년 69.8%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패션디자인 계열(73.4%)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에는 산업디자인 계열(75.4%)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기타디자인과 패션디자인 계열이 그 다음을 이었다.

[표 4-19] 2017년 서울 소재 대학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졸업자 취업률

(단위: %, 명)

	취업률(%)			취업자			해외 취업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디자인일반	65.7	77.8	63.3	71	14	57	0	0	0
산업디자인	63.2	65.3	62.8	283	47	236	0	0	0
시각디자인	59.2	54.4	59.8	322	31	291	1	0	1
패션디자인	62.6	67.5	62.0	246	27	219	4	1	3
기타디자인	59.4	62.5	58.8	420	75	345	2	0	2
공예	60.7	61.8	60.6	256	21	235	1	0	1
계	60.9	63.0	60.6	1598	215	1383	8	1	7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홈페이지 자료 등

[표 4-20] 2017년 서울 소재 전문대학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 졸업자 취업률

(단위: %, 명)

	취업률(%)			취업자			해외 취업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디자인일반	-	-	-	-	-	-	-	-	-
산업디자인	75.4	72.5	76.0	156	29	127	0	0	0
시각디자인	59.8	62.8	59.3	350	54	296	0	0	0
패션디자인	60.9	0.0	60.9	229	0	229	0	0	0
기타디자인	62.3	66.3	61.5	582	110	472	0	0	0
공예	40.5	0.0	40.5	30	0	30	0	0	0
계	61.9	66.1	61.3	1347	193	1154	0	0	0

*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홈페이지 자료 등

4-2. 시민디자인 교육

4-2-1. 시민디자인교육 자원

가)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서울에서 디자인 및 공예와 관련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은 박물관 80개, 미술관 43개, 도서관 6개로 총 129개가 확인되었다. 디자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로 운영하거나 전시나 소장 자료와 연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22개 박물관, 18개 미술관으로 확인되었으며, 각각 31개 교육 프로그램과 29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2018년 11월 30일 기준)

[그림 4-2]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지역별 분포

(단위: 개)

- 박물관
- 미술관



*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2018.11.30 기준) 정보를 재구성

나) 시민디자인교육을 운영하는 지역기반시설

지역기반시설이 운영하는 디자인교육 시설 중에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과,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는 자치회관 시설이 있다.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등이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이 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 교육시설명과 대상, 위치는 [표 4-21]과 같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시민들의 생활권 내에 위치하여 근거리에서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청과 동주민 자치센터, 자치구 소재 지역단위 문화체육시설, 청소년 시설, 자치구 소재 공공도서관 등이 이에 속한다.

[표 4-21] 시민디자인 교육 운영기관 서울시 및 산하기관

번호	운영주체	교육시설	교육대상	위치
1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시민청	일반	종구
		금천학습장	일반	금천구
		독심학습장	일반	성동구
		중랑학습장	일반	중랑구
		은평학습장	일반	은평구
		서울시립 청소년드림센터	아동청소년	강남구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아동청소년	광명시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아동청소년	용산구
		서울시립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아동청소년	종구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아동청소년	영등포구
2	서울시50플러스 재단**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일반(시니어)	구로구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2020 개관예정)	일반(시니어)	광진구
		서울시50플러스 동남캠퍼스(2019 개관예정)	일반(시니어)	강남구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2020 개관예정)	일반(시니어)	도봉구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일반(시니어)	은평구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일반(시니어)	마포구
3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새활용플라자	일반	성동구
4	서울문화재단****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아동청소년	관악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양천구
		서울시민예술대학	일반	(상이)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종구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일반	종구
		서울예술치유허브	일반	성북구
5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시 창의예술교육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은평구
		서울시 제2창의예술교육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성동구

출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seoul.go.kr>)홈페이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https://50plus.or.kr>)홈페이지,

***서울디자인재단 (<http://www.seouldesign.or.kr>)홈페이지,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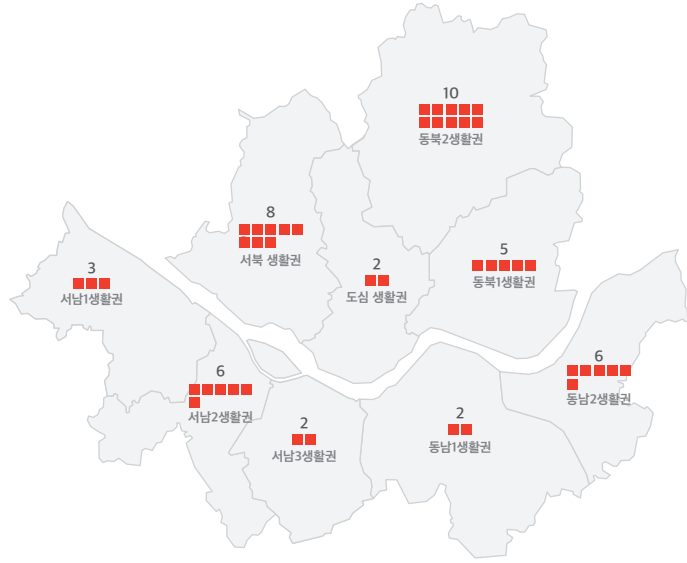
*****서울창의감성교육 배움터 (<http://www.sen.go.kr/crezone>)홈페이지

다) 시민디자인교육을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서울시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시설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창작활동에 참여하고 상호간 교육의 기회를 공유하는 문화예술 활동공간인 '마을예술창작소'가 운영 중이다.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총 44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다. 2017년 서베이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15개소가 증가한 것이다. 권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북2생활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에 10개소, 서북생활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8개소, 서남2생활권(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 6개소, 동남2생활권(송파구, 강동구)에 6개소 등이 분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3] 시민디자인교육 운영 지역공동체시설(마을예술창작소) 권역별 분포

(단위: 개)



* 출처: 마을예술창작소 (<http://artmasulso.net>)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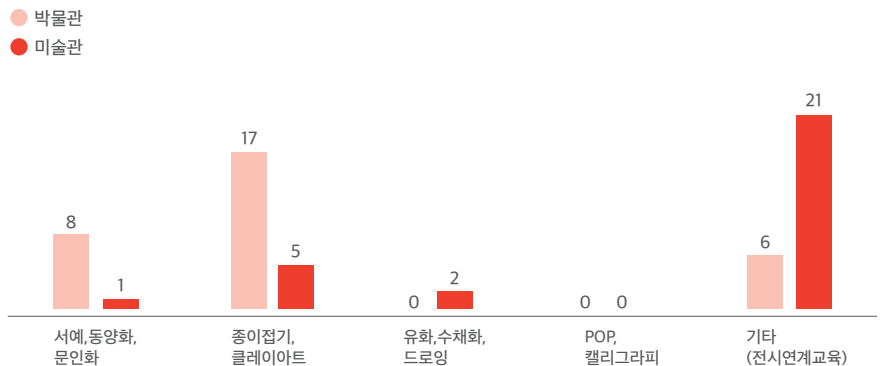
4-2-2.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

가) 문화기반시설이 운영하는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이 운영하는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구분하였는데,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은 총 60개로 확인되었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모형제작 활동이나 공예(종이접기, 클레이아트, 천연화장품 DIY, 목공 DIY, 도예, 공예 등) 프로그램이 17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기타 활동(전시연계교육, 미술이론, 무대미술, 미술워크샵, 도슨트 양성 등)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그림 4-4]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운영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분야별 분포

(단위: 프로그램 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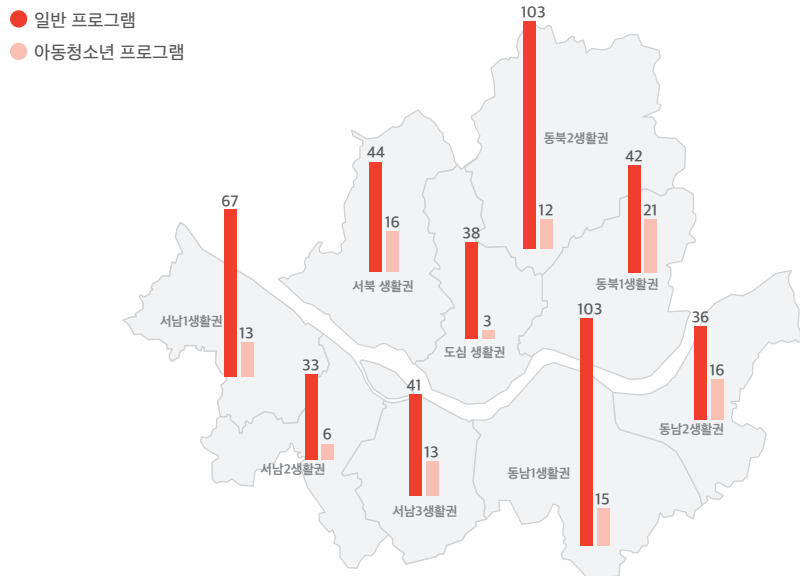
*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2018.11.30 기준) 정보를 재구성

나) 지역기반시설이 운영하는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

자치구 소재 평생학습관, 동 자치회관, 문화원 등 45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디자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622개로 파악되었고, 그 중 아동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은 115개로 나타났다(2018년 11월 운영강좌 기준). 이를 9개 권역별로 비교하면, 동남1생활권(강남구, 서초구)이 38개 기관에서 1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장 많았고, 동북2생활권(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이 74개 기관에서 1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뒤를 잇고 있다. 이어 서남1생활권(강서구, 양천구)이 80개, 동북1생활권(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이 63개로 그 뒤를 이었다. 운영기관의 수는 동북2생활권(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이 7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북1생활권(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이 69개, 도심권(용산구, 종로구, 중구)이 54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 중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18.5%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은 동북1생활권(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서북생활권(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과 동남2생활권(강동구, 송파구)이 각각 16개였다.

[그림 4-5] 지역기반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 지역별 분포

(단위: 프로그램 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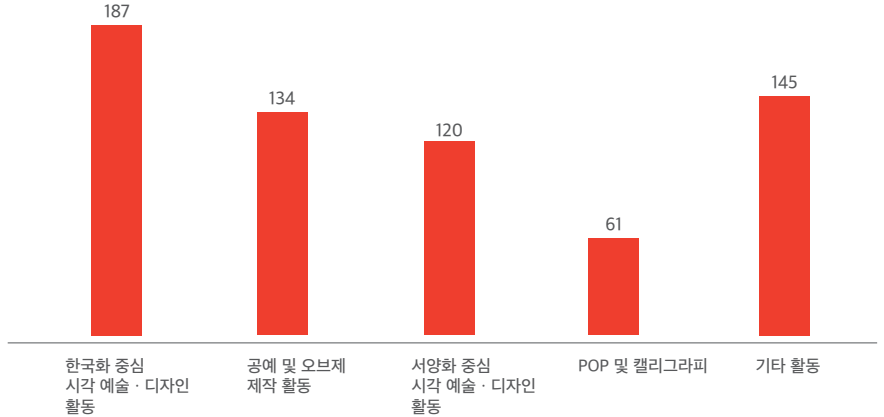


*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2018.11.30 기준) 정보를 재구성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한국화 중심 시각 예술·디자인 활동’(한글서예, 한문서예, 동양화, 문인화, 사군자, 수묵화 등) 프로그램이 187개로 가장 많았고, ‘공예 및 오브제 제작 활동’(종이접기, 클레이아트, 천연화장품 DIY, 목공 DIY, 도예, 공예 등) 프로그램이 134개, ‘서양화 중심 시각 예술·디자인 활동’(유화, 수채화, 드로잉, 스케치, 서양화 등) 프로그램이 120개, ‘POP와 캘리그래피’ 프로그램이 61개, 기타 활동(식물공예, 압화, 포토샵, 인테리어, 캐리커처 등) 프로그램이 145개 운영되고 있다.

[그림 4-6] 지역기반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 분야별 분포

(단위: 개)



*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2018.11.30 기준) 정보를 재구성

다) 생애주기 시민맞춤형 디자인교육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전문기관으로서 디자인문화 확산 및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자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 청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교육’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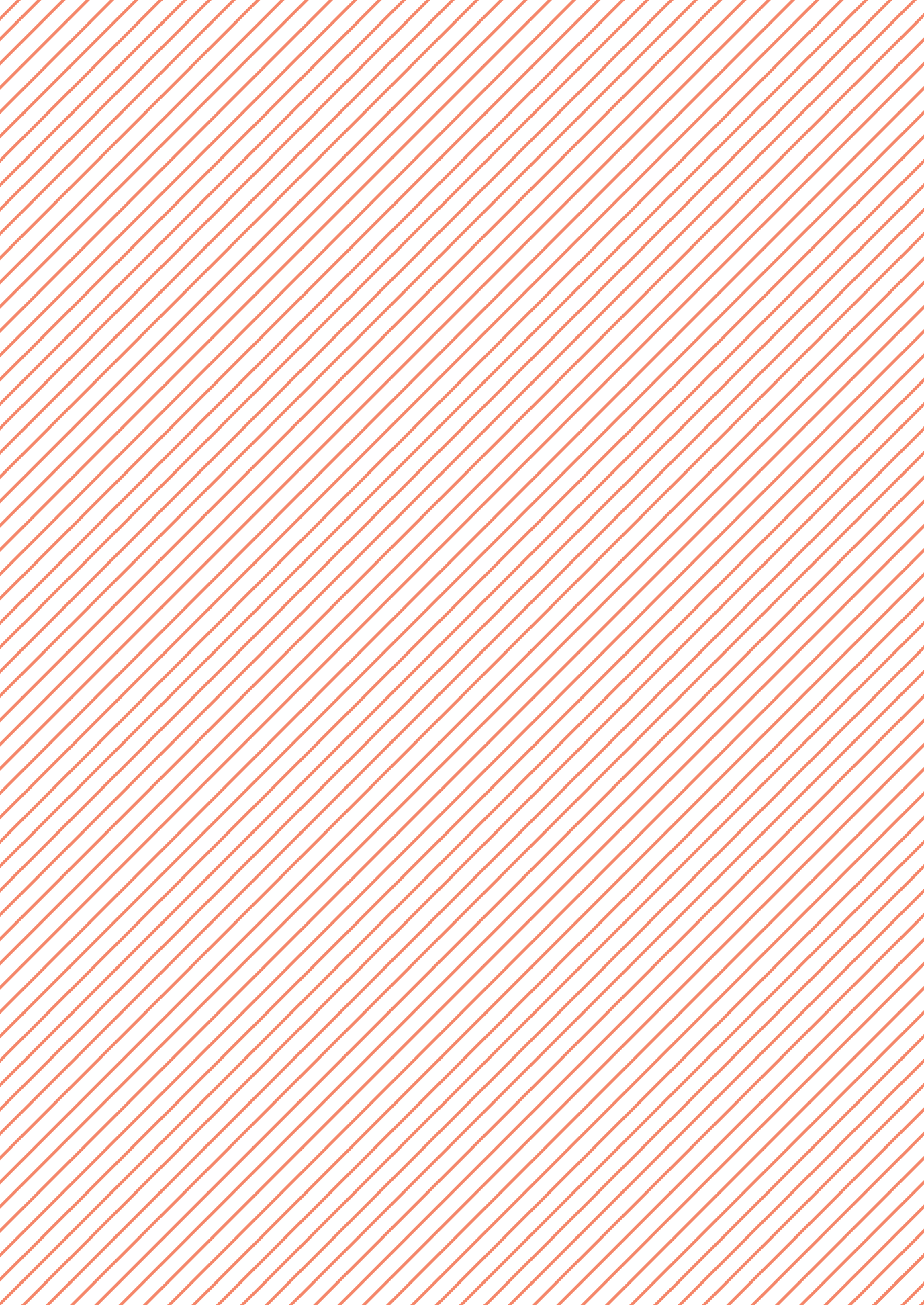
디자인 인식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별 디자인교육을 위해서는 ‘지역별 교육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서울디자인스타트업센터, G밸리 패션지원센터, U:US, 새활용플라자, DDP 등에 도심 내 디자인 캠퍼스를 조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디자인스타트업센터에서는 ‘디자인창업 원스톱 교육’ 지원을, G밸리 패션지원센터에서는 ‘지역브랜드 발굴 및 육성 교육’을, U:US에서는 ‘봉제 인재육성 및 창업’ 지원을, 새활용플라자에서는 ‘새활용과 자원순환 가치인식 확산교육’을, DDP에서는 ‘디자인 트렌드와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시민디자인교육의 확대는 청소년 프로그램 중심이었던 기존 운영전략을 생애주기별 시민 디자인교육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라이프스타일 강연·세미나, 디자인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직무연수 연계교육 등 시민 누구나 DDP 디자인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자세한 생애주기별 디자인교육은 [표 4-22]와 같다.

[표 4-22] 생애주기별 시민디자인교육

번호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시
1	생애주기별 디자인교육	어린이 디자인 체험	- 디자인 체험을 통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2018년 7월~12월
		청소년 멘토링 세미나	- 디자이너가 들려주는 진로탐색 강연 프로그램	2018년 1월~12월
		라이프 스타일 강연·세미나	- 서울디자인클라우드 기간 내 청년, 전문가 80인이 함께 만드는 상생 워크숍 프로그램 - 디자인에 관심 많은 일반 시민 대상 의/식/주 디자인 강연 프로그램	2018년 9~11월
2	민관 협력 디자인교육	현대자동차 디자인 역량 강화	- 디자인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연수 프로그램	2018년 2월
		교사직무연수 프랑스 문화 원 연계교육	- 디자인사고 확산을 위한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2018년 6~8 / 2019년 1월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제5장

디자인정책

5-1. 디자인 관련 제도

5-2. 디자인정책 추진

제5장 디자인정책

서울시는 ‘시민 삶이 편안해지는 디자인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디자인정책들을 개발·집행하고 있다(2018~2021년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계획). 정책의 목표는 크게 ‘일상 속 예술로 매력 있는 도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기업의 디자인 활용으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는 위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된 디자인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디자인 관련 제도’와 ‘디자인정책 추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디자인 관련 제도는 ‘디자인 조례 및 가이드라인’과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로 구분하여 각각 제도 현황과 운영횟수 및 안전 수를 조사하였다. 디자인정책 추진 영역에서는 ‘디자인정책 조직’, ‘디자인정책 인력’, ‘디자인정책 예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디자인정책 조직은 서울시 디자인 관련 부서와 자치구, 서울디자인재단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디자인정책 인력은 인원수와 전공, 근속연수, 고용형태를 조사하였다.

[표 5-1] 디자인 정책 지표체계

구분	영역	지표
디자인 관련 제도	디자인 조례 및 가이드라인	디자인 심의·지원제도 디자인 심의·지원제도 운영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제도 운영
디자인정책 추진	디자인정책 조직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 인력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 예산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디자인재단

5-1. 디자인 관련 제도

5-1-1. 디자인 조례 및 가이드라인

가) 디자인 심의·지원제도

디자인 관련 제도 중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심의·지원제도를 조사하였다. 디자인 심의·지원제도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해 전문위원에게 심의 및 자문을 받는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가 디자인을 지원하거나 평가하는 클리닉 및 인증제를 포함한다. 운영 주관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면, 디자인정책과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서울디자인클리닉, 서울우수공공디자인(SGPD) 인증제, 공공미술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도시빛정책과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제도별 내용과 근거 법령은 [표 5-2]와 같다.

[표 5-2] 서울특별시 디자인 심의·지원제도 현황

주관기관	디자인 심의·지원 제도	내용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도시디자인위원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반사항 정비 ·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협의 의무화 및 심의절차 준수 철저 · 도시디자인정책 발굴 및 연구 활성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 제14조
	서울디자인클리닉	· 전문가의 맞춤형 지도를 통한 영세 제조업체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지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서울우수공공디자인(SGPD) 인증제	· 우수공공디자인 보편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선정 및 영세 공공시설물 제조업체 대상 디자인 개발지원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률' 제21조와 관련 국가정책과 연계시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 철학 및 가치에 대한 방향 제시 · 공공미술 사업계획 등 심의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시행 2017.11.10)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공정한 감정·평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9조부터 제38조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광고물과 도시경관의 조화에 관한 사항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좋은빛위원회	· 조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심의 사항 ·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 출처: 각 주관기관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2018.11.30 기준

나) 디자인 심의·지원제도 운영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지원제도 중 도시디자인위원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SGPD) 인증제, 서울디자인클리닉,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좋은빛위원회 등의 총 운영횟수는 108회이며, 처리된 안건은 1019건이다. 각 제도별 운영횟수와 안건 수는 [표 5-3]과 같다.

[표 5-3] 서울특별시 디자인 심의·지원제도 현황

추진내용	추진횟수	안건 수	심의결과	승인률	기타
도시디자인위원회	23회	123건	동의 84, 동의 외 39	68.3%	
서울우수공공디자인(SGPD) 인증제	2회	206건	인증 88, 미 인증 118	42.7%	
서울디자인클리닉	2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단기클리닉 21회 집중클리닉 21회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10회	29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9회	493건	승인 174, 부결 319	35.3%	
옥외광고심의위원회	9회	37건	해당 없음	해당없음	안건 발생 시 개최
좋은빛위원회	43회	431건	동의 327, 동의 외 104	75.9%	

*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http://opengov.seoul.go.kr>), 2018.12.19 기준

5-1-2.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가)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제도 운영

서울시의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제도는 ‘디자인거버넌스’와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이 있다. 2017년 디자인거버넌스에 제안된 시민제안 건수는 95건이며, 그중 ‘한강공원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 디자인’ 등 총 4개의 제안이 반영되었다. 시민이 직접 서울에 숨겨져 있는 우수 공공미술 작품을 찾아 스토리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은 1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10개 워킹그룹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표 5-4]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제도 운영

(단위: 건)

제안창구	시민제안	반영	반영내용
디자인거버넌스	95	4	한강공원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 디자인(서초구) 뇌성마비 아동의 의복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마포구) 이웃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평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서비스디자인(강동구)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10개 성과물		100명의 시민 참여(남 28명, 여 72명, 17~73세, 평균 41세)

* 출처: 디자인거버넌스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sdg>), 2018.11.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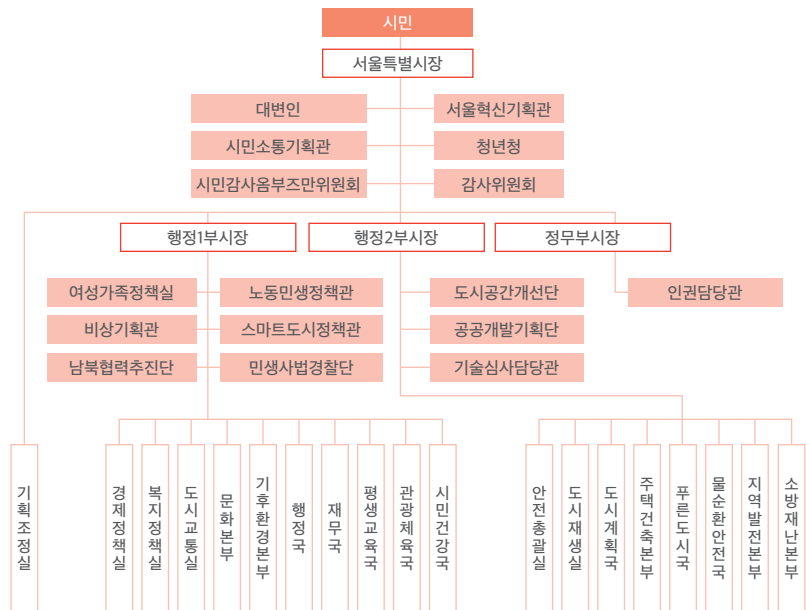
5-2. 디자인정책 추진

5-2-1. 디자인정책 조직

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전체 조직도는 [그림 5-1]과 같다. 이 중 디자인 관련 담당 부서는 문화본부 내 디자인정책과가 가장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국 등 다양한 부서가 협업을 통해 디자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5-1] 서울시청 조직도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org.seoul.go.kr>), 2019.1.12 기준

서울시의 디자인정책 조직(2018년 10월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본부’ 내 ‘디자인정책과’가 있고, 디자인정책과는 현재 5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에는 디자인기획팀, 디자인개발팀, 공공미술사업팀, 공공미술관리팀으로 운영되었으나, 2018년에 디자인정책팀, 공공디자인사업팀, 공공디자인관리팀, 공공미술사업팀, 공공미술관리팀으로 조직구성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2017년 ‘도시공간개선단’에 소속되었던 ‘공공디자인팀’이 2018년에는 디자인정책과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표 5-5]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 조직

과명	팀명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공공디자인사업팀
	공공디자인관리팀
	공공미술사업팀
	공공미술관리팀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2018.11.30 기준

나)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의 디자인정책 조직 조사를 위해서는 디자인 관련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조사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관리 및 담당하는 부서를 조사하였다. 2018년 12월 기준 자치구의 경우 강북구, 강동구, 서대문구에는 1개 이상의 디자인 관련 부서가 있었으며, 그 외 자치구는 각각 1개의 디자인 관련 부서를 설치·운영 중에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내에 디자인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도시디자인과’ 단위로 운영 중인 자치구는 강동구, 강서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이다.

[표 5-6] 서울특별시 자치구 디자인정책 조직(가나다 순)

연번	자치구	과명	팀명
1	강남구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2	강동구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 광고물1팀
3	강북구	건축과	건축관리팀 건축시설팀 공공시설팀
4	강서구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
5	관악구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팀
6	광진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7	구로구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8	금천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9	노원구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10	도봉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11	동대문구	건축과	디자인기획팀
12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안전도시기획팀
13	마포구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
14	서대문구	행정지원과 도시관리과	공공디자인팀 도시경관팀
15	서초구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16	성동구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17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18	송파구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
19	양천구	건축과	건축디자인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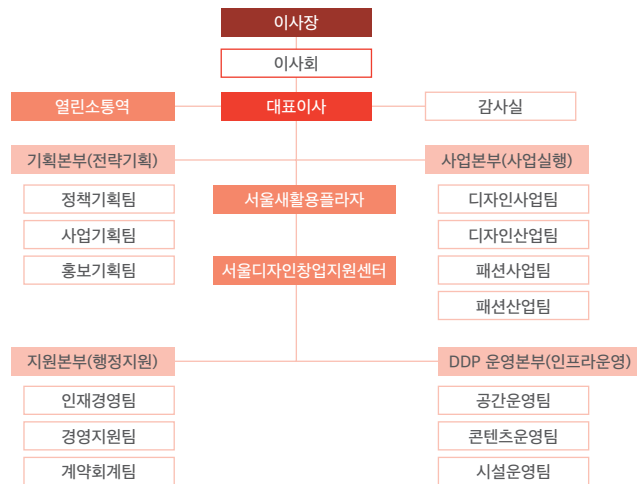
20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
21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
22	은평구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
23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24	중구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
25	중랑구	건축디자인과	디자인팀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2018.11.30 기준

다)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은 기획본부, 사업본부, DDP 운영본부, 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2월 기준), 직속기구로는 감사실,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서울디자인창업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본부는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정책기획팀, 사업기획 팀, 홍보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본부는 사업을 실행하는 본부로서 디자인사업 팀, 디자인산업팀, 패션사업팀, 패션산업팀 등 4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DDP 운영본부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공간운영팀, 콘텐츠운영팀, 시설운영팀이 속해 있고, 지원 본부는 행정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인재경영팀, 경영지원팀, 계약회계팀이 속해 있다. 직 속기구로는 감사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실,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콘텐츠기획과 공간 및 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가 있다. 그리고 디자인 창업 지원 관련 사 업기획 및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가 있다.

[그림 5-2] 서울디자인재단 조직도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design.or.kr>), 2018.11.30 기준

5-2-2. 디자인정책 인력

가) 서울특별시

① 임용등급별 인력구성

2017년 12월 기준 서울시 디자인 관련 부서의 인력은 32명으로, 2016년과 비교하여 1명이 증가하였다. 직급별 구성을 보면, 7급(임기제 전문직 포함)이 전체의 50.0%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5-7]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임용등급별 인력현황

(단위: 명)

과명	팀명	직급구분						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디자인정책과		1	-	-	-	-	-	1
	디자인정책팀	-	1	3	3	1	-	8
	공공디자인사업팀	-	1	2	3	1	-	7
	공공디자인관리팀	-	1	-	4	-	-	5
	공공미술사업팀	-	1	2	1	1	-	5
	공공미술관리팀	-	1	-	5	-	-	6
계		1	5	7	16	3	-	32

* 출처: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18년 12월 기준

② 전공별 인력현황

2018년 12월 기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인력은 32명으로서, 2017년과 비교하여 1명이 증가하였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인력 중 디자인 및 디자인 관련 전공자는 총 14명으로 전체 디자인 담당 인력의 43.8%를 차지한다. 디자인 및 디자인 관련 전공자는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공예, 순수미술, 건축 등 세부전공이 다양하다.

[표 5-8]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전공별 인력현황

(단위: 명)

과명	팀명	전공구분		총인원
		디자인	기타	
디자인정책과		-	1	1
	디자인정책팀	1	7	8
	공공디자인사업팀	6	1	7
	공공디자인관리팀	4	1	5
	공공미술사업팀	2	3	5
	공공미술관리팀	1	5	6
계		14	18	32

* 출처: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18년 12월 기준

③ 근속기간

서울시 디자인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인력 중 근속 근무기간이 가장 많은 경우는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가 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이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가 7명, 1년 미만인 근무자가 6명 등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자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근속기간이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5-9]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인력 근속기간

(단위: 명)

과명	팀명	근속기간						총인원
		1년 미만	1-2년	2-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디자인정책과		1	-	-	-	-	-	1
	디자인정책팀	1	2	3	-	1	1	8
	공공디자인사업팀	-	2	-	-	2	3	7
	공공디자인관리팀	1	-	-	-	3	1	5
	공공미술사업팀	1	1	2	1	-	-	5
	공공미술관리팀	2	3	-	-	1	-	6
합계		6	8	5	1	7	5	32

* 출처: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18년 12월 기준

④ 고용형태

서울시 디자인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인력 중 일반직은 21명, 임기제 전문직은 11명으로, 일반직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인력 고용형태

(단위: 명)

	일반직	임기제 전문직	합계
디자인정책과	21	11	32

나) 자치구

① 임용등급별 인력구성

임용등급이 파악된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의 인력(임기제 전문직 포함)을 살펴보면, 6급 24명(30.0%), 7급 36명(45.0%), 8급 12명(15.0%), 9급 8명(10.0%)으로서, 7급 인원이 가장 많다.

[표 5-11] 서울특별시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 임용등급별 인력현황

(단위: 명)

	직급구분				합계
	6급	7급	8급	9급	
자치구	24	36	12	8	80

* 출처: 각 자치구별 조사, 2018년 12월 기준
 * 송파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종로구, 구로구, 강서구, 서초구, 광진구, 성동구, 은평구, 강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중구, 금천구, 노원구, 영등포구, 송파구, 도봉구(조사에 참여한 자치구)의 디자인 관련 부서의 인력 현황을 종합

② 전공별 인력현황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 인력의 전공을 보면, 디자인 전공자는 총 24명으로 전체 인력의 30.0%를 차지하며, 순수미술 전공자는 2.5%, 건축/조경 전공자는 12.5%, 기타 전공자는 55.0%으로 나타난다. 순수미술과 건축·조경 전공자를 포함한 디자인 전공자는 총 36명으로 전체 인력의 30.0%이다.

[표 5-12] 서울특별시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 전공별 인력현황

(단위: 명)

	전공구분				합계
	디자인	순수미술	건축/조경	기타	
자치구	24	2	10	44	80

* 출처: 각 자치구별 조사, 2018년 12월 기준
 * 송파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종로구, 구로구, 강서구, 서초구, 광진구, 성동구, 은평구, 강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중구, 금천구, 노원구, 영등포구, 송파구, 도봉구(조사에 참여한 자치구)의 디자인 관련 부서의 인력 현황을 종합

③ 근속기간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인력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가 26.3%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으로 파악된다. 이는 공무원 순환근무제의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표 5-13] 서울특별시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 인력 근속기간

(단위: 명)

	근속기간						합계
	1년 미만	1-2년	2-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자치구	29	21	10	5	9	6	80

* 출처: 각 자치구별 조사, 2018년 12월 기준
 * 송파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종로구, 구로구, 강서구, 서초구, 광진구, 성동구, 은평구, 강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중구, 금천구, 노원구, 영등포구, 송파구, 도봉구(조사에 참여한 자치구)의 디자인 관련 부서의 인력 현황을 종합

④ 고용형태

서울시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인력 중 일반직은 73.8%, 임기제 전문직은 26.3%로 일반직의 비율이 더 높다.

[표 5-14] 서울특별시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 인력 고용형태

(단위: 명)

	일반직	임기제 전문직	합계
자치구	59	21	80

* 출처: 각 자치구별 조사, 2018년 12월 기준

* 송파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종로구, 구로구, 강서구, 서초구, 광진구, 성동구, 은평구, 강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중구, 금천구, 노원구, 영등포구, 송파구, 도봉구(조사에 참여한 자치구)의 디자인 관련 부서의 인력 현황을 종합

다) 서울디자인재단

① 전공별 인력현황

2018년 현재 서울디자인재단의 직원은 144명이며, 이 중 디자인 전공자는 총 41명으로 전체 인력의 28.5%를 차지한다. 순수미술과 건축·조경 전공자를 포함하면 86명이며, 전체 인력의 59.7%에 해당한다. 디자인전공자는 2016년 37%, 2017년 28.3%, 2018년 28.5%로 2016년에 비해서는 줄었으나 작년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순수미술과 건축·조경을 포함한 디자인 관련 인력의 경우에는 2016년 43.2%, 2017년 46.9%, 2018년 59.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5-15] 서울디자인재단 전공별 인력현황

(단위: 명)

	전공구분				총인원
	디자인	순수미술	건축/조경	기타	
서울디자인재단	41	3	14	86	144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2018.11.30 기준

② 근속기간

서울디자인재단에 근무하는 인력의 근속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2017년 51명, 2018년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 인력이 35명으로 확인되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 인력은 31명, 1년 미만은 12명, 2년 이상 3년 미만은 6명 순으로 나타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 인력은 2016년에 전체 인원의 32.2%에서 2017년 30.7%, 2018년 41.7%로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1년 미만 근속 인력이 24.6%로 두 번째로 많았던 데 비해, 2018년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 인력이 24.3%로 많아져 중장기 근속 인력 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표 5-16] 서울디자인재단 인력 근속기간

(단위: 명)

부서	근속기간						총인원
	1년 미만	1-2년	2-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서울디자인재단	12	31	6	35	60	-	144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2018.11.30 기준

③ 고용형태

서울디자인재단에 근무하는 인력 144명 중 일반직은 116명, 계약직은 28명이다. 계약직의 경우 2017년 전체 인력의 27.1%에 해당하였으나, 2018년 19.4%로 감소하였다.

[표 5-17] 서울디자인재단 인력 고용형태

(단위: 명)

	일반직+전문직	계약직	합계
서울디자인재단	116	28	144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2018.11.30 기준

5-2-3. 디자인정책 예산

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디자인 관련 조직인 디자인정책과에 배정된 2018년도 예산(서울디자인재단 운영예산 포함)은 452억9012만원이다. 2017년 예산은 418억3174만원, 2016년 예산은 332억8319만원으로 최근 3년간 디자인정책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5-18]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예산

(단위: 원)

	2016년	2017년	2018년
디자인정책과	33,283,196,000	41,831,740,000	45,290,122,000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2018.11.30 기준
*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예산 포함

나) 자치구

2018년 자치구 디자인 관련 부서에 배정된 총 예산은 71억3696만원(집계된 예산만 계산)이다. 자치구별 예산액은 [표 5-19]와 같다. 자치구별로 예산액의 차이가 큰 이유는 디자인 업무의 범위와 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총괄하는 업무 수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구에 따라 예산액이 집계되지 않은 자치구도 있으므로 자치구별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다.

[표 5-19] 자치구 디자인 전담부서(가나다 순)

(단위: 원)

연번	자치구	과명	팀명	2018년 예산
1	강남구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미상
2	강동구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	254,818,000
3	강북구	건축과	건축관리팀	미상
			건축시설팀	미상
			공공시설팀	미상
4	강서구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	66,200,000
5	관악구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팀	174,772,000
6	광진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0
7	구로구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3,640,000
8	금천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366,180,000
9	노원구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136,780,000
10	도봉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1,810,424,000
11	동대문구	건축과	디자인기획팀	380,000,000
12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안전도시기획팀	미상
13	마포구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	미상
		행정지원과	공공디자인팀	8,400,000
14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도시경관팀	3,770,000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852,100,000
15	서초구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163,340,000
16	성동구	도시재생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651,100,000
17	성북구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	213,210,000
18	송파구	건축과	건축디자인팀	0
19	양천구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	0
20	영등포구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	미상
21	용산구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	77,812,000
22	은평구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	71,100,000
23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디자인팀	249,500,000
24	중구	건축디자인과	디자인팀	1,653,816,000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2018년 12월 기준

다) 서울디자인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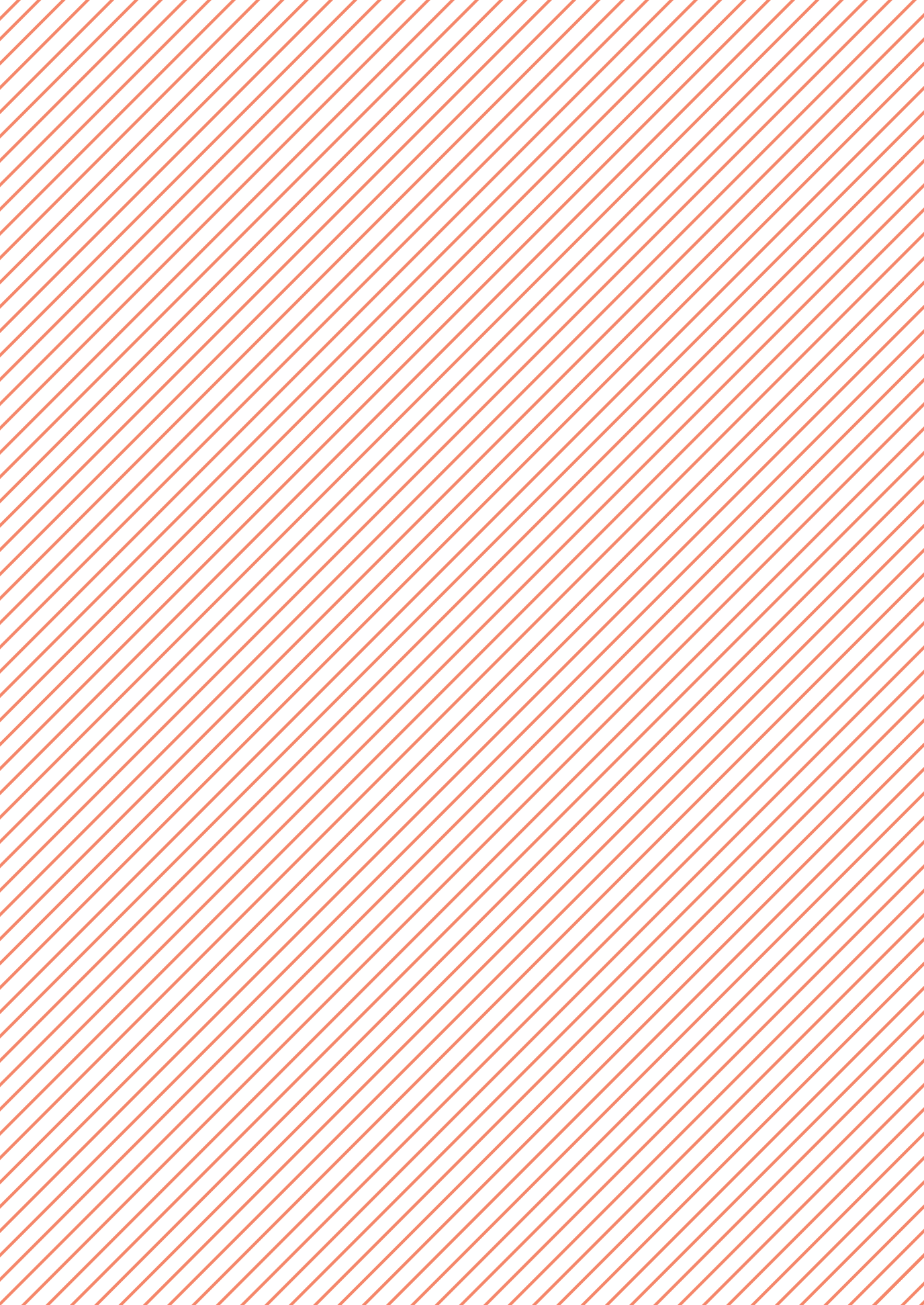
2018년 서울디자인재단에 배정된 디자인 사업예산(일반관리비 제외)은 400억2096만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패션봉제산업육성사업으로 41.6%를 차지하며, DDP운영사업 33.7%, 디자인기반사업 24.7% 순이다. 총 사업예산은 2016년 468억8241만원, 2017년 482억6662만원, 2018년 400억2096만원으로 변동이 있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구체적인 예산 현황은 [표 5-20]과 같다.

[표 5-20] 서울디자인재단 예산

(단위: 원)

구분	예산액
디자인기반사업	9,875,960,000
디자인생태계조성	6,521,960,000
시민디자인사업	3,354,000,000
패션봉제산업육성사업	16,641,000,000
패션기반산업지원 및 지원시설운영	15,641,000,000
패션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1,000,000,000
DDP 운영사업	13,504,000,000
시설안전안심운영관리	13,504,000,000
계	40,020,960,000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2018.10 기준 (일반관리비, 예비비 제외)



제6장

시민디자인의식조사

6-1. 조사 개요

6-2. 조사 결과

제6장 시민디자인의식조사

6-1. 조사 개요

시민디자인의식조사는 서울의 도시 및 공공 디자인의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민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만족도,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서울 시민이 느끼는 서울의 디자인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해 향후 서울의 디자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서울 시민의 디자인 인식과 만족 수준을 조사하여 ‘서울디자인’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설정하며, 행정통계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지표와 연계하는 것이 주요 지향점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향후 서울의 디자인 트렌드와 방향성을 예측(forecasting)하려는 시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업목표 중 하나이다.

6-1-1. 조사방법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방법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폐쇄형 질문 문항의 속성에 따라 예/아니요 혹은 4점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조사의 경우 ‘보통’을 집어넣어 5점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많으나, 본 조사의 경우 사안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기 위해 전년도와 같은 방식대로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6-1-2. 조사대상 및 기간

시민디자인의식조사는 2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 일반 시민

서울 거주 2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총 2,500명을 성·연령·자치구별 비례 할당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30일 ~ 12월 7일까지 8일 동안 진행하였다.

나) 디자인계 시민

전년도와 달리 2018년 의식조사에서는 일반 시민과 별도로 디자인 관련 그룹의 응답을 수

집하였다. 이는 디자인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설문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30일~12월 7일까지 8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한국디자인학회(KSDS) 및 한국산업디자인협회(KAID)의 도움으로 총 165명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본문 분량의 한계로 인해 조사 결과를 모두 그림 및 표로 나타내지는 않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과 큰 차이를 보이는 주요 의견에 한해 별도로 서술하였다.

6-1-3. 응답자 구성 및 세부사항

시민디자인의식조사는 서울시민을 모집단으로 한 조사와 디자인계를 모집단으로 한 조사로 구분된다. 서울시민 대상의 조사는 성·연령·지역 인구 비례로 할당된 표본으로 구성하였으며, 디자인계 대상의 조사는 학회 및 협회의 협조로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6-1] 시민디자인의식조사 응답자 구성 및 세부사항(일반 시민)

(단위: %)

특성		비율(%)
성별	남	49.6
	여	50.4
연령	20대	23.5
	30대	25.2
	40대	26.2
	50대 이상	25.0
서울 권역	서북생활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11.9
	도심생활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5.2
	동북 1생활권(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14.6
	동북 2생활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16.4
	서남 1생활권(강서구, 양천구)	10.8
	서남 2생활권(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10.4
	서남 3생활권(동작구, 관악구)	9.6
	동남 1생활권(강남구, 서초구)	10.0
	동남 2생활권(송파구, 강동구)	11.2
가구 소득 (월)*	300만원 미만	22.0
	300~499만원	32.4
	500만원 이상	45.6

직업	전문/관리/사무직	62.3
	판매서비스직	7.9
	기능/노무직	3.8
	주부	11.9
	학생	9.1
	퇴직/무직	4.9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0.9
	전문대 재/졸	13.7
	대재/졸	61.4
	대학원 재/졸	13.9

*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원활한 분석 및 해석을 위해 300만원 미만, 300~499만원,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함

[표 6-2] 시민디자인의식조사 응답자 구성 및 세부사항(디자인계 시민)

(단위: %)

특성		비율(%)
성별	남	37.6
	여	62.4
연령	20대	24.2
	30대	44.8
	40대	26.7
	50대 이상	4.2
서울 권역	서북생활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3.0
	도심생활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9.1
	동북 1생활권(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8.5
	동북 2생활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9.1
	서남 1생활권(강서구, 양천구)	11.5
	서남 2생활권(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4.8
	서남 3생활권(동작구, 관악구)	5.5
	동남 1생활권(강남구, 서초구)	18.2
	동남 2생활권(송파구, 강동구)	10.3
가구 소득(월)	300만원 미만	20.0
	300~499만원	26.7
	500만원 이상	53.3
직업	전문/관리/사무직	83.0
	판매서비스직	3.0
	기능/노무직	0.6
	학생	11.5
	퇴직/무직	1.8
	최종 학력	전문대 재/졸
	대재/졸	23.0
	대학원 재/졸	72.7
현재 디자인계 소속 여부	그렇다	85.9
	아니다*	14.1

*현재 디자인계 소속 여부의 '아니다'를 응답한 대상은 퇴직/무직, 휴직이거나 디자인 학회 및 산업디자인협회에 가입된 대상자 중 디자인계에 직접 소속되어 있지 않은 관심자 그룹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분석 시 응답 결과를 배제하지 않음

6-1-4. 자료처리방법

완료된 설문은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작업을 거쳐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해 분석(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2\%$)하였다.

6-1-5.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기본사항(인구통계적 속성), 디자인 관련 활동,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기본사항(인구통계적 속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가구소득, 디자인계 종사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디자인 관련 활동에서는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 디자인교육,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디자인 행사 방문과 참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관련한 질문 등으로 구성하였다.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에서는 공공시설물, 범죄예방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DDP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미술 사업,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 업사이클링 디자인, 공공 디자인,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인지도 및 중요도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의 미래 디자인을 선도할 키워드에 대해서도 시민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조사 내용 중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의식조사 결과 부분에서 다루었다.

의식조사의 완성도 및 타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진은 전년도 의식조사를 분석하여 다음의 사항을 개선하였다.

첫째, 일부 문항의 척도를 변경하였다. 척도 간의 대칭 개념을 더욱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보기를 ‘전적으로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로 변경하였다. 또한 전년도 의식조사에서 응답의 보기가 ‘만족 정도(매우 만족 - 약간 만족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또는 ‘필요 정도(매우 필요 - 약간 필요 - 약간 불필요 - 매우 불필요)’로 표현되어 있는 등 4점 척도가 각기 다르게 사용되었으나, 해당 문항을 수정함으로써 보기(전적으로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를 통일하였다. 이로 인해 ‘전적으로 그렇다’의 비율과 전년도 ‘매우 그렇다’의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대신,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긍정의 비율끼리(즉, ‘전적으로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비율 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비율)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전년도와의 연속 문항 중 보기가 수정되었거나 보다 명확한 검정이 필요한 문항의 경우 긍정과 부정의 차이를 빈도 수를 기준으로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 χ^2 -검정)을 수행하여 유의수준 0.01 기준으로 검증하였으며, 분석 내용에 이를 설명하였다.¹

¹ 긍정과 부정의 응답을 범주자료로 놓고 각 연도의 관찰도수와 기대도수(본 조사의 경우 2~3개년 관찰도수의 평균값)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χ^2 -검정으로 수행하였다. 기대도수란 귀무가설이 참일 때(즉, 연도별로 차이가 없을 때) 각 범주에 속하게 되는 관측값의 수에 대한 기댓값을 의미한다. 그 결과 도출된 χ^2 -통계량 값이 귀무가설을 기각(즉,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는 것)할 정도로 큰지를 판단하기 위해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을 설정한다. 본 연구는 유의수준을 0.01로 설정하여 그 미만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즉,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둘째, 전년도 의식조사 수행 시 5점 척도에서 보통의 척도를 제외한 4점 척도로 수정하였으나, 1개 문항(공공미술에 대한 만족도)이 '보통'의 척도가 포함된 5점 척도로 남아있었으므로 이를 다른 문항과 동일하게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이로 인해 보통이 포함되어 있었던 전년도 의식조사 결과와의 단순 비교를 통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의식조사 문항 중 '없음'의 응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2개 문항(여가·취미 활동으로 경험한 디자인 관련 활동, 향후 여가·취미 활동으로 희망하는 디자인 관련 활동) 중의 보기에 이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응답자의 일부가 전년도와는 달리 '없음'을 선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각 보기의 비율을 연도별로 단순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사업 및 정책의 변동으로 인해 1개 문항(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실시 중인 디자인 정책/사업 인지도)에서 기존 보기의 일부를 변경 및 추가하였다.

이상의 수정을 통해 의식 파악의 정확성과 의식 표현방식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2. 조사 결과

6-2-1. 디자인 관련 활동

가) 시민디자인교육

① 일반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교육 강좌 경험 여부

'일반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교육 강좌'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최근 1년간 디자인교육 강좌 경험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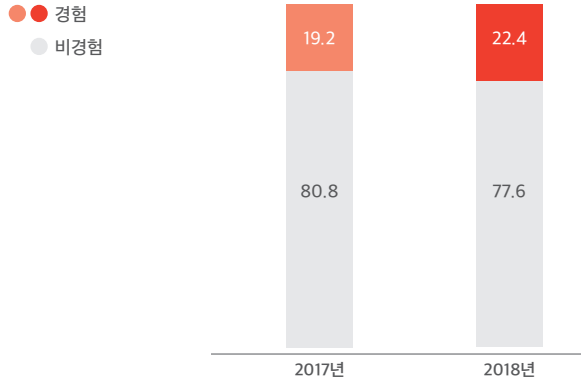
- 디자인(타이포그래피, 모형제작, 3D프린팅, 만화, 캐릭터, 편집디자인, 책 만들기, pop 제작 등) 교육
- 공예(목공예, 가죽공예, 도자공예, 패션소품 등) 교육
- 디자인·공예 이론 교육
- 디자인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최근 1년 이내 디자인교육 강좌를 수강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22.4%만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남성(22.4%)과 여성(22.3%)이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25.5%로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험 비율 역

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2%p 높은 수치이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남1생활권(강남구, 서초구)와 도심생활권(중구, 종로구, 용산구)의 유경험률이 다른 권역에 비해 다소 높게, 동북2생활권(노원구, 도봉구, 강동구)이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6-1] 최근 1년 내 일반 시민을 위한 디자인교육 강좌 수강 경험

(단위: %)



[표 6-3] 최근 1년 내 일반 시민을 위한 디자인교육 강좌 수강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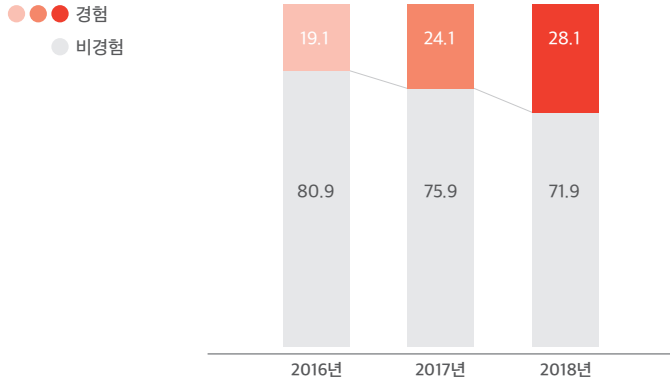
2018년		(Base)	경험	비경험
전체		(2500)	22.4	77.6
성별	남	(1241)	22.4	77.6
	여	(1259)	22.3	77.7
연령	20대	(588)	25.5	74.5
	30대	(631)	25.5	74.5
	40대	(655)	20.3	79.7
	50대이상	(626)	18.4	81.6
서울 권역	서북생활권	(297)	23.2	76.8
	도심생활권	(129)	25.6	74.4
	동북1생활권	(365)	21.4	78.6
	동북2생활권	(411)	19.2	80.8
	서남1생활권	(270)	25.2	74.8
	서남2생활권	(259)	19.7	80.3
	서남3생활권	(239)	22.6	77.4
	동남1생활권	(249)	28.9	71.1
동남2생활권	(281)	19.6	80.4	
일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미만	(549)	16.8	83.2
	300~499만원	(811)	24.9	75.1
	500만원이상	(1140)	23.2	76.8

최근 3년 이내로 시간적 범위를 넓혀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조사결과 전체의 28.1%가 수강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으며, 여성(28.8%)이 남성(27.5%)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별로

는 20~30대, 서남1생활권과 동남1생활권 거주자 층에서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다. 또한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경험률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0%p 높은 수치이다.

[그림 6-2] 최근 3년 내 일반 시민을 위한 디자인교육 강좌 수강 경험

(단위: %)



[표 6-4] 최근 3년 내 일반 시민을 위한 디자인교육 강좌 수강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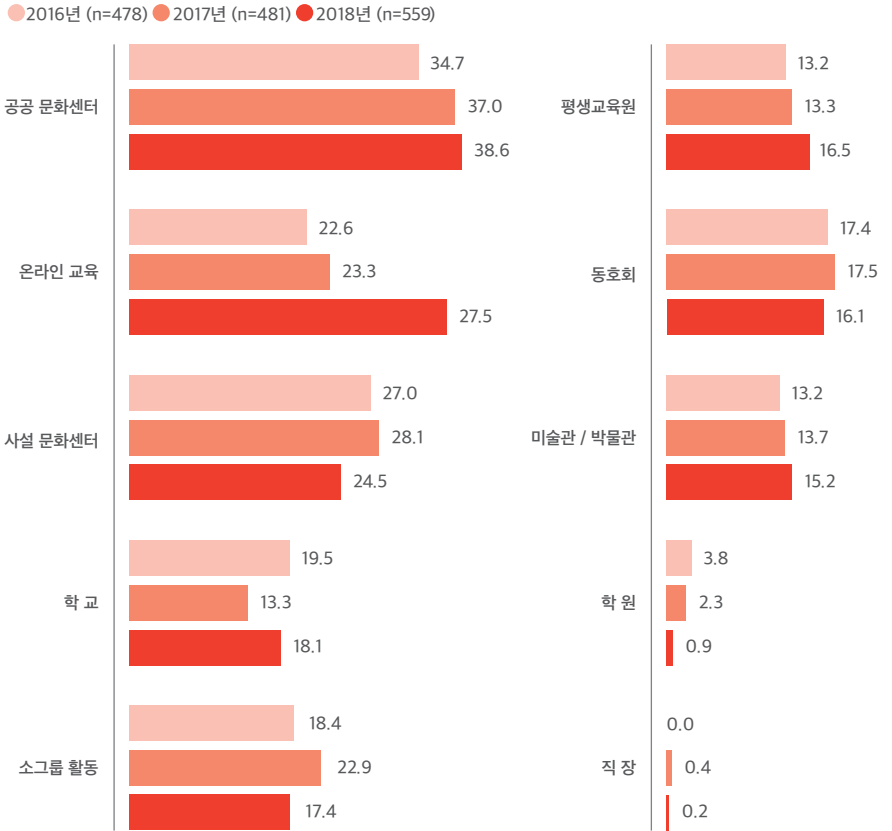
2018년		(Base)	경험	비경험
전체		(2500)	28.1	71.9
성별	남	(1241)	27.5	72.5
	여	(1259)	28.8	71.2
연령	20대	(588)	32.3	67.7
	30대	(631)	31.4	68.6
	40대	(655)	25.3	74.7
	50대 이상	(626)	23.8	76.2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27.3	72.7
	도심생활권	(129)	31.0	69.0
	동북1생활권	(365)	26.8	73.2
	동북2생활권	(411)	26.3	73.7
	서남1생활권	(270)	31.5	68.5
	서남2생활권	(259)	25.9	74.1
	서남3생활권	(239)	27.2	72.8
	동남1생활권	(249)	34.9	65.1
	동남2생활권	(281)	25.6	74.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21.1	78.9
	300~499만원	(811)	30.6	69.4
	500만원 이상	(1140)	29.7	70.3

② 디자인 교육 수강처

최근 1년 동안 디자인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강처를 조사한 결과, ‘공공 문화센터’(38.6%), ‘온라인 교육’(27.5%), ‘사설 문화센터’(2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공공문화센터’, ‘온라인 교육’, ‘학교에서의 디자인 교육’은 소폭 증가한 반면, ‘사설 문화센터’, ‘소그룹 활동’에서의 디자인 교육은 소폭 하락하였다.

[그림 6-3] 디자인 교육 수강처

(단위: %)



[표 6-5] 디자인교육 수강처

(단위: %)

2018년		(Base)	공공 문화 센터	온라인 교육	사설 문화 센터	학교	소그룹 활동	평생 교육 원	동호회	미술관/ 박물관	학원	직장
전체		(559)	38.6	27.5	24.5	18.1	17.4	16.5	16.1	15.2	0.9	0.2
성별	남	(278)	35.3	34.9	20.1	20.9	14.0	17.3	23.7	16.9	0.7	0.0
	여	(281)	42.0	20.3	28.8	15.3	20.6	15.7	8.5	13.5	1.1	0.4
연령	20대	(150)	24.0	26.0	15.3	40.7	20.0	11.3	12.7	14.0	1.3	0.7
	30대	(161)	37.9	33.5	31.1	13.0	17.4	16.8	21.1	22.4	1.2	0.0
	40대	(133)	46.6	27.1	24.1	7.5	12.8	16.5	17.3	14.3	0.8	0.0
	50대 이상	(115)	49.6	21.7	27.8	7.8	19.1	22.6	12.2	7.8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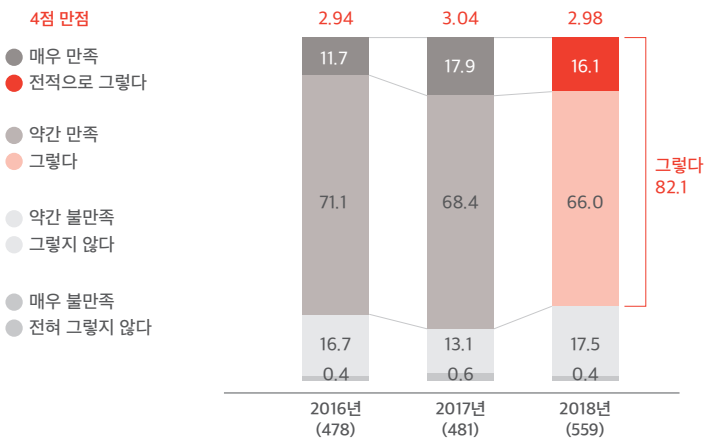
2018년		(Base)	공공 문화 센터	온라인 교육	사설 문화 센터	학교	소그룹 활동	평생 교육 원	동호회	미술관/ 박물관	학원	직장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69)	29.0	31.9	34.8	13.0	15.9	11.6	17.4	11.6	0.0	0.0
	도심생활권	(33)	30.3	33.3	15.2	18.2	27.3	24.2	12.1	21.2	0.0	0.0
	동북1생활권	(78)	50.0	23.1	26.9	20.5	21.8	17.9	20.5	14.1	2.6	0.0
	동북2생활권	(79)	36.7	30.4	21.5	16.5	17.7	17.7	12.7	8.9	1.3	0.0
	서남1생활권	(68)	39.7	29.4	20.6	19.1	19.1	11.8	13.2	16.2	1.5	0.0
	서남2생활권	(51)	41.2	35.3	25.5	25.5	7.8	15.7	11.8	11.8	0.0	0.0
	서남3생활권	(54)	24.1	24.1	24.1	16.7	20.4	24.1	24.1	22.2	0.0	0.0
	동남1생활권	(72)	38.9	22.2	25.0	20.8	12.5	15.3	12.5	20.8	1.4	0.0
	동남2생활권	(55)	52.7	21.8	21.8	12.7	16.4	14.5	20.0	14.5	0.0	1.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92)	29.3	31.5	17.4	23.9	13.0	18.5	14.1	16.3	2.2	0.0
	300~499 만원	(202)	37.1	30.7	22.3	13.9	18.8	16.3	18.3	11.4	0.0	0.0
	500만원 이상	(265)	43.0	23.8	28.7	19.2	17.7	15.8	15.1	17.7	1.1	0.4

③ 디자인교육 만족도

그렇다면, 시민들은 위와 같은 디자인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까? 디자인교육 관련 수강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시민 대상 디자인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6.1%가 '전적으로 그렇다'를 66.0%는 '그렇다'를 선택하여, 전체의 82.1%가 교육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특히, 남성과 2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예년 대비 만족도는 82.8%(16년) → 86.3%(17년) → 82.1%(18년)로 전년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나,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0.16).

[그림 6-4] 디자인교육 만족도

(단위: %)



[표 6-6] 디자인교육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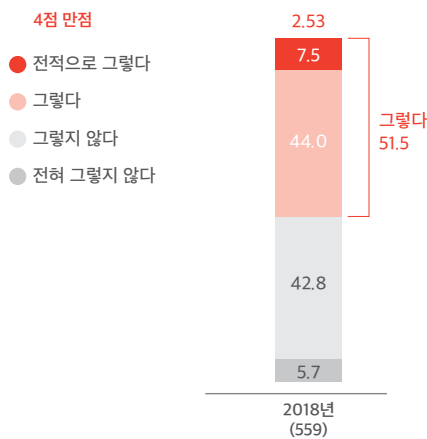
2018년		(Base)	만족	불만족	4점 만점
전체		(559)	82.1	17.9	2.98
성별	남	(278)	83.1	16.9	2.99
	여	(281)	81.1	18.9	2.96
연령	20대	(150)	86.7	13.3	3.08
	30대	(161)	82.6	17.4	2.99
	40대	(133)	80.5	19.5	2.92
	50대 이상	(115)	77.4	22.6	2.90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69)	85.5	14.5	3.06
	도심생활권	(33)	81.8	18.2	3.03
	동북1생활권	(78)	78.2	21.8	2.87
	동북2생활권	(79)	82.3	17.7	2.94
	서남1생활권	(68)	91.2	8.8	3.07
	서남2생활권	(51)	92.2	7.8	3.08
	서남3생활권	(54)	72.2	27.8	2.89
	동남1생활권	(72)	81.9	18.1	3.00
	동남2생활권	(55)	72.7	27.3	2.9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92)	81.5	18.5	2.99
	300~499만원	(202)	80.2	19.8	2.95
	500만원 이상	(265)	83.8	16.2	3.00

④ 디자인교육이 시민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교육 관련 수강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디자인교육이 시민들의 디자인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 조사 결과, 7.5%는 ‘전적으로 그렇다’, 44.0%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남성과 20대 및 30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를 표시했다.

[그림 6-5] 디자인교육이 시민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표 6-7] 디자인교육이 시민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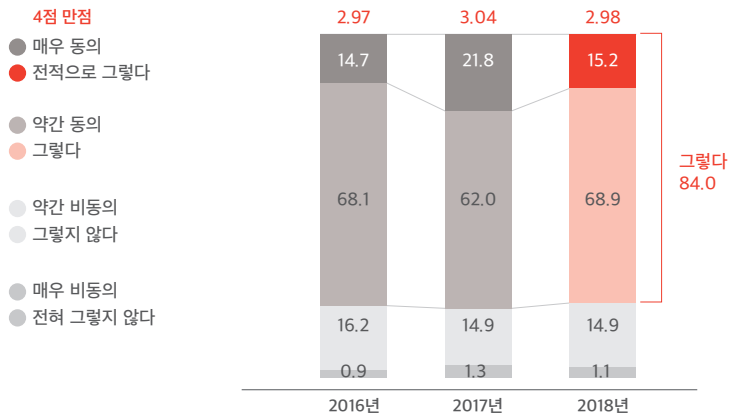
2018년		(Base)	동의	비동의	4점 만점
전체		(559)	51.5	48.5	2.53
성별	남	(278)	59.4	40.6	2.64
	여	(281)	43.8	56.2	2.43
연령	20대	(150)	55.3	44.7	2.64
	30대	(161)	55.3	44.7	2.59
	40대	(133)	46.6	53.4	2.44
	50대 이상	(115)	47.0	53.0	2.43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69)	58.0	42.0	2.57
	도심생활권	(33)	54.5	45.5	2.61
	동북1생활권	(78)	53.8	46.2	2.54
	동북2생활권	(79)	48.1	51.9	2.54
	서남1생활권	(68)	51.5	48.5	2.49
	서남2생활권	(51)	56.9	43.1	2.55
	서남3생활권	(54)	48.1	51.9	2.46
	동남1생활권	(72)	48.6	51.4	2.56
	동남2생활권	(55)	45.5	54.5	2.5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92)	47.8	52.2	2.48
	300~499만원	(202)	53.0	47.0	2.55
	500만원 이상	(265)	51.7	48.3	2.54

⑤ 디자인교육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교육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 조사 결과, 15.2%는 '전적으로 그렇다', 68.9%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년 대비 평균은 감소하였으나 '동의'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여성, 20대 및 50대 이상, 그리고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평가 비율은 예년 대비 82.8%(16년) → 83.8%(17년) → 84%(18년)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0.47).

[그림 6-6] 디자인교육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표 6-8] 디자인 교육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단위: %)

2018년		(Base)	동의	비동의	4점 만점
전체		(2500)	84.0	16.0	2.98
성별	남	(1241)	83.0	17.0	2.96
	여	(1259)	85.1	14.9	3.01
연령	20대	(588)	86.2	13.8	3.04
	30대	(631)	83.0	17.0	2.99
	40대	(655)	80.9	19.1	2.90
	50대 이상	(626)	86.3	13.7	3.01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84.2	15.8	3.00
	도심생활권	(129)	85.3	14.7	2.98
	동북1생활권	(365)	84.4	15.6	2.98
	동북2생활권	(411)	84.2	15.8	2.97
	서남1생활권	(270)	84.1	15.9	2.96
	서남2생활권	(259)	80.7	19.3	2.97
	서남3생활권	(239)	85.4	14.6	3.00
	동남1생활권	(249)	86.7	13.3	3.03
	동남2생활권	(281)	82.2	17.8	2.95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81.4	18.6	2.97
	300~499만원	(811)	83.5	16.5	2.96
	500만원 이상	(1140)	85.7	14.3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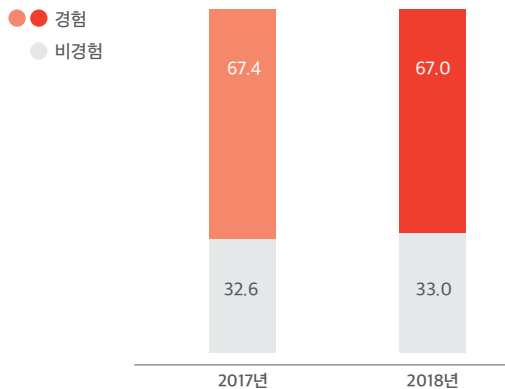
나) 디자인 관련 시설

①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

디자인 관련 시설(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복합문화전시관, 전문도서관, DDP 등)의 최근 1년 방문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의 67.0%가 최근 1년 내 디자인 관련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남자(64.5%)보다 여자(69.5%)가, 그리고 20대(78.4%)와 30대(73.7%)가 방문 경험이 많았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높아졌다.

[그림 6-7] 최근 1년 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

(단위: %)



[표 6-9] 최근 1년 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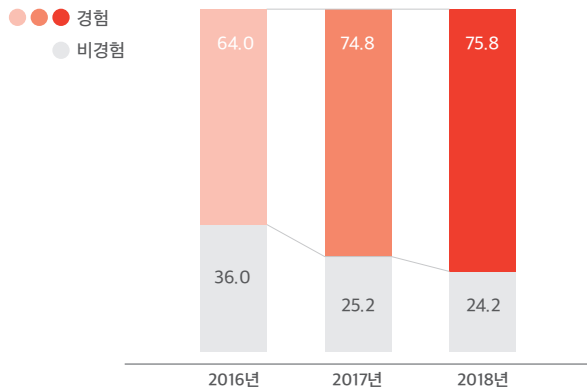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경험	비경험
전체		(2500)	67.0	33.0
성별	남	(1241)	64.5	35.5
	여	(1259)	69.5	30.5
연령	20대	(588)	78.4	21.6
	30대	(631)	73.7	26.3
	40대	(655)	61.7	38.3
	50대 이상	(626)	55.1	44.9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66.3	33.7
	도심생활권	(129)	74.4	25.6
	동북1생활권	(365)	68.2	31.8
	동북2생활권	(411)	66.9	33.1
	서남1생활권	(270)	65.6	34.4
	서남2생활권	(259)	61.4	38.6
	서남3생활권	(239)	63.6	36.4
	동남1생활권	(249)	73.5	26.5
월평균 가구 소득	동남2생활권	(281)	66.5	33.5
	300만원 미만	(549)	57.4	42.6
	300~499만원	(811)	67.7	32.3
	500만원 이상	(1140)	71.1	28.9

1년 이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에게 '3년 이내'로 그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75.8%가 최근 3년 이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p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여성, 낮은 연령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이 많았다.

[그림 6-8] 최근 3년 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

(단위: %)



[표 6-10] 최근 3년 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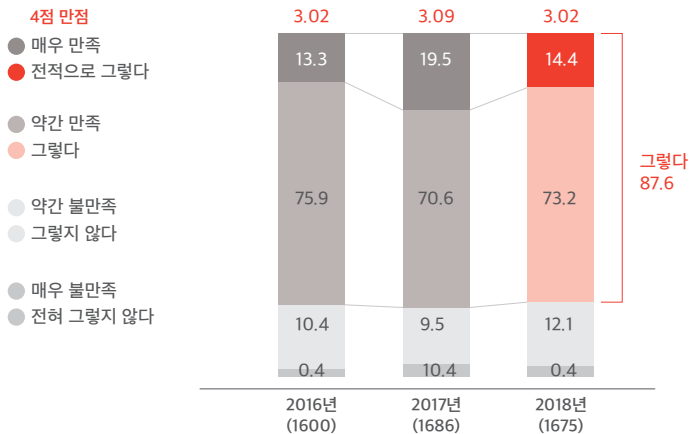
2018년		(Base)	경험	비경험
전체		(2500)	75.8	24.2
성별	남	(1241)	71.7	28.3
	여	(1259)	79.8	20.2
연령	20대	(588)	85.0	15.0
	30대	(631)	81.0	19.0
	40대	(655)	70.5	29.5
	50대 이상	(626)	67.4	32.6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76.4	23.6
	도심생활권	(129)	80.6	19.4
	동북1생활권	(365)	76.2	23.8
	동북2생활권	(411)	75.9	24.1
	서남1생활권	(270)	75.9	24.1
	서남2생활권	(259)	69.5	30.5
	서남3생활권	(239)	73.6	26.4
	동남1생활권	(249)	80.7	19.3
	동남2생활권	(281)	75.4	24.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66.7	33.3
	300~499만원	(811)	76.2	23.8
	500만원 이상	(1140)	79.9	20.1

② 디자인 관련 시설 만족도

마지막으로,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을 이용하면서 느낀 만족도를 물었다. 전반적인 경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6%는 ‘만족’을 표시했으며, 동남1생활권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예년 대비 만족도가 89.2%(16년) → 90.1%(17년) → 87.6%(18년)로 전년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나,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0.06).

[그림 6-9]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만족도

(단위: %)



[표 6-11]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만족도

(단위: %)

2018년		(Base)	만족	불만족	4점 만점
전체		(1675)	87.6	12.4	3.02
성별	남	(800)	88.1	11.9	3.03
	여	(875)	87.1	12.9	3.01
연령	20대	(461)	88.5	11.5	3.09
	30대	(465)	88.4	11.6	3.02
	40대	(404)	86.6	13.4	2.98
	50대 이상	(345)	86.4	13.6	2.95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197)	85.8	14.2	3.01
	도심생활권	(96)	82.3	17.7	2.99
	동북1생활권	(249)	87.1	12.9	3.00
	동북2생활권	(275)	86.9	13.1	3.06
	서남1생활권	(177)	89.8	10.2	3.01
	서남2생활권	(159)	88.7	11.3	3.03
	서남3생활권	(152)	88.2	11.8	3.05
	동남1생활권	(183)	92.3	7.7	3.04
동남2생활권	(187)	85.6	14.4	2.95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15)	89.5	10.5	3.10
	300~499만원	(549)	85.8	14.2	2.98
	500만원 이상	(811)	88.0	12.0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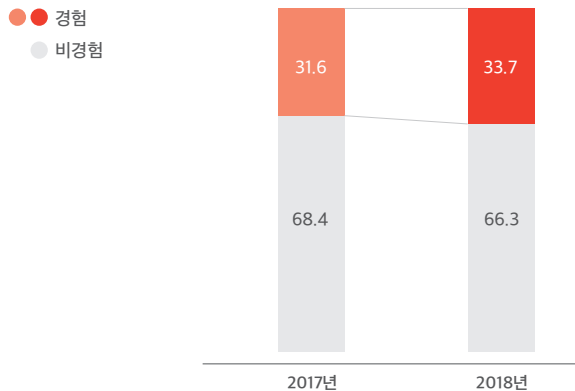
다) 디자인 관련 행사

① 디자인 관련 행사 방문·참여 경험 여부

최근 1년 이내 서울의 디자인 행사(디자인 박람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패션위크, 서울디자인위크, 하우징페어 등) 참여 경험을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33.7%는 최근 1년 이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행사에 방문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전년 대비 2.1%p 증가한 수치이다. 30대와 소득이 높아질수록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0] 최근 1년 내 디자인 행사 방문·참여 경험 여부

(단위: %)



[표 6-12] 최근 1년 내 디자인 행사 방문·참여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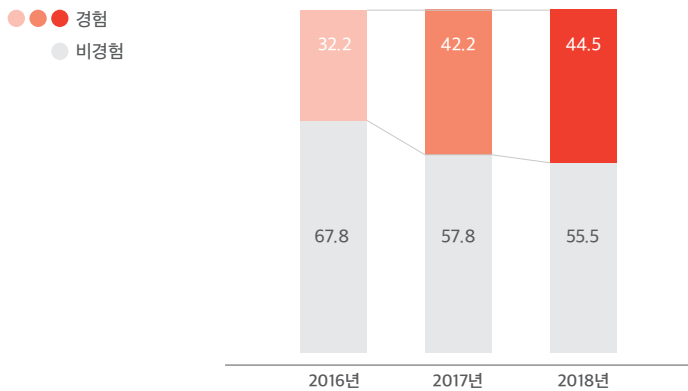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경험	비경험
전체		(2500)	33.7	66.3
성별	남	(1241)	34.4	65.6
	여	(1259)	33.0	67.0
연령	20대	(588)	34.2	65.8
	30대	(631)	37.4	62.6
	40대	(655)	31.3	68.7
	50대 이상	(626)	32.1	67.9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30.6	69.4
	도심생활권	(129)	34.9	65.1
	동북1생활권	(365)	35.6	64.4
	동북2생활권	(411)	26.8	73.2
	서남1생활권	(270)	34.8	65.2
	서남2생활권	(259)	32.8	67.2
	서남3생활권	(239)	31.8	68.2
	동남1생활권	(249)	47.4	52.6
월평균 가구 소득	동남2생활권	(281)	33.5	66.5
	300만원 미만	(549)	28.1	71.9
	300~499만원	(811)	31.9	68.1
	500만원 이상	(1140)	37.7	62.3

1년 이내 서울의 디자인 행사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에게 3년 이내로 그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다시 질문을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44.5%가 최근 3년 이내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 방문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p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30대, 서남1생활권과 동남1생활권 거주자,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참여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1] 최근 3년 내 디자인 행사 방문·참여 경험 여부

(단위: %)



[표 6-13] 최근 3년 내 디자인 행사 방문·참여 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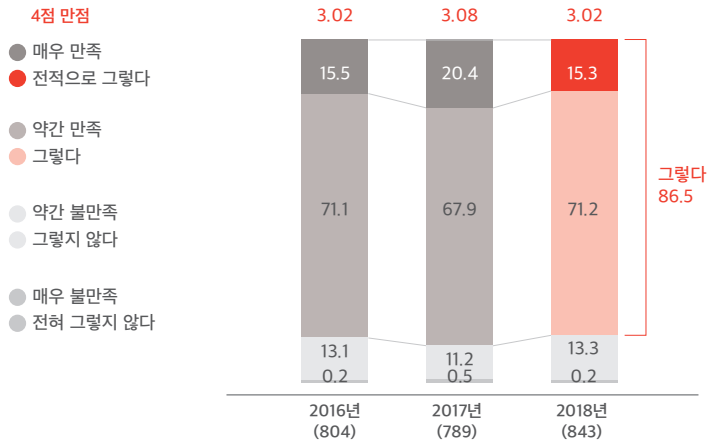
2018년		(Base)	경험	비경험
전체		(2500)	44.5	55.5
성별	남	(1241)	43.0	57.0
	여	(1259)	46.0	54.0
연령	20대	(588)	44.6	55.4
	30대	(631)	48.8	51.2
	40대	(655)	41.5	58.5
	50대 이상	(626)	43.3	56.7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46.8	53.2
	도심생활권	(129)	45.7	54.3
	동북1생활권	(365)	46.3	53.7
	동북2생활권	(411)	35.3	64.7
	서남1생활권	(270)	48.5	51.5
	서남2생활권	(259)	40.5	59.5
	서남3생활권	(239)	43.5	56.5
	동남1생활권	(249)	54.6	45.4
월평균 가구 소득	동남2생활권	(281)	44.5	55.5
	300만원 미만	(549)	36.1	63.9
	300~499만원	(811)	44.3	55.7
	500만원 이상	(1140)	48.8	51.2

② 디자인 관련 행사 만족도

서울의 디자인 관련 행사를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행사의 만족도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86.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8%p 하락한 수치이다. 긍정 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예년 대비 만족도는 86.6%(16년) → 88.3%(17년) → 86.5%(18년)로 전년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나,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0.48).

[그림 6-12] 디자인 관련 행사 만족도

(단위: %)



[표 6-14] 디자인 관련 행사 만족도

(단위: %)

2018년		(Base)	만족	불만족	4점 만점
전체		(843)	86.5	13.5	3.02
성별	남	(427)	88.8	11.2	3.06
	여	(416)	84.1	15.9	2.97
연령	20대	(201)	82.6	17.4	3.05
	30대	(236)	89.0	11.0	3.06
	40대	(205)	83.4	16.6	2.92
	50대 이상	(201)	90.5	9.5	3.03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91)	81.3	18.7	2.95
	도심생활권	(45)	75.6	24.4	2.84
	동북1생활권	(130)	89.2	10.8	3.01
	동북2생활권	(110)	90.0	10.0	3.09
	서남1생활권	(94)	86.2	13.8	3.07
	서남2생활권	(85)	83.5	16.5	2.96
	서남3생활권	(76)	89.5	10.5	3.05
	동남1생활권	(118)	91.5	8.5	3.05
	동남2생활권	(94)	83.0	17.0	3.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54)	89.0	11.0	3.06
	300~499만원	(259)	84.9	15.1	3.00
	500만원 이상	(430)	86.5	13.5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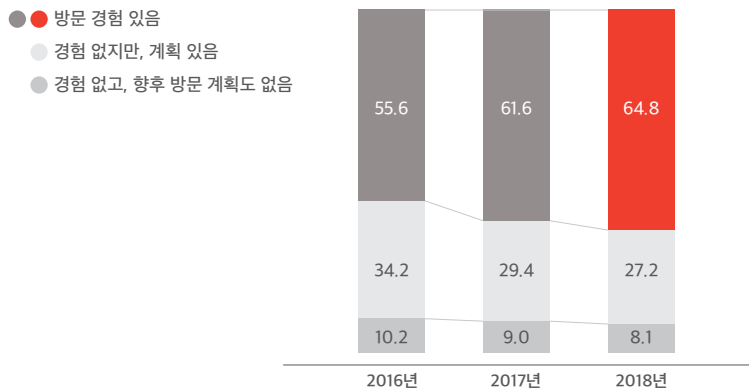
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여부

2014년 3월에 개관한 복합문화·디자인 공간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방문한 경험 이 있는지를 물었다. 64.8%는 방문 경험이 있었고, 27.2%는 방문한 경험은 없지만 향후 방문 계획이 있었다. 20대의 75.3%는 방문 경험이 있었으며, 여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방문 경험이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3.2%p 상승한 수치이다.

[그림 6-13]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여부

(단위: %)



[표 6-15]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여부 및 방문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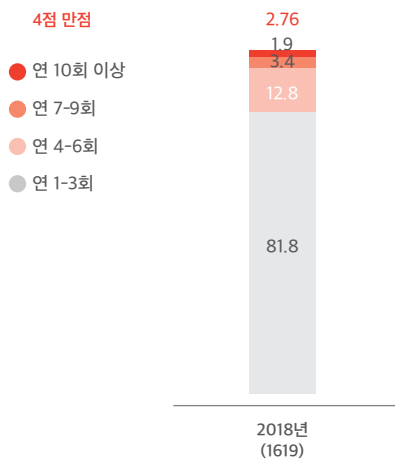
2018년		(Base)	방문 경험 있음	경험은 없지만, 계획 있음	경험 없고, 향후 방문 계획도 없음
전체		(2500)	64.8	27.2	8.1
성별	남	(1241)	60.8	29.3	9.9
	여	(1259)	68.6	25.1	6.3
연령	20대	(588)	75.3	17.2	7.5
	30대	(631)	69.6	25.0	5.4
	40대	(655)	58.2	31.5	10.4
	50대 이상	(626)	56.9	34.2	8.9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70.0	23.6	6.4
	도심생활권	(129)	76.0	19.4	4.7
	동북1생활권	(365)	67.9	23.3	8.8
	동북2생활권	(411)	66.2	26.0	7.8
	서남1생활권	(270)	61.5	30.4	8.1
	서남2생활권	(259)	56.8	31.7	11.6
	서남3생활권	(239)	61.1	28.0	10.9
	동남1생활권	(249)	63.5	30.1	6.4
	동남2생활권	(281)	62.6	30.6	6.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58.5	29.5	12.0
	300~499만원	(811)	66.1	26.3	7.6
	500만원 이상	(1140)	66.8	26.7	6.5

②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연간 방문 횟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한 사람의 81.3%는 연 1-3회 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평균 빈도수는 2.76회였으며, 20대가 3.04회로 가장 높았고, 도심생활권이 3.47회로 가장 높았다.

[그림 6-14] 연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횟수

(단위: %)



[표 6-16]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연간 방문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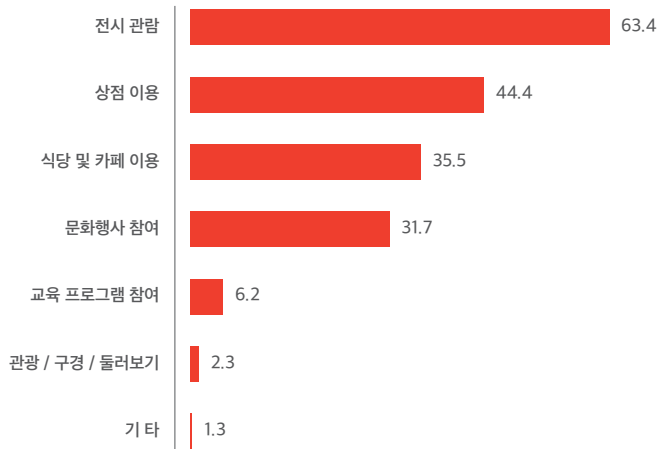
2018년		(Base)	10회 이상	7~9회	4~6회	1~3회	평균(회)
전체		(1619)	1.9	3.4	12.8	81.8	2.76
성별	남	(755)	1.9	3.6	12.5	82.1	2.75
	여	(864)	2.0	3.2	13.2	81.6	2.77
연령	20대	(443)	2.9	4.3	17.4	75.4	3.04
	30대	(439)	1.4	3.6	13.4	81.5	2.74
	40대	(381)	0.8	2.9	10.5	85.8	2.56
	50대 이상	(356)	2.5	2.5	9.0	86.0	2.65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08)	1.9	3.8	12.0	82.2	2.76
	도심생활권	(98)	4.1	5.1	26.5	64.3	3.47
	동북1생활권	(248)	0.8	4.0	12.9	82.3	2.70
	동북2생활권	(272)	1.8	5.5	13.2	79.4	2.89
	서남1생활권	(166)	1.2	2.4	8.4	88.0	2.51
	서남2생활권	(147)	2.0	2.0	9.5	86.4	2.59
	서남3생활권	(146)	2.7	2.1	11.6	83.6	2.72
	동남1생활권	(158)	2.5	2.5	10.8	84.2	2.70
	동남2생활권	(176)	1.7	1.7	15.3	81.3	2.7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21)	1.6	3.4	12.8	82.2	2.73
	300~499만원	(536)	1.9	2.8	11.8	83.6	2.69
	500만원 이상	(762)	2.1	3.8	13.6	80.4	2.83

③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목적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한 사람의 방문 목적은 ‘전시 관람’이 63.4%로 가장 높았으며, ‘상점 이용(44.4%)’, ‘식당 및 카페 이용(35.5%)’, ‘문화행사 참여(3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DDP를 방문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점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약속 장소, 업무, 데이트, 경유지 장소 등이 있었다.

[그림 6-15]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목적

(단위: %)



[표 6-17]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목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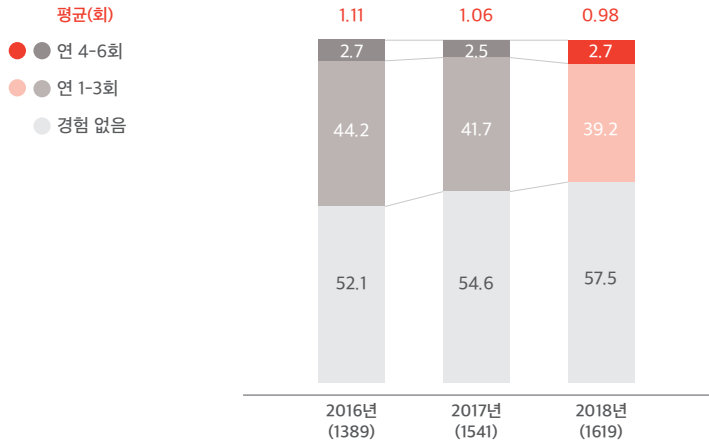
2018년		(Base)	전시관람	상점이용	식당 및 카페 이용	문화행사 참여	교육 프로그램 참여	관광/구경/둘러보기	기타
전체		(1619)	63.4	44.4	35.5	31.7	6.2	2.3	1.3
성별	남	(755)	63.6	41.5	33.0	33.9	7.9	2.9	1.7
	여	(864)	63.3	47.0	37.6	29.7	4.7	1.9	0.9
연령	20대	(443)	66.4	42.9	36.1	32.3	5.9	2.5	1.6
	30대	(439)	64.2	44.0	39.6	34.2	7.1	3.0	1.6
	40대	(381)	63.3	40.4	33.9	32.5	6.8	2.1	1.3
	50대 이상	(356)	59.0	51.1	31.2	27.0	5.1	1.7	0.6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08)	64.9	46.6	34.6	26.4	6.3	2.4	1.0
	도심생활권	(98)	61.2	51.0	43.9	35.7	8.2	2.0	0.0
	동북1생활권	(248)	61.7	44.4	37.9	30.6	6.0	3.2	0.8
	동북2생활권	(272)	61.0	43.0	37.1	33.5	4.4	2.6	1.1
	서남1생활권	(166)	62.0	39.2	34.3	35.5	4.8	1.8	1.8
	서남2생활권	(147)	66.0	38.1	29.9	34.0	8.2	2.0	0.7
	서남3생활권	(146)	69.9	46.6	28.8	27.4	8.9	2.7	3.4
	동남1생활권	(158)	65.8	35.4	34.2	38.0	7.0	1.9	0.6
동남2생활권	(176)	60.8	56.8	38.1	26.7	5.1	1.7	2.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21)	59.2	46.4	36.1	28.3	4.4	2.5	2.8
	300~499만원	(536)	60.6	43.8	30.6	34.1	6.3	2.4	1.3
	500만원 이상	(762)	67.2	44.0	38.6	31.4	7.0	2.2	0.7

④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디자인 관련 행사 참여 경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한 응답자에게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 디자인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대상기간 없이 측정하였다. 그 결과, 42.5%가 디자인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참여 횟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39.2%)의 응답자가 1-3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경험자의 평균 디자인 관련 행사 참여 빈도는 0.98회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사 경험 및 참여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 대비 참여율은 47.9%(16년) → 45.4%(17년) → 42.5%(18년)로 감소하고 있으나,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0.012).

[그림 6-16]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디자인 관련 행사 참여 여부

(단위: %)



[표 6-18]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디자인 관련 행사 참여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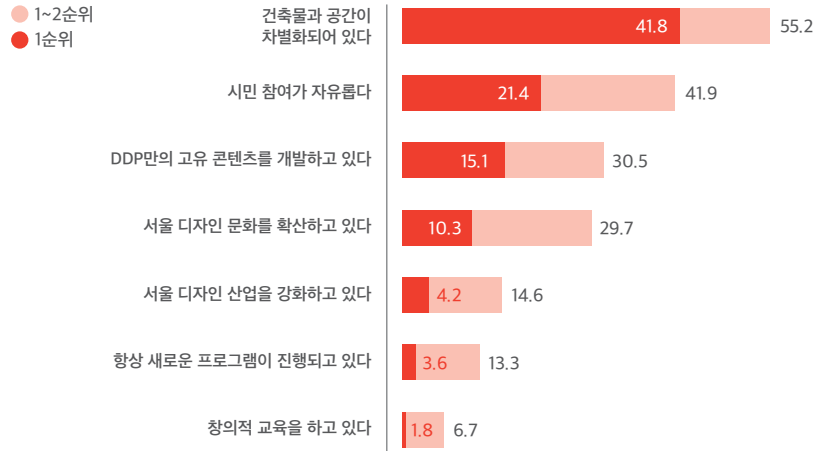
2018년		(Base)	10회 이상	7~9회	4~6회	1~3회	행사참여 경험 없다	평균(회)
전체		(1619)	0.4	0.3	2.7	39.2	57.5	0.98
성별	남	(755)	0.8	0.7	2.9	43.6	52.1	1.14
	여	(864)	0.0	0.0	2.4	35.3	62.3	0.83
연령	20대	(443)	0.5	0.5	4.3	40.2	54.6	1.09
	30대	(439)	0.7	0.0	3.2	38.3	57.9	1.00
	40대	(381)	0.0	0.5	1.6	41.5	56.4	0.94
	50대 이상	(356)	0.3	0.3	1.1	36.5	61.8	0.83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08)	0.0	0.0	1.9	36.5	61.5	0.83
	도심생활권	(98)	0.0	1.0	7.1	39.8	52.0	1.21
	동북1생활권	(248)	0.4	0.4	2.0	38.7	58.5	0.94
	동북2생활권	(272)	0.0	0.4	3.3	39.7	56.6	0.98
	서남1생활권	(166)	0.6	0.0	3.0	41.0	55.4	1.04
	서남2생활권	(147)	0.7	0.0	1.4	41.5	56.5	0.97
	서남3생활권	(146)	0.7	0.7	2.1	39.0	57.5	1.00
	동남1생활권	(158)	0.6	0.6	3.8	39.2	55.7	1.08
동남2생활권	(176)	0.6	0.0	1.1	38.1	60.2	0.8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21)	0.0	0.0	3.4	33.0	63.6	0.83
	300~499만원	(536)	0.4	0.4	2.1	39.4	57.8	0.95
	500만원 이상	(762)	0.5	0.4	2.8	41.6	54.7	1.05

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차별적 특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차별적 특성으로는 '건축물과 공간이 차별화되어 있음(41.8%)', '시민 참여가 자유로움(21.4%)', 'DDP만의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15.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17]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차별적 특성

(단위: %)



[표 6-19]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차별적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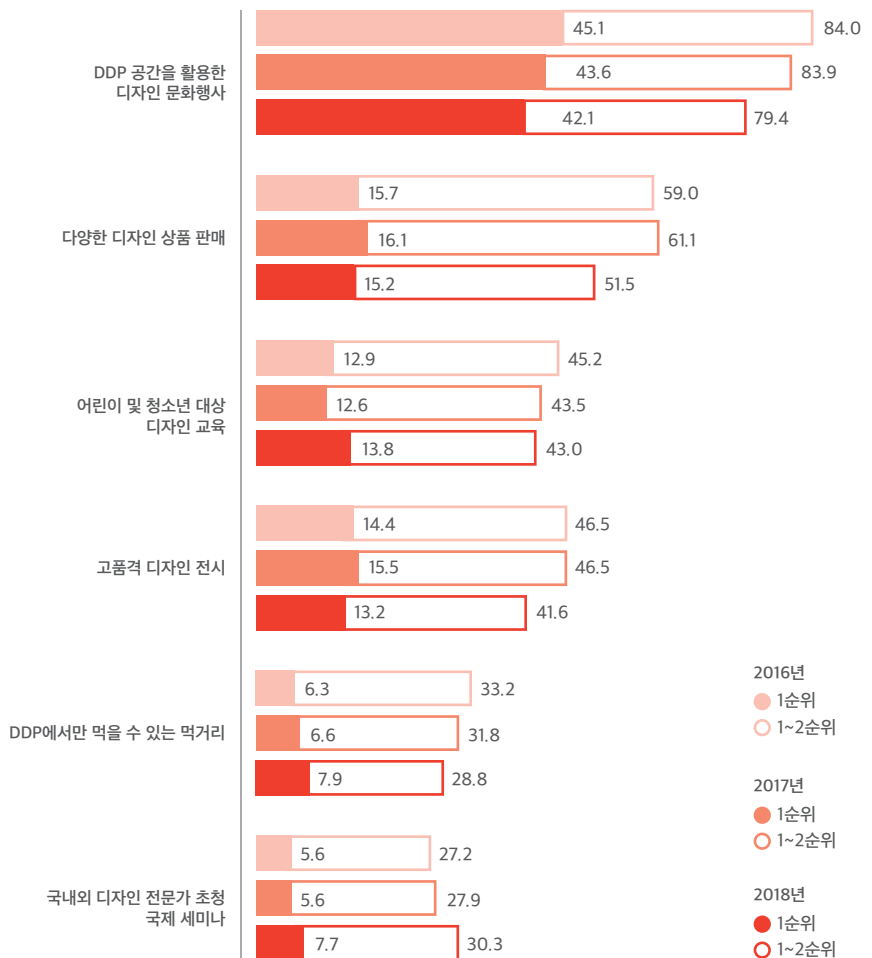
2018년 1순위 기준		(Base)	건축물/공간 차별화	시민 참여가 자유로움	고유 콘텐츠 개발	디자인 문화 확산	디자인 산업 강화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	창의적 교육
전체		(2500)	41.8	21.4	15.1	10.3	4.2	3.6	1.8
성별	남	(1241)	43.1	19.7	15.8	10.2	3.8	2.9	2.1
	여	(1259)	40.5	23.0	14.5	10.3	4.6	4.4	1.6
연령	20대	(588)	42.5	20.6	16.0	10.2	4.8	4.3	1.0
	30대	(631)	43.1	23.1	14.7	10.0	2.2	3.5	1.9
	40대	(655)	40.3	19.4	16.6	10.4	4.4	4.1	2.1
	50대 이상	(626)	41.4	22.4	13.1	10.5	5.4	2.7	2.2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44.8	18.9	16.2	10.4	4.0	2.4	2.0
	도심생활권	(129)	45.7	20.2	10.1	11.6	6.2	2.3	1.6
	동북1생활권	(365)	42.2	23.8	14.0	8.2	2.7	4.4	2.2
	동북2생활권	(411)	40.9	23.1	14.6	10.9	3.2	4.4	1.5
	서남1생활권	(270)	38.5	24.1	20.0	7.4	2.2	4.1	1.9
	서남2생활권	(259)	40.2	23.6	13.9	10.8	5.0	3.5	1.2
	서남3생활권	(239)	43.5	15.1	17.6	12.6	5.0	4.2	.8
	동남1생활권	(249)	40.6	16.9	17.7	13.3	4.0	3.6	2.0
동남2생활권	(281)	42.0	23.5	10.7	8.9	7.5	2.8	3.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41.0	23.1	12.8	11.7	4.2	3.3	1.5
	300~499만원	(811)	40.8	21.6	17.1	9.7	3.3	4.8	1.5
	500만원 이상	(1140)	42.9	20.4	14.8	10.0	4.8	3.0	2.3

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필요한 프로그램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시민들에게 6가지 예시를 주고, 3순위까지를 선택하게 했다. 1순위를 기준으로, 시민들은 ‘디자인문화행사(42.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양한 디자인 상품 판매(15.2%)’,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디자인 교육(13.8%)’, ‘고품격 디자인 전시(13.2%)’, ‘DDP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7.9%)’,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7.7%)’의 순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의 선호를 밝혔다. 여성, 20대는 ‘디자인 문화행사’를, 50대 이상은 ‘다양한 디자인 상품판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디자인 교육’이 ‘고품격 디자인 전시’보다 높아졌다.

[그림 6-18]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단위: %)



[표 6-2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단위: %)

2018년 1순위 기준		(Base)	DDP 공간을 활용한 디자인 문화행사	다양한 디자인 상품 판매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디자인 교육	고품격 디자인 전시	DDP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전체		(2500)	42.1	15.2	13.8	13.2	7.9	7.7
성별	남	(1241)	37.2	15.3	14.5	14.8	9.0	9.1
	여	(1259)	46.9	15.2	13.2	11.6	6.8	6.4
연령	20대	(588)	45.2	15.3	7.8	12.9	10.7	8.0
	30대	(631)	39.8	13.6	15.5	13.0	10.1	7.9
	40대	(655)	40.5	13.1	21.1	12.1	6.6	6.7
	50대 이상	(626)	43.3	19.0	10.2	14.9	4.3	8.3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39.4	17.5	11.8	14.1	10.1	7.1
	도심생활권	(129)	40.3	16.3	11.6	15.5	8.5	7.8
	동북1생활권	(365)	45.2	17.0	11.8	12.1	6.8	7.1
	동북2생활권	(411)	39.7	15.6	15.6	14.4	8.0	6.8
	서남1생활권	(270)	42.2	14.1	15.6	11.1	6.3	10.7
	서남2생활권	(259)	40.9	13.1	14.3	12.0	7.7	12.0
	서남3생활권	(239)	38.9	14.2	14.6	17.6	7.9	6.7
	동남1생활권	(249)	44.6	12.4	16.5	11.2	7.6	7.6
동남2생활권	(281)	47.0	16.0	12.1	12.1	8.2	4.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41.9	16.4	12.0	13.7	8.2	7.8
	300~499만원	(811)	41.9	14.4	14.3	13.3	8.0	8.0
	500만원 이상	(1140)	42.4	15.3	14.4	12.9	7.6	7.5

특별히 DDP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시민의 응답과 디자인계 시민 응답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1순위를 기준으로 디자인계 시민 응답은 다음과 같다. ‘DDP 공간을 활용한 디자인 문화행사(40.0%)’, ‘고품격 디자인 전시(21.2%)’,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20.6%)’, ‘다양한 디자인 상품 판매(7.9%)’,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디자인 교육(7.3%)’, ‘DDP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3.0%)’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DDP 공간을 활용한 디자인 문화행사’,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다양한 디자인 상품 판매’를 선호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품격 디자인 전시’를, 연령이 낮아질수록 ‘DDP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디자인계 시민들은 ‘고품격 디자인 전시’나,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등을 높이 요구한 반면, 일반 시민들은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디자인 교육’, ‘DDP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등을 선호했다.

마) 디자인과 여가

① 여가·취미 활동으로 경험한 디자인 관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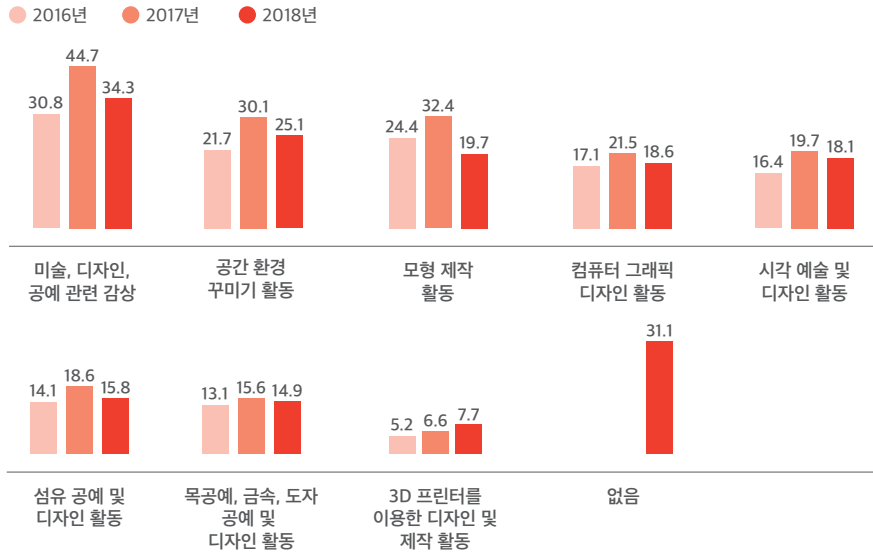
시민들이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활동으로 행한 것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지난 1년간 디자인 관련 활동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디자인 관련 활동은 활동 방법 및 활용 재료 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시각 예술 및 디자인 활동(서양화 및 동양화, 드로잉, 컬러링, 서예, 캘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등)
- 나무·금속·도자 공예 및 디자인 활동(도예, 가구 제작, 가구 리폼, 주얼리 디자인 등)
- 섬유 공예 및 디자인 활동(직물 염색, 퀼트, 뜨개질, 패션디자인, 패션소품 등)
- 모형 제작 활동(장난감 조립, 프라모델 제작, 피규어 제작 등)
-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조명 관련, 꽃꽂이, 가드닝,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등)
-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활동(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캐릭터 제작 등)
-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자인 및 제작 활동
- 미술, 디자인, 공예 관련 감상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 대상 시민의 31.3%는 여가·취미 활동으로 경험한 디자인 관련 활동이 없었다. 이를 제외한 시민들은 ‘미술, 디자인, 공예 관련 감상(34.3%)’을 여가·취미활동으로 가장 많이 즐겼고,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25.1%)’, ‘모형 제작 활동(19.7%)’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문항 내에 ‘없음’을 삽입하였기에 전반적인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순위로 볼 때 전년도에 비해 ‘모형 제작 활동’보다는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를 인구통계적 속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미술, 디자인, 공예 관련 감상 활동(30.5%)’과 ‘모형 제작 활동(25.5%)’,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활동(22.7%)’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미술, 디자인 공예 관련 감상(38.0%)’,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31.8%)’, ‘섬유 공예 및 디자인 활동(23.7%)’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미술, 디자인 공예 감상과 모형제작활동’,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아졌다.

[그림 6-19] 여가, 취미 활동으로 경험한 디자인 활동

(단위: %)



[표 6-21] 여가, 취미 활동으로 경험한 디자인 관련 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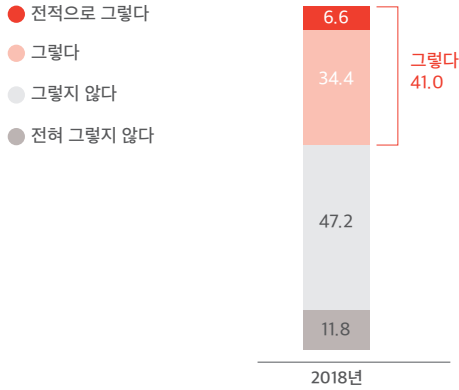
2018년		(Base)	미술, 디자인, 공예 관련 감상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	모형 제작 활동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활동	시각 예술 및 디자인 활동	섬유 공예 및 디자인 활동	나무·금속·도자 공예 및 디자인 활동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자인 및 제작 활동	없음
전체		(2500)	34.3	25.1	19.7	18.6	18.1	15.8	14.9	7.7	31.1
성별	남	(1241)	30.5	18.3	25.5	22.7	14.5	7.8	15.4	11.1	32.8
	여	(1259)	38.0	31.8	14.1	14.6	21.7	23.7	14.5	4.4	29.5
연령	20대	(588)	40.1	25.7	25.5	26.4	23.8	16.5	14.1	11.1	21.1
	30대	(631)	37.2	27.4	24.2	21.1	20.4	16.6	15.2	7.0	27.1
	40대	(655)	30.5	23.8	19.5	16.5	14.7	14.5	14.4	7.5	35.6
	50대 이상	(626)	29.7	23.5	9.9	11.2	14.1	15.7	16.0	5.6	39.9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31.6	24.9	17.8	16.8	16.5	14.1	14.5	7.7	34.3
	도심생활권	(129)	41.1	32.6	18.6	18.6	18.6	19.4	13.2	7.0	26.4
	동북1생활권	(365)	34.0	23.3	19.7	21.9	17.8	16.7	13.7	7.1	31.0
	동북2생활권	(411)	33.1	23.8	20.4	17.5	18.7	13.6	13.1	6.3	31.1
	서남1생활권	(270)	34.4	27.8	19.6	19.6	18.1	18.1	13.7	7.4	30.7
	서남2생활권	(259)	32.0	19.7	18.9	20.1	19.3	16.6	16.2	8.1	32.4
	서남3생활권	(239)	29.7	26.4	18.8	20.5	20.5	13.4	19.2	7.9	31.8
	동남1생활권	(249)	38.2	26.9	23.7	16.9	19.7	18.1	16.5	12.0	25.7
동남2생활권	(281)	38.4	25.6	19.2	15.7	14.6	14.9	15.3	6.8	33.5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30.1	18.9	16.2	20.2	17.7	12.6	13.3	7.1	38.4
	300~499만원	(811)	31.6	27.5	20.0	20.2	18.0	15.0	14.5	7.4	30.3
	500만원 이상	(1140)	38.2	26.3	21.2	16.8	18.4	17.9	16.0	8.2	28.2

② 디자인 관련 여가·취미 활동 빈도

시민들의 디자인 관련 여가 및 취미 활동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을 자주한다는 응답은 41.0%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을 자주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그림 6-20]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 빈도

(단위: %)



[표 6-22]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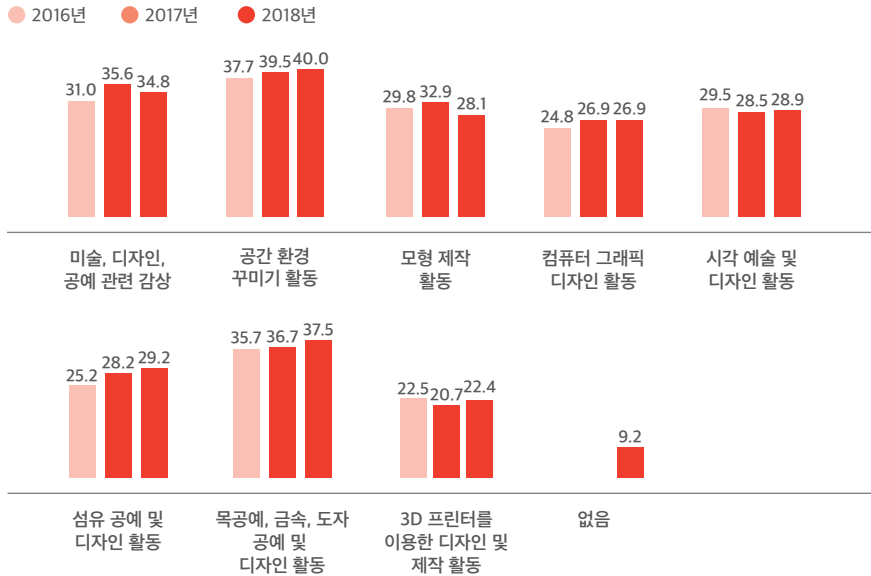
2018년		(Base)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0)	59.0	41.0
성별	남	(1241)	60.1	39.9
	여	(1259)	57.9	42.1
연령	20대	(588)	47.8	52.2
	30대	(631)	54.5	45.5
	40대	(655)	63.4	36.6
	50대 이상	(626)	69.5	30.5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59.9	40.1
	도심생활권	(129)	59.7	40.3
	동북1생활권	(365)	58.9	41.1
	동북2생활권	(411)	62.0	38.0
	서남1생활권	(270)	56.7	43.3
	서남2생활권	(259)	58.7	41.3
	서남3생활권	(239)	61.5	38.5
	동남1생활권	(249)	50.6	49.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63.9	36.1
	300~499만원	(811)	59.3	40.7
	500만원 이상	(1140)	56.4	43.6

③ 향후 여가·취미 활동으로 희망하는 디자인 관련 활동

시민들이 원하는 향후의 여가와 취미 활동을 조사한 결과,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40.0%)’, ‘나무·금속·도자 공예 및 디자인 활동(37.5%)’, ‘미술디자인 공예 관련 감상(3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모형 제작 활동’, ‘나무·금속·도자공예 및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등을 희망했으며, 여성은 ‘공간 환경 꾸미기’, ‘섬유 공예 및 디자인’, ‘나무·금속·도자공예 및 디자인’ 등을 희망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섬유공예 및 디자인 활동’, ‘시각 예술 및 디자인 활동’, ‘모형 제작 활동’,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활동’ 경험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6-21] 향후 여가, 취미 활동으로 희망하는 디자인 활동

(단위: %)



[표 6-23] 여가, 취미 활동으로 경험한 디자인 관련 활동

(단위: %)

2018년	(Base)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	나무·금속·도자공예 디자인 활동	미술, 디자인, 공예 관련 감상	섬유 공예 및 디자인 활동	시각 예술 및 디자인 활동	모형 제작 활동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활동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자인 활동	없음	
전체	(2500)	40.0	37.5	34.8	29.2	28.9	28.1	26.9	22.4	9.2	
성별	남	(1241)	28.5	31.9	29.0	10.6	19.3	37.1	31.6	29.2	12.3
	여	(1259)	51.2	43.0	40.6	47.6	38.4	19.2	22.3	15.6	6.1
연령	20대	(588)	40.0	37.4	37.6	34.2	34.5	37.1	32.0	24.1	8.0
	30대	(631)	42.9	36.3	34.1	30.0	31.2	32.3	26.6	20.0	7.8
	40대	(655)	38.0	36.8	31.8	26.9	27.5	26.9	24.7	22.9	10.7
	50대 이상	(626)	39.0	39.5	36.3	26.2	22.8	16.6	24.8	22.5	10.2
9대 생활권	서북생 활권	(297)	39.4	41.4	36.7	29.6	26.6	26.9	26.3	20.5	9.8

	도심생활권	(129)	47.3	42.6	36.4	34.1	31.0	36.4	22.5	26.4	9.3
	동북1생활권	(365)	38.9	34.8	31.5	30.1	32.6	27.9	27.4	19.2	9.9
	동북2생활권	(411)	39.4	37.2	35.0	28.7	27.7	29.2	25.5	20.4	9.5
	서남1생활권	(270)	45.6	40.7	35.2	27.4	27.0	30.0	26.3	21.9	6.3
	서남2생활권	(259)	33.6	32.4	34.4	28.6	26.6	26.3	30.1	25.5	11.2
	서남3생활권	(239)	36.4	35.1	30.1	28.9	31.4	24.7	28.9	24.7	9.2
	동남1생활권	(249)	40.6	37.8	39.0	26.5	33.7	27.7	23.3	23.3	9.6
	동남2생활권	(281)	42.3	38.1	36.7	31.0	24.9	27.0	30.2	24.2	7.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36.6	32.4	33.2	31.0	28.6	26.2	31.0	19.5	13.1
	300~499만원	(811)	37.1	36.5	34.0	26.8	28.9	29.2	28.9	22.7	8.6
	500만원 이상	(1140)	43.6	40.6	36.2	30.1	29.1	28.2	23.6	23.5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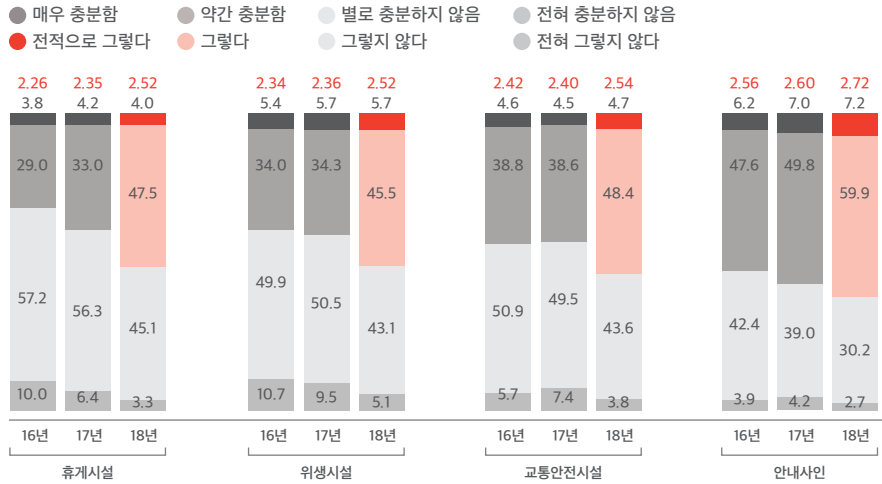
가) 공공시설물

① 공공시설물 충분 정도

공공시설물은 일반적으로 공적 공간(public space)에 설치된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본 조사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시설물을 휴게시설(벤치, 그늘막 등), 위생 시설(공중화장실, 음수대 등), 교통안전시설(볼라드, 안전펜스 등), 안내사인(안내표지판, 안내도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서울시의 공공 시설물 충분 정도는 ‘안내사인(67.1%)’, ‘교통안전시설(53.1%)’, ‘휴게시설(51.6%)’, ‘위생시설(51.2%)’ 순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안내사인’, ‘교통안내시설’, ‘휴게시설’, ‘위생시설’ 모두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이 크게 상승하였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예년 대비 공공시설물 충분 정도는 42.4%(16년) → 44.3%(17년) → 55.8%(18년)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모든 시설물에 대해 최근 3년간의 변화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0.00).

[그림 6-22] 공공시설물 충분 정도

(단위: %)



[표 6-24] 공공시설물 충분 정도

(단위: %)

2018년		(Base)	휴게시설	위생시설	교통안전시설	안내사인
전체		(2500)	51.6	51.2	53.1	67.1
성별	남	(1241)	52.3	51.9	56.4	69.0
	여	(1259)	50.8	50.6	49.8	65.3
연령	20대	(588)	61.4	57.1	61.1	78.2
	30대	(631)	54.7	50.6	52.3	68.8
	40대	(655)	49.0	48.4	49.2	64.3
	50대이상	(626)	41.9	49.4	50.5	58.0
서울 권역	서북생활권	(297)	43.8	43.4	50.5	67.3
	도심생활권	(129)	51.2	49.6	45.0	58.1
	동북1생활권	(365)	50.7	51.5	54.8	68.8
	동북2생활권	(411)	51.6	51.3	54.7	65.9
	서남1생활권	(270)	54.4	50.7	56.3	66.3
	서남2생활권	(259)	52.9	57.1	54.8	69.5
	서남3생활권	(239)	53.6	49.4	50.6	69.0
	동남1생활권	(249)	59.0	54.6	51.4	69.9
동남2생활권	(281)	48.8	53.4	53.7	65.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미만	(549)	53.0	53.4	48.6	66.7
	300~499만원	(811)	52.9	51.2	52.9	64.1
	500만원이상	(1140)	49.9	50.3	55.4	69.5

② 공공시설물 디자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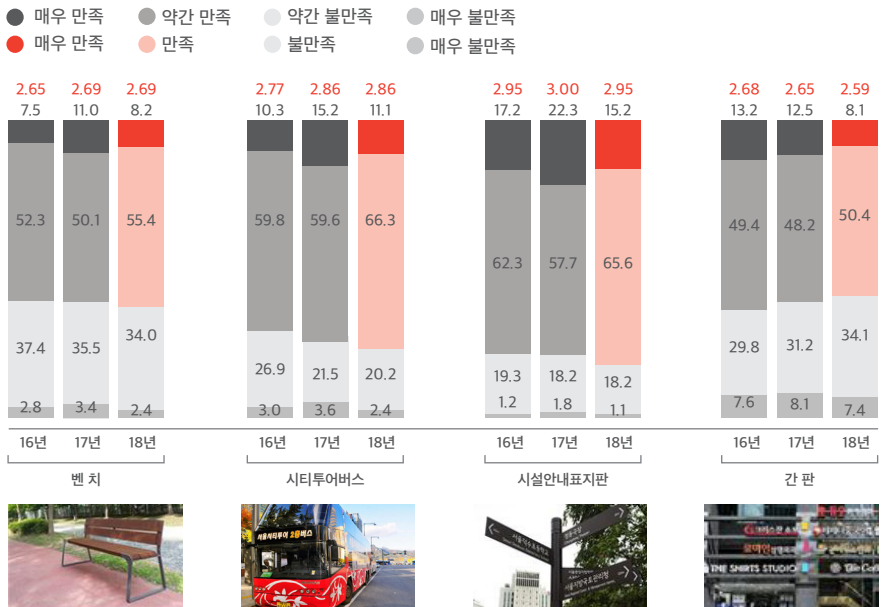
시민들은 서울의 공공시설물을 얼마나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을까? 본 설문에서는 서울시가 공공 시설물 표준안 개발과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고 아래의 사진을 병기해 각 항목별 디자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 시설물 디자인 만족도는 ‘야간경관(92.2%)’, ‘지하철 안내사인(82.6%)’, ‘시설안내 표지판(8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3년 동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의 ‘간판’ 만족도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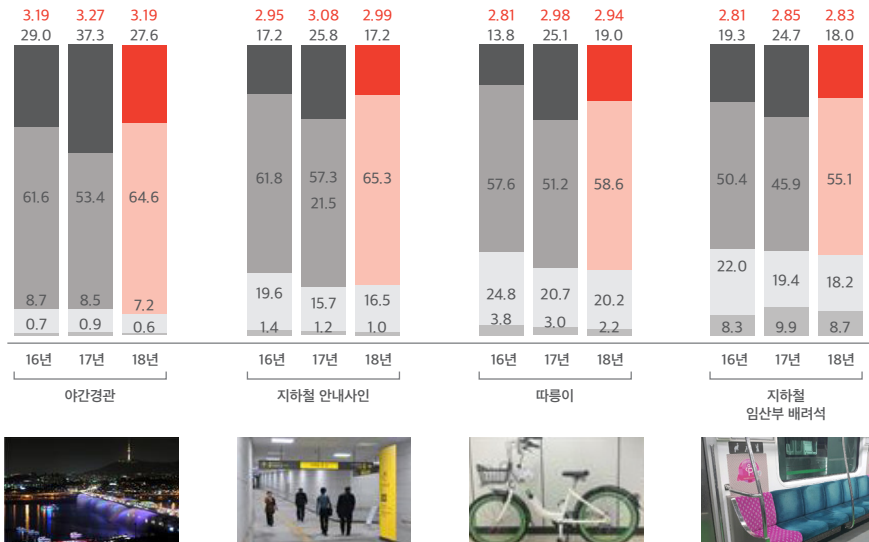
[그림 6-23] 서울의 공공시설물



[그림 6-24] 공공시설물 디자인 만족도

(단위: %)





[표 6-25] 공공시설물 디자인 만족도

(단위: %)

2018년		(Base)	벤치	시티투어 버스	시설 안내 표지판	간판	야간경관	지하철 안내 사인	따릉이	지하철 입산부 배려석
전체		(2500)	63.6	77.4	80.8	58.5	92.2	82.6	77.6	73.2
성별	남	(1241)	61.3	75.0	78.8	59.8	90.2	81.5	73.1	66.8
	여	(1259)	65.8	79.8	82.7	57.2	94.1	83.6	82.0	79.4
연령	20대	(588)	66.7	69.7	85.7	62.1	94.0	90.3	86.7	62.9
	30대	(631)	65.1	78.3	82.6	55.2	93.3	84.3	79.1	72.3
	40대	(655)	60.8	79.4	78.8	58.2	90.5	78.0	72.2	73.6
	50대이상	(626)	62.1	81.8	76.4	58.8	91.1	78.3	73.2	83.2
서울 권역	서북생활권	(297)	62.6	78.8	80.5	50.2	91.2	79.8	77.1	72.4
	도심생활권	(129)	67.4	70.5	77.5	48.1	90.7	82.2	71.3	65.9
	동북1생활권	(365)	65.2	76.7	81.9	61.4	92.6	83.8	81.9	74.0
	동북2생활권	(411)	64.0	78.3	81.5	61.6	91.2	80.0	81.0	75.4
	서남1생활권	(270)	60.4	78.1	78.1	54.4	92.6	80.4	81.1	74.8
	서남2생활권	(259)	64.9	79.5	79.5	56.0	92.3	84.6	74.5	76.1
	서남3생활권	(239)	56.5	74.1	81.6	63.2	90.4	86.6	72.8	70.7
	동남1생활권	(249)	69.1	76.7	86.3	62.2	93.2	84.7	76.3	71.9
동남2생활권	(281)	63.3	79.7	77.9	62.6	95.0	82.6	75.1	71.9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미만	(549)	62.8	75.6	81.6	58.8	92.2	83.1	78.7	72.7
	300~499만원	(811)	63.6	75.3	80.6	61.2	93.0	81.4	77.6	72.7
	500만원이상	(1140)	63.9	79.8	80.4	56.4	91.7	83.2	77.1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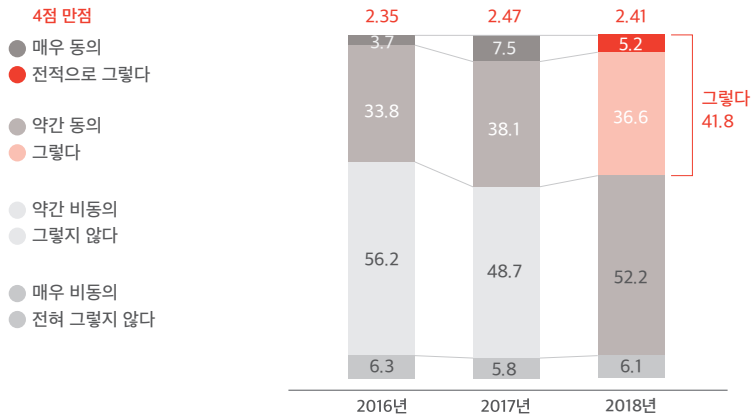
나) 범죤예방디자인

① 범죤예방디자인 적용 정도

범죤예방디자인은 ‘도시 공간에 적절한 디자인을 도입하여 범죤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환경에 범죤예방 디자인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41.8%는 동의하였으나, 전년과 비교하여서는 3.8%p 낮아졌다. 특히 여성(57.6%)과 20대(57.9%)가 잘 적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예년 대비 적용 정도가 37.5%(16년) → 45.6%(17년) → 41.8%(18년)로 변해 전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올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전년도와 증가(p=0.00)와 올해의 감소(p=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범죤예방디자인의 적용 정도에 대한 동의 수준이 제작년 대비 전년도에 크게 증가한 것과, 전년 대비 올해 감소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6-25] 범죤예방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표 6-26] 범죤예방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2018년		(Base)	동의	비동의	4점 만점
전체		(2500)	41.8	58.2	2.41
성별	남	(1241)	47.3	52.7	2.48
	여	(1259)	36.3	63.7	2.34
연령	20대	(588)	37.8	62.2	2.35
	30대	(631)	41.4	58.6	2.40
	40대	(655)	43.7	56.3	2.43
	50대 이상	(626)	43.9	56.1	2.45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41.4	58.6	2.37
	도심생활권	(129)	41.1	58.9	2.38
	동북1생활권	(365)	37.3	62.7	2.35
	동북2생활권	(411)	41.1	58.9	2.39
	서남1생활권	(270)	43.0	57.0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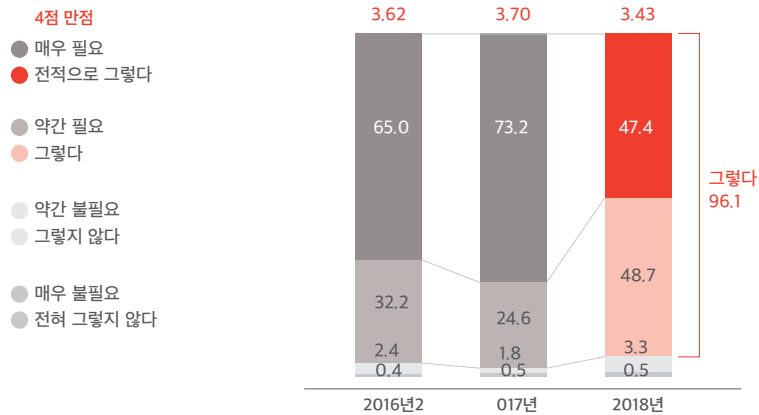
2018년		(Base)	동의	비동의	4점 만점
	서남2생활권	(259)	44.8	55.2	2.46
	서남3생활권	(239)	41.0	59.0	2.41
	동남1생활권	(249)	47.0	53.0	2.48
	동남2생활권	(281)	41.3	58.7	2.39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38.6	61.4	2.39
	300~499 만원	(811)	41.6	58.4	2.39
	500만원 이상	(1140)	43.4	56.6	2.43

② 범죄예방디자인 정책 필요성

서울시민들은 범죄예방디자인의 정책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해 절대적인 동의를 나타냈다. 성별, 연령, 생활권, 소득별로 고르게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97.9%)과 50대 이상(97.3%)의 경우 전폭적인 동의를 보였다. 4점 만점으로 볼 때, 전년의 3.70점에서 3.43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체의 96.1%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의 문항과 비교했을 때, 현재 적용의 정도(41.8%)보다는 필요성(96.1%)을 더 크게 인식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20대 청년층 및 5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의 높은 정책 수요를 나타냈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예년 대비 적용 정도는 97.2%(16년) → 97.8%(17년) → 96.1%(18년)로 변해 전년도에 증가하였다가 올해 소폭 감소하였다.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전년도의 증가(p=0.0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올해의 감소(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그림 6-26] 범죄예방디자인 정책 필요성

(단위: %)



[표 6-27] 범죄예방디자인 정책 필요성

(단위: %)

2018년		(Base)	그렇다	그렇지 않다	4점 만점
전체		(2500)	96.1	3.9	3.43
성별	남	(1241)	94.4	5.6	3.32
	여	(1259)	97.9	2.1	3.54
연령	20대	(588)	94.9	5.1	3.44
	30대	(631)	96.7	3.3	3.44
	40대	(655)	95.6	4.4	3.39
	50대 이상	(626)	97.3	2.7	3.46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94.3	5.7	3.42
	도심생활권	(129)	96.9	3.1	3.45
	동북1생활권	(365)	94.5	5.5	3.39
	동북2생활권	(411)	97.3	2.7	3.46
	서남1생활권	(270)	97.4	2.6	3.51
	서남2생활권	(259)	93.8	6.2	3.37
	서남3생활권	(239)	95.0	5.0	3.43
	동남1생활권	(249)	98.8	1.2	3.39
	동남2생활권	(281)	97.5	2.5	3.45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93.1	6.9	3.41
	300~499만원	(811)	96.8	3.2	3.43
	500만원 이상	(1140)	97.1	2.9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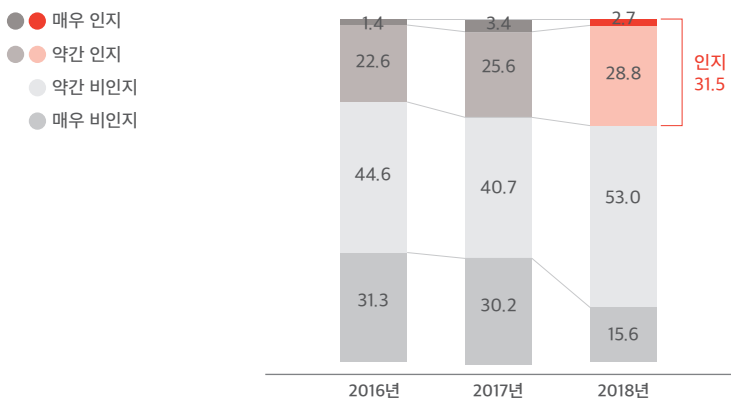
다) 공공미술 · 도시갤러리

① 공공미술 · 도시갤러리 사업 인지 정도

서울의 공공미술 · 도시갤러리 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는 31.5%로 전년의 29.0% 대비 2.5%p 상승하였으며, 3년간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34.3%) 과 20대(32.3%)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소득구간이 늘어날수록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림 6-27] 공공미술 · 도시갤러리 사업 인지 정도

(단위: %)



[표 6-28]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 인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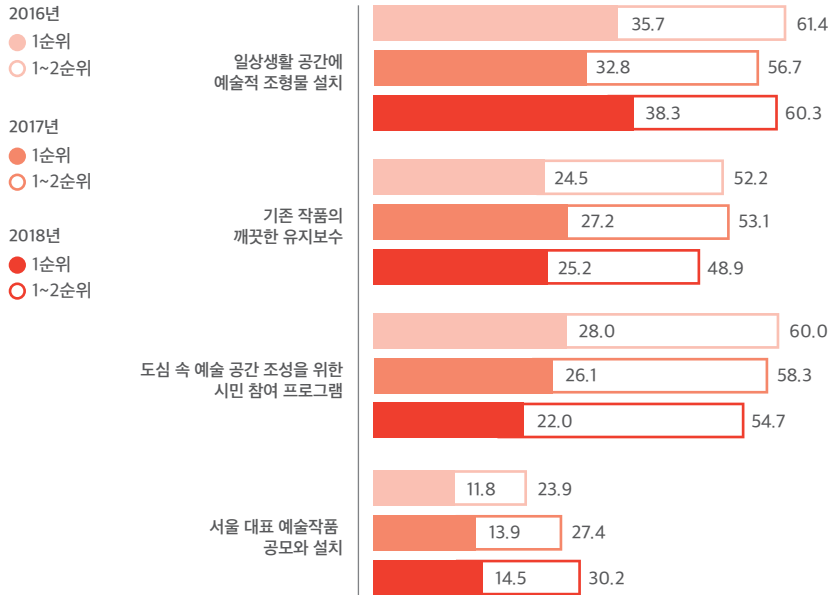
2018년		(Base)	인지	비인지
전체		(2500)	31.5	68.5
성별	남	(1241)	32.2	67.8
	여	(1259)	30.8	69.2
연령	20대	(588)	32.3	67.7
	30대	(631)	31.5	68.5
	40대	(655)	27.9	72.1
	50대 이상	(626)	34.3	65.7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29.0	71.0
	도심생활권	(129)	38.0	62.0
	동북1생활권	(365)	32.6	67.4
	동북2생활권	(411)	28.5	71.5
	서남1생활권	(270)	31.9	68.1
	서남2생활권	(259)	29.3	70.7
	서남3생활권	(239)	32.2	67.8
	동남1생활권	(249)	39.0	61.0
동남2생활권	(281)	28.5	71.5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26.2	73.8
	300~499만원	(811)	31.3	68.7
	500만원 이상	(1140)	34.1	65.9

②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

도시에서 공공미술이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시 공간 속에 예술 작품을 설치하고 전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는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을 4가지 항목(일상생활 공간에 예술적 조형물 설치, 도심 속 예술 공간 조성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존 작품의 깨끗한 유지보수, 서울 대표 예술작품 공모와 설치)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상생활 공간에 예술적 조형물 설치(38.3%)’, ‘기존 작품의 깨끗한 유지보수(2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일상생활 공간에 예술적 조형물 설치’, ‘서울 대표 예술작품 공모와 설치’는 소폭 높아졌으나 ‘기존 작품의 깨끗한 유지보수’와 ‘도심 속 예술 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소폭 하락했다.

[그림 6-28]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공공미술 · 도시갤러리 사업

(단위: %)



[표 6-29]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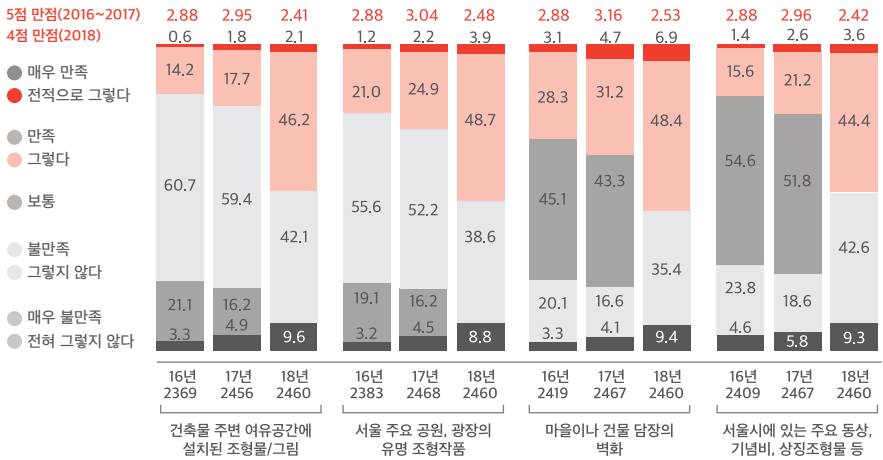
2018년 1순위 기준		(Base)	일상생활 공간에 예술적 조형물 설치	기존 작품의 깨끗한 유지보수	도심 속 예술 공간 조성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서울 대표 예술작품 공모와 설치
전체		(2500)	38.3	25.2	22.0	14.5
성별	남	(1241)	39.8	21.1	19.5	19.6
	여	(1259)	36.9	29.2	24.5	9.5
연령	20대	(588)	41.5	28.1	13.8	16.7
	30대	(631)	35.5	25.0	22.3	17.1
	40대	(655)	38.8	23.2	26.9	11.1
	50대 이상	(626)	37.7	24.6	24.3	13.4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38.0	26.9	20.2	14.8
	도심생활권	(129)	34.9	25.6	20.9	18.6
	동북1생활권	(365)	37.0	25.2	24.1	13.7
	동북2생활권	(411)	37.7	26.5	23.4	12.4
	서남1생활권	(270)	38.9	22.2	23.7	15.2
	서남2생활권	(259)	42.1	18.5	22.4	17.0
	서남3생활권	(239)	40.2	24.7	19.7	15.5
	동남1생활권	(249)	38.2	28.9	19.7	13.3
동남2생활권	(281)	37.4	27.0	21.7	13.9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36.6	27.5	23.0	12.9
	300~499만원	(811)	38.1	24.5	22.1	15.3
	500만원 이상	(1140)	39.3	24.5	21.5	14.7

③ 공공미술에 대한 만족도

서울의 공공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할까? 전체 응답자의 50.3%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미술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할까? 2016년과 2017년에는 5점 만점(보통 포함)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4점 만점(보통 제외)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마을이나 건물 담장의 벽화(55.2%)’, ‘서울 주요 공원이나 광장의 유명한 조형작품(52.6%)’, ‘건축물 주변 여유 공간에 설치된 조형물이나 작품(48.3%)’, ‘서울시에 있는 주요 동상과 상징조형물(48.0%)’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동남1생활권 거주자의 공공미술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대는 타 연령 대비 ‘건축물 주변 여유 공간에 설치된 조형물·그림’과 ‘주요 동상 기념비, 상징 조형물’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을 보였다.

[그림 6-29] 공공미술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표 6-30] 공공미술에 대한 만족도

(단위: %)

2018년		(Base)	건축물 주변여유 공간에 설치된 조형물/그림	서울 주요공원, 광장의 유명 조형 작품	마을이나 건물 담장의 벽화	서울시에 있는 주요동상, 기념비, 상징 조형물
전체		(2460)	48.3	52.6	55.2	48.0
성별	남	(1216)	49.1	53.8	51.9	49.0
	여	(1244)	47.6	51.4	58.5	47.1
연령	20대	(574)	52.0	53.5	56.8	56.0
	30대	(621)	49.4	51.5	56.8	50.7
	40대	(645)	47.3	54.5	56.1	41.8
	50대 이상	(620)	45.0	50.8	51.3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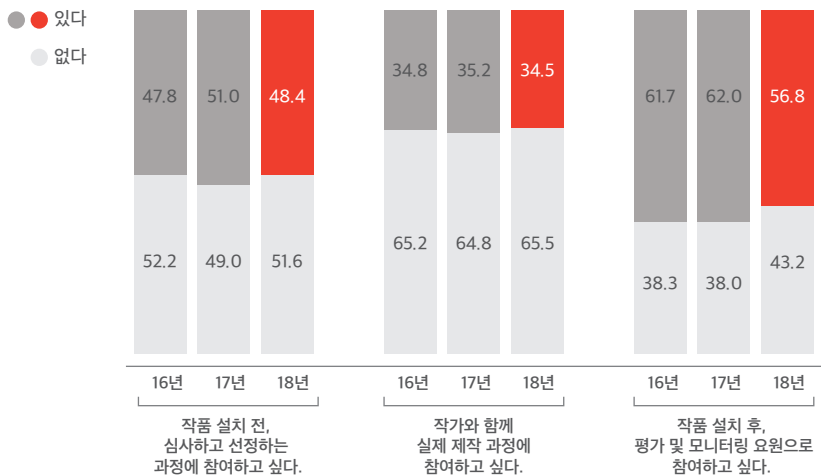
2018년		(Base)	건축물 주변여유 공간에 설치된 조형물/그림	서울 주요공원, 광장의 유명 조형 작품	마을이나 건물 담장의 벽화	서울시에 있는 주요동상, 기념비, 상징 조형물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2)	45.9	47.4	55.5	44.9
	도심생활권	(126)	42.3	48.0	48.8	39.8
	동북1생활권	(361)	45.3	49.0	53.2	46.8
	동북2생활권	(403)	49.7	51.8	54.5	48.5
	서남1생활권	(269)	47.5	54.0	57.2	49.8
	서남2생활권	(253)	50.0	54.0	57.9	46.8
	서남3생활권	(234)	44.9	49.3	52.8	48.4
	동남1생활권	(246)	54.8	62.0	58.1	54.2
	동남2생활권	(276)	51.9	57.8	56.6	49.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37)	47.2	50.1	56.6	48.3
	300~499만원	(798)	48.1	51.8	54.4	47.8
	500만원 이상	(1125)	49.0	54.4	55.2	48.1

④ 공공미술 작업 참여의사

공공미술 작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물었다.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미술은 관(官)에서 주도하지만,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디자인 거버넌스와의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조사에서는 공공미술작업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참여의사를 조사하였다. 먼저, ‘작품 설치 후, 평가 및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56.8%로 가장 높았으며, ‘작품 설치 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48.4%)’, ‘실제 제작에 참여(34.5%)’ 순으로 확인되었다. 작품 제작에 직접 참여보다 평가 및 모니터링, 심사 등 간접적인 활동에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년 대비 모든 부분에서 참여의사가 낮아진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공공미술작업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6-30] 공공미술 작업 참여의사

(단위: %)



[표 6-31] 공공미술 작업 참여의사

(단위: %)

2018년		(Base)	작품 설치 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	작가와 함께 실제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	작품 설치 후, 평가 및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고 싶다
전체		(2500)	48.4	34.5	56.8
성별	남	(1241)	49.9	35.5	56.9
	여	(1259)	46.9	33.5	56.7
연령	20대	(588)	56.1	37.1	59.0
	30대	(631)	50.7	36.3	59.6
	40대	(655)	43.1	31.1	54.5
	50대 이상	(626)	44.4	33.7	54.3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48.8	32.3	58.2
	도심생활권	(129)	54.3	41.9	59.7
	동북1생활권	(365)	42.7	33.4	51.8
	동북2생활권	(411)	47.2	35.0	54.3
	서남1생활권	(270)	50.4	30.7	58.5
	서남2생활권	(259)	51.0	36.7	56.8
	서남3생활권	(239)	50.2	34.3	56.9
	동남1생활권	(249)	55.4	41.8	64.7
	동남2생활권	(281)	42.3	29.2	55.5
소득	300만원 미만	(549)	41.0	33.2	49.5
	300~499만원	(811)	49.8	34.5	57.7
	500만원 이상	(1140)	51.0	35.1	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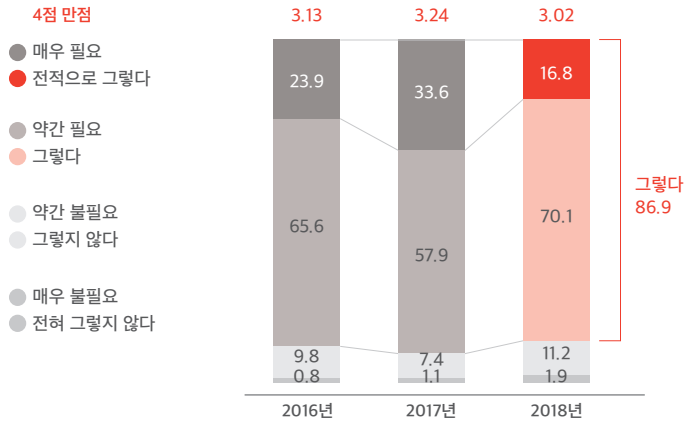
라) 디자인 거버넌스

① 디자인 거버넌스 정책 필요성

디자인 거버넌스는 “시민·학생·디자이너 및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응답자의 86.9%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여성(89.8%)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을 나타냈다. 종합적으로는 전년 대비 4.6%p 하락하였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예년 대비 정책 필요성은 89.5%(16년) → 91.5%(17년) → 86.9%(18년)로 변해 전년도에 증가하였다가 올해 감소하였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전년도의 증가(p=0.00)와 올해의 감소(p=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31] 디자인 거버넌스 정책 필요성

(단위: %)



[표 6-32] 디자인 거버넌스 정책 필요성

(단위: %)

2018년		(Base)	필요	불필요	4점 만점
전체		(2500)	86.9	13.1	3.02
성별	남	(1241)	84.0	16.0	2.96
	여	(1259)	89.8	10.2	3.07
연령	20대	(588)	85.4	14.6	3.05
	30대	(631)	86.8	13.2	3.01
	40대	(655)	87.3	12.7	2.99
	50대 이상	(626)	88.0	12.0	3.03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86.9	13.1	3.02
	도심생활권	(129)	87.6	12.4	3.06
	동북1생활권	(365)	83.8	16.2	2.97
	동북2생활권	(411)	84.2	15.8	2.97
	서남1생활권	(270)	87.4	12.6	3.03
	서남2생활권	(259)	86.9	13.1	3.01
	서남3생활권	(239)	89.1	10.9	3.05
	동남1생활권	(249)	92.0	8.0	3.09
	동남2생활권	(281)	87.9	12.1	3.0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83.1	16.9	2.97
	300~499만원	(811)	85.9	14.1	3.01
	500만원 이상	(1140)	89.5	10.5	3.05

② 디자인 거버넌스 참여의사

디자인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참여의사는 어떠할까? 본 설문에서는 디자인 거버넌스 활동을 아래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참여 의사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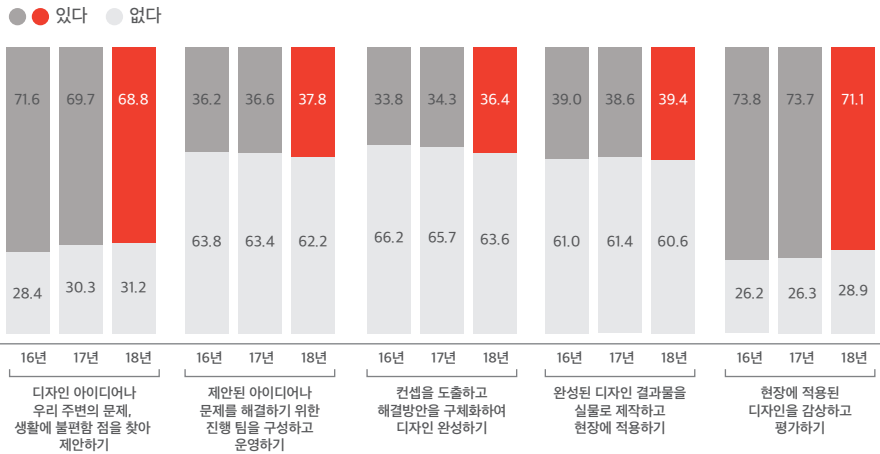
- 디자인 아이디어나 우리 주변의 문제, 생활에 불편한 점을 찾아 제안하기
- 제안된 아이디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 콘셉트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구체화하여 디자인 완성하기
-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을 실물로 제작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 현장에 적용된 디자인을 감상하고 평가하기

응답자의 71.1%는 ‘현장에 적용된 디자인을 감상하고 평가하기’를, 68.8%는 ‘디자인 아이디어나 우리 주변의 문제, 생활에 불편한 점을 찾아 제안하기’를 선택하였다. 상대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참여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참여의사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년 대비 유형별 참여의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20대 연령과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전반적인 참여의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32] 디자인 거버넌스 참여의사

(단위: %)



[표 6-33] 디자인 거버넌스 참여의사

(단위: %)

2018년		(Base)	디자인 아이디어나 우리 주변의 문제, 생활에 불편한 점을 찾아 제안하기	제안된 아이디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컨셉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구체화하여 디자인 완성하기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을 실물로 제작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현장에 적용된 디자인을 감상하고 평가하기
전체		(2500)	68.8	37.8	36.4	39.4	71.1
성별	남	(1241)	68.6	40.9	39.5	41.8	68.9
	여	(1259)	69.0	34.9	33.4	37.0	73.2
연령	20대	(588)	75.5	42.0	41.8	43.2	75.2
	30대	(631)	71.8	39.6	37.2	42.2	73.5
	40대	(655)	65.3	34.4	34.7	35.6	68.2
	50대 이상	(626)	63.1	35.8	32.4	37.1	67.7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68.4	37.0	34.7	38.4	72.7
	도심생활권	(129)	73.6	45.7	45.0	46.5	76.7
	동북1생활권	(365)	65.5	37.8	36.7	40.8	67.4
	동북2생활권	(411)	66.9	35.3	35.3	38.7	71.0

2018년		(Base)	디자인 아이디어나 우리 주변의 문제, 생활에 불편한 점을 찾아 제안하기	제안된 아이디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컨셉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구체화하여 디자인 완성하기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을 실물로 제작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현장에 적용된 디자인을 감상하고 평가하기
	서남1생활권	(270)	69.6	34.8	34.8	38.5	67.8
	서남2생활권	(259)	67.2	40.9	37.1	40.2	68.7
	서남3생활권	(239)	74.5	38.1	35.6	40.2	73.2
	동남1생활권	(249)	73.1	41.4	45.0	46.2	77.5
	동남2생활권	(281)	66.2	35.6	29.9	29.9	69.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63.0	34.8	35.9	38.3	66.5
	300~499만원	(811)	70.2	35.9	35.0	39.1	70.0
	500만원 이상	(1140)	70.6	40.7	37.7	40.2	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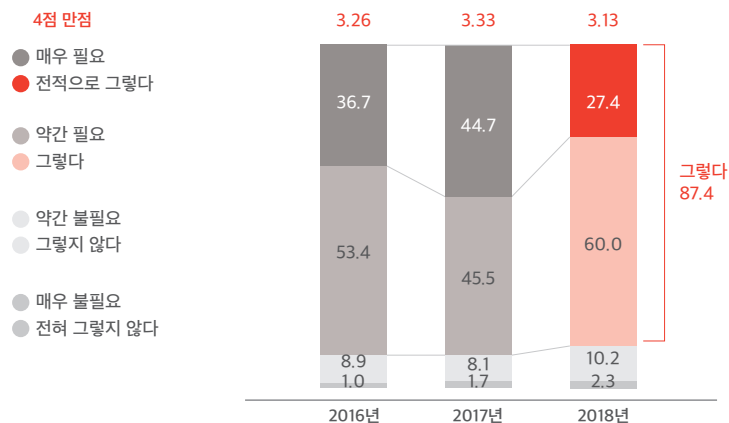
마) 업사이클링 디자인

① 업사이클링 디자인정책 필요성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87.4%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90.5%)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 이상(89.6%)의 연령층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동의 비율이 컸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예년 대비 정책 필요성은 90.1%(16년) → 90.2%(17년) → 87.4%(18년)로 변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는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p=0.00).

[그림 6-33] 업사이클링 디자인정책 필요성

(단위: %)



[표 6-34] 업사이클링 디자인 정책 필요성

(단위: %)

2018년		(Base)	필요	불필요	4점 만점
전체		(2500)	87.4	12.6	3.13
성별	남	(1241)	84.3	15.7	3.03
	여	(1259)	90.5	9.5	3.22
연령	20대	(588)	83.0	17.0	3.09
	30대	(631)	88.4	11.6	3.14
	40대	(655)	88.4	11.6	3.12
	50대 이상	(626)	89.6	10.4	3.15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86.2	13.8	3.13
	도심생활권	(129)	89.9	10.1	3.16
	동북1생활권	(365)	84.4	15.6	3.09
	동북2생활권	(411)	86.4	13.6	3.13
	서남1생활권	(270)	85.9	14.1	3.09
	서남2생활권	(259)	87.6	12.4	3.13
	서남3생활권	(239)	89.5	10.5	3.13
	동남1생활권	(249)	90.4	9.6	3.16
	동남2생활권	(281)	90.0	10.0	3.15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84.5	15.5	3.09
	300~499만원	(811)	87.9	12.1	3.12
	500만원 이상	(1140)	88.5	11.5	3.15

바) 공공디자인

① 공공디자인 동의 정도

공공디자인은 도시공간에서 시민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의 외형, 색채, 배치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민은 이러한 공공디자인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는지 매력, 연결성, 편의성, 보편성, 유용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4점 척도(전적으로 그렇다-그렇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로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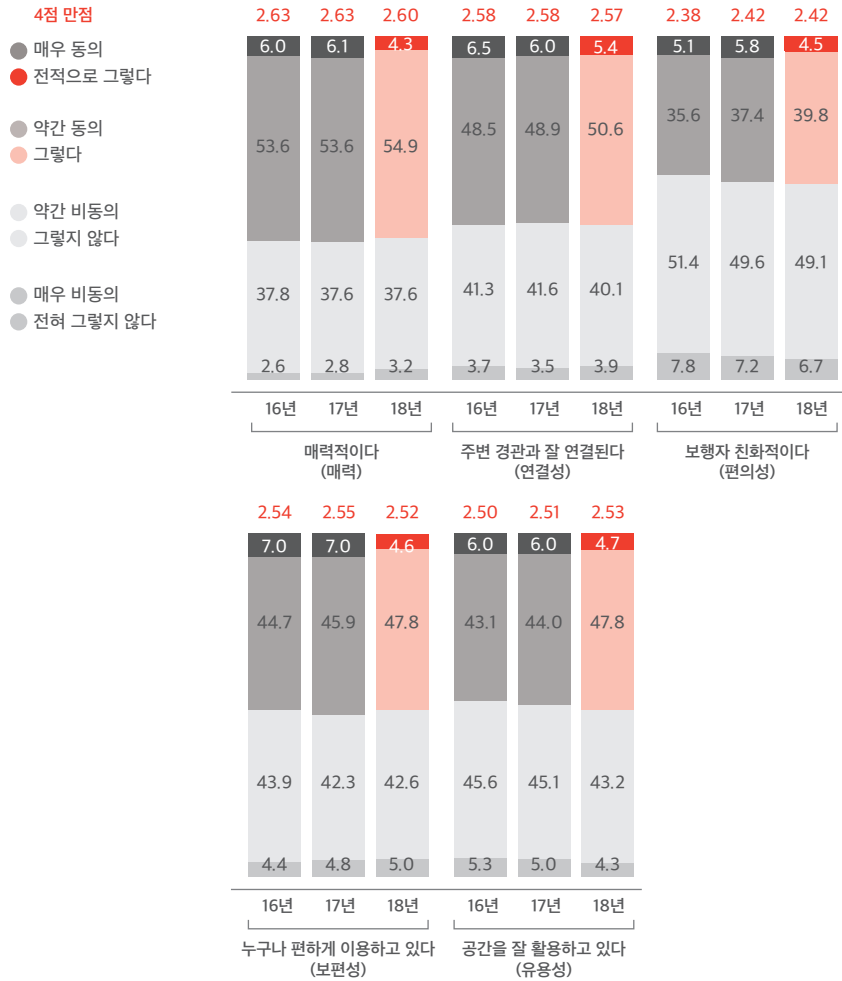
- 매력(charm) : 매력적이다.
- 연결성(connectivity) : 주변 경관과 잘 연결된다.
- 편의성(convenience) : 보행자 친화적이다.
- 보편성(universality) :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 유용성(usefulness) :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

서울의 공공디자인의 ‘매력’에 동의하는 비율은 59.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결성’ 56.0%, ‘유용성’ 52.5%, ‘보편성’ 52.4%, ‘편의성’ 44.2%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대 층에서 모든 속성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의 공공디자인의 ‘편의성’, ‘유용

성'의 인식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예년 대비 공공디자인 동의 정도는 51.2%(16년) → 52.1%(17년) → 52.9%(18년)로 변해 증가하였으나, 유의 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0).

[그림 6-34] 공공디자인 동의 정도

(단위: %)



[표 6-35] 공공디자인 동의 정도

(단위: %)

		(Base)	매력 (charm) 매력적이다	연결성 (connectivity) 주변 경관과 잘 연결된다	편의성 (convenience) 보행자 친화적이다	보편성 (universality)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유용성 (usefulness)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
전체		(2500)	59.2	56.0	44.2	52.4	52.5
성별	남	(1241)	57.3	53.9	44.5	50.4	51.6
	여	(1259)	61.1	58.1	44.0	54.5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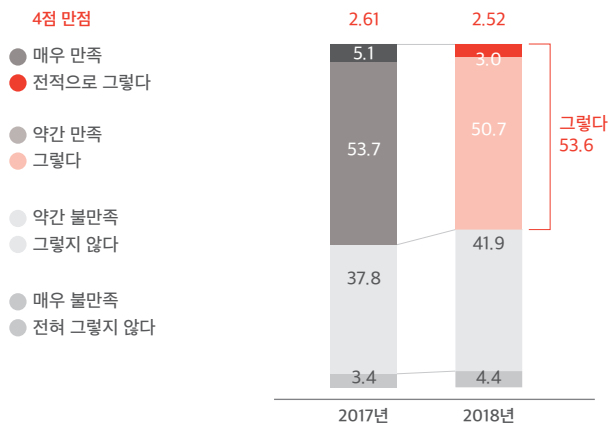
		(Base)	매력 (charm) 매력적이다	연결성 (connectivity) 주변 경관과 잘 연결된다	편의성 (convenience) 보행자 친화적이다	보편성 (universality)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유용성 (usefulness)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
연령	20대	(588)	66.3	60.7	55.8	59.0	60.4
	30대	(631)	61.5	59.6	44.7	52.9	53.9
	40대	(655)	57.9	55.3	41.1	48.2	49.0
	50대 이상	(626)	51.6	48.7	36.3	50.2	47.4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57.6	56.9	36.7	49.8	48.1
	도심생활권	(129)	50.4	44.2	38.8	45.7	45.0
	동북1생활권	(365)	58.6	55.1	46.0	54.2	52.1
	동북2생활권	(411)	59.4	54.7	42.1	52.1	54.3
	서남1생활권	(270)	62.6	59.3	47.4	54.4	53.7
	서남2생활권	(259)	62.5	56.0	46.3	50.6	52.9
	서남3생활권	(239)	56.5	55.6	44.4	53.1	51.9
	동남1생활권	(249)	59.0	57.0	47.0	51.8	50.6
동남2생활권	(281)	61.6	59.8	48.0	56.2	59.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57.7	56.8	46.3	51.9	53.4
	300~499 만원	(811)	61.3	56.2	41.7	50.7	51.3
	500만원 이상	(1140)	58.4	55.4	45.1	53.9	53.0

② 공공디자인 만족도

서울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였다. 서울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3.6%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서울 공공디자인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공공디자인 만족도는 58.8%(17년) → 53.6%(18년)로 변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는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p=0.00).

[그림 6-35] 공공디자인 만족도

(단위: %)



[표 6-36] 공공디자인 만족도

(단위: %)

2018년		(Base)	그렇다	그렇지 않다	4점 만점
전체		(2500)	53.6	46.4	2.52
성별	남	(1241)	52.0	48.0	2.49
	여	(1259)	55.3	44.7	2.55
연령	20대	(588)	60.9	39.1	2.60
	30대	(631)	55.9	44.1	2.55
	40대	(655)	51.5	48.5	2.50
	50대 이상	(626)	46.8	53.2	2.45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49.8	50.2	2.47
	도심생활권	(129)	46.5	53.5	2.40
	동북1생활권	(365)	52.9	47.1	2.52
	동북2생활권	(411)	53.3	46.7	2.51
	서남1생활권	(270)	55.6	44.4	2.55
	서남2생활권	(259)	53.3	46.7	2.54
	서남3생활권	(239)	52.3	47.7	2.50
	동남1생활권	(249)	58.2	41.8	2.58
	동남2생활권	(281)	58.0	42.0	2.58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50.3	49.7	2.47
	300~499만원	(811)	55.6	44.4	2.55
	500만원 이상	(1140)	53.9	46.1	2.53

③ 공공디자인 정책 형성에 중요한 활동

서울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할까? 본 설문에서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아래의 6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향후 서울의 공공디자인 정책 형성에 중요한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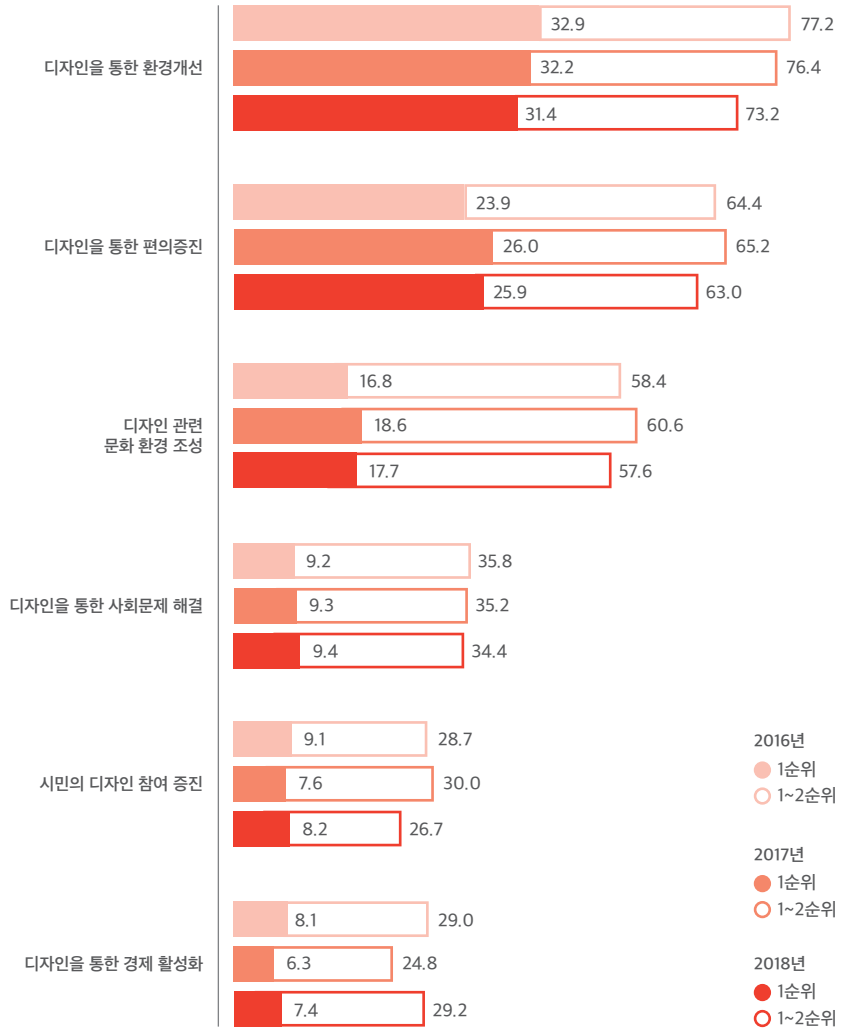
- 디자인 관련 문화 환경 조성
-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디자인을 통한 편의증진
- 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
- 디자인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시민의 디자인 참여 증진

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는 ‘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이, 25.9%는 ‘디자인을 통한 편의 증진’이, 17.7%는 ‘디자인 관련 문화 환경 조성’이 서울의 공공 디자인 정책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민들은 공공 디자인을 통한 서울의 도시환경 개선과 편의증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들은 공공 디자인의 기능적인 요소에 무게중심을 두어 향후 정책 수요를 표현했다. 전년 대비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시민의 디자인 참여 증진’, ‘디자인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의 응답이 소폭 상승했다. 여성과 50대 이

상의 연령대에서는 ‘디자인을 통한 환경 개선’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20대는 ‘디자인을 통한 편의 증진’에 높은 공감을 나타냈다.

[그림 6-36] 공공디자인 정책 형성에 중요한 활동 우선순위

(단위: %)



[표 6-37] 공공디자인 정책 형성에 중요한 활동 우선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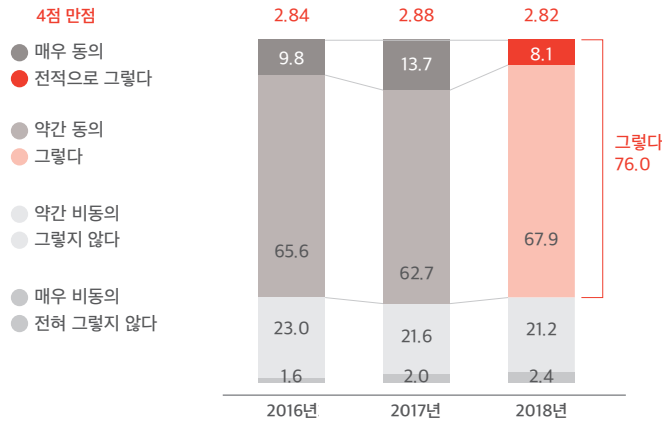
2018년		(Base)	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	디자인을 통한 편의증진	디자인 관련 문화 환경 조성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시민의 디자인 참여 증진	디자인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체		(2500)	31.4	25.9	17.7	9.4	8.2	7.4
성별	남	(1241)	29.1	25.5	17.1	10.3	10.0	8.1
	여	(1259)	33.7	26.3	18.3	8.5	6.4	6.8
연령	20대	(588)	26.7	27.7	17.2	11.1	9.4	8.0
	30대	(631)	28.7	28.7	18.5	8.9	7.4	7.8
	40대	(655)	34.5	23.2	18.0	8.7	8.7	6.9
	50대 이상	(626)	35.3	24.1	17.1	9.1	7.3	7.0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32.3	26.6	17.5	9.4	7.1	7.1
	도심생활권	(129)	33.3	24.0	16.3	10.1	10.1	6.2
	동북1생활권	(365)	31.8	29.0	16.2	8.5	7.4	7.1
	동북2생활권	(411)	32.1	24.3	17.0	12.4	8.3	5.8
	서남1생활권	(270)	28.5	29.3	18.5	9.3	5.2	9.3
	서남2생활권	(259)	31.3	22.0	16.6	10.4	11.2	8.5
	서남3생활권	(239)	30.5	20.1	20.1	7.9	13.4	7.9
	동남1생활권	(249)	32.5	27.7	19.7	7.2	4.8	8.0
	동남2생활권	(281)	30.6	27.8	18.1	8.2	8.2	7.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28.4	25.7	19.3	10.4	9.1	7.1
	300~499만원	(811)	31.4	28.0	16.8	9.6	6.9	7.3
	500만원 이상	(1140)	32.8	24.5	17.6	8.8	8.7	7.6

④ 일상에서의 디자인이 도시환경과 문화경험에 미치는 영향

시민들이 느끼는 일상에서 만나는 작품과 행사들이 도시환경의 개선과 문화 경험 제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작품과 행사들이 도시환경의 개선과 문화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76.0%)을 준다고 표현했다. 이는 전년(76.4%)과 비슷한 수치였으며, 종합적으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공디자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예년 대비 정책 필요성은 75.4%(16년) → 76.4%(17년) → 76%(18년)로 비슷한 수치였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71).

[그림 6-37] 일상에서의 디자인이 도시환경과 문화경험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표 6-38] 일상에서의 디자인이 도시환경과 문화경험에 미치는 영향

(단위: %)

2018년		(Base)	동의	비동의	4점 만점
전체		(2500)	76.0	24.0	2.82
성별	남	(1241)	73.5	26.5	2.77
	여	(1259)	78.5	21.5	2.86
연령	20대	(588)	71.6	28.4	2.78
	30대	(631)	78.0	22.0	2.86
	40대	(655)	79.2	20.8	2.84
	50대 이상	(626)	74.8	25.2	2.79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70.7	29.3	2.76
	도심생활권	(129)	73.6	26.4	2.77
	동북1생활권	(365)	77.3	22.7	2.83
	동북2생활권	(411)	74.9	25.1	2.81
	서남1생활권	(270)	74.4	25.6	2.79
	서남2생활권	(259)	76.1	23.9	2.83
	서남3생활권	(239)	73.2	26.8	2.81
	동남1생활권	(249)	84.7	15.3	2.91
동남2생활권	(281)	78.6	21.4	2.8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71.8	28.2	2.78
	300~499만원	(811)	75.7	24.3	2.81
	500만원 이상	(1140)	78.2	21.8	2.84

사)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인지도 및 중요도

①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실시 중인 디자인 정책/사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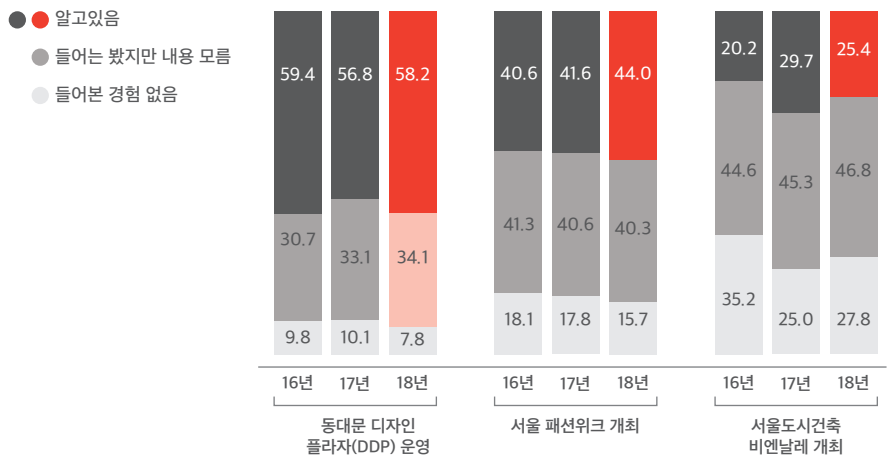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아래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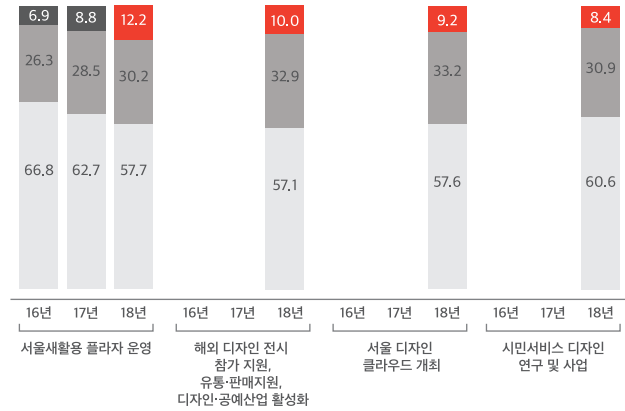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운영
- 서울패션위크 개최
- 해외 디자인 전시 참가 지원, 유통·판매지원, 디자인공예산업 활성화
- 서울디자인클라우드 개최
- 서울생활용품플라자 운영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시민서비스디자인 연구 및 사업

사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운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서울패션위크 개최’는 44.0%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디자인 클라우드 개최’는 9.2%, ‘시민서비스디자인 연구 및 사업’은 8.8%의 인지도를 보여 상대적으로 시민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 대비 인지도에 대한 소폭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낮은 경우에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실시 중인 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8]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실시 중인 디자인정책·사업 인지도

(단위: %)





디자인재단의 사업 인지도와 관련해 디자인계 시민 응답은 일반 시민 응답과 차이가 있었는데, 디자인계 시민의 인지도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75.2%)’, ‘서울패션위크 개최(69.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44.2%)’, ‘해외 디자인 전시 참가 지원, 유통·판매 지원, 디자인공예산업 활성화(28.5%)’, ‘시민서비스디자인 연구 및 사업(22.4%)’, ‘서울생활용플라자 운영(19.4%)’, ‘서울디자인클라우드 개최(11.5%)’ 순이었다. 디자인계 시민은 전반적인 디자인재단의 사업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 비해 인지도가 크게 높았고, 특히 ‘해외 디자인 전시 참가 지원’, ‘유통·판매지원’, ‘디자인공예산업 활성화 사업’과 ‘시민서비스디자인 연구 및 사업’을 시민들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서울패션위크 개최’에 대해 큰 차이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해외 디자인 전시 참가 지원’, ‘유통·판매지원’, ‘디자인공예산업 활성화’를 인지하는 경향이 컸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서울생활용플라자 운영’에 대한 인지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② 서울디자인재단의 우선 추진 정책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실시 중인 디자인 정책·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총 11가지 유형의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그 중 3순위까지 응답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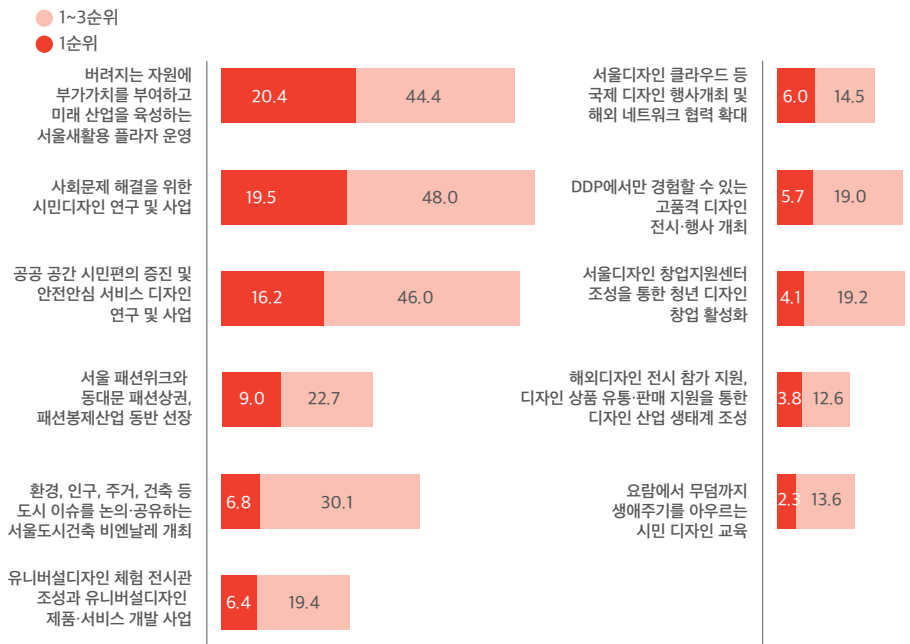
- 사회문제해결(고령화, 낙후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시민디자인연구 및 사업
- 서울패션위크와 동대문 패션상권, 패션봉제산업 등 동반성장
- 해외디자인전시 참가 지원, 디자인 상품 유통·판매 지원을 통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
- 서울디자인클라우드 등 국제 디자인 행사개최 및 해외 네트워크 협력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관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
- 버려지는 자원에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서울생활용플라자 운영

- 환경, 인구, 주거, 건축 등 도시 이슈를 논의·공유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DDP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디자인 전시·행사 개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시민 디자인 교육
-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청년 디자인 창업 활성화
- 공공공간(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대중교통시설 등) 시민편의증진 및 안전안심 서비스디자인 연구 및 사업

조사결과,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 정책/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20.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디자인 연구 및 사업(19.5%)', '공공공간 시민편의 증진 및 안전안심 서비스 디자인 연구 및 사업(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여성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6-39]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서울디자인재단의 정책·사업

(단위: %)



조사결과와 관련해 디자인계 시민 응답이 일반 시민 응답과 차이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계 시민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사회문제 해결(고령화, 낙후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시민디자인연구 및 사업(29.7%)', '공공공간(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대중교통시설 등) 시민편의증진 및 안전안심 서비스디자인 연구 및 사업(15.8%)', 'DDP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디자인 전시·행사 개최(10.3%)', '해외디자인전시 참가 지원, 디자인 상품 유통·판매 지원을 통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8.5%)', '서울패션위크와 동대문 패션상권, 패션봉제산업 동반성장(6.7%)',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관 조성 및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6.7%)', '버려지는 자원에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서울새활

용플라자 운영(6.7%)’, ‘서울디자인클라우드 등 국제 디자인 행사개최 및 해외 네트워크 협력 확대(4.2%)’,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시민 디자인 교육(4.2%)’, ‘환경, 인구, 주거, 건축 등 도시 이슈를 논의·공유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3.6%)’, ‘서울 디자인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청년 디자인 창업 활성화(3.6%)’ 순이다.

디자인계 시민들은 ‘사회문제 해결(고령화, 낙후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시민디자인연구 및 사업’, ‘DDP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디자인 전시·행사 개최’, ‘해외디자인전시 참가 지원’, ‘디자인 상품 유통·판매 지원을 통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을 일반 시민들에 비해 더 중요한 정책 및 사업으로 꼽았다.

인구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사회문제 해결(고령화, 낙후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시민 디자인연구 및 사업’을, 남성은 ‘공공공간(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대중교통시설 등) 시민편의증진 및 안전안심 서비스디자인연구 및 사업’을 더욱 선호했다. 또한 연령대가 낮아수록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청년 디자인 창업 활성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공공간(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대중교통시설 등) 시민편의증진 및 안전안심 서비스디자인연구 및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아) 서울디자인키워드

① 서울디자인키워드 개요

본 조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중·장기 디자인 키워드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서울디자인키워드는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주제를 제시하여,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원하는 디자인 정책수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디자인 분야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현재의 트렌드를 탐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장기 예측이 가능한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정책자료 구축에 기초가 된다. 단순히 타 국가나 기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서울의 디자인 키워드를 도출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급자 중심의 키워드 제시에서 벗어나 상향식 정책개발이 가능한 일반 시민들의 기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근거중심(evidence-based)의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디자인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먼저, 전년도 키워드(시민 의견 및 전문가 의견)를 토대로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파악하였다. 또한 2018년 11월 이내에 발간된 국내외 대표적인 트렌드 문헌들(2018~2019)을 검토하여 트렌드 현상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기존 키워드의 연속성을 검토하고, 신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그 후, NIA(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전략센터의 소셜데이터분석 도구를 이용

해 연관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쳤으며, 내부 논의 및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키워드 간의 위계구조를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전년도 상위 키워드 10개와 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3개 키워드(셀프인테리어/핸드메이드, 뉴트로 디자인, 플라시보 소비), 추가되는 2개 키워드(메이커 운동, 1코노미)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15개 예비 키워드 목록을 도출하였다.

② 2018 서울디자인키워드 적합도 검토

다가오는 해의 키워드 선정에 앞서 이전년도에 선정한 올해의 키워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2018 서울디자인키워드의 적합성을 시민디자인의식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77.5%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 최신 트렌드 현상들을 비교적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40] 2018 서울디자인키워드 적합성

(단위: %)



[표 6-39] 2018 서울디자인키워드 적합성

(단위: %)

2018년		(Base)	그렇다	그렇지 않다	4점 만점
전체		(2500)	77.5	22.5	2.83
성별	남	(1241)	76.2	23.8	2.81
	여	(1259)	78.8	21.2	2.86
연령	20대	(588)	79.9	20.1	2.91
	30대	(631)	79.2	20.8	2.85
	40대	(655)	76.8	23.2	2.80
	50대 이상	(626)	74.3	25.7	2.79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74.1	25.9	2.77
	도심생활권	(129)	77.5	22.5	2.81
	동북1생활권	(365)	75.6	24.4	2.82
	동북2생활권	(411)	75.4	24.6	2.82
	서남1생활권	(270)	78.9	21.1	2.83
	서남2생활권	(259)	74.1	25.9	2.80

2018년		(Base)	그렇다	그렇지 않다	4점 만점
	서남3생활권	(239)	78.2	21.8	2.86
	동남1생활권	(249)	81.9	18.1	2.88
	동남2생활권	(281)	84.0	16.0	2.9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74.1	25.9	2.80
	300~499만원	(811)	77.1	22.9	2.83
	500만원 이상	(1140)	79.5	20.5	2.85

③ 2019 서울디자인키워드 선정

다음은 15개 예비 키워드를 시민디자인의식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과 디자인계 시민에게 각각 의견을 물었다. 맥스딤(Max-Diff) 방식을 통해 예비 선정된 15개의 키워드와 이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 그리고 디자인 키워드 관련 예시를 제시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복수의 예비 키워드를 보여주고, 약 10-15회 정도 중요도와 선호도를 랜덤한 방식으로 물었다. 이를 전산화하여 각 키워드별로 중요도와 선호도를 측정하고 종합점수를 매겼다.

[그림 6-41] MaxDiff 평가

MaxDiff 란?

- 간단한 선택형 질문을 통해 많은 수의 중요도/선호도 항목 평가
(예: 속성별 만족도 평가, 브랜드 이미지 평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질문/분석 Tool
- Sawtooth Software사가 개발한 Software Tool로서 개인별 중요도/선호도 점수의 분석/산출이 가능함

MaxDiff의 질문형식

- 1.Best-Worst 선택형, 2.Best 선택형, 3.쌍대비교형 등 총 3가지 질문유형이 가능

[Maxdiff의 Best-Worst 선택형 질문 예시]

Q 다음 보기 중 귀하께서 쇼핑물 선택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각각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하다	항목들	가장 중요하지 않다
<input checked="" type="radio"/>	무료배송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사이트 이용 편의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품의 다양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고객센터 상담원 친절	<input checked="" type="radio"/>

언제 사용하면 좋은가?

- 평가해야 할 속성 항목이 너무 많아 응답자 피로로 인한 불성실 응답이 예상되는 경우
- 항목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자 할 때
- 중요도/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속성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평가를 하고 싶을 때

일반 시민 대상 조사결과, ‘힐링 공간’, ‘스마트시티’, ‘슬로라이프’, ‘스테이케이션’, ‘업사이클링’, ‘미니멀디자인’, ‘셀프인테리어·핸드메이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고객 맞춤형 서비스’, ‘공유경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통계적인 속성으로 나누어 들여다보면,

여성의 경우 ‘힐링 공간’, ‘슬로라이프’, ‘스테이케이션’, ‘업사이클링’ 등의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고, 남성은 ‘힐링 공간’, ‘스마트시티’, ‘슬로라이프’, ‘업사이클링’, ‘스테이케이션’,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힐링 공간’, 연령대가 낮을수록 ‘1코노미’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았다.

디자인계 시민의 의견은 일반 시민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사결과, ‘힐링 공간’, ‘슬로라이프’, ‘스마트시티’, ‘스테이케이션’, ‘공유경제’, ‘미니멀디자인’, ‘업사이클링’, ‘1코노미’, ‘고객맞춤형 서비스’,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순으로 나타나 일반 시민 대상과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인구통계적인 속성으로 나누어 들여다보면, 여성의 경우 ‘힐링 공간’, ‘슬로라이프’, ‘스마트시티’, ‘공유경제’ 등의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고, 남성은 ‘슬로라이프’, ‘힐링 공간’, ‘스마트시티’, ‘미니멀디자인’, ‘스테이케이션’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힐링 공간’,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을,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테이케이션’, ‘1코노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6-40] 2019 서울디자인키워드(일반시민)

(단위: %)

		(Base)	힐링 공간	스마트 시티	슬로 라이프	스테이 케이션	업사이클링	미니멀 (디자인)	셀프인테리어/ 핸드메이드
전체		(2500)	12.79	9.02	8.90	8.30	8.28	7.44	6.65
성별	남	(1241)	11.95	10.12	8.04	7.74	7.84	6.70	6.14
	여	(1259)	13.63	7.94	9.74	8.85	8.71	8.16	7.15
연령	20대	(588)	11.53	8.77	7.75	8.27	6.91	7.54	6.98
	30대	(631)	12.45	8.94	9.22	8.53	8.56	8.00	6.73
	40대	(655)	13.37	8.63	9.29	8.07	9.12	7.67	6.61
	50대 이상	(626)	13.72	9.75	9.24	8.32	8.40	6.52	6.30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12.39	8.76	9.04	8.59	8.16	7.81	6.63
	도심생활권	(129)	13.69	9.50	9.39	7.91	7.95	6.92	6.47
	동북1생활권	(365)	12.56	8.91	9.22	8.33	8.56	7.52	6.64
	동북2생활권	(411)	13.00	8.79	8.88	8.46	8.24	7.31	6.49
	서남1생활권	(270)	12.76	8.67	9.51	8.46	8.16	7.73	6.63
	서남2생활권	(259)	12.44	8.88	8.42	8.09	8.16	6.92	7.04
	서남3생활권	(239)	12.87	9.82	7.97	8.23	8.24	7.08	6.36
	동남1생활권	(249)	12.26	9.65	9.06	7.80	7.64	8.20	6.34
	동남2생활권	(281)	13.56	8.79	8.62	8.42	9.07	7.17	7.2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12.30	8.23	9.04	8.54	8.38	7.56	6.79
	300~499만원	(811)	12.99	9.15	8.64	8.20	8.32	7.16	6.61
	500만원 이상	(1140)	12.89	9.30	9.01	8.25	8.20	7.57	6.61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고객 맞춤형 서비스	공유 경제	1코노미 (1인경제)	뉴트로 (디자인)	(디자인) 콜라보	플라시보 소비	메이커 운동
전체		6.16	5.92	5.70	5.67	4.84	3.88	3.26	3.21
성별	남	7.54	6.40	6.05	5.45	5.05	4.11	3.39	3.49
	여	4.80	5.44	5.35	5.89	4.63	3.65	3.13	2.93
연령	20대	6.75	6.03	4.55	7.72	5.07	4.43	3.86	3.86
	30대	5.64	5.64	5.34	5.87	4.90	3.83	3.34	3.01
	40대	5.79	5.83	6.62	5.09	4.70	3.49	2.97	2.74
	50대 이상	6.51	6.19	6.18	4.16	4.69	3.80	2.91	3.30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6.02	5.60	5.79	5.91	5.08	4.04	3.06	3.11
	도심생활권	6.32	6.15	6.42	5.63	3.90	3.54	3.17	3.04
	동북1생활권	6.03	5.64	5.42	5.66	5.25	3.90	3.15	3.22
	동북2생활권	5.83	6.17	6.04	5.51	4.83	4.03	3.32	3.12
	서남1생활권	5.92	5.90	5.55	5.66	4.85	3.28	3.71	3.23
	서남2생활권	6.54	6.18	5.38	5.67	5.09	4.18	3.39	3.63
	서남3생활권	6.51	6.08	5.97	6.36	4.42	3.53	3.23	3.33
	동남1생활권	6.67	5.85	5.51	5.04	5.30	4.23	3.17	3.30
동남2생활권	6.00	5.86	5.49	5.68	4.19	3.88	3.13	2.9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8	5.69	5.20	6.75	4.96	3.95	3.68	3.46
	300~499만원	6.63	6.19	5.88	5.61	4.58	3.66	3.25	3.13
	500만원 이상	6.15	5.84	5.81	5.20	4.96	4.00	3.06	3.15

[표 6-41] 2019 서울디자인키워드(디자인계 시민)

(단위: %)

		(Base)	힐링 공간	슬로 라이프	스마트 시티	스테이 케이션	공유경제	미니멀 (디자인)	업사이클링
전체		(165)	10.19	9.63	8.99	7.62	7.57	7.51	7.35
성별	남	(62)	9.73	10.33	8.84	7.32	6.83	8.06	6.76
	여	(103)	10.47	9.22	9.08	7.80	8.02	7.17	7.71
연령	20대	(40)	9.43	9.81	8.48	9.13	6.94	7.25	6.77
	30대	(74)	9.89	9.74	8.74	7.63	6.94	7.27	6.68
	40대	(44)	11.26	9.15	9.69	6.79	9.17	7.97	8.30
	50대 이상	(7)	10.98	10.60	10.18	4.09	7.83	8.52	11.79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38)	9.81	9.62	9.02	7.93	8.75	7.00	7.34
	도심생활권	(15)	11.12	5.85	9.91	4.25	5.79	6.62	8.76
	동북1생활권	(14)	9.78	8.87	9.74	7.80	5.52	7.22	4.77
	동북2생활권	(15)	8.68	8.98	9.18	9.28	7.22	9.09	6.99
	서남1생활권	(19)	12.40	9.11	8.50	8.08	5.35	9.01	7.87
	서남2생활권	(8)	7.66	10.31	10.93	4.01	7.00	9.35	5.45
	서남3생활권	(9)	10.52	11.21	6.31	9.18	7.62	6.44	9.21
	동남1생활권	(30)	8.90	9.55	9.16	7.49	9.70	6.85	8.64
동남2생활권	(17)	12.71	13.79	8.04	8.85	7.49	7.45	5.6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3)	9.69	8.10	9.33	6.38	6.45	7.71	8.41
	300~499만원	(44)	9.92	10.22	9.36	6.77	7.10	7.95	6.15
	500만원 이상	(88)	10.51	9.91	8.67	8.51	8.23	7.20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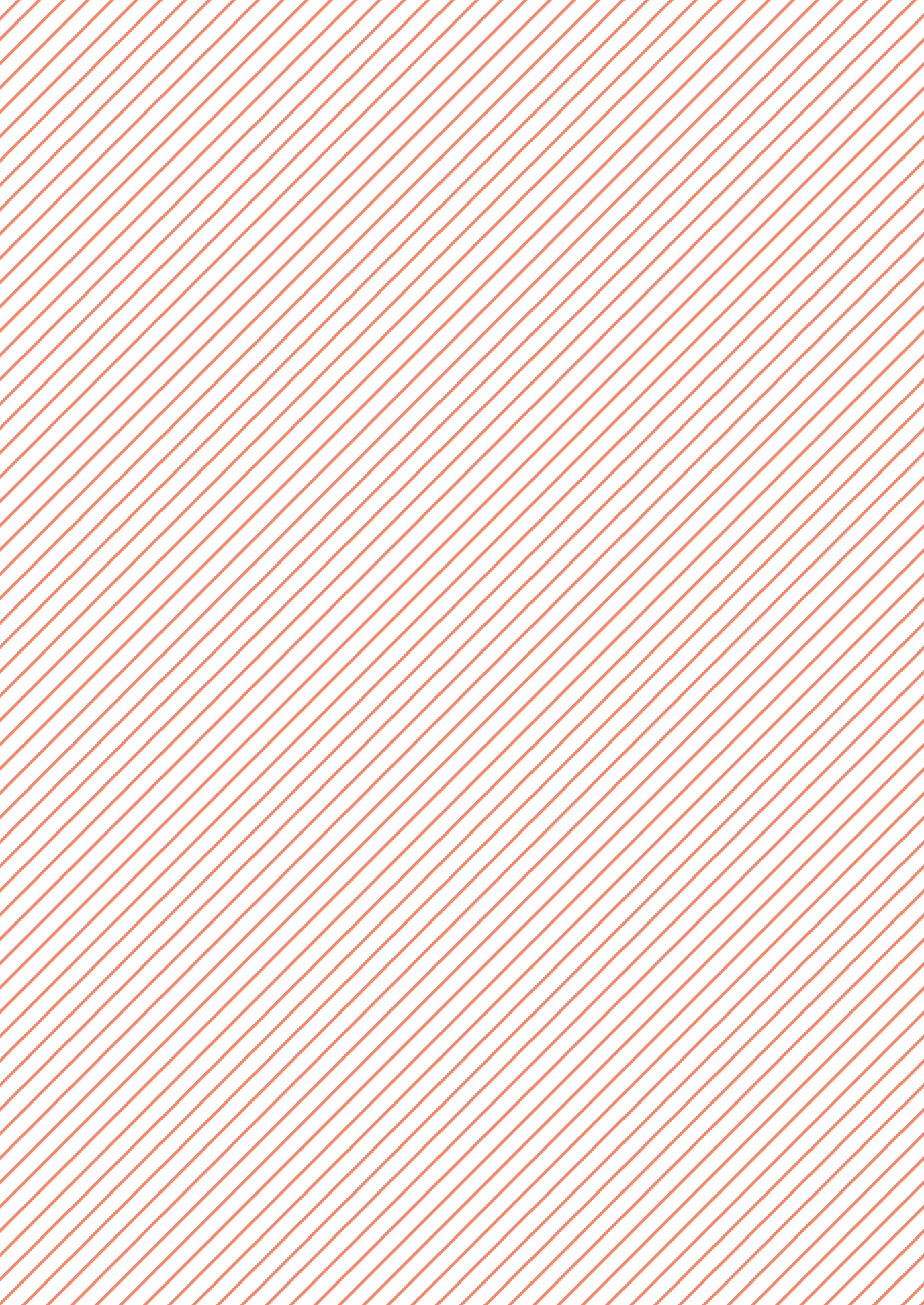
		1코노미 (1인 경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디자인) 콜라보	메이커 운동	뉴트로 (디자인)	셀프인테 리어/핸드 메이드	플라시보 소비
전체		6.46	6.22	6.19	5.34	5.17	4.93	3.82	3.02
성별	남	5.56	5.59	6.65	5.50	6.20	6.01	3.68	2.95
	여	6.99	6.60	5.92	5.24	4.56	4.28	3.90	3.05
연령	20대	7.38	6.85	5.34	5.38	5.36	5.10	3.61	3.16
	30대	6.55	5.92	6.02	5.99	5.40	5.33	4.27	3.64
	40대	5.89	6.55	6.92	4.16	4.84	4.01	3.39	1.92
	50대 이상	3.69	3.87	8.31	5.51	3.93	5.41	2.83	2.46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6.19	7.10	6.51	5.79	4.88	5.11	3.09	1.86
	도심생활권	6.43	5.97	8.74	5.58	5.82	5.34	6.37	3.45
	동북1생활권	6.30	6.15	6.60	5.17	6.55	6.59	5.44	3.50
	동북2생활권	6.49	5.57	6.05	5.83	5.34	5.37	3.24	2.68
	서남1생활권	6.54	5.96	5.70	5.11	5.12	6.64	3.11	1.49
	서남2생활권	6.78	7.56	8.40	5.53	3.64	3.85	3.05	6.48
	서남3생활권	10.24	6.06	3.81	3.82	2.09	3.10	4.25	6.14
	동남1생활권	6.21	5.29	6.04	5.83	6.22	4.75	2.94	2.42
	동남2생활권	5.35	6.56	4.04	3.89	4.56	2.26	4.82	4.57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7.35	6.84	7.45	5.86	4.56	4.21	4.53	3.11
	300~499만원	6.11	6.15	7.14	5.46	6.08	4.97	4.27	2.34
	500만원 이상	6.29	6.03	5.24	5.07	4.95	5.17	3.33	3.32

일반 시민들의 키워드 선정 결과와 디자인계 시민들의 키워드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디자인키워드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1위 ‘힐링 공간’, 2위 ‘슬로 라이프’, 3위 ‘스마트시티’, 4위 ‘스테이케이션’, 5위 ‘업사이클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10위까지의 결과를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6-42] 2019 서울디자인키워드(최종)

	키워드	키워드 정의	디자인 키워드 관련
1위	힐링 공간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회복되는 치유 공간	자연친화 인테리어, 가드닝, 힐링 건축 등
2위	슬로 라이프	천천히, 느리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하는 삶	친환경 디자인, 킨포크 스타일 디자인 등
3위	스마트시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도시	도시 인프라가 편리하게 디자인된 도시 등
4위	스테이케이션	집 혹은 가까운 곳에 편히 머물며 휴식	리조트룩, 홈캉스(Homecance) 디자인 등
5위	업사이클링	버려진 재료를 고부가 제품으로 재탄생	재활용 디자인, 지속가능디자인 등
6위	미니멀 디자인	최소한의 기능과 모양을 가진 디자인	미니멀리즘, 단색의 심플 인테리어 등
7위	공유경제	공간, 제품/서비스를 공유로 사용하고 소비	데이터 공유, 카셰어링, 유희 공간 공유 등
8위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	기술로봇, 도시공간의 터널 센싱 디자인 등
9위	고객 맞춤형 서비스	고객의 취향 변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	고객맞춤형 디자인, 스마트 팩토리 등
10위	1코노미(1인경제)	작은 공간 또는 개인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퍼스널 모바일리티, 1인 가전/가구 디자인 등

전년도 결과(1위 ‘힐링 공간’, 2위 ‘스마트 시티’, 3위 ‘인공지능 및 사물 인터넷’, 4위 ‘공유시스템’, 5위 ‘슬로 라이프’, 6위 ‘업사이클링’, 7위 ‘미니멀 디자인’, 8위 ‘스테이케이션’, 9위 ‘고객맞춤형 서비스’, 10위 ‘디자인 콜라보’)와 비교할 때, 여전히 ‘힐링 공간’이 큰 차이로 1위를 지켰으며, ‘슬로 라이프’는 5위에서 2위로 상승하였다. 반면 ‘스마트시티’는 2위에서 3위로 하락하였으며, 작년 8위에 머물렀던 ‘스테이케이션’은 4위로 상승하였다. ‘업사이클링’ 또한 6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다.



제7장

결론 및 제언

7-1. 부문별 소결

7-2. 정책 제언

제7장 결론 및 제언

7-1. 부문별 소결

7-1-1. 서울의 디자인산업

디자인산업 영역에서는 ‘디자인 분야 기업’과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를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디자인 산업 지원 사업’을 살폈다.

- ‘디자인 분야 기업’ 현황과 관련하여,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디자인 활용기업’과, 전문적으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기업’을 조사하였다. 첫째, ‘디자인 활용기업’ 조사 결과, 서울의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은 41.6%로 2015년에 비해 3.8%p 증가했다(2016년 기준). 디자인 활용기업의 자체 디자인개발 비율은 건수 기준 64.2%, 비용 기준 64.0%이다(2016년 기준). 디자인 활용기업의 재무 및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당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 지출은 1억2811만원으로 전년(1억3763만원)과 유사한 수준이고, 평균 디자인업체 용역비 또한 1044만원으로 전년(1398만원)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 전문기업’ 조사 결과, 서울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은 3054개로 2014년에 비해서 251개가 증가하였고(2016년 기준), 기업평균 매출액은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기준으로는 6억5900만원이며, 산업디자인통계조사 기준으로는 7억689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는 ‘디자인 활용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프리랜스 디자이너’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디자인 활용기업’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3.1명으로 전년도 3.3명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30대와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2016년 기준). 둘째, ‘디자인 전문기업’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3.8명으로 전년도 3.2명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시각디자인, 30대,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2016년 기준). 셋째, ‘프리랜스 디자이너’ 수는 전국적으로 약 4만8천여명 수준이며, 전년(4만1천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규모도 약 1조원으로 전년도 8천억원보다 증가하였다(2016년 기준). 프리랜스 디자이너는 서울의 지역통계를 별도로 산출하지 않지만, 디자인산업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전국 수준의 증가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 ‘디자인 산업 지원 사업’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디자인 창업시설인 ‘DMC 창업지원센터’의 현황을 조사하였다(2018년 기준). 지원업체는 전년대비 4개 감소하여 총 40개이며, 주요 활동 분야는 영상·멀티미디어 업체 13개, 제품디자인 업체 12개, 시각디자인 업체 8개, 환경디자인 업체 4개, 융복합·IoT 업체 3개이다. 인력은 전년대비 12명 감소한 총 82명이며 남성 42.6%(46명), 여성 34.4%(36명)이다.

종합해 보면,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에 대해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디자인 활용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개별 기업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소폭 줄어들고 있다. 또한 프리랜스 디자이너의 수와 산업 규모는 매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산업 종사 인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한다. 디자인 전문기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하기 어렵고, 프리랜스 디자이너들도 영세 자영업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디자인 창업시설 관련 지원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 인력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디자인 창업시설 ‘DMC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업체 수는 전년도 44개에 비해 40개로 감소하였고, 입주업체 인원 또한 94명에서 82명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디자인 창업시설은 ‘DMC 창업지원센터’가 유일하므로 다양한 디자인 관련 창업 시설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단순히 공간대여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문 컨설팅, 경영지원 컨설팅,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

7-1-2. 서울의 디자인문화

디자인문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디자인문화 자원’과 ‘디자인문화 사업’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 ‘디자인문화 자원’은 ‘디자인 관련 문화환경’과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로 구분하였다. 첫째, ‘디자인 관련 문화환경’과 관련해서는 2018년 기준으로 서울의 디자인 관련 문화 기반시설을 조사하였다. 서울 소재 디자인 관련 문화시설은 디자인 관련 박물관 80개, 미술관 43개이며, 디자인 관련 도서관은 2018년 DDP 라이브러리도 새롭게 개관하여 6개(2018년 12월 기준)로 늘어남으로써 모두 129개로 확인되었다. 디자인 관련 문화시설은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에 70개(54.3%)가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둘째, ‘디자인 관련 문화행사’ 조사 결과, 2018년 서울에서 170건이 개최되었다. 2016년 38건, 2015년 2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2017년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를 교육, 전시, 행사로 구분하면 교육 형태 문화행사는 12건, 전시 형태 136건, 행사 형태 22건으로 조사되었다.
- 디자인문화 사업은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공공시설(건축) 개선 디자인’, ‘지역환경 개선 디자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은 서울시가 디자인사업을 통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행하는 디자인 활동이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동북2생활권이 32건, 동북1생활권이 30건순으로 많았다. 둘째, ‘공공편의증진 디자인’은 ‘도시가로 편의증진 디자인’

인 사업’, ‘교통서비스 이용 편의증진 디자인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편의증진 디자인 중 지역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은 23건이며, 도심권에서 7건으로 가장 많이 추진되었다. 셋째, ‘공공시설(건축) 개선 디자인’은 ‘학교환경개선 디자인’과 ‘복지행정공간개선 디자인’, 그리고 ‘도시경관개선 디자인’으로 구분된다. 공공시설(건축) 개선 디자인 중 지역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은 196건이고, 가장 많은 사업이 수행된 지역은 69건 사업이 진행된 동북2생활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이다. 넷째, ‘지역환경개선 디자인’은 ‘지역명소화 디자인 사업’(2개 사업)과 ‘근린환경개선 디자인 사업’(2개 사업)으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종합해 보면, 디자인 관련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는 최근 3년간(2016~2018)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평가 및 고찰이 필요하다. 디자인문화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가 디자인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의 디자인문화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권 내 디자인 관련 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존 생활권 내의 지역편의시설에서 디자인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디자인문화 관련 시설이 도심권 등 일부 권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디자인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향유하는 정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서울시의 다양한 디자인 사업들이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한된 사업 예산의 한계 안에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디자인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7-1-3. 서울의 디자인교육

디자인교육의 영역은 ‘디자인 전문교육’과 ‘시민디자인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디자인 전문교육’은 ‘디자인 전문교육 자원’과 ‘디자인 전문교육 성과’를 조사하였다. 첫째, ‘디자인 전문교육 자원’과 관련한 조사 결과, 2017년 서울 소재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의 디자인학과 및 공예학과의 수는 대학원 과정 153개, 대학 과정 111개, 전문대학 58개, 고등학교 49개로 나타났다. 교원 수는 대학원 과정 473명, 대학 과정 2085명, 전문대학 과정 923명으로 집계되었다. 대학원생 수는 3568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대학생 수는 1만8918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전문대학생 수는 8414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고등학생 수는 6290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둘째, ‘디자인

전문교육 성과'와 관련한 조사 결과, 서울 소재 대학원의 디자인 및 공예전공 졸업자 수는 948명, 대학 졸업생 수는 3121명, 전문대학 졸업생 수는 2507명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취업률은 대학원 48.0%, 대학 60.9%, 전문대학 61.9%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 '시민디자인교육'에 대해서는 '시민디자인교육 자원'과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첫째, '시민디자인교육 자원'에서는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2018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디자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로 운영하거나 전시나 소장 자료와 연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22개 박물관, 18개 미술관이 있다. 또한 시민디자인교육을 운영하는 '지역기반시설'에는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교육청 등이 있다. 시민디자인교육을 운영하는 '지역공동체'로는 '마을예술창작소'가 운영 중이며, 전년도에 비해 15개소가 증가하여 총 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둘째,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60개이며, '지역기반시설이 운영하는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 동 자치회관, 문화원 등 45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622개 프로그램이다. 이 중 아동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은 115개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전문기관으로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시민맞춤형 디자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생애주기별 디자인교육(3개 사업)과 민관 협력 디자인교육(2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종합해 보면, 서울시민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소양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문화기반시설, 지역기반시설에서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생애주기별 시민디자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디자인교육이 성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생애주기별 교육 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자인교육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디자인을 친근하게 느끼고, 다양한 디자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7-1-4. 서울의 디자인정책

서울의 디자인정책 영역에서는 '디자인 관련 제도'와 '디자인 정책 추진'에 대해 조사하였다.

- '디자인 관련 제도'는 '디자인 조례 및 가이드라인'과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디자인 조례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7개의 디자인 심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108회 운영되었고, 1019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2018년 12월 기준). 그 결과 좋은빛위원회는 75.9%의 승인률을, 도시

디자인위원회는 68.3%의 승인률을 기록하였다. 둘째,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제도는 ‘디자인거버넌스’와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등 두 가지 제안창구로 운영되었다. 디자인거버넌스는 4개의 시민제안을 반영하였고,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은 1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10개의 성과물을 선보였다.

- ‘디자인 정책 추진’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디자인재단의 조직, 인력, 예산을 살펴보았다. 첫째, ‘디자인 정책 조직’에 관해 조사한 결과, 디자인정책과는 5개팀(디자인정책팀, 공공디자인사업팀, 공공디자인관리팀, 공공미술사업팀, 공공미술관리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자치구별 1개 이상의 디자인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디자인재단은 기획본부, 사업본부, DDP 운영본부, 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둘째, ‘디자인 부서 인력’에 관해 조사한 결과, 디자인 정책과는 32명의 규모로서 전년도(31명)에 비해 1명이 증가하였고, 자치구별 인원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5개 자치구를 제외하면 80명으로 파악되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인원은 정원 152명 대비 현원 144명으로 운영 중이다. 셋째, ‘디자인 부서 예산’에 관해 조사한 결과, 서울시 디자인재단의 예산은 약 453억원으로 전년도 418억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며(서울디자인재단 운영예산 포함), 자치구별 예산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5개 구를 제외하면 약 71억원으로 집계된다.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예산은 400억원으로 전년도 483억원 대비 감소하였다(일반관리비 제외).

서울시는 디자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개의 디자인 심의 및 지원제도를 연속사업으로 운영하여 매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디자인정책 발굴과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디자인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디자인거버넌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 제안 디자인거버넌스 제도를 확대하여 시민이 직접 서울시에 디자인을 제안하고, 발굴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5. 시민디자인 의식조사

시민디자인의식조사는 서울시에서 행해지는 도시 및 공공 디자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디자인정책의 방향과 만족도,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서울의 디자인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서울시의 디자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 디자인 관련 시설(박물관, 미술관 등)의 방문 빈도수와 시설 만족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다. 시민의 67.0%가 최근 1년 이내에 관련 시설을 방문하였고, 87.6%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만족했다고 대답하였다.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는 공공시설물의 ‘충분도’(55.8%)는 낮지만 그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통해, 디자인 수준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

가 아직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디자인 관련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33.7%가 최근 1년 이내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대체적으로 만족(86.5%)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들이 느끼는 ‘공공시설물의 충분도와 디자인 만족도’를 보면, 공공 시설물의 충분 정도는 ‘안내사인(67.1%)’, ‘교통안전시설(53.1%)’, ‘휴게시설(51.6%)’, ‘위생시설(51.2%)’ 순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3년간의 만족도가 42.4%(16년)에서 55.8%(18년)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 시설물 디자인 만족도는 ‘야간경관(92.2%)’, ‘지하철 안내사인(82.6%)’, ‘시설안내 표지판(80.8%)’의 순으로 높았는데, 전반적인 만족도의 상승과 달리 ‘간판’ 만족도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하락 요인을 찾아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민들이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경험하는 중요 통로 중 하나인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자주한다’는 응답이 41.0%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40.0%)’, ‘나무·금속·도자 공예 및 디자인 활동(37.5%)’ 등의 활동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 서울시민의 디자인교육 참여 경험과 관련하여, 디자인교육 강좌 수강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 3.2%p(1년 기준), 4.0%p(3년 기준) 높아짐으로써 디자인교육 강좌 수요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교육 수강처로는 공공 문화센터(38.6%), 온라인 교육(27.5%), 시설 문화센터(24.5%)의 순인데, 82.1%가 디자인교육에 대해 만족하였고, 84.0%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51.5%는 창업 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였다.
- 최근 디자인교육 참여율이 비교적 높아졌고, 양적인 확대에 따른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기반시설, 지역기반시설, 서울디자인재단 등에서 다양한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생애주기별 시민디자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성인 위주의 디자인교육을 생애주기별 교육이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자인교육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디자인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디자인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3.6%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인 범죄예방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96.1%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그 ‘적용도’도 41.8%를 보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적용도가 낮다는 것은 적용 수준과 시민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서울시민의 디자인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공공미술·도시갤러리 사업의 인지도가 31.5%로 3년간 꾸준히 상승하였고, 응답자의 50.3%가 만족하였다. 디자인 거버넌스 정책은 응답자의 86.9%가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전년과 비교하여 4.6%p 하락하였다. 업사이클링 디자인정책은 87.4%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운영’을, ‘서울패션위크 개최’는 44.0%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디

인재단의 디자인정책·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서울생활용품플라자 운영(20.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디자인 연구 및 사업(19.5%)’, ‘공공공간 시민편의증진 및 안전안심 서비스 디자인 연구 및 사업(16.2%)’ 등의 순으로 선택했다. 한정된 디자인정책 관련 예산 및 인력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의식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업 및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되, 연령과 성별, 소득격차에 따라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7-2. 정책 제언

(1) DDP가 미래디자인 플랫폼이 되기 위한 비전 수립 및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정책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서울생활용품플라자 운영(20.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디자인 연구(19.5%)’, ‘공공공간 시민편의증진 및 안전안심 서비스 디자인(16.2%)’ 등의 순으로 선택함
- 설립 10주년을 맞는 DDP가 국가를 대표하는 미래디자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디자인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전략적·융합적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동시에 글로벌 미래산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비전도 제시해야 함
- 이 과정은 시민과 함께 사회적 문제들의 발굴하는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트렌드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효과적인 디자인 참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2) 디자인중심창업을 현실화하는 시민디자인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시민 응답자의 51.5%는 디자인교육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교육과정을 통하여 동시대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융합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디자인 비즈니스를 경험한 후 달라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구체적·성공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디자인교육을 통해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3) 생애주기별 교육 확대와 함께 생활권 내 디자인문화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 생애주기별 시민디자인교육의 확대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지역기반시설이 운영하는 시민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은 622개에 달함
- 시민디자인교육은 일반인의 디자인교육 확대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전문가의 부활과 조기퇴직 디자이너들의 재할 등을 촉진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추동력을 높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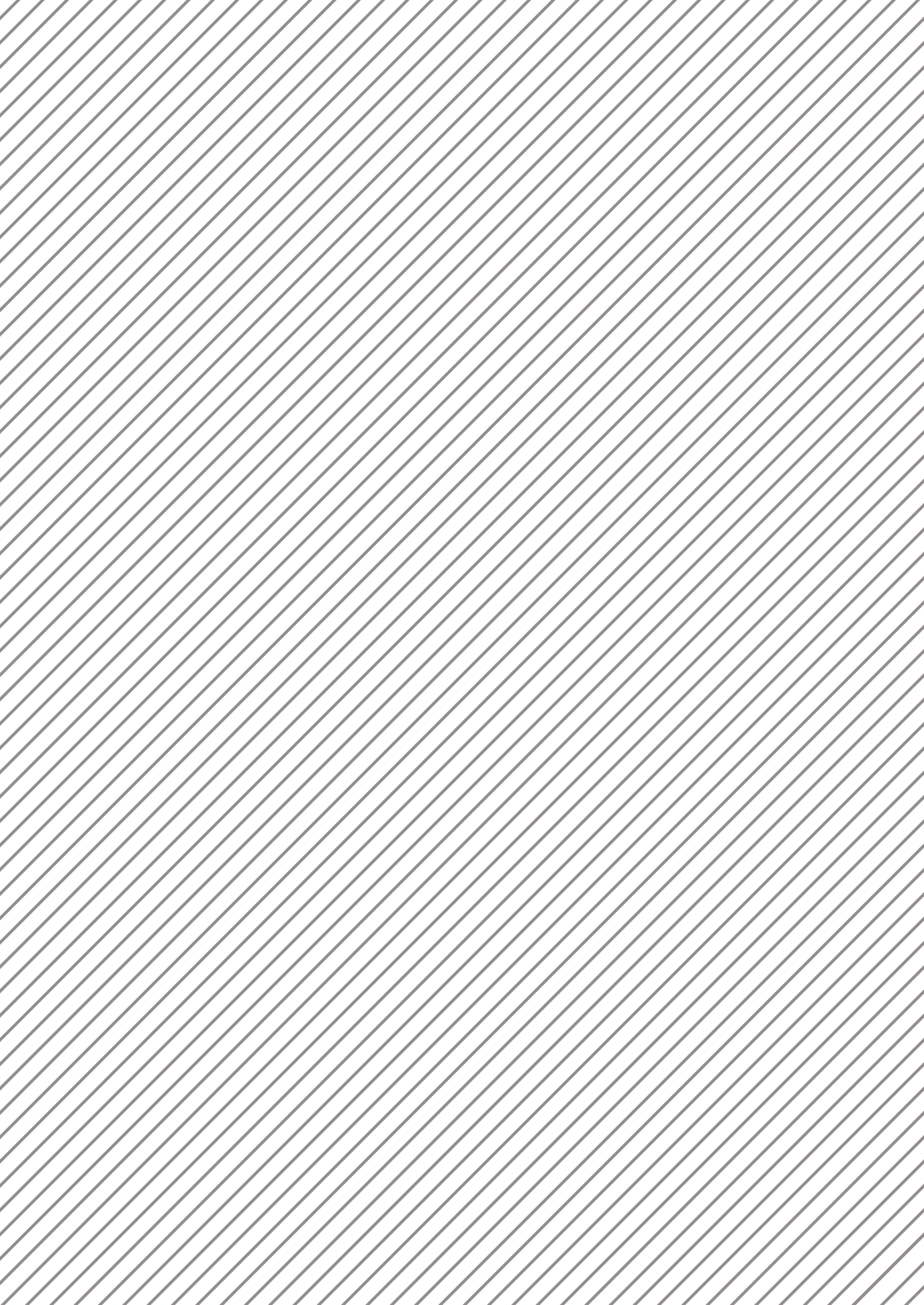
- 그러나 시민디자인교육 관련 문화시설이 도심권에 70개(54.3%)나 집중 분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디자인교육을 위한 문화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시설의 도심 편중 현상도 시급히 해결함으로써, 시민디자인교육 활동이 생활권 내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

(4) 능력 있는 디자인 인재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 서울의 디자인 전문기업은 전년에 비해서 251개가 증가(2016년 기준)한 3054개로서, 영세한 전문기업 및 프리랜서의 창업에 치우침(전국 프리랜서 4만8천여명, 전년 대비 7천여명 증가)
- 디자인기업의 창업은 우수한 디자인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성장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치명적이며, 특히 초기 단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적 체계(기초생활보장, 세무, 금융, 업무환경, 국제업무 등)가 매우 긴요함
- 유능한 디자인경영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며, 이에 수반하는 관련 법제화나 지원책도 필요함

(5) 디자인 사업의 홍보 확대를 통해 디자인사업 인지도가 향상되어야 한다.

-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인지도를 보면 대부분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58.2%)과 서울패션위크(44.0%)에 집중됨
- 새활용플라자 사업, 시민디자인 연구, 공공공간 안전안심 서비스디자인 등이 그 중요성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은 사업에 대한 ‘공감도’는 높은 반면, ‘인지도’나 ‘적용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가 지속되기 때문임
- 한정된 디자인정책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의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가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시민들에게까지 체감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함
- 도출된 사업 및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되, 연령과 성별, 소득격차에 따라 중요 사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디자인정책 사업에 대한 세심한 홍보전략이 필요함



부록

-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 설문지
- 참고문헌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를 위한 시민디자인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디자인서베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설문으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조사명 :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를 위한 시민디자인의식조사

○ 조사기간 : 2018. 11. 30 ~ 12. 7

○ 조사 소요 시간 : 약 15분

○ 조사 주관기관 : (재)서울디자인재단

○ 조사 수행기관 : ㈜마크로밀엠브레인

A. 기본사항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남자

② 여자

A.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 세)

[PROG : 만 20세 이상 조사 진행]

A.3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⑰ 세종

[PROG : 1번 응답자만 조사 진행]

A.3.1 귀하가 서울에서 거주하는 구는 어디입니까? [1개 선택]

① 종로구 ② 중구 ③ 용산구 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⑦ 중랑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⑪ 노원구 ⑫ 은평구 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⑮ 영등포구 ⑯ 강서구

⑰ 양천구 ⑱ 구로구 ⑲ 금천구 ⑳ 동작구 ㉑ 관악구 ㉒ 강남구 ㉓ 서초구 ㉔ 송파구 ㉕ 강동구

B. 디자인 관련 활동

<시민디자인교육>

B.1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아래와 같은 디자인 교육 강좌를 수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1개 선택]

- 디자인(타이포그래피, 모형제작, 3D프린팅, 만화, 캐릭터, 편집디자인, 책 만들기, pop 제작 등) 교육
- 공예(목공예, 가죽공예, 도자공예, 패션소품 등) 교육
- 디자인·공예 이론 교육
- 디자인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① 있다

② 없다

B.1.1 (B1 ②를 선택한 경우) 그렇다면, 귀하는 최근 3년 동안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아래와 같은 디자인 교육 강좌를 수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① 있다

② 없다

B.1.2 (B1 ①을 선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디자인 관련 교육을 경험하셨다면 어디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하신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 선택]

- ① 학교 ② 평생교육원 ③ 공공 문화센터(구립, 동 주민센터 등)
④ 사설 문화센터(백화점, 마트 등) ⑤ 미술관, 박물관
⑥ 동호회 ⑦ 소그룹 활동 ⑧ 온라인 교육 ⑨ 기타

B.1.3 (B1 ①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경험하셨던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 교육에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④ 전적으로 그렇다

③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B.1.4 (B1 ①을 선택한 경우) 해당 교육이 귀하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④ 전적으로 그렇다

③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B.2 귀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 교육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디자인관련시설 방문>

B.3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서울의 디자인 관련시설(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복합문화전시관, 전문도서관, DDP 등)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있다
- ② 없다

B.3.1 (B3 ②를 선택한 경우) 그렇다면, 귀하는 최근 3년 동안 서울의 디자인 관련시설(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복합문화전시관, 전문도서관, DDP 등)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있다
- ② 없다

B.3.2 (B3 ①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서울의 디자인 관련시설(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복합문화전시관, 전문도서관 DDP 등)에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디자인행사 방문 및 참여>

B.4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서울의 디자인 행사(디자인박람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패션위크, 서울디자인위크, 하우징페어 등)에 방문 또는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있다
- ② 없다

B.4.1 (B4 ②를 선택한 경우) 그렇다면, 귀하는 최근 3년 동안 서울의 디자인 행사(디자인박람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패션위크, 서울디자인위크, 하우징페어 등)에 방문 또는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있다
- ② 없다

B.7 귀하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최대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3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고품격 디자인 전시
- ②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디자인 교육
- ③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 ④ DDP 공간을 활용한 디자인문화행사
- ⑤ 다양한 디자인 상품 판매
- ⑥ DDP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

B.8 귀하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관련 활동 중 지난 1년 동안 여가 취미 활동으로 하신 적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 선택]

- ① 시각 예술 및 디자인 활동(서양화 및 동양화, 드로잉, 컬러링, 서예, 캘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등)
- ② 나무·금속·도자 공예 및 디자인 활동(도예, 가구 제작, 가구 리폼, 주얼리 디자인 등)
- ③ 섬유 공예 및 디자인 활동(직물 염색, 퀼트, 뜨개질, 패션디자인, 패션소품 등)
- ④ 모형 제작 활동(장난감 조립, 프라모델 제작, 피규어 제작 등)
- ⑤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조명 관련, 꽃꽂이, 가드닝,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등)
- ⑥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활동(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캐릭터 제작 등)
- ⑦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자인 및 제작 활동
- ⑧ 미술, 디자인, 공예 관련 감상
- ⑨ 없음

B.8.1 귀하는 디자인 관련 여가 취미 활동을 자주 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B.9 귀하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관련 활동 중 앞으로 여가 취미 활동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 선택]

- ① 시각 예술 및 디자인 활동(서양화 및 동양화, 드로잉, 컬러링, 서예, 캘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등)
- ② 나무·금속·도자 공예 및 디자인 활동(도예, 가구 제작, 가구 리폼, 주얼리 디자인 등)
- ③ 섬유 공예 및 디자인 활동(직물 염색, 퀼트, 뜨개질, 패션디자인, 패션소품 등)

- ④ 모형 제작 활동(블럭 만들기, 프라모델 제작, 피규어 제작 등)
- ⑤ 공간 환경 꾸미기 활동(조명 관련, 꽃꽂이, 가드닝,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등)
- ⑥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활동(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캐릭터 제작 등)
- ⑦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자인 및 제작 활동
- ⑧ 미술, 디자인, 공예 관련 감상
- ⑨ 없음

C.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

<공공 시설물>

C.1 귀하는 서울에 다음의 시설물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항목	전적으로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휴게시설(벤치, 그늘막 등)	④	③	②	①
2) 위생시설(공중화장실, 음수대 등)	④	③	②	①
3) 교통안전시설(블라드, 안전휀스 등)	④	③	②	①
4) 안내사인(안내표지판, 안내도 등)	④	③	②	①

C.2 서울시는 복잡한 도시환경을 정리하고 쾌적하게 만들고자 공공시설물 표준안 개발 및 인증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하여 귀하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1) 벤치	④	③	②	①
2) 시티투어버스	④	③	②	①



3) 사설안내표 지판		④	③	②	①
4) 간판		④	③	②	①
5) 야간경관		④	③	②	①
6) 지하철 안내 사인		④	③	②	①
7) 따릉이		④	③	②	①
8)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④	③	②	①

<범죄예방디자인>

C.3 범죄예방디자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이란, “도시 공간에서 범죄 우려가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밝게 조성하여, 불안감과 범죄 발생을 줄이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귀하는 서울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정책 및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필요하다
- ③ 필요하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C.4 서울시는 도시 환경 속에서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환경에 “범죄예방디자인”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유니버설디자인>

C.5 귀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④ 잘 안다
- ③ 어느 정도 안다
- ② 잘 모른다
- ① 전혀 모른다

C.6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공평하게 제품, 건물, 환경 등을 이용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는 서울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C.7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공평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C.8 귀하는 아래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사업 중 서울시가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3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번호	분야
①	거리보행 편의시설(인도, 경사로, 횡단보도 등)
②	대중교통시설(버스, 지하철, 택시, 정류장 등)
③	공공 시설물(관광안내판, 공중전화, 교통카드 판매기, 엘리베이터 등)
④	공공 청사(주민센터, 우체국, 구청, 시청 등)
⑤	도시 휴식 공간(공원, 광장, 놀이터, 산책로 등)
⑥	복지시설(고령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⑦	교육 시설(학교, 도서관 등)
⑧	문화 시설(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등)
⑨	상업 시설(음식점, 호텔, 백화점, 판매시설 등)

C.9 귀하는 아래의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개선 사업 중 서울시가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3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번호	분야
①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용 교재 개발(교과서, 교구, 교육 자료 등)
②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프로그램(전시회, 상설체험관 등)
③	유니버설디자인 강의·세미나
④	유니버설디자인 전문 연구 활동
⑤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⑥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캠페인(공익광고 등)

C.10 서울디자인재단은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래 중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2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번호	분야
①	주거생활제품(생활가구,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②	복지시설제품(고령자 및 장애인 요양시설, 활동 보조기 등)
③	개인이동제품(수동/전동휠체어, 스마트 모빌리티, 자동차 등)
④	대중교통제품(버스, 지하철, 택시의 각 역사 및 정류장 등)
⑤	공공시설제품(인도/차도, 횡단보도, 엘리베이터, 주민센터, 공원 등)

C.11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활동은 시민 참여를 우선으로 합니다. 다음 중 시민참여를 통한 개선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 ②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기
- ③ 시민과 연구진이 함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적용하기
- ④ 개선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환경을 평가하고 홍보하기

C.11.1 귀하는 다음의 시민참여를 통한 개선활동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행별 1개 선택]

항목	예	아니오
①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①	②
②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기	①	②
③ 시민과 연구진이 함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적용하기	①	②
④ 개선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환경을 평가하고 홍보하기	①	②

C.12 귀하의 입장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 그 밖에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

<DDP 유니버설디자인>

C.13 (B.5 ①을 선택한 경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하신 경우, DDP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이용선택권)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C.13.1 (B.5 ①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DDP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구분	항목	전적으로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할 수 없다
A. 이동 시설	1) DDP 내부 들레길의 경사로 기울기가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2) DDP 외부 경사로 기울기가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3) DDP 이동환경의 핸드레일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4) DDP 이동환경의 폭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5) 시각장애이용 유도블록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B. 편의 시설	6) DDP 어디서든 쉴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7) 화장실 시설이 편리하게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8) 주차장 폭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9) 수유시설과 임산부 휴게시설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10) 유모차와 휠체어 대여 시설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C. 정보전달 시설	11) 공간명칭(살림터, 배움터, 알림터)이 어떠한 곳인지 이해가 쉽다.	⑤	④	③	②	①
	12) 가려는 목적지까지 정보와 방향안내가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13) 엘리베이터 위치안내가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14) 여러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표기가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15) 안내데스크가 적절한 장소에 잘 배치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16) 음성정보 안내시설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D. 정보전달 서비스	17) DDP 직원의 안내가 친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18) DDP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19) 스마트 DDP 앱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공공미술 사업>

C.14 귀하는 공공미술 또는 도시갤러리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④ 잘 안다
- ③ 어느 정도 안다
- ② 잘 모른다
- ① 전혀 모른다

C.15 공공미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에서 공공미술이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시 공간 속에 예술 작품을 설치하고 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는 서울의 "공공미술" 사업에서 아래 중 어떤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2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일상생활 공간에 예술적 조형물 설치
- ② 서울 대표 예술작품 공모와 설치
- ③ 도심 속 예술 공간 조성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 ④ 기존 작품의 깨끗한 유지보수

C.1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서울의 “공공미술”에 만족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가할 수 없음
1) 건축물 주변 여유공간에 설치된 조형물이나 그림 작품	⑤	④	③	②	①
2) 서울 주요 공원, 광장의 유명 조형작품	⑤	④	③	②	①
3) 마을이나 건물 담장의 벽화	⑤	④	③	②	①
4) 서울에 있는 주요 동상, 기념비, 지역 상징조형물 등	⑤	④	③	②	①

C.17 귀하는 현재 서울의 “공공미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매우 그렇다
- ③ 약간 그렇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C.18 귀하는 다음과 같은 “공공미술” 작업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행별 1개 선택]

항목	예	아니오
1) 작품 설치 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2) 작가와 함께 실제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3) 작품 설치 후, 평가 및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고 싶다	①	②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

C.19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이란, “시민, 학생, 디자이너,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공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정책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는 서울에서 “디자인 거버넌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C.20 귀하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행별 1개 선택]

항목	예	아니오
1) 디자인 아이디어나 우리 주변의 문제, 생활에 불편한 점을 찾아 제안하기	①	②
2) 제안된 아이디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①	②
3) 컨셉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구체화하여 디자인 완성하기	①	②
4)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을 실물로 제작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①	②
5) 현장에 적용된 디자인을 감상하고 평가하기	①	②

<업사이클링디자인>

C.21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란, “버려지는 자원을 단순히 재활용하기보다 새로운 기능성과 감각적 디자인을 접목시켜 부가가치를 높은 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는 서울에서 “업사이클링 디자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공공디자인>

C.22 공공디자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공간에서 시민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시설물의 외형, 색채, 배치 등을 디자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는 서울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항목	전적으로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서울의 공공디자인은 매력적이다.	④	③	②	①
2) 서울의 공공디자인은 주변 경관과 잘 연결된다.	④	③	②	①
3) 서울의 공공디자인은 보행자 친화적이다.	④	③	②	①
4) 서울의 공공디자인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④	③	②	①
5) 서울의 공공디자인은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	④	③	②	①

C.23 귀하는 현재 서울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C.24 아래 보기 중 서울의 “공공디자인” 정책이 추구해야 할 주요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3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디자인 관련 문화 환경 조성
- ②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③ 디자인을 통한 편의증진
- ④ 디자인을 통한 환경개선
- ⑤ 디자인을 통한 경제 활성화
- ⑥ 시민의 디자인 참여 증진

C.25 귀하는 일상에서 만나는 작품과 행사들이 도시환경 개선과 문화 경험 제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서울디자인키워드>

C.26 아래 표에 열거한 10개의 서울디자인키워드는 인터넷 포털과 전문정보, 디자인 관련 서적에서 추출한 키워드로, 전년도에 예측한 올해(2018년)의 “서울디자인키워드”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보시기에 올해의 키워드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키워드	키워드 정의	디자인 키워드 관련
1 힐링 공간	도심 속에서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힐링 건축, 중정 인테리어 등
2 스마트시티 Smart City	정보통신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미래형 첨단 도시	편리한 도시 디자인 등
3 인공지능(AI) 및 사물 인터넷(IoT)	지능을 갖춘 시스템에 의해 구축되며,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	로봇 청소기, 독거노인을 위한 센싱, 도시공간의 터널 센싱 디자인 등
4 공유시스템 (공유도시)	공용으로 사용하고 같이 소비하는 것	카셰어링, 공간공유 등
5 슬로라이프 Slow Life	천천히, 느리게 사는 인생	자연색을 강조하는 친환경 디자인
6 업사이클링 Upcycling	버려진 것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재활용 이상의 디자인

7	미니멀(디자인) Minimal(Design)	군더더기 없는 기능과 모양	벽걸이 세탁기, 단색의 심플한 인테리어
8	스테이케이션 Staycation	집 혹은 집 근처에서 편히 머물며 보내는 휴가	리조트룩, 휴양지풍 인테리어 디자인
9	고객맞춤형서비스	고객의 취향 변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	3D 프린터, 스마트 팩토리 등
10	(디자인) 콜라보 (Design) Collabo	서로 다른 브랜드나 제품을 결합시키는 것	아트 콜라보레이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C.27 아래의 보기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까운 미래 서울의 디자인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뽑은 내년도(2019년)의 “서울디자인키워드”입니다. 귀하는 내년도의 키워드로 어떠한 것을 선호하십니까? 가장 선호하시는 것과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Max-diff 방식)

(가장 선호하시는 것 : _____),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 : _____)

키워드	키워드 정의	디자인 키워드 관련
메이커 운동 Maker movement	창의적 만들기를 실천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	3D프린터, 3차원 스캐너, 공동작업장 등
1코노미 (퍼스널 제품/서비스)	작은 공간 또는 개인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퍼스널 모빌리티, 1인 가전/가구 디자인 등
셀프인테리어 /핸드메이드	공간을 직접 꾸미거나 만드는 취미 활동	DIY, 조립 가구, 가상 인테리어 등
뉴트로(디자인) New-tro(Design)	이전 세대의 물건 및 디자인의 재해석	복각 신드롬, 아날로그, 복고 트렌드 등
플라시보 소비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	위안비용, 굿즈 소비, 탕진소비 등
힐링 공간	정신적 · 신체적 상태가 회복되는 치유 공간	자연친화 인테리어, 가드닝, 힐링 건축 등
스마트시티 Smart City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도시	도시 인프라가 편리하게 디자인된 도시 등
인공지능(AI) 및 사물 인터넷(IoT)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	기술로봇, 도시공간의 터널 센싱 디자인 등
공유경제	공간, 제품/서비스를 공유로 사용하고 소비	데이터 공유, 카셰어링, 유휴 공간 공유 등
슬로라이프 Slow Life	천천히, 느리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하는 삶	친환경 디자인, 킨코크 스타일 디자인 등
업사이클링 Upcycling	버려진 재료를 고부가 제품으로 재탄생	재활용 디자인, 지속가능디자인 등
미니멀(디자인) Minimal(Design)	최소한의 기능과 모양을 가진 디자인	미니멀리즘, 단색의 심플 인테리어 등
스테이케이션 Staycation	집 혹은 가까운 곳에 편히 머물며 휴식	리조트룩, 홈강스(Homecance) 디자인 등
고객맞춤형서비스	고객의 취향 변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	고객맞춤형 디자인, 스마트 팩토리 등
(디자인) 콜라보 (Design) Collabo	서로 다른 브랜드나 제품을 결합시키는 것	아트 콜라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인지도 및 중요도>

C.28 아래의 보기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현재 실시 중인 디자인 정책 및 사업입니다. 귀하는 아래의 보기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행별 1개 선택]

서울디자인재단 정책	알고 있음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름	들어본 경험 없음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운영	①	②	③
2) 서울패션위크 개최	①	②	③
3) 해외 디자인 전시 참가 지원, 유통·판매지원, 디자인공예산업 활성화	①	②	③
4) 서울디자인클라우드 개최	①	②	③
5)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①	②	③
6)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①	②	③
7) 시민서비스디자인 연구 및 사업	①	②	③

C.29 아래의 보기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현재 실시 중이며, 앞으로 추진할 디자인 정책 및 사업입니다.

귀하는 아래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 1개, 최대 3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사회문제 해결(고령화, 낙후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시민디자인연구 및 사업
- ② 서울패션위크와 동대문 패션상권, 패션봉제산업 동반성장
- ③ 해외디자인전시 참가 지원, 디자인 상품 유통·판매 지원을 통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
- ④ 서울디자인클라우드 등 국제 디자인 행사개최 및 해외 네트워크 협력 확대
- ⑤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전시관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
- ⑥ 버려지는 자원에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 ⑦ 환경, 인구, 주거, 건축 등 도시 이슈를 논의·공유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⑧ DDP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디자인 전시·행사 개최
- ⑨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시민 디자인 교육
- ⑩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청년 디자인 창업 활성화
- ⑪ 공공공간(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대중교통시설 등) 시민편의증진 및 안전안심 서비스디자인연구 및 사업

C.30 서울디자인재단에 바라는 점 또는 재단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

D. 개인 관련 사항

D.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학 재학/중퇴/졸업
③ 4년제 대학 재학/중퇴/졸업 ④ 대학원 재학/중퇴/졸업

D.2 귀하는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① 관리직 ② 전문직·준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임·어업직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⑧ 장치·기계조작·조립직
⑨ 단순노무직 ⑩ 직업군인 ⑪ 퇴직
⑫ 주부 ⑬ 학생 ⑭ 무직

D.3 귀하는 현재 디자인 관련 분야에 속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D.3.1 (D.3의 ①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다음의 디자인 관련 분야 중 어느 그룹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학생 ② 교수 ③ 연구원
④ 관련 업계 종사자 (대표, 임원, 직원 등) ⑤ 프리랜서
⑥ 기타 ()

D.3.2 (D.3.1의 ①, ②, ③을 선택한 경우) 귀하의 세부 전공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의상/패션 디자인 ② 산업 디자인 ③ 시각 디자인 ④ 광고 디자인
⑤ 영상 디자인 ⑥ 웹 디자인 ⑦ 해당 없음

D.3.3 (D.3.1의 ④, ⑤, ⑥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디자인 관련 업계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① 기획/인사/총무 ② 홍보/마케팅/영업 ③ 연구/개발
④ IT/전산 ⑤ 디자인 ⑥ 교육
⑦ 기타 ()

D.4 귀하의 가정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 인니까? [1개 선택]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만원 이상

서울디자인서베이 참고문헌

제1장 개요

Boulding, K. E. (1956). General systems theory—the skeleton of science. *Management science*, 2(3), 197–208.
Churchman, C. W. (1979). *The systems approach and its enemies*. Basic Books.
서울디자인재단(2008). 서울디자인서베이,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2015). 서울디자인서베이,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2017). 서울디자인서베이, 서울디자인재단.
Koontz, H. (1980). The management theory jungle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2), 175–188.

제2장 디자인산업

한국디자인진흥원(2013). 2013산업디자인통계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2014). 2014산업디자인통계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2015). 2015산업디자인통계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2016). 2016산업디자인통계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제3장 디자인문화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서울시(2017). 서울시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공간개선 백서

각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국립중앙박물관 외 77개 박물관 홈페이지
국립현대미술관 외 39개 미술관 홈페이지
aT center (<http://www.at.or.kr>)
DDP 라이브러리(<https://www.ddp.or.kr/event/detail/1661?menuId=20>)
SETEC (<http://www.setec.or.kr>)
교보문고 (<http://http://www.kyobobook.co.kr>)
국민대학교 디자인도서관 (<http://lib.kookmin.ac.kr/design/index.ax>)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http://www.ddp.or.kr>)
서울디자인재단 패션라이브러리 (<http://www.fashionseoul.kr/page/26/detail?menuId=110>)
서울디자인재단 (<http://www.seoul.design.or.kr>)
서울시의회 (<http://www.smc.seoul.kr/board/BoardList.do?boardTypeId=98&menuId=001007003>)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http://stressfreedesign.co.kr>)
예술의 전당 (<http://www.sacticket.co.kr>)
엘로카펫 (<http://childmaeul.org>)
코엑스 (<http://www.coex.co.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CDF아카이브센터 (<https://www.kcdf.kr/information/archive.jsp>)
한국방송공사 광고도서관 (https://adlib.kobaco.co.kr/ws/kobaco.jsp?w2xPath=/kobaco_library/common/index.xml)
현대카드 디자인라이브러리 (<http://library.hyundaicard.com>)

제4장 디자인교육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통계자료 SM2017-10)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chedi.re.kr>)
마을예술창작소 (<http://artmasulso.net>)
서울디자인재단 (<http://www.seoul-design.or.kr>)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https://50plus.or.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서울시창의감성교육배움터 (<http://www.sen.go.kr/crezone>)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홈페이지 (<http://www.hifive.go.kr>)

제5장 디자인정책

각 자치구별 조사

서울디자인재단 (<http://www.seoul-design.or.kr>)
서울시의회 (<http://www.smc.seoul.kr/board/BoardList.do?boardTypeId=98&menuId=001007003>)
서울시 (<http://www.seoul.go.kr>)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홈페이지 (<https://desgn.seoul.go.kr/sdg>)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

제2편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제2편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요약 및 정책건의	13
제1장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SUD) 서베이 개요	21
1-1.	목적	22
1-2.	조사 범위 및 방법	22
1-3.	이론적 배경	26
1-4.	지표체계	27
1-5.	기대 효과	31
제2장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33
2-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	35
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	42
제3장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45
3-1.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	47
3-2.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	60
제4장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67
4-1.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69
4-2.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	79

제5장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87
5-1.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	89
5-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	93
제6장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97
6-1.	조사 개요	98
6-2.	조사 결과	103
제7장	결론 및 제언	161
7-1.	부문별 소결	162
7-2.	정책 제언	171
부록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설문지(국문)	176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설문지(영문)	19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입법 및 국제회의	208
	참고문헌	216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표 목차

[표 1-1]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조사 내용	23
[표 1-2]	서울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내용	24
[표 1-3]	단계별 추진 내용	25
[표 1-4]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지표체계 수립 과정	27
[표 1-5]	조사항목과 지표	27
[표 2-1]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지표체계	34
[표 2-2]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 수상 제품 및 기업 현황	36
[표 2-3]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참가 기업 현황	38
[표 2-4]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용역 수행기업	41
[표 2-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	42
[표 2-6]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회	43
[표 3-1]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지표체계	46
[표 3-2]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 투입 예산	47
[표 3-3]	최근 3년간(2016~2018)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 대상지	49
[표 3-4]	최근 3년간(2016~2018)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50
[표 3-5]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사업 개요	51
[표 3-6]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	51
[표 3-7]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시 권역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본·예비 인증서 교부현황	53
[표 3-8]	최근 3년간(2015~2017)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56
[표 3-9]	최근 3년간(2015~2017) 서울시 권역별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57
[표 3-10]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1~8호선 편의시설 현황	59
[표 3-11]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현황	61
[표 3-12]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현황	63
[표 3-13]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65
[표 4-1]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지표체계	68
[표 4-2]	유니버설디자인 학과(전공)	70
[표 4-3]	최근 6년간(2013~2018)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졸업생 진학률	71
[표 4-4]	최근 3년간(2016~2018)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학생 수	72
[표 4-5]	최근 3년간(2016~2018) 강남대학교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학과 학생 수	73
[표 4-6]	최근 3년간(2016~2018)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인클루시브디자인 전공 학생 수	74
[표 4-7]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과과정	75
[표 4-8]	유니버설디자인 정규기관 협력 프로그램	76
[표 4-9]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기관	78

[표 4-10]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시 소재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용역 수행기관	79
[표 4-11]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 개요	81
[표 4-12]	최근 3년간(2016~2018)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과정 교육 개요	84
[표 5-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지표체계	89
[표 5-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6840호 / 2018.3.22) 관련 법령	89
[표 5-3]	유니버설디자인 민·관거버넌스 구성·운영 사업 개요	90
[표 5-4]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평가 및 콘텐츠 개발 개요	91
[표 5-5]	서울디자인서베이,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연구 사업 내용	92
[표 5-6]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및 리빙랩 조성 기본연구 사업 개요	92
[표 5-7]	디자인정책과 내 유니버설디자인 업무 조직 및 인력	93
[표 5-8]	서울디자인재단 내 유니버설디자인 업무 조직 및 인력	94
[표 5-9]	최근 3년간(2016~2018) 디자인정책과 내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예산	95
[표 5-10]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디자인재단 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	95
[표 6-1]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응답자 구성 및 세부사항	99
[표 6-2]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응답자 구성 및 세부사항(그룹별)	100
[표 6-3]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응답자 유형별 세부사항	101
[표 6-4]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응답자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102
[표 6-5]	공공시설 이용 정도	103
[표 6-6]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104
[표 6-7]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주는 요인	105
[표 6-8]	전년도 대비 공공시설 개선감	106
[표 6-9]	타 국가 주요도시 대비 공공시설 만족감	107
[표 6-10]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108
[표 6-11]	유니버설디자인 인지 정도(일반 시민)	109
[표 6-1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필요성(일반 시민)	110
[표 6-13]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일반 시민)	111
[표 6-14]	서울 지역 도시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12
[표 6-15]	거주 지역 공공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13
[표 6-16]	가로 보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15
[표 6-17]	가로 차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16
[표 6-18]	공원/광장 진입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17
[표 6-19]	공원/광장 이동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18
[표 6-20]	공원/광장 위생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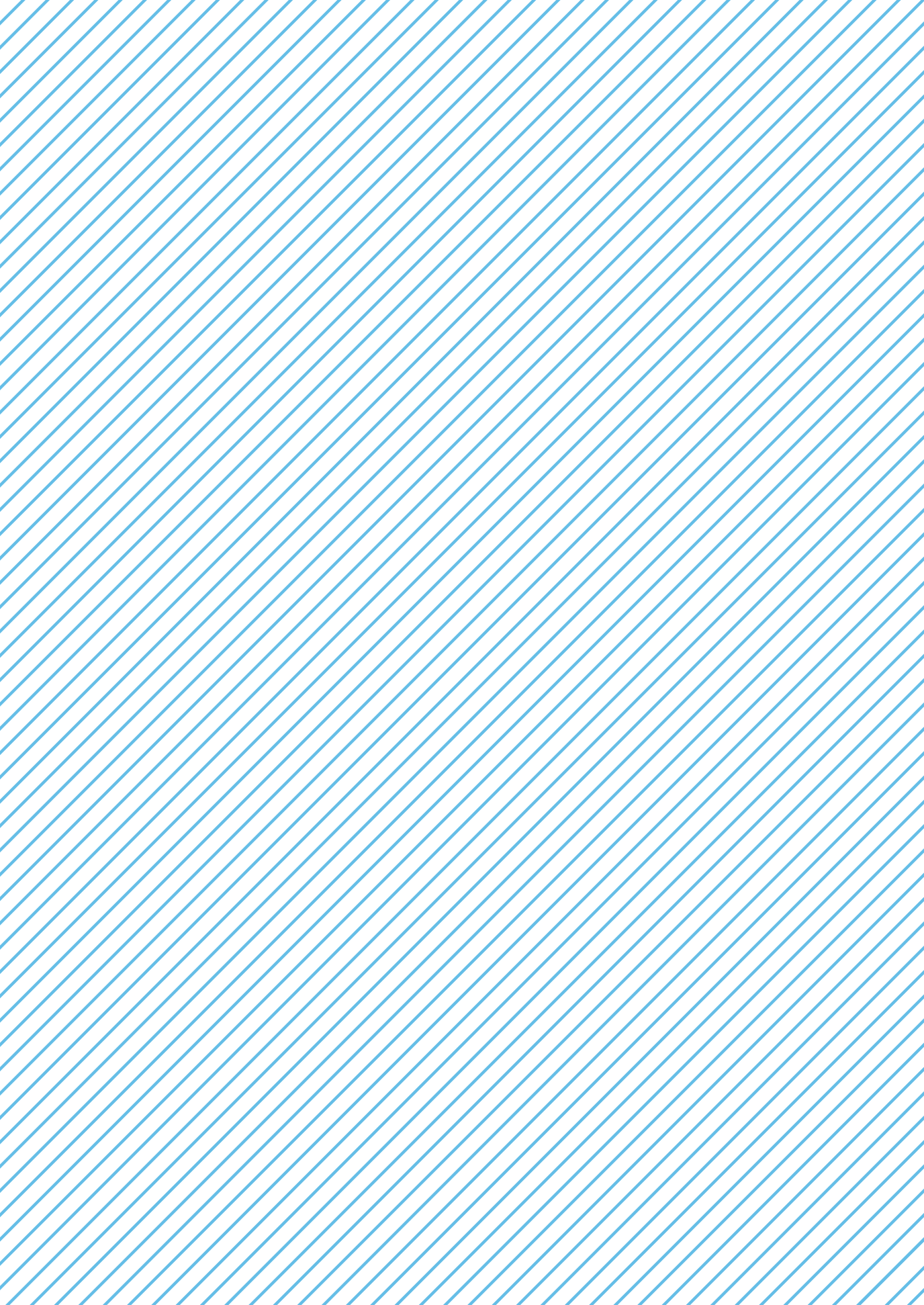
[표 6-21]	공원/광장 편익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20
[표 6-22]	공원/광장 놀이휴게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21
[표 6-23]	공공 건축물 접근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22
[표 6-24]	공공 건축물 진입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23
[표 6-25]	공공 건축물 이동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24
[표 6-26]	공공 건축물 위생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25
[표 6-27]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종합	126
[표 6-28]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경험	127
[표 6-29]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28
[표 6-30]	DDP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적용 정도(일반 시민)	129
[표 6-3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동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31
[표 6-32]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편의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32
[표 6-33]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정보전달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33
[표 6-34]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정보전달 서비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34
[표 6-35]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인지도/중요도/효과성	135
[표 6-36]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인지도/중요도/효과성	137
[표 6-37]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인지도/중요도/효과성	139
[표 6-38]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인지도/중요도/효과성	141
[표 6-39]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인지도/중요도/효과성	143
[표 6-40]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전반의 만족도	146
[표 6-41]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	147
[표 6-42]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일반 시민)	149
[표 6-43]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개선 사업	150
[표 6-44]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개선 사업(일반 시민)	151
[표 6-45]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형	153
[표 6-46]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형(일반 시민)	153
[표 6-47]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 방식	155
[표 6-48]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일반 시민)	156
[표 6-49]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참여의향	157
[표 6-50]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 개선활동 참여 의향(일반 시민)	158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그림 목차

[그림 3-1]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 투입 예산 변화 추이	48
[그림 3-2]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본·예비인증서 교부현황	54
[그림 3-3]	서울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운영	54
[그림 3-4]	서울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본·예비인증서 권역별 총 교부현황	55
[그림 3-5]	서울시 권역별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58
[그림 3-6]	서울시 권역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58
[그림 3-7]	지하철 1~8호선 편의시설 현황	59
[그림 3-8]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관람객 변화 추이	61
[그림 3-9]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관람객 변화 추이	63
[그림 4-1]	최근 6년간(2013~2018)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졸업생 진학을 변화 추이	71
[그림 4-2]	최근 3년간(2016~2018)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학생 수 변화 추이	72
[그림 4-3]	최근 3년간(2016~2018) 강남대학교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학과 학생 수 변화 추이	73
[그림 4-4]	최근 3년간(2016~2018)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인클루시브 디자인전공 학생 수 변화 추이	74
[그림 4-5]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 이수학생 변화 추이	82
[그림 4-6]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82
[그림 4-7]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 인식	83
[그림 4-8]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추천	83
[그림 4-9]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	84
[그림 4-10]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과정 현장체험	85
[그림 6-1]	공공시설 이용 정도	103
[그림 6-2]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104
[그림 6-3]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주는 요인	105
[그림 6-4]	전년도 대비 공공시설 개선감	106
[그림 6-5]	타 국가 주요도시 대비 공공시설 만족감	107
[그림 6-6]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108
[그림 6-7]	유니버설디자인 인지 정도(일반 시민)	109
[그림 6-8]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필요성(일반 시민)	110
[그림 6-9]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일반 시민)	111
[그림 6-10]	서울 지역 도시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12
[그림 6-11]	거주 지역 공공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13
[그림 6-12]	가로 보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15
[그림 6-13]	가로 차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16
[그림 6-14]	공원/광장 진입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17

[그림 6-15]	공원/광장 이동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18
[그림 6-16]	공원/광장 위생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19
[그림 6-17]	공원/광장 편의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20
[그림 6-18]	공원/광장 놀이휴게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21
[그림 6-19]	공공 건축물 접근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22
[그림 6-20]	공공 건축물 진입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23
[그림 6-21]	공공 건축물 이동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24
[그림 6-22]	공공 건축물 위생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125
[그림 6-23]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종합	126
[그림 6-24]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경험	127
[그림 6-25]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28
[그림 6-26]	DDP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적용 정도(일반 시민)	128
[그림 6-27]	DDP 시설별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적용 정도(일반 시민)	130
[그림 6-28]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동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31
[그림 6-29]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편의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32
[그림 6-3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정보전달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33
[그림 6-3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정보전달 서비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134
[그림 6-32]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135
[그림 6-33]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인지도	136
[그림 6-34]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중요도	136
[그림 6-35]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효과성	136
[그림 6-36]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137
[그림 6-37]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인지도	138
[그림 6-38]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중요도	138
[그림 6-39]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효과성	138
[그림 6-40]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 창의 교육(2017)	139
[그림 6-41]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인지도	139
[그림 6-4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중요도	140
[그림 6-43]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효과성	140
[그림 6-44]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2017)	140
[그림 6-45]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인지도	141
[그림 6-46]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중요도	142
[그림 6-47]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효과성	142
[그림 6-48]	교통약자를 위해 서울지하철 환승. 이동을 위한 지도 개발(2017)	143

[그림 6-49]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인지도	144
[그림 6-50]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중요도	144
[그림 6-51]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효과성	144
[그림 6-5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전반의 만족도	146
[그림 6-53]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	147
[그림 6-54]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일반 시민)	148
[그림 6-55]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개선 사업	150
[그림 6-56]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개선 사업(일반 시민)	151
[그림 6-57]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형	152
[그림 6-58]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형(일반 시민)	153
[그림 6-59]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 방식	154
[그림 6-60]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중요한 시민참여 개선 활동(일반 시민)	155
[그림 6-61]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참여의향	157
[그림 6-62]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 개선활동 참여 의향(일반 시민)	158



요약 및 정책건의

요약 및 정책건의

제2편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1. 개요

- 연구명 : 2018년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 연구목적 : 서울유니버설디자인 산업-문화-교육-정책 영역 지표별 조사로 서울디자인 현황 DB를 구축하고, 서울시 및 서울디자인재단이 시행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 파악 및 시민의식 분석 등으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 연구범위 :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산업-문화-교육-정책 조사 및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 연구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월
 - 문헌조사 및 분석 : 2018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전문가 FGI : 2018년 10월 26일(1차), 2018년 12월 28일(2차)
 - 유니버설디자인의식조사 : 2018년 11월 30일 ~ 12월 14일
- 조사방법: 관련문헌 내용분석, 집계자료 수집 및 분석,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

2.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개발 기업 :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 수상 기업(매년 4개사 수상) 중 서울시 소재 기업은 3개사(16년) → 2개사(17년) → 3개사(18년)임.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참가 기업은 20개 종류, 300여 점(16년) → 21개사(17년)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전시회로 진행됨에 따라 업체 수 확인되지 않음(18년)
-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수행 기업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용역 수행기업의 총 계약 건수는 10건(16년) → 8건(17년) → 9건(18년). 총 계약금액은 12.3억원(16년) → 7.2억원(17년) → 10.2억원(18년)임

②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 : 총 5개(18년)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회 : 총 3개(18년)

3.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①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을 조사. 사업대상지는 2개(16년) → 1개(17년) → 1개(18년)이며, 사업 예산은 2.6억원(16년) → 2.6억원(17년) → 3.4억원(18년)으로 증가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대상 공공 건축물 : ‘공공 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조사함. 12개소(16년) → 10개소(17년) → 15개소(18년).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6천만원(17년),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7억원(18년)임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건축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 조사 결과, 본인증 7건, 예비인증 72건(16년) → 본인증 22건, 예비인증 114건(17년) → 본인증 23건, 예비인증 61건(18년)임.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주택으로 ‘유디하우스 화곡’ 건설 중 (2019년 완공 예정)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편의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711,187개(15년) → 238,984개(16년) → 114,679개(17년). 지하철 편의시설로는 휠체어리프트 161개, 무빙워크 20개, 에스컬레이터 1,733개, 엘리베이터 807개(17년 기준)

②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

-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 관람객 7,913명(16년) → 5,800명(17년) → 7,649명(18년)
-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 관람객 412명(16년) → 403명(17년) → 413명(18년)
-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 수상작 19개(16년) → 24개(17년) → 23개(18년)

4.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①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기관 :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기관은 고등학교 1개, 전문대학 1개, 대학교 2개, 대학원 1개(18년)이며 교과과정은 총 8개(18년).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협력 프로그램은 학술대회, 학술지, 세미나 및 워크샵, 공모전 등 다양함
-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기관 :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수행기관은 학회 2개, 협회 3개, 연구소·센터 2개 등(18년).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3개(16년) → 1개(17년) → 3개(18년)임

②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시민 교육인 초등학교 대상 'UD 인성·창의교육' 사업 조사 결과, 928명(16년) → 2,458명(17년) → 3,874명(18년)으로 증가.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은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교육인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사업 조사 결과 63명(16년) → 52명(17년) → 53명(18년)임

5.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①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

- 민·관거버넌스 제도 :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사업 진행, 서울시민 70인과 분야별 전문가 30인 참여
-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 사업 :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평가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조사 결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주변(G밸리) 선정하여 2018년 6월~12월까지 진행. '서울디자인서베이·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연구' 사업이 있으며, 매년 진행되는 서울디자인서베이 사업 이외에, 2018년부터 서울디자인서베이와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를 통합.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및 리빙랩 조성 기본연구' 사업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교육 및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확산 및 기반조성

②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

- 유니버설디자인 조직 및 인력 :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5명), 공공디자인사업팀(3명), 공공디자인관리팀(2명)이 있으며, 서울디자인재단 내 사업기획팀(4명), 서울생활용플라자센터(2명) 담당
- 유니버설디자인 예산 :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은 8.2억원(16년) → 10.0억원(17년) → 7.7억원(18년)이며, 서울디자인재단 내 UD관련 예산은 6.7억원(16년) → 1.9억원(17년) → 4.5억원(18년)임

6. 유니버설디자인의식조사

- 유니버설디자인의식조사는 5개 그룹(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룹별 각 50명, 서울시 거주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정

① 서울시 공공시설

- 공공시설 이용 정도 : 이해관계자 평균은 82.0%이며, 영유아동반자 90.0%, 외국인 88.0%, 임산부 82.0%, 고령자 76.0%, 장애인 74.0% 순
-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 이해관계자 평균은 31.6%이며, 장애인 66.0%, 영유아동반자 48.0%, 임산부 24.0%, 외국인 16.0%, 고령자 4.0% 순
-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주는 요인 : 안내 정보 부족(44.4%), 시설물 이용 편의성 부족(37.6%), 보행 시 장애물 많음(28.4%), 길/목적지 찾기 어려움(24.8%), 안전성 부족(17.6%), 심미성 부족(6.0%) 순임. 장애인은 안내 정보 부족(52.0%), 보행 시 장애물 많음(48.0%)이 높음. 임산부는 시설물 이용 편의성 부족(42.0%)이 높음. 고령자는 안내 정보 부족(56.0%), 시설물 이용 편의성 부족(46.0%)이 높음. 영유아동반자는 시설물 이용 편의성 부족(60.0%), 안내 정보 부족(44.0%)이 높음. 외국인은 안내 정보 부족(40.0%), 길/목적지 찾기 어려움(36.0%)이 높음
- 전년도 대비 공공시설 개선감 : 이해관계자 평균은 49.0%이며, 영유아동반자 58.0%, 임산부 56.0%, 고령자 46.0%, 장애인 36.0% 순
- 타 국가 주요도시 대비 공공시설 만족감 : 외국인 : 82.0%이며, 국적별로는 아프리카 100.0%, 유럽 83.3%, 아시아 80.6%, 아메리카 75.0%임

②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 인지도 조사 결과, 일반 시민은 18.0%(16년) → 19.1%(17년) → 22.9%(18년)로 증가. 이해관계자 평균은 39.2%이며, 장애인 62.0%, 임산부 40.0%, 외국인 34.0%, 고령자 32.0%, 영유아동반자 28.0%임. 정책 필요성 조사 결과, 일반 시민은 92.6%(16년) → 94.2%(17년) → 94.4%(18년)로 증가. 적용 동의 정도 조사 결과, 일반 시민은 31.6%(16년) → 38.5%(17년) → 37.9%(18년)(유의함, p=0.00). 이해관계자 평균은 47.6%이며, 외국인 74.0%, 임산부 52.0%, 고령자 40.0%, 장애인 38.0%, 영유아동반자 34.0%
- 공공시설 평가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네 원칙, 즉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이용선택권이 있다는 데 동의/평가한 비율의 공공시설별 평균은 공공건축물 63.0%, 공원/광장 62.9%, 가로 55.2%. 세 개 공공시설에 대해 동의/평가한 비율의 원칙별 평균은 편리성 65.1%, 안전성 60.3%, 이용선택권 59.5%, 쾌적성 56.6%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평가 : 방문경험은 이해관계자 평균 64.0%이며, 임산부 92.0%, 외국인 70.0%, 영유아동반자 62.0%, 고령자 56.0%, 장애인 40.0%.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적용 정도는 일반 시민이 67.1%, 이해관계자 평균은 80.6%이며 임산부 87.0%, 외국인 85.7%, 영유아동반자 77.4%, 장애인 75.0%, 고령자 71.4% 순임.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결과, 일반 시민은 내부 둘레길 경사로(90.0%), 화장실 시설 편리성(72.9%), 직원 안내(71.6%) 등 순이며, 이해관계자는 내부 둘레길 경사로(86.4%), 화장실 시설 편리성(80.8%), 다국어 표기(77.8%) 등 순

③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 유니버설디자인 기존 정책 : 인지도는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43.0%),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36.0%), 유니버설디자인 연구(23.3%), 유니버설디자인 교육(21.3%),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21.3%) 순임. 중요도는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95.2%),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94.0%), 유니버설디자인 연구(92.8%), 유니버설디자인 교육(92.0%),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81.1%) 순임. 효과성은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62.2%),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60.0%), 유니버설디자인 교육(56.2%), 유니버설디자인 연구(56.2%),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48.6%) 순임. 전반적 만족도는 이해관계자 평균 : 61.4%이며, 외국인 90.0%, 영유아동반자 62.0%, 장애인 55.1%, 임산부 54.0%, 고령자 46.0% 순임
- 유니버설디자인 신규 정책 : 환경개선 사업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 일반 시민은 ‘대중교통시설(22.2%)’, ‘거리보행 편의시설(20.0%)’, ‘도시 휴식 공간 (14.6%)’ 등 순이며, 이해관계자는 ‘대중교통시설(27.6%)’, ‘거리보행 편의시설(26.8%)’, ‘복지시설(13.6%)’ 등 순. 의식개선 사업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 일반 시민은 ‘홍보 캠페인(39.6%)’, ‘체험 프로그램(25.0%)’, ‘전문연구 활동(13.6%)’ 등 순이며, 이해관계자는 ‘홍보 캠페인(34.1%)’, ‘체험 프로그램(22.1%)’, ‘전문연구 활동(18.5%)’ 등 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 일반 시민은 ‘공공시설 제품(38.4%)’, ‘대중교통 제품(30.6%)’, ‘복지시설 제품(14.9%)’ 등 순이며, 이해관계자는 ‘공공시설 제품(37.5%)’, ‘대중교통 제품(27.8%)’, ‘복지시설 제품(20.2%)’ 등 순. 시민참여를 통한 개선활동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 일반 시민은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기(32.8%)’ 등 순이며, 이해관계자는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39.0%)’ 등 순. 시민참여를 통한 개선활동의 참여의사 조사 결과, 일반 시민은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79.8%)’ 등 순이며, 이해관계자는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78.3%)’ 등 순

7. 결론 및 제언

① 서울시민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캠페인과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 서울시민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는 20~30%대이며(서울시민 약 23%, 이해관계자 약 39%), 일본 60%대(Prajapati & Asai, 2013), 대만 40%대(Yang, 2006) 등에 비해 낮음(부록 참조)
- 더 많은 시민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 가치를 공감하여 관련 정책이 호응과 동력을 얻을 뿐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 문화기반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서울시민들은 홍보캠페인과 체험프로그램을 의식개선 방안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은 태동 단계이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필요성과 기회의 인식을 환기하는 데는 생생한 사례와 경험을 접하는 것이 효과적임
- 서울시의 전시회, 공모전 등에 해외의 선구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기업을 특별 초청하여 사례, 경험 및 제품을 소개하면,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관계자에게 신선한 자극과 함께 벤치마킹의 기회가 될 것임

③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은 고등교육과정 수준의 정규교육이 강화되고,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산업과 교육 분야에서 협력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학(원) 수준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함
- 이를 위해 대학(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정규과목, 학과와 전공 신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등 관련 학회, 협회, 연구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④ **서울시 공공시설 개선을 위해 안내정보와 이용편의성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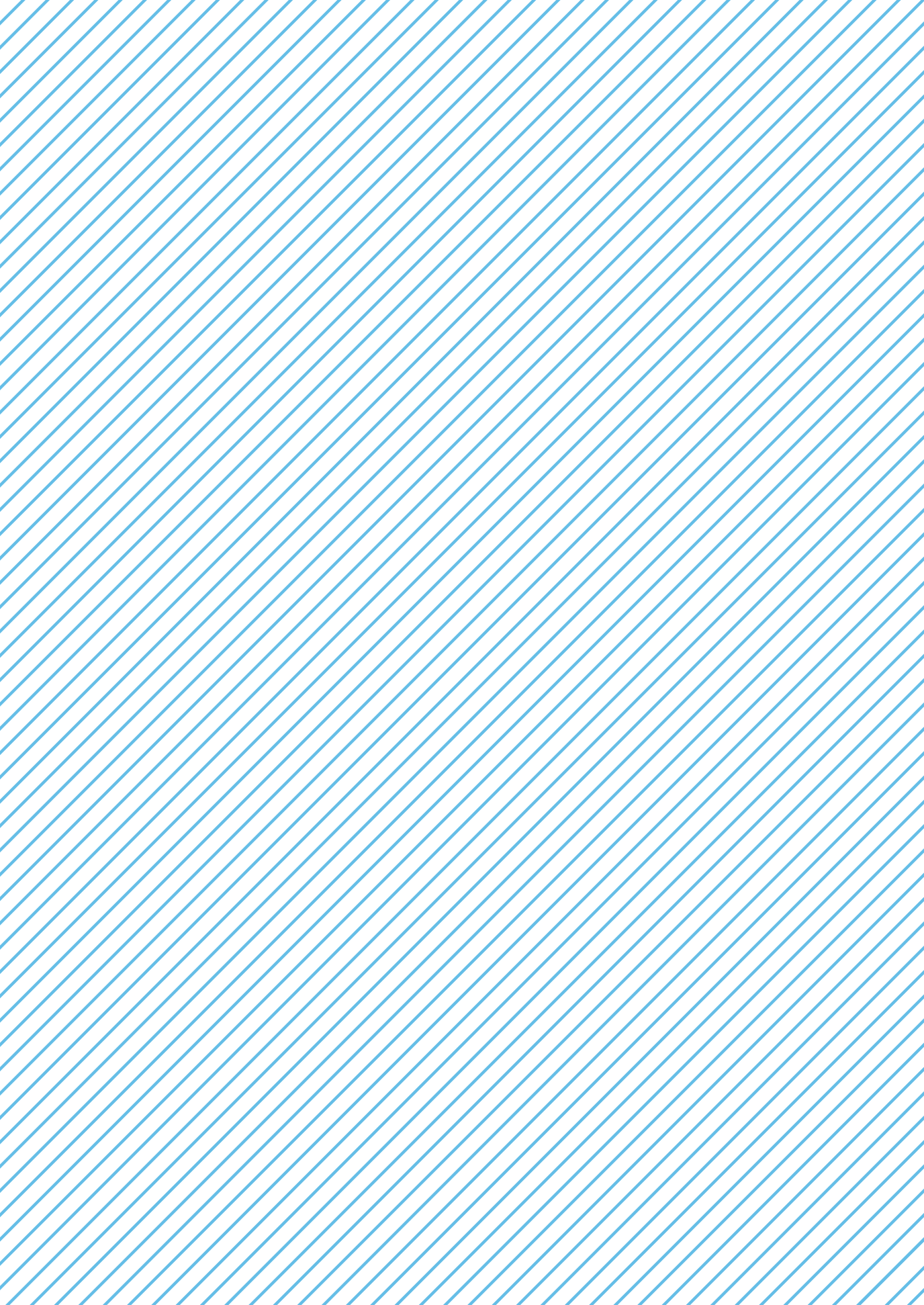
- 서울시 도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본 외국인은 많으나(74%), 내국인 이해관계자는 절반이 되지 않음(약41%)
-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이 선호하는 서울시 공공시설 우선 개선사항은 안내정보와 이용 편의성의 개선임

⑤ **서울시 공공시설 중 대중교통시설, 거리보행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3대 개선대상은 대중교통시설, 거리보행 편의시설, 복지시설임
-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1순위 개선대상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야 함.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는 ‘거리보행 편의시설’, 고령자는 ‘복지시설’, 외국인, 영유아동반자는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제일 원함

⑥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게 되어있는 바, 이 센터는 우리나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싱크탱크와 같은 역량과 위상을 갖추어야 함
- 센터는 유니버설디자인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부서를 연결·통합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감당해야 함
- 센터의 소속 및 거버넌스, 조직구조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제1장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 (SUD) 서베이 개요

- 1-1. 목적
- 1-2. 조사 범위 및 방법
- 1-3. 이론적 배경
- 1-4. 지표 체계
- 1-5. 기대 효과

제1장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개요

1-1. 목적

서울시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 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2016년 5월 제정 및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올해부터(2018년) 유니버설디자인 서베이를 신규로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하며,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책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서울디자인서베이와 통합되기 위한 첫 단계로 신규 수립되는 지표체계가 추후 디자인산업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지표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의 목적은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유니버설디자인 문화-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한 지표를 설계 및 조사하여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DB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서울시민 중 주로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 그룹(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이에 대한 만족도, 요구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1-2. 조사 범위 및 방법

1-2-1. 조사 범위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는 1) 서울유니버설디자인 산업, 2) 서울유니버설디자인 문화, 3) 서울유니버설디자인 교육, 4) 서울유니버설디자인 정책, 5)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조사의 5대 영역에 대한 지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디자인서베이(2014~2017년판 디자인서베이)와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통합을 위한 지표의 검토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 그룹(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 파악,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서베이 통합 사업의 수행 목적 및 방향성 설정

셋째, 목차 구성, 지표 및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서베이 운영 체계와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를 수행

넷째, 서베이를 통해 산출되는 자료의 조사, 보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 이슈 도출과 편집디자인, 인포그래픽(Infographics)전략을 수립

다섯째,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 그룹의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및 분석

1-2-2. 조사 방법

2018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므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서울디자인서베이의 통합되는 첫 단계로서 기존의 서울디자인서베이 지표체계(산업-문화-교육-정책)를 유지한다. 현재, 서울시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전반적인 현황 및 DB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로 파악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서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개별 부처·지자체·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데 있어 자료가 공개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수시로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상존한다.

[표 1-1]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조사 내용

자료조사	설문조사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2차 자료조사 대상으로서 기존의 문헌자료와 행정통계 등을 토대로 파악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에 중점을 두어 지표를 구축하고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문화, 교육, 정책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취합하고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기준년도의 통일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2018년 서베이의 자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포함하였고, 이 조사시점 내에 해당하는 자료는 모두 표기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의식조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및 원칙에 입각해 서울의 공공환경의 현 상태를 이해하고, 서울시민 중 주로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 그룹(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만족도,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협회 및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오프라인 설문(대면인터뷰, 전화조사 등)도 함께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5개 그룹(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인원은 각 그룹별 50명이며, 서울시 거주 20대 이상 성인으로 한정하였다.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패널을 활용해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일 동안 진행하였다. 완료된 설문은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작업을 거쳐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해 분석(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2\%$)하였다.

[표 1-2] 서울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내용

분류	내용
조사기간	2018년 11월 30일 ~ 12월 14일 (15일 간 진행)
조사대행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표본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5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 그룹별 각 50명씩 조사, 총 250명
표집오차	95% 신뢰수준 $\pm 2.2\%$
조사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서베이.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해 분석
조사내용	인구통계적 속성, 서울시 공공시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조사문항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며, 예 / 아니오 혹은 4점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

설문 영역은 기본사항(인구통계적 속성), 서울시 공공시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총 4개 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설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폐쇄형 질문이며, 문항의 속성에 따라 예/아니오 혹은 4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했다.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강하고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단계별 추진 내용

1	계획 수립 (Plan)	조사 계획 수립 / 선행연구, 국가정책 조사(관련 정책 및 추진 사업 포함), 공개행정데이터 ① 선행연구 조사 - 2014~2017 디자인서베이 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사지표 및 분류기준 조사 - 2015~2017 서울디자인백서 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사지표 및 분류기준 조사 ②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및 추진 사업 조사 - 2016~2018년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문화, 교육, 정책의 관련 사업분야 목표 및 세부내용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법규·법령 시행처 등) ③ 국가정책 조사 ④ 공개행정데이터 - 서울시 관련 공공데이터 전체 수합(서울 열린데이터광장 등)
2	지표 설계 (Design)	정량·정성지표 설계 구축 ①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관련 문헌 검토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분야 목표 및 세부내용 상세히 검토(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자료,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법규·법령 시행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등) - 설문조사 설계 시 이해관계자 증점애로사항 고려(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 ②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지표(안)와 데이터 간의 적합성 검토 - 유니버설디자인 지표 설계(유니버설디자인 산업-유니버설디자인 문화-유니버설디자인 교육-유니버설디자인 정책) -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조사지표 및 분류기준 검토 ③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지표 확정 - 선별된 지표 집중 조사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데이터 기준년도 파악 및 통일 - 기관 협조요청(추가 데이터 확보) -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유니버설디자인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정책 전문가, 핵심 수요층 등)
3	조사 (Survey)	설문 설계,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수행 ① 표본설계 및 업체선정 - 설문조사 설계 시 이해관계자 증점사항 고려(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 - 관련 리서치업체 비교 후 선정 ② 설문 내용설계 - 이해하기 쉬운 표현, 샘플 조사 설계 시 단계별 검증 -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유니버설디자인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정책 전문가, 핵심 수요층 등) - 국가 및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③ 전문용역 및 자체조사 - 공개되지 않거나 데이터 없는 경우 실시 - 직접 설문조사 및 표본조사, 인터뷰 진행, 전화조사 등(온/오프라인 조사 실시)
4	분석 (Analysis)	서베이 4개 대영역 변화 추이 파악, 정책의 방향과 만족도·요구사항 분석 ①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변화 추이 파악 -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문화, 교육, 정책 변화 추이 파악 ②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만족도, 요구사항 등 분석 - 이해관계자 그룹(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을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5	활용 (Utilize)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수요 발굴 및 새로운 정책 제안 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② 향후 서울 시민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1-3. 이론적 배경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는 별도로 존재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디자인서베이 내의 각 항목들(산업-문화-교육-정책)과 유기적이고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포함한 것이다. 이것은 2014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는 서울디자인서베이 모델의 이론적 배경인 ‘시스템 접근법(Systems approach)’을 본 서베이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 모델은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정책 분야의 지표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사용되었는데, 1950년대 최초로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1956년 경제학자인 볼딩(K. Boulding)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분석 또는 평가하려는 어떤 대상을 시스템의 5가지 요소(목표, 환경, 자원, 구성요소, 관리)로 파악하였다(Churchman, 1979; 서울디자인서베이, 2008; 서울디자인서베이, 2015). 때문에 시스템은 특정 환경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구성요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산출하는지, 또한 전체 모델에서 각 부분 간 상호관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시스템 접근법은 분석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을 도와주며 하위 시스템을 구분해준다. 또한 상호작용을 수월하게 이해하고, 부분의 최적화(Sub-optimization)를 넘어 전체의 최적화(Optimization)를 가능하게 해준다(Koontz, 1980). 본 서베이는 시스템 접근법을 기반으로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을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조사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 영역의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선행 연구 결과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산업과 학계의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지표체계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서울시 정책 기조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현 상황, 시설 및 이용, 정책과 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것이다.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의 지표체계 수립 과정은 [표 1-4]와 같다.

[표 1-4]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비스 지표체계 수립 과정

	영역	지표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관련 기업 관련 기관	제품 개발 및 용역 수행 기업 연구소 및 협회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문화 자원 문화 행사	공간, 건축물, 편의시설 전시회, 국제세미나, 공모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정규 교육 공공 교육	교육 기관 및 연구 기관 교육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제도 운영 정책 추진 체계	제도 및 연구 사업 조직, 인력, 예산

1-4. 지표 체계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비스의 지표체계는 1)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2)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3)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4)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5)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지표는 [표 1-5]와 같다.

[표 1-5] 조사항목과 지표

조사항목	지표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개발 기업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 수상 기업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참가 기업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수행 기업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용역 수행 기업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회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대상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하철 편의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협력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수행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용역 수행기관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시민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	민·관거버넌스 제도	유니버설디자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사업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콘텐츠 개발
			서울디자인서베이·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연구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	유니버설디자인 조직 및 인력	유니버설디자인 조직 및 인력 현황
		유니버설디자인 예산	유니버설디자인 예산 현황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조사	인구통계적속성	인구통계적 속성	응답자 구분, 성별, 연령, 거주지, 월 가구소득, 직업, 최종 학력
	서울시 공공시설	공공시설 이용	공공시설 이용 정도,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
		공공시설 개선감 및 만족감	전년도 대비 공공시설 개선감, 타 국가 주요 도시 대비 공공시설 만족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및 필요성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필요성
		적용 정도 및 평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유니버설디자인 평가(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유니버설디자인 기존 정책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유니버설디자인 인연,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전반의 만족도
		유니버설디자인 신규 정책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형,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 방식 및 참여의향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은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은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을 수상한 기업과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를 통해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용역 사업을 수행한 기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조사연구,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기관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회’에 대해 조사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는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과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로 구분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편의시설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은 공공 공간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다양한 사용자로 구성된 시민체험단을 운영하여 시행해온 조사이다.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건축물’은 ‘공공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대상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건축물’은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 제도와, 장애인 및 고령자 등과 같은 이동·주거약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BF 인증 기준을 적용한 ‘유니버설디자인 주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하철 편의시설’로 구분하였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는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관람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최 및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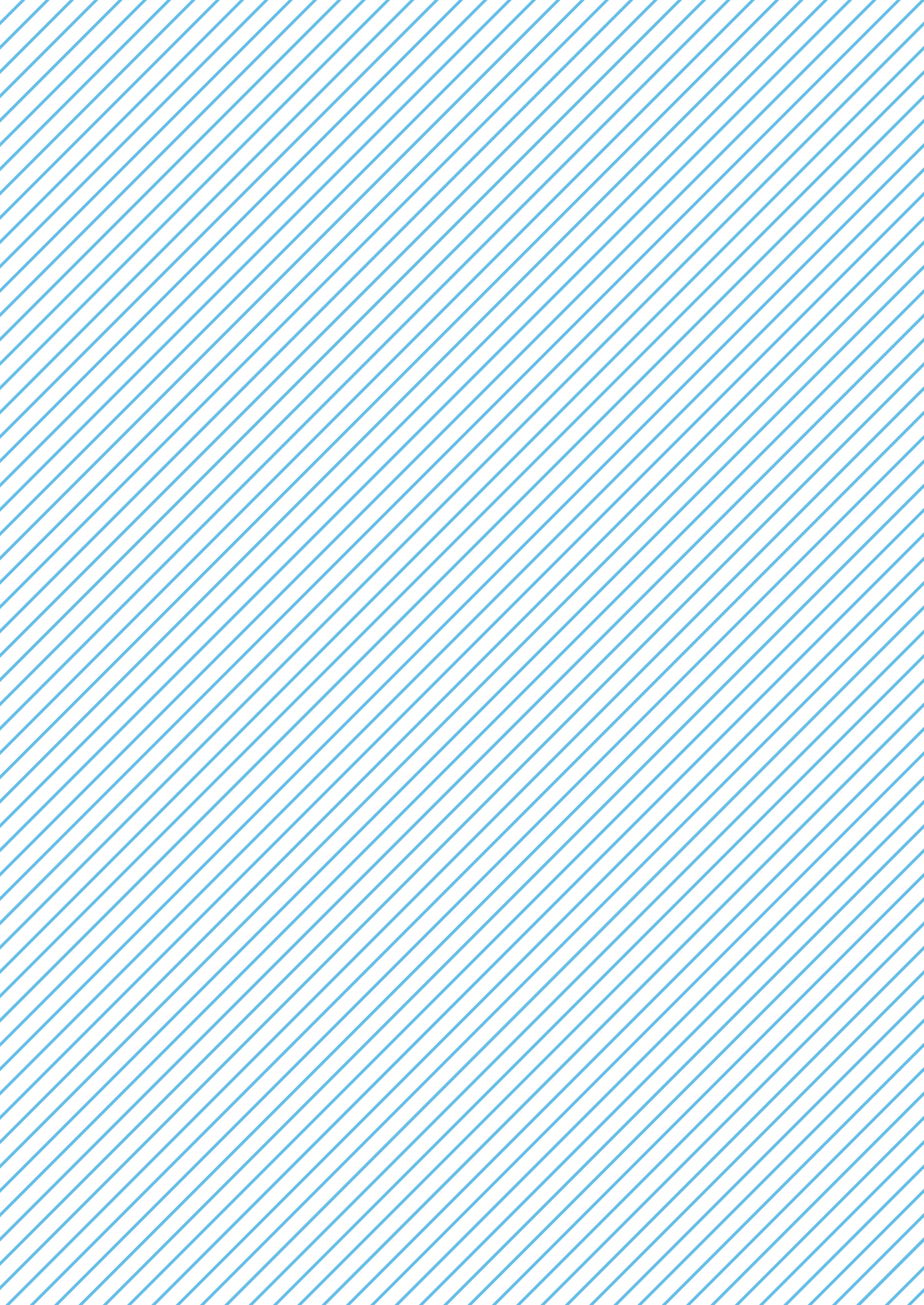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은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과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을 구분하여 지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은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고 때문에 관련 ‘교육’ 상황과 더불어 ‘연구’ 상황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기관’은 먼저, 정규교육기관 중 유니버설디자인 전공 학과가 있는 곳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대학(원) 중 교과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이 있는 학과(전공)에 대하여 모두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정규기관의 유니버설디자인 협력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기관’은 서울시 소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회, 협회, 연구소·센터 등을 조사한 것이다. 더불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시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용역사업 중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 소재의 기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은 현재, 서울시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유니버설디자인 시민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 인식 및 실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은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으로 분류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크게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와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관련 사업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사업(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콘텐츠 개발, 서울디자인서베이·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연구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및 리빙랩 조성 기본연구 사업)'이 있으며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및 서울디자인재단 내 유니버설디자인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조사는 서울의 이해관계자 그룹(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이 생각하는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만족도,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식조사는 5개 그룹을 대상으로 각 50명씩 조사하였고, 서울시 거주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4개 영역의 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둘째, 서울시 공공시설 영역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정도, 타인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이용 수단, 전년도 대비 서울시 공공시설의 개선감(외국인의 경우 타 국가 도시 대비 만족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셋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영역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칙에 따른 가로, 공원·광장, 공공 건축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넷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영역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활동(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에 대한 인지도, 중요성, 효과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의식 개선사업,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통한 개선활동으로서 가장 중요한 방식과 의향을 물었다.

1-5. 기대 효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는 향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 및 발간자료 배포를 통해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현황조사, 변화 추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새로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책을 발의하는 데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서베이를 통해 서울 시민들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짐으로써 인식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2-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

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

제2장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일반 대중을 위한 획일적인 물건을 만드는 대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이나 제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¹

미국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가 설립한 노스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특별한 개조나 특수 설계를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된 제품이나 환경디자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²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은 '보편적 디자인'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연구팀은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업 활동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유니버설디자인 기업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은 다시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을 수상한 기업과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중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용역 사업을 수행한 기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와 협회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2-1]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지표체계

구분	영역	지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개발 기업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 수상 기업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참가 기업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수행 기업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용역 수행 기업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회

1 행정안전부.(2018).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6.

2 노스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유니버설디자인센터 <http://csun.edu/universal-design-center>

2-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³ 우리나라는 주거나 공공 공간뿐만 아니라 제품·환경 디자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⁴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산업 내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체들을 규정함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는 연구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을 두 부류로 구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개발 기업'과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수행 기업'을 파악하였다.

2-1-1.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개발 기업

본 조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개발 기업을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을 수상한 기업과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은 우수디자인(Good Design, GD)으로 선정된 상품 중 아래의 해당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판단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을 시상한다.

가)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 수상 기업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주관하는 수상 제도로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외관구성, 사용목적, 재료사용과 상업생산 등 부분별 심사기준에 의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GD 마크 선정이 확정된 제품 중, 사용자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 주는 사용성, 유연성, 안전성, 실용성, 심미성, 내구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을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은 2013년부터 매년 4개사의 제품이 수상하였으며, 2018년까지의 누적 수상제품은 총 24개이다. 그중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2016년 3개(75.0%), 2017년 2개(50.0%), 2018년 3개(75.0%) 등 총 8개사이다. 이를 [표 2-2]에 정리하였다.

3 손석우·정도성. (2015).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1), 540.

4 남궁윤재. (2011).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분석을 통한 개념 재정립. 한국디자인포럼, 31(31), 373.

[표 2-2]는 최근 3년간(2016~2018)의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 수상 현황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디자인 특징’, ‘디자인 의도’, ‘사용성 및 안전성에 대한 배려’ 항목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표 2-2]는 제품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 최근 3년간(2016~2018) 우수디자인(GD)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 수상 현황

제품/브랜드명	특징	신청회사	소재지	비고
 지켜 (ZKYE)	· 집에서 방치되는 장롱 스마트 폰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제품	(주)디자인 비엔알	강남구	2016년도 유니버설 디자인 특별상
 i-PAD (i-PAD)	·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정상 리듬을 되찾게 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주)씨유 메디칼 시스템	서초구	
 래미안 (RAEMIAN)	· 반 개방적(Semi Private) 정원을 동별로 조성하여 개인 정원에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함을 연출하였음	삼성물산 (주) 건설부문	강동구	
 도비도스 (Dobidos)	· 직관적인 사용을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다이얼로 쉽게 제어 가능함	(주)대림통상	서대문구	2017년도 유니버설 디자인 특별상
 퍼시스 (Fursys)	· 천연가죽이 만들어내는 고급스러운 곡선 · 화이트 있는 모서리 그리고 깊은 착석감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프리미엄 암체어	(주)퍼시스	송파구	
 앤드퍼 (ANDFUR)	·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휴식, 여가, 작업, 다과등을 동시에 구현토록 함 · 가정, 노인센터, 커뮤니티 시설, 휴양소, 리조트, 호텔 등에 폭 넓게 사용되도록 디자인 된 시니어를 위한 최적화 된 1인용 안락의자	(주)앤드	서초구	2018년도 유니버설 디자인 특별상
 2080 (2080)	· 기존 덴탈케어 제품들에 비해 제품력과 기능성을 높임 · PANTONE의 다양한 컬러감과 디자인 아이덴티티에서 영감을 받은 토랄 덴탈케어 제품	(주)애경 산업	마포구	
 노리노라 (Norinora)	· 힐스 오션은 파주 운영 신도시에 설치된 놀이시설 · 바다의 파도를 모티브로 단계별 높낮이의 특화놀이 설계를 진행하여 다양한 연령별 아이들의 신체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	(주)청우퍼نس 테이션	서초구	

* 출처: 굿디자인 홈페이지(<http://gd.kidp.or.kr>), 2018.11.30 기준

나) 유니버설디자인 참가 기업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를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본 조사는 그 중 최근 3년(2016~2018)의 참가업체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6 유니버설디자인 서울’ 전시회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전 및 가구, 유니버설디자인 사무용 가구 및 IT제품,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교통시스템 및 운송수단, 의료기기 및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어린이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가구를 전시하였으며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300여 개를 소개하였다. 2017년에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34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을 연결한 ‘스마트 우산’, GPS 기반 ‘위치 추적기’,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가스락’ 등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개최되었다. 2018년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스탠다드 파라다이스(Standard Paradise)’는 다양한 크기, 기호, 관계의 세상을 경험해보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전시회로 진행되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세트장으로 구성된 기획이었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개발 업체의 전시회 참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참가 업체 중 서울시 소재 기업은 [표 2-3]과 같다. 2016년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에 소개된 제품은 모두 20개 종류, 300여 점으로서, 전국의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였다.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는 총 34개로서 이 중 소재지가 서울시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모두 21개(61.8%)이다.

[표 2-3]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참가 기업 현황

제품/브랜드명	특징	신청회사	소재지	비고
레인	물동이 형식의 가습기로 편리하게 급수가 가능한 디자인(가전/가구)	(주)한국리모텍	용산구	2016년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참가 기업
굽은형식사도구	팔의 움직임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식사 도구로 입에 가져가기 쉽게 굽은 디자인이 특징(가전/가구)	에이블라이프	송파구	
벽걸이형 파이로 소화기	가벼운 중량과 적은 힘으로도 조절이 가능한 버튼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음(사무용 가구 및 IT제품)	두레섬	마포구	
빅키키보드	저시력자용 키보드/자판 폰트 사이즈가 일반 키보드 보다 4배 확대하여 가독성을 높인 키보드(사무용 가구 및 IT제품)	에이블라이프	송파구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시스템의 편리성과 유니버설디자인에 부합하는 운영시스템 설명 영상(교통시스템 및 운송수단)	I:SEOUL-U	종로구	
자전거 및 장애인 교통 어플	저시력자를 위한 비적용 및 서울 교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운송수단 앱(교통시스템 및 운송수단)	서울시 교통정보과	종로구	
스키퍼	블루투스로 모바일 앱과 연동이 가능함. 심장소리와 건강상태의 변화를 시각화 하였음. 맞춤형 건강 정보와 음식을 추천해 줄 뿐만 아니라 알맞은 운동을 추천해주는 제품(의료기기 및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스마트사운드	강남구	
반짝반짝 두근두근	베리어프리 영화로서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하여 어린이, 어르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등 누구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의료기기 및 고령화 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사)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은평구	
촉각도서	점자가 형압인쇄 되어 시각장애아동들도 함께 볼 수 있는 동화책(어린이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가구)	(주)예림당	성동구	
TYT 헤미쉬	TYT시계는 TAKE YOUR TIME의 약자로, 이를 그대로 느낌과 여유를 추구함. 시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시계' 형으로 제품을 개발	트랜드메카	강남구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참가 기업
오바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강력함을 전하는 덴마크 시계브랜드	트랜드메카	강남구	
에테르노	100% 천연 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친환경 시계로 이태리 장인들의 핸드메이드 기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결합되어 있음	트랜드메카	강남구	
초경량 접이식 전동휠체어(징거체어)	아트윈 스포츠는 자동차용품 도소매 등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체. '징거체어(Zinger chair)'는 차량적재용 경량 접이식 전동휠체어	아트윈 스포츠	강남구	
카플라노클래식, 카플라노컴팩	카플라노(Cafflano)는 카페를 뜻하는 Caffe와 '단순함'을 뜻하는 스페인어(Plano)를 결합한 브랜드 '카플라노클래식'은 커피메이커, '카플라노컴팩'은 커피분쇄기	카플라노	금천구	
키즈스툴, 동물퍼즐, 테이블	몰릭(MOLIC) 회사명은 Make + Holic의 줄임말로 가구와 소품을 취급하는 디자인 전문 회사. 키즈스툴, 동물퍼즐, 테이블은 가구 및 소품의 브랜드	몰릭디자인	강서구	

빌란데 가정용소화기	나티지 회사는 무역, 종합상품(의류/잡화)중개 등 상품 종합 도매업체. '빌란데'는 손잡이를 포함한 소화기 일체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화재 발생 시 안전핀을 제거하고 손잡이를 누르기만 하면 소화 분말을 손쉽게 발사 할 수 있음	나티지	강남구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참가 기업
이삼사	이삼사는 전기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 2017년 1월 미국 전기자전거 전문기업 페데고와 연간 100대씩 독점 공급을 체결	이삼사	영등포구	
점자 가족 케이스	도트윈은 가족지갑, 패브릭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디자인브랜드(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가족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도트윈	성동구	
포돔 커피	'포돔커피'는 무균실에서 제조 생산해 최고의 신선도와 향균 상태를 유지하는 커피	포돔	영등포구	
발뮤다 더 팻 & 더 토스터	발뮤다는 2003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 공기청정기, 가습기, 선풍기, 토스터 등을 생산 및 판매	발뮤다 코리아	용산구	
솔라페이퍼	요크(YOLK)는 태양광 기업. '솔라페이퍼(Solar Paper)'는 초경량, 초박형 태양광 충전기	요크	용산구	
라이토즈 건전지 /앵그리버드 건전지	라이토즈는 IT + IoT분야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하는 업체. 세계최초로 '유선충전과 무선충전의 토탈 솔루션'을 확보한 벤처기업	라이토즈	서초구	
브런트플러그/브런트코드/브런트 파워스테이션	브런트는 테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 공기청정기, 고속 무선충전기, 전동커피트 변환장치 등을 생산	브런트	서초구	
올리브 스마트 보청기	올리브유니온은 국내 스마트 보청기 생산업체. '올리브 스마트 보청기'는 경 중도 난청용 스마트 보청기	올리브 유니온	서초구	
위소	온클릭코리아는 WISO스마트휘슬의 한국 정식 수입원. '위소(WISO)'는 스마트휘슬	온클릭코리아	영등포구	
IoT 라이트 스틱	101익스피어리언스는 전자상거래(엔터테인먼트 MD상품)업체	101 익스피어리언스	성동구	
플랜티화분	엔싱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플랜티(Planty)'는 농업과 사물인터넷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스마트화분	엔싱	서초구	
모디	럭스로보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모디(MODI)'는 코딩 교구	럭스로보	서초구	
써모케어	엠트리케어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써모케어'는 스마트 체온계	엠트리 케어	구로구	
고 터치	애니랙티브는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체. '고터치(GoTouch)'는 전자 철판	애니랙티브	마포구	
가스락	그립은 IoT 제조·서비스 업체. '가스락'은 온도감지 센서를 적용한 화재감지기	그립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디자인 서울 전시결과보고, 2018.11.30 기준

2-1-2.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수행 기업

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용역 수행 기업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용역사업을 확인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발주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용역은 2016년 24건, 2017년 48건, 2018년 38건으로 확인된다. 본 조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이 공식적인 과업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2-4]는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니버설디자인 과업을 수행한 서울시 소재 기업이다. 이들 계약업체를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6년 10건(41.7%), 2017년 8건(16.7%), 2018년 9건(23.7%)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수주기관이 교육기관인 경우 본 서베이 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부분에 포함시키고 본 장에는 집계하지 않았다.

공공용역 총 계약금액은 전국적으로 2016년 19억7518만5800원, 2017년 31억997만4390원, 2018년 34억7088만3790원이다. 이 중 서울시 소재기업의 총 계약금액은 2016년 12억307만4000원(60.9%), 2017년 7억2251만6500원(23.2%), 2018년 10억2668만원(29.6%)이다. 최근 3년간 평균 계약금액은 약 10억 원이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6년 2월 3일)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2018년 5월 2일). 공동위원장(민,관)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변경,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사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하고, 시설물 및 디자인사업을 세부 규정하도록 하였다.⁵

최근,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년 10월)을 실시함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CPTED), 무장애디자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 도시재생디자인 등의 용역명으로 과업이 세분화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이 공식적인 과업명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정하여 파악하였다. 향후 조사에서는 용역명을 세분화(범죄예방디자인, 무장애디자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 도시재생디자인 등) 하여 관련 용역을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

5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계획(2018.10).<http://opengov.seoul.go.kr/sanction/16403513>

[표 2-4]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용역 수행 기업

(단위: 원)

구분	계약건명	기관명	총 계약금액	주 계약업체	소재지	계약일자	
2016년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	서울시	48,500,000	디자인이즈 (design is)	성동구	2016.4.22	
	2016년 서울시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서울시	259,700,000	디자인이즈 (design is)	성동구	2016.5.13	
	2016년 서울시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서울시	248,700,000	디자인이즈 (design is)	성동구	2016.5.13	
	도심공공 유니버설디자인 지하도상가 안전디자인 사업	(재)서울 디자인재단	130,000,000	(주)디자인팩토리	서초구	2016.5.16	
	도심공공 유니버설디자인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구간 안전디자인 용역	(재)서울 디자인재단	77,000,000	조예디자인	서초구	2016.5.30	
	2016년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용역	서울시	126,100,000	(주)디자인와우엔 파트너스	동작구	2016.6.3	
	「2016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사업 대행사 선정	(재)서울 디자인재단	223,250,000	(주)얼트씨	중구	2016.6.29	
	2016년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세미나	서울시	48,500,000	(주)엠더블유네 트웍스	강남구	2016.7.4	
	택지개발지구 유니버설디자인 인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19,984,000	(사)한국유니버설 디자인협회	영등포구	2016.9.7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용역	서울시	21,340,000	(주)아이엔엑스	서초구	2016.10.4	
2017년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을 통한 인성 창의 교육	서울시	54,462,000	디자인이즈 (design is)	성동구	2017.3.28	
	2017년 복지시설 등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서울시	103,400,000	(주)에스이 공간환경디자인그룹	은평구	2017.4.7	
	2017년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업	서울시	225,000,000	스튜디오 엠엑스 스티	마포구	2017.4.19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및 전시회 행사운영	서울시	286,140,000	(주)얼트씨	중구	2017.6.13	
	공동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15,646,500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영등포구	2017.6.14	
	서울신석초등학교 유니버설 디자인교육	서울시 서부교육청 서울신석초등학교	5,368,000	디자인이즈 (design is)	성동구	2017.10.17	
	2017년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서울시	28,500,000	(주)아이엔엑스	서초구	2017.10.24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유니버설 디자인 실버놀이터 조성공사	서울시 성동구	4,000,000	(주)기찬종합건설	성동구	2017.12.21	
	2018년	2018년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업	서울시	349,000,000	스튜디오 엠엑스 스티	마포구	2018.6.14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용역	서울시	78,210,000	(주)피오디커뮤니케이션즈	영등포구	2018.6.22
2018년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용역		서울시	167,930,000	(주)넥스디자인플래닝	광진구	2018.7.2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콘텐츠 개발		(재)서울디자인재단	223,400,000	(주)씨티이안	마포구	2018.7.17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서울시 서대문구	38,950,000	조경작업소 울	중구	2018.11.1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리빙랩 조성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재)서울디자인재단	53,350,000	(주)텐지노그룹	서대문구	2018.11.26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도면작성 용역		서울시 서대문구	9,810,000	스튜디오 이공일 (Studio201)	송파구	2018.11.30	
상도1동개방형경로당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 공사		서울시 동작구	53,240,000	(주)대림플랜	서초구	2018.12.3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공사		서울시 동작구	32,790,000	(주)엔탑디자인	강남구	2018.12.6	

* 출처: 나라장터(<http://www.g2b.go.kr>), 2018.12.31 기준

** 주 계약업체의 소재지가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따로 기재하지 않음

현재(2018.11.30)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이 인증되거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분포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에 따르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시급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

2-2-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는 유니버설디자인 조사연구, 유니버설디자인환경 관련 정책 총괄기능 지원 및 조사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연구개발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서울시 소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는 [표 2-5]와 같이 총 5곳이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학회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부분에서 제시한다.

[표 2-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

연구소(명)	내용(소개)	주요업무	사이트	소재지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유니버설디자인환경 관련 정책 총괄기능 지원 및 조사·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여건 개선, 대민 상담과 기술정보 제공을 통하여 편의시설의 바른 설치와 편의증진 질적 향상 도모, 담당 공무원 등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전문인력 배양, 범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홍보 확대를 통한 인식개선을 증진하기 위한	·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정책 총괄기능 지원과 조사·상담 - ①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관련 연구 수행 및 매뉴얼 개발, ②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세부 지침서 제작·배포 · (유니버설디자인 환경부)유니버설디자인 환경연구	http://www.koddi.or.kr	영등포구
(사)생활환경디자인 연구소	·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조사연구 및 실천을 병행함	·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연구 및 컨설팅 사업	http://www.universaldesign.kr	강남구
(사)한국장애인인권 포럼	· 장애인의 문화, 삶, 권리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장애정책을 선도하는 인권포럼	· 2006년부터 시작된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을 주관하여 개최 ·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및 전시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 조사 사업 등	http://www.ableforum.com	영등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이니셔티브 연구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산업체, 정부기관,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상품과 공공환경디자인 연구개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유니버설디자인 정보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복지사회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유니버설디자인 기초연구 및 디자인개발업무 수행, 유니버설디자인 상품개발 및 공공환경 개선을 추진 중인 기관들을 위한 컨설팅 및 조사평가업무 수행, 국내·외의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등의 개최를 추진함	http://id.seoultech.ac.kr/rnd/universal	노원구
(사)한국복지환경 디자인 연구소	· 공간이용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그 접근방법과 디자인이 달라져야 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공간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음. 또한 노인, 장애,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모든 대상을 총체적으로 연계하는 복지공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세미나 주최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 유니버설디자인 기획	http://m.cafe.daum.net/moinpeople	서초구

*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2018.11.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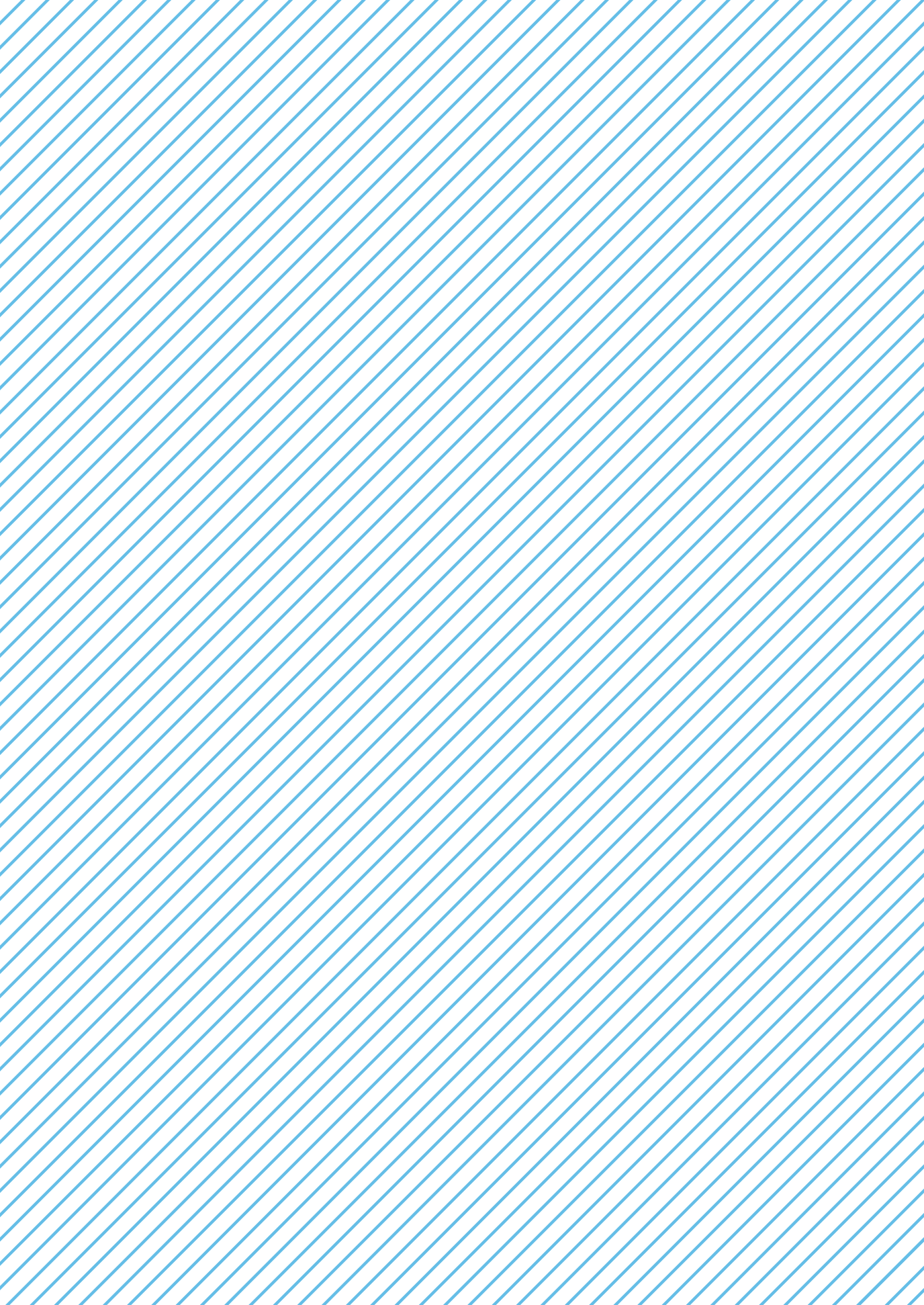
2-2-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회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 서울시 소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회는 [표 2-6]과 같이 총 3곳이다.

[표 2-6]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회

협회(명)	내용(소개)	주요업무	사이트	소재지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념과 실천이 건축, 도시, 교통, 조경, 복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연구, 실천, 교류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 2017년 11월 7일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협회 공동협력 협약체결식' 개최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기술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사업,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관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개발,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유관단체 간 교류·협력	http://www.udkorea.kr	영등포구
(사)장애인유니버설디자인협회	· 유니버설디자인과 장애를 없애는 Barrier Free(무장애) 디자인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재활보조공학기기(Assistive Technology)의 홍보와 보급에 앞장서며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함	· Barrier Free(무장애) 디자인의 홍보와 보급사업 및 시설물 등의 장애물 제거 요구, Universal Design(공용화제품 디자인) 홍보, 조사·평가사업,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세계대회 개최	http://universaldesign.or.kr	구로구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색채를 설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갖고 있음	·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조사연구사업, 보급개발, 자료제공, 상담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http://www.kcud.or.kr	마포구

*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2018.11.30 기준



제3장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3-1.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

3-2.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

제3장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활력 넘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문화시설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¹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된 것은 바람직하나,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의 확대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물리적 환경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문화시설에 적용하고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²

연구팀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를 조사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는 크게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과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은 다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편의시설’ 등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등으로 구별하여 조사하였다.

[표 3-1]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지표체계

구분	영역	지표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대상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하철 편의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1 안상락·고영준. (2013).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문화시설접근성과 위생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35(35), 5-6.

2 최윤진·박병은. (2017). 장애인편의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48, 120.

3-1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조사는 현재 서울시(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강남구 사회복지과,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한국장애인개발원)가 추진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 체험장’,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 사업 중 다양한 사용자로 구성된 시민체험단을 운영하여 공공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사업인데, 이는 취약한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건축물’ 사업과 구분된다. 또한, 다양한 서울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현황에 대하여는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매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6년에는 총 4억1000만원(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2억6000만원,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1억5000만원), 2017년에는 총 4억7000만원(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2억6000만원, 복지시설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1억5000만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설치공사 6천만원), 2018년에는 총 11억9900만원(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3억4900만원, 공공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1억5000만원,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7억원)이다. 투입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표 3-2]와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표 3-2]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 투입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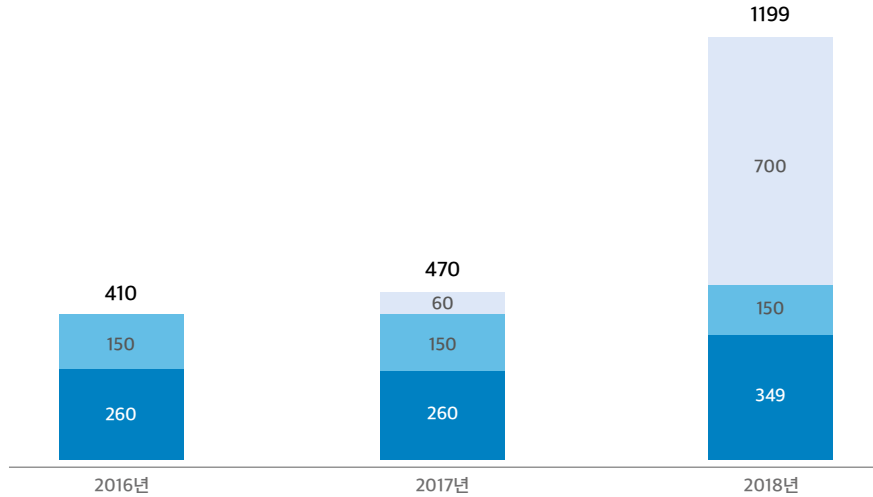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 투입 총 예산	410,000,000	470,000,000	1,199,000,000
대상 사업 예산 (사업명)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260,000,000	260,000,000	349,000,000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복지시설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공공 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설치공사)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60,000,000	700,000,000	

* 출처: 서울시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2018 디자인정책과 업무바인더 및 예상질의, 유니버설디자인종합프로젝트, 2018.12.25 기준

[그림 3-1]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 투입 예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출처: 서울시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2018 디자인정책과 업무바인더 및 예상질의, 유니버설디자인종합프로젝트, 2018.12.25 기준
 ** 세부적인 사업명은 제시하지 않았음
 *** 진하게 표시된 숫자는 연간 총 투입된 예산임

3-1-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다양한 사용자로 구성된 시민체험단을 운영하여 공공 공간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공공 공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사업의 대상지는 그 현황과 사업의 필요성, 추진의지,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2016년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 대상지는 종로구 행촌 성곽마을 공공가로(통일로 12길)와 금천구 독산1동 공공건축물(한대로 69-17)이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유니버설디자인 체험단과 서포터즈를 각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하였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한양도성 사이 567m 오르막길에 ‘행촌이음길’을 만들었으며, 3가지 관점(이야기가 있는 보행공간, 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공존, 적재·적소에 유용한 정보제공)과 11개의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였다. 또한, 금천구 독산1동 치안센터 한쪽에 주민들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한내마실터’를 조성하였으며 3가지 원칙(누구나 편하게 접근 가능한 공간,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실내공간, 세심한 감성적 배려)을 적용하였다.

2017년도 사업 대상지는 성동구 보건소(성동구 마장로 23길 10)가 선정되었다.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민, 영유아동반자, 외국

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10명의 시민체험단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보건소 진입로 및 내·외부 공간에 3가지 관점(통합안내, 보행안전, 이용배려)과 15개의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2018년도 사업 대상지는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가 선정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개별 건축물과 일부 공간 위주의 사업으로부터 지역단위의 공공 공간으로 확장하여 시행하였다. 사업은 장애인, 노인, 여성, 외국인, 영유아동반자 등이 참여하는 시민체험단 활동을 통해 과업대상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3년간(2016~2018)의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개요를 나타내면 [표 3-3]과 같다.

[표 3-3] 최근 3년간(2016~2018)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 대상지 (단위: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명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예산	260,000,000	260,000,000	349,000,000
대상지	종로구 교남동 행촌마을 통일로 12길 금천구 독산1동 69-17 치안센터 유희공간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성동구 보건소)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용역사	디자인이즈(design is)	스튜디오엠엑스디	스튜디오엠엑스디
추진결과	행촌이름길(약 567m → 종로 친절한 동네길), 한내마실터(약62m ² → 금천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였음	버스 폴사인 개선, 장애인버스 대기공간 설치, 승차차장 안전유 도 점자블록 설치/보도평탄화, 가로등 이설 및 가로수 보도블 럭 설치로 보도 유효폭 확대(1m → 2m), 안전손잡이 설치/주출 입구 진입 경사로 확폭(1.8m → 3.5m), 여담이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였음	조성 중 보행가로, 편의시설 및 안내사인 등에 보행안전, 접근동선, 정보 인지를 향상하는 유니버설디자 인 적용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함

* 출처: 서울시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2018년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2018 디자인정책과 업무바인더 및 예상질의, 2017 서울 디자인(백서 2015-2017) 106-107, 2018.11.30 기준

3-1-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건축물

서울시는 취약한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용자의 특성과 행태를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맞춤형 사용자 관점에서 ‘공공 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였다. 공공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이용자 맞춤형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조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인식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새로 적용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참여대상자를 확대하였고, 2017년에는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연령,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주거·지형 등 기존의 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도 진행하였다.

가)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대상 공공 건축물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은 2010년 5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까지 53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였다. 2016년 시와 자치구에서 추천한 30개 시설 가운데 12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2개소 증축, 10개소 리모델링을 통하여 이용자 맞춤형에 맞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였다. 2017년 공공 건축물 10개소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시설개선이 예정된 복지관, 도서관 등에 대한 설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1개소 신축, 1개소 증축, 8개소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공공 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시가 발주하거나 공사하는 공공 건축물 총 1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업체를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하였다. 현재, 컨설팅 신축(컨설팅 인테리어 설계) 3개소, 모니터링 신축 2개소, 증축 3개소, 리모델링 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7년 대비 2018년에 개선된 사항으로는, 기존에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다양한 사람이 이용하는 문화시설 등 대규모 공공 건축물로 컨설팅을 확대한 사실이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 대상 설계위주의 컨설팅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새로운 방법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식을 확산하도록 과제내용을 개선하였다.

[표 3-4] 최근 3년간(2016~2018)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단위: 원, 개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명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복지시설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공공 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예산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용역사	(주)아이엔엑스	(주)에스이 공간환경디자인그룹	더플레이스디자인연구소
대상지	총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로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 송파노인종합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 은평노인종합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 용산노인종합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 도봉노인종합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 중구 목정경로당(경로당) · 영등포구 영길경로당(경로당) · 관악구 양지어린이집(보육시설) · 관악구 미림어린이집(보육시설) ·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시설) · 영락모자원(한부모가족시설) · 은평의마을(노숙인자활시설) 	총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파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 노원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 흥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 백학경로당(경로당) · 공향어르신사랑방(경로당) · 골안말경로당(경로당) · 붓다마을(노인요양시설) · 금천구립독산도서관(도서관) · 금천구립가산도서관(도서관) 	총 15(컨설팅 3, 모니터링 12)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니메이션센터(복합용도) · 금천구 근로자문화복지센터(복합용도) · 동작 어르신복지관(경로당) · 동작 상도1동 경로당(경로당)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구 대조동 소규모노인복지센터(노인종합복지관) · 영등포 노인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 · 암사재활원(재활시설) · 은평재활원(재활시설) · 은평의마을(노숙인자활시설) · 노원사회통합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 흥은종합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 백학경로당(경로당) · 골안말경로당(경로당) · 금천구립독산도서관(도서관) · 금천구립가산도서관(도서관)

* 출처: 서울시 시의회업무보고자료, 유니버설디자인종합프로젝트, 2018년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추진계획, 2018 디자인정책과 업무비인더 및 예산 질의, 2018.11.30 기준
 ** ()는 시설유형을 구분한 것임

나)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서울시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내 장애체험장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참여대상자의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을 설치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하였으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장애체험을 실시하여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5]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사업 개요

(단위: 원)

구분	사업명	예산	대상지	규모	이용인원(일)	사업기간	사업내용
2017년	장애체험장 설치공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60,000,000	성모자애복지관 (현릉로 757길 35)	6,719㎡	350	2017.7~9	장애체험장 및 교육실 리모델링, 장애체험 장비구입

*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설치계획, 2018.12.25 기준

다)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서울시는 앞서 조성된 공원 내 노후 공원시설물을 정비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18년 처음 시작되었다. 사업대상지는 ‘실락어린이공원’이었는데,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없어 놀이공간이 부족하고,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하는 산지형 공원이었다. 주 산책로 경사가 낮고 순환형이며, 공원 입구부터 옥천암까지 북한산 무장애자락길이가 연결되어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대상지를 연령,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놀이터로 만들었고, 주거나 지형 등 기존의 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 3-6]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

(단위: 원)

구분	사업명	예산	대상지	규모	사업기간	사업내용
2018년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700,000,000 (특별교부금 - 명사이월사업)	실락어린이공원 (홍은동 455-4)	17,452㎡	2018.1~10	산책로 정비, 통합놀이터 조성, 노후 공원시설물 교체 등

*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서대문구 푸른도시와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계획, 2018.2.6 기준

3-1-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건축물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으로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BF인증')'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³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개별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부여되며, 예비인증과 본인증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BF인증제도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2년씩 교대로 인증기관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증심사를 맡고 있는 인증기관은 총 7개 기관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감정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을 신청한 소유자 등이 이들 인증기관에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명판 등을 발급받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BF인증 관련 7개 인증기관의 서울시 교부현황은 총 402건으로 확인되었다. 그중에서 공공부문 인증실적은 335건(83.3%), 민간부문은 67건(16.7%)으로, 인증실적은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인증대상별 인증실적은 건축물 382건(95.0%), 여객시설 14건(3.5%), 공원 4건(1.0%), 도로 1건(0.2%), 도시(구역) 1건(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이 인증 의무대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⁴

7개 전체 인증기관에 의한 최근 3년간(2016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서울시 BF인증의 본·예비인증서 교부현황은 [그림 3-2]와 같고, 이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표 3-7]과 같다. 또한, 2008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교부현황을 서울시 권역별로 구분하면 [그림 3-4]와 같다. 연도별로 2016년 본인증 7건, 예비인증 72건, 2017년 본인증 22건, 예비인증 114건, 2018년 본인증 23건, 예비인증 61건이다. 예비인증 건수는 계속 누적되고, 예비인증 통과 후 본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추후 본인증 건수는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³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건축, 정보제공, 피난 분야를 중심으로.

⁴ 국회입법조사처. (20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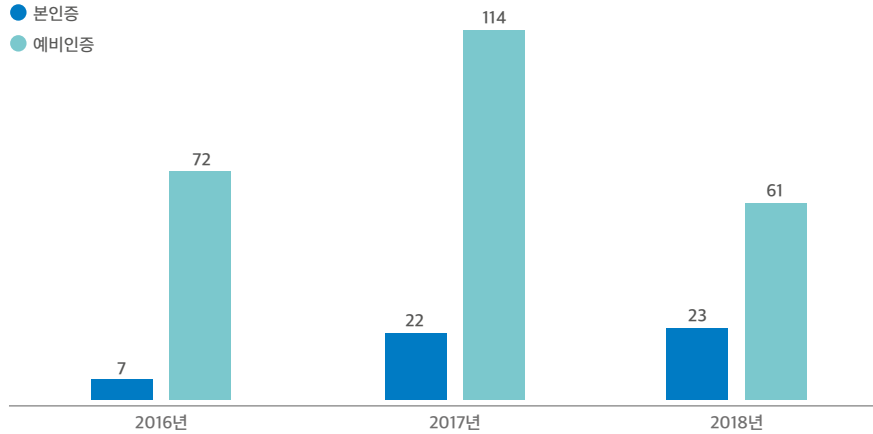
[표 3-7]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시 권역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본·예비인증서 교부현황

(단위: 건수)

권역별	자치구	2016년		2017년		2018년	
		본인증	예비인증	본인증	예비인증	본인증	예비인증
도심권	종로구		1		9		1
	중구		1		3	1	3
	용산구	1			1		
도심권 합계		3 (종로구: 예비 1 / 중구: 예비 1 / 용산구: 본 1)		13 (종로구: 예비 9 / 중구: 예비 3 / 용산구: 예비 1)		5 (종로구: 예비 1 / 중구: 본 1, 예비 3)	
동북1생활권	동대문구		4	1	5	1	3
	성동구		4	1	2	1	
	광진구		4	5	3		3
	중랑구		1	1	4	1	1
동북1생활권 합계		13 (동대문구: 예비 4 / 성동구: 예비 4 / 광진구: 예비 4 / 중랑구: 예비 1)		22 (동대문구: 본 1, 예비 5 / 성동구: 본 1, 예비 2 / 광진구: 본 5, 예비 3 / 중랑구: 본 1, 예비 4)		10 (동대문구: 본 1, 예비 3 / 성동구: 본 1 / 광진구: 예비 3 / 중랑구: 본 1, 예비 1)	
동북2생활권	성북구		6		6	1	3
	강북구		1	1	2		
	도봉구		2	2	6	1	2
	노원구		1	1	4		1
동북2생활권 합계		10 (성북구: 예비 6 / 강북구: 예비 1 / 도봉구: 예비 2 / 노원구: 예비 1)		22 (성북구: 예비 6 / 강북구: 본 1, 예비 2 / 도봉구: 본 2, 예비 6 / 노원구: 본 1, 예비 4)		8 (성북구: 본 1, 예비 3 / 도봉구: 본 1, 예비 2 / 노원구: 예비 1)	
서북생활권	마포구	1	4		3	1	1
	서대문구				5		4
	은평구		3		10	2	4
서북생활권 합계		8 (마포구: 본 1, 예비 4 / 은평구: 예비 3)		18 (마포구: 예비 3 / 서대문구: 예비 5 / 은평구: 예비 10)		12 (마포구: 본 1, 예비 1 / 서대문구: 예비 4 / 은평구: 본 2, 예비 4)	
서남1생활권	강서구	3	1	2	4	1	4
	양천구		3	2	5		4
서남1생활권 합계		7 (강서구: 본 3, 예비 1 / 양천구: 예비 3)		13 (강서구: 본 2, 예비 4 / 양천구: 본 2, 예비 5)		9 (강서구: 본 1, 예비 4 / 양천구: 예비 4)	
서남2생활권	영등포구		6	1	3		5
	구로구		3	1	5		2
	금천구		5		4	1	2
서남2생활권 합계		14 (영등포구: 예비 6 / 구로구: 예비 3 / 금천구: 예비 5)		14 (영등포구: 본 1, 예비 3 / 구로구: 본 1, 예비 5 / 금천구: 예비 4)		10 (영등포구: 예비 5 / 구로구: 예비 2 / 금천구: 본 1, 예비 2)	
서남3생활권	동작구	1			2		10
	관악구		6		5		1
서남3생활권 합계		7 (동작구: 본 1 / 관악구: 예비 6)		7 (동작구: 예비 2 / 관악구: 예비 5)		11 (동작구: 예비 10 / 관악구: 예비 1)	
동남1생활권	서초구		5	2	14	6	1
	강남구		4	1	1	1	
동남1생활권 합계		9 (서초구: 예비 5 / 강남구: 예비 4)		17 (서초구: 본 2, 예비 14 / 강남구: 본 1, 예비 1)		8 (서초구: 본 6, 예비 1 / 강남구: 예비 1)	
동남2생활권	송파구	1	3		3	2	4
	강동구		4	1	5	3	2
동남2생활권 합계		8 (송파구: 본 1, 예비 3 / 강동구: 예비 4)		8 (송파구: 예비 3 / 강동구: 본 1, 예비 5)		8 (송파구: 본 2, 예비 4 / 강동구: 본 3, 예비 2)	
전체 합계		7	72	22	114	23	61
		79 (본 7, 예비 72)		136 (본 22, 예비 114)		84 (본 23, 예비 61)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http://www.koddi.or.k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http://bf.koddi.or.kr>), 2018.8.31 기준

[그림 3-2]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본·예비인증서 교부현황
(단위: 건수)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http://www.koddi.or.k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http://bf.koddi.or.kr>), 2018.8.31 기준

[그림 3-3] 서울특별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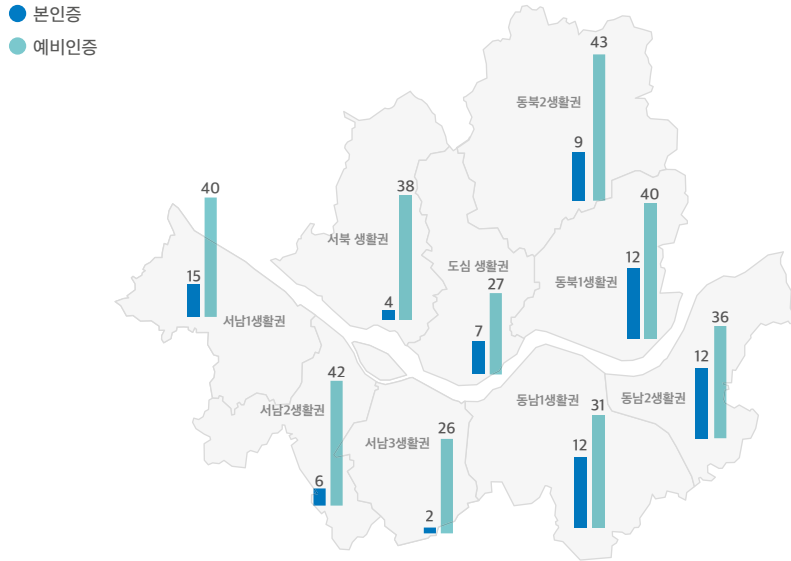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http://www.koddi.or.k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http://bf.koddi.or.kr>), 2018.11.30 기준
** 사진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발췌하였음

BF인증 7개 인증기관의 서울시 권역별 교부현황은 [그림 3-4]와 같다. 도심권은 본인증 7건, 예비인증 27건 총 34건이었다. 동북1생활권은 본인증 12건, 예비인증 40건으로 총 52건이고, 동북2생활권은 본인증 9건, 예비인증 43건, 총 52건이다. 서북생활권은 본인증 4건, 예비인증 38건, 총 42건이고, 서남1생활권은 본인증 15건, 예비인증 40건으로 총 55건이다. 서남2생활권은 본인증 6건, 예비인증 42건, 총 48건이며, 서남3생활권은 본인증 2건, 예비인증 26건, 총 28건으로 나타났다. 동남1생활권은 본인증 12건, 예비인증은 31건, 총 43건으로 나타났으며, 동남2생활권은 본인증 12건, 예비인증 36건, 총 48건이다.

[그림 3-4] 서울특별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 본·예비인증서 권역별 총 교부현황

(단위: 건수)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http://www.koddi.or.k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http://bf.koddi.or.kr>), 2018.8.31 기준
 ** 자료조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나) 유니버설디자인 주택

서울시와 국토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자금조달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유니버설디자인 주택’이란, 모든 사람들의 생활편의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소셜 믹스(social mix) 주택이다.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은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주거약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주택을 건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임대하고 있으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강서구 화곡동에 유니버설디자인 사회주택인 ‘유디하우스 화곡’을 짓고 있다. 유디하우스는 ‘유디베이직’과 ‘유디플러스’ 커뮤니티공간으로 구분된다. ‘유디베이직’은 일반 세대이고, ‘유디플러스’는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을 준용한 세대이다. 특히 유디플러스는 장애인과 고령노인에 초점을 맞춘 세대공간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싱크대, 전동 휠체어 보관소, 높낮이 조절 세면대, 접이식 샤워의자, 호이스트(이송형 리프트) 등을 설치하고 있다.⁵ 서울시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공공데이터 중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다. 모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 있는 편의시설이므로,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http://socialhousing.site/221326151587>

3-1-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편의시설

서울시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공공데이터 중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다. 모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 있는 편의시설이므로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서울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통계 자료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되며, 다음해 6~8월경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 통계는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매개시설’은 주출입구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의 차이가 제거된 주출입구 등을 의미한다. 둘째, ‘내부시설’은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를 의미한다. 셋째, ‘위생시설’은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을 의미한다. 넷째, ‘안내시설’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이다. 마지막으로 ‘기타시설’은 객실·침실·관람석·열람석, 매표소·판매기·음료대를 의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는 최근 2년간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 기준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에 설치하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축되거나 승인된 건축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대상 또한 줄어들게 되었다. 2018년 자료는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근 3년간(2015~2017)의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자료 결과를 보면 [표 3-8]과 같다.

[표 3-8] 최근 3년간(2015~2017)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단위: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대상	781,728	247,370	118,220
	설치	711,187	238,984	114,679
매개시설	대상	321,567	89,805	46,162
	설치	299,351	87,028	44,916
내부시설	대상	281,271	109,809	52,335
	설치	273,192	107,838	51,059
위생시설	대상	152,250	42,404	16,965
	설치	120,788	39,123	16,094
안내시설	대상	17,585	2,745	1,485
	설치	10,284	2,604	1,404
기타시설	대상	9,055	2,607	1,273
	설치	7,572	2,391	1,206

*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2017.12.15 기준

** 매년 말(2018년 12월 31일) 기준시점으로 자료가 조사되기 때문에 최근 3년간(2015~2017) 자료를 반영하였음

최근 3년간(2015~2017)의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자료를 서울시 권역별로 구분하면 [표 3-9], [그림 3-5]와 같다. 도심권 편의시설은 85,714개, 동북1생활권 135,747개, 동북2생활권 115,665개, 서북생활권 120,285개, 서남1생활권 127,636개, 서남2생활권 102,988개, 서남3생활권 70,926개, 동남1생활권 198,322개, 동남2생활권 107,567개로 나타났다.

[표 3-9] 최근 3년간(2015~2017) 서울시 권역별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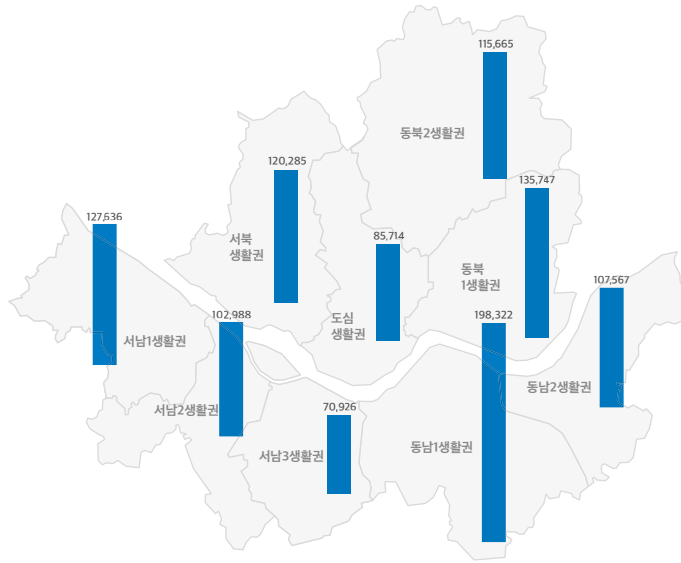
권역별	자치구	2015년		2016년		2017년	
		대상	설치	대상	설치	대상	설치
도심권	종로구	21,233	19,346	7,264	6,806	3,140	2,999
	중구	25,055	23,117	9,333	8,914	2,774	2,628
	용산구	18,582	16,690	4,057	3,827	1,434	1,387
도심권 합계		64,870	59,153	20,654	19,547	7,348	7,014
동북1생활권	동대문구	25,311	23,347	7,983	7,724	4,073	4,032
	성동구	25,629	21,829	4,001	3,990	2,254	2,239
	광진구	26,406	23,629	9,679	9,354	6,403	5,838
	종량구	24,374	21,537	8,096	6,947	5,559	5,281
동북1생활권 합계		101,720	90,342	29,759	28,015	18,289	17,390
동북2생활권	성북구	24,723	22,612	4,541	4,406	3,353	3,240
	강북구	16,874	15,455	5,676	5,622	3,213	3,191
	도봉구	23,870	20,510	5,945	5,571	3,101	2,938
	노원구	26,842	23,983	5,311	5,201	3,057	2,936
동북2생활권 합계		92,309	82,560	21,473	20,800	12,724	12,305
서북생활권	마포구	30,970	28,414	8,481	8,452	4,553	4,483
	서대문구	24,851	21,937	6,914	6,812	2,215	2,172
	은평구	33,437	30,618	12,606	12,250	5,280	5,147
서북생활권 합계		89,258	80,969	28,001	27,514	12,048	11,802
서남1생활권	강서구	66,409	59,572	24,998	23,994	9,424	9,233
	양천구	28,550	25,242	7,350	7,043	2,600	2,552
서남1생활권 합계		94,959	84,814	32,348	31,037	12,024	11,785
서남2생활권	영등포구	30,094	27,951	8,257	8,145	4,623	4,584
	구로구	23,133	21,584	7,305	7,102	3,391	3,331
	금천구	23,721	21,003	6,466	6,129	3,204	3,159
서남2생활권 합계		76,948	70,538	22,028	21,376	11,218	11,074
서남3생활권	동작구	21,910	20,809	7,795	7,636	2,808	2,752
	관악구	31,546	28,726	6,653	6,376	4,701	4,627
서남3생활권 합계		53,456	49,535	14,448	14,012	7,509	7,379
동남1생활권	서초구	54,495	50,500	21,070	20,513	5,180	5,117
	강남구	78,472	73,966	34,110	33,382	15,207	14,844
동남1생활권 합계		132,967	124,466	55,180	53,895	20,387	19,961
동남2생활권	송파구	33,929	31,194	11,739	11,576	6,907	6,774
	강동구	41,312	37,616	11,740	11,212	9,766	9,195
동남2생활권 합계		75,241	68,810	23,479	22,788	16,673	15,969
전체 합계		781,728	711,187	247,370	238,984	118,220	114,679

*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2017.12.15 기준

** 매년 말(2018년 12월 31일) 기준시점으로 자료가 조사되기 때문에 최근 3년간(2015~2017) 자료를 반영하였음

[그림 3-5] 서울특별시 권역별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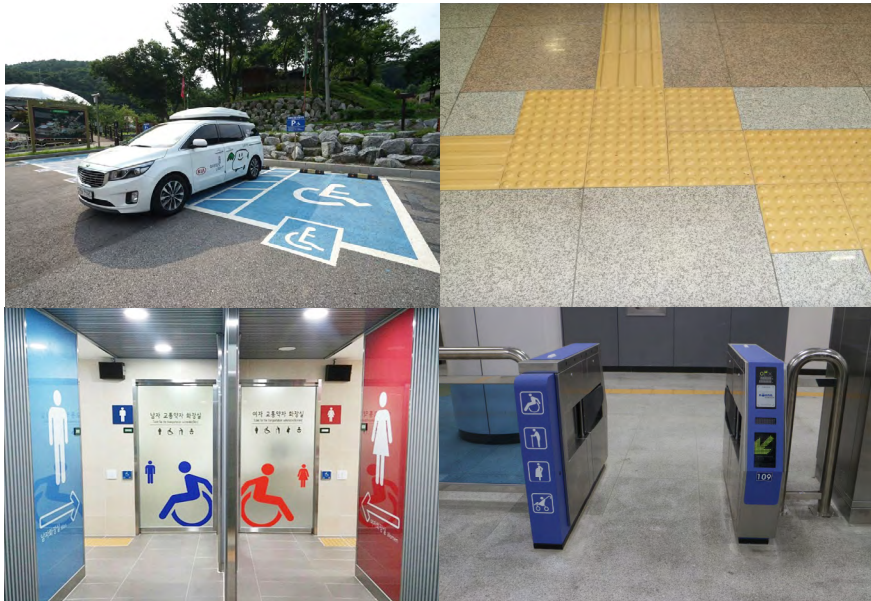


*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2017.12.15 기준

** 숫자는 각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개수를 의미함

*** 매년 말(2018년 12월 31일) 기준시점으로 자료가 조사되기 때문에 최근 3년간(2015~2017) 자료를 반영하였음

[그림 3-6] 서울특별시 권역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출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매개시설), 점자블록(안내시설), 화장실(위생시설), 매표소(기타시설)를 나타낸 것임, 2018.11.30 기준

나) 지하철 편의시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외국인 등을 위하여 지하철 1~8호선의 편의시설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는 연간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표 3-10]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1~8호선 편의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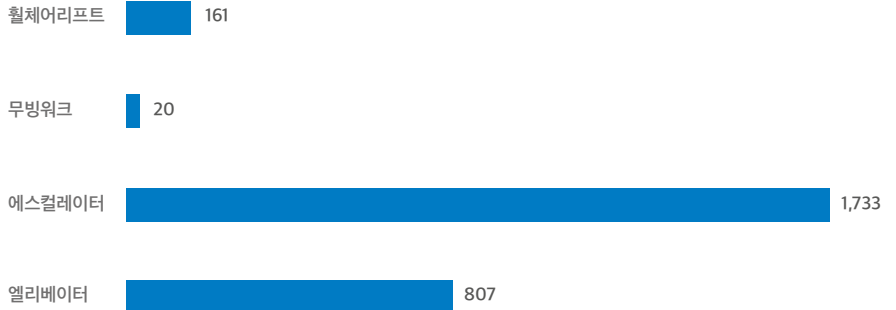
(단위: 개)

호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	합계
1	36	31	0	9	76
2	147	219	0	12	378
3	85	194	2	6	287
4	76	112	0	15	203
5	140	313	2	27	482
6	109	299	12	34	454
6(기타)	1(성산별관)				1
7	123	368	4	43	538
7(기타)	1(천왕기지)				1
7(연장선)	37	119	0	0	156
8	52	78	0	14	144
기타				1(대공원어린이집)	1
총 합계	807	1,733	20	161	2,721

*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2017.12.15 기준

[그림 3-7] 지하철 1~8호선 편의시설 현황

(단위: 개)



*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2017.12.15 기준

3-2.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

모두가 차별 없는 문화서비스를 공유하고, 불편 없이 관람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로서 서울시(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개최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2-1.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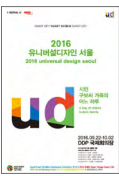


서울시(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를 2013년부터 개최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대상은 유니버설디자인 기업체, 디자이너, 건축가 등이다. 2016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주제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라이프(Smart City, Smart Life)’였는데, 모든 전시품과 전시 디자인 환경구축을 통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6월칙’⁶을 전시했다. 또한,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300여 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했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주최 및 주관한 전시는 평범한 어느 서울 시민 한 가족의 하루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서울 곳곳의 도시형 유니버설디자인과,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디자인 제품들을 소개하였다. 2017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이 주제였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전시되었는데, 비접촉식 블루투스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한 ‘스마트 우산’, 피부적외선 스마트체온계 ‘써모케어’, 노인보행보조기 ‘코지워커’ 제품 등이 선보였다. 2018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는 ‘스탠다드 파라다이스’로 표준 규격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잠시 빠져나와 다양한 크기, 기호, 관계의 세상을 경험해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전시였다. 전시는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었는데, ‘전시를 만나다’, ‘다양한 규격을 만나다’, ‘나에게 맞는 규격을 만나다’로 나뉘어졌다. ‘다양함, 동등함, 포용’이라는 키워드를 규격으로 풀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확장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이끌어갔다.

6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6월칙

①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②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 높은 디자인, ③ 시민이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④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⑤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⑥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표 3-11]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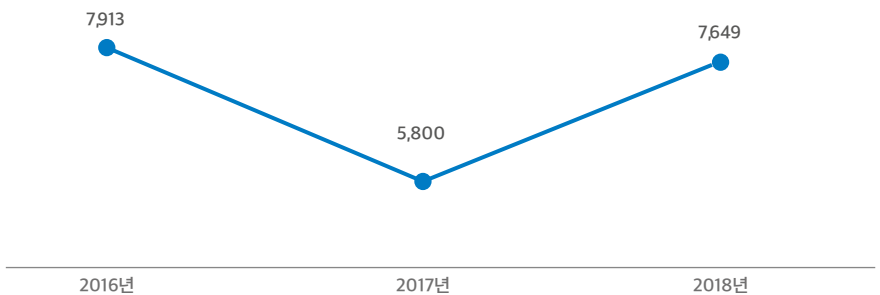
(단위: 원, 명)

구분	2016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2017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2018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포스터			
예산	340,000,000 (전시회)	300,000,000 (전시회 & 국제세미나)	250,000,000 (전시회 & 국제세미나)
주제	2016유니버설디자인 서울 : 어느 가족의 하루 이야기	2017 유니버설디자인서울 <공감과 교감>	스탠다드 파라다이스
프로그램	· 첫 번째 이야기 : 창신동.아침준비 · 두 번째 이야기 : 역삼동.착한일터 · 세 번째 이야기 : 명동.서울답사 · 네 번째 이야기 : 삼성동.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 다섯 번째 이야기 : 월계동.아이들과 함께 · 유니버설디자인 단편영상 : 이야기 3개	· 인트로) 무지, 배척, 편견 : 어둠의 터널을 지나다 · Zone#1)UD의 시작: 모두를 위한 디자인 · Zone#2)일상에 스며드는 UD : 풍요와 안전 그리고 아름다운 일상 Zone#3)과학과 UD의 융합 : 모두를 위한 변화 · Zone#4) 4차산업혁명 속의 UD : 진화 · Zone#5-1) 서울 속의 UD Zone#5-2) UD공모전 수상작들: '미래를 위한 디자인' 상상 · 애플로그) UD 7가지 원칙 : 미래 디자인을 위한 원칙	· Zone#1 - 전시를 만나다(나, 너, 도시의 별/유니버설디자인과 규격, 3 Keywords) · Zone#2 - 다양한 규격을 만나다(6개의 문, 초대된 식탁, 라 파스타 스토리아(체험 활동), 무지개 파이프, 키 맞추기 캐릭터, 크고 작은 사람들, 드로잉 판타지아, 레디, · Zone#3 - 액션!-부엌에서(포토), 라운지-공원에서(포토)
기간	2016.9.22~10.2	2017.9.21~9.27	2018.9.17~9.26
장소	DDP알림터 국제회의장	DDP알림터 국제회의장	DDP배움터 돌레길 2~4층
주최·주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주 계약업체	(주)얼트씨	(주)얼트씨	넥스디자인플래닝(주)
관람객	7,913	5,800	7,649

* 출처: 서울시 시의회업무보고자료, 유니버설디자인종합프로젝트, 2017 서울 디자인(백서 2015-2017) 110~111, 나라장터(<http://www.g2b.go.kr>), 2018.11.30 기준

[그림 3-8]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관람객 변화 추이

(단위: 명)



* 출처: 서울시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유니버설디자인종합프로젝트, 2017 서울 디자인(백서 2015-2017) 110~111, 2018.11.30 기준

3-2-2.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서울시(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는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신체적 조건과 감성을 고려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3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는 복지시설장, 건축 및 복지 분야 공무원, 디자인 관련 협회 및 학회 회원, 학생·단체·일반시민이라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2016년에 개최된 제4회 국제세미나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주제로 벨기에 하셀트 대학의 휴버트 프로이언 교수가 ‘모두를 위한 배려하는 디자인’을, 영국 어플라이드 웨이파이딩(Applied Wayfinding)의 에이드리언 벨 이사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의 길 찾기 시스템’을 주제로 발제했다.

2017년의 제5회 국제세미나는 ‘공감과 교감’을 주제로 뮌헨 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 CEO인 토마스 바데(Thomas Bade)가 ‘이코노미석을 일등석처럼 변화시키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조연설과 함께 고시엠(싱가포르 건설부 유니버설디자인국장), 오가사와라 이즈미(요코하마시 도시교통국 계장), 조셉 관(홍콩 유니버설디자인 협회 대표이사), 이건복(한국 MS 국가기술책임자) 등의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해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의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2018년의 제6회 국제세미나는 ‘평등과 포용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향하여: 그 가치와 전략은?’을 주제로, 영국의 어플라이드웨이파이딩 사 리차드 사이먼 이사가 ‘길 찾기 쉬운 마드리드: 안내체계 구축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과 함께 조지웁스(뉴질랜드, 오클랜드시청 오클랜드디자인부서(ADO) 도시디자인 전문가), 테아 커디(캐나다, 디자인에이블환경사 부대표), 온니 아이크 하오그(노르웨이, 유럽 모두를 위한 디자인(EIDD) 대표), 홍서윤((사)한국장애인관 광협회 대표), 김수진(포스코건설 디자인그룹 과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들을 놓고 그 가치를 논의해보았다.

[표 3-12]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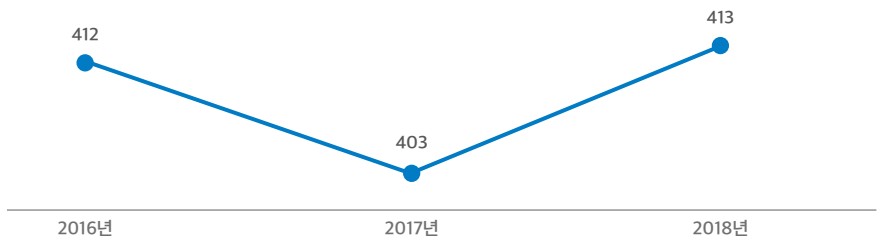
(단위: 원, 명)

구분	제4회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2016년)	제5회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2017년)	제6회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2018년)
포스터			
예산	35,000,000 (국제세미나)	300,000,000 (전시회 & 국제세미나)	250,000,000 (전시회 & 국제세미나)
주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공감과 교감	평등과 포용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향하여: 그 가치와 전략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설<모두를 위한 배려하는 디자인> : 휴버트 프로이언 · 발표 1<유니버설디자인 도시의 길 찾기 시스템> : 에이드 리언 벨 · 발표 2<고객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상업 공간 디자인> : 박인택 · 발표 3<사용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디자인, 체험을 통한 사회적 배려> : 김정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설<이코노미석을 일등석처럼 변화시키는 유니버설디자인> : 토마스 바데 · 발표 1<접근성 마스터 플랜 - 배리어 프리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 고시 엠 · 발표 2<요코하마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 오가사와 라 이즈미 · 발표 3<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 조셀 칸 · 발표 4<디지털 전환시대의 유니버설디자인 - 모두를 위한 세상 만들기> : 이건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설<길 찾기 쉬운 마드리드: 안내체계 구축 전략>: 리차드 사이먼 · 발표 1<사람과 자전기 모두 이동하기 쉬운 거리를 위한 UD: 뉴질랜드와 유럽의 교훈>: 조지 워스 · 발표 2<유니버설디자인은 어떻게 스마트시티디자인을 창조하는가?>: 테아 커디 · 발표 3<유럽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 오니 카이하그 · 발표 4<이동약자 관점의 도시환경 유니버설디자인: 이동경험을 중심으로> : 홍서윤 · 발표 5<공동주택 유니버설디자인 특화 및 적용 사례>: 김수진
기간	2016.9.28 13:00~17:00	2017.9.26 13:00~17:00	2018.9.14 13:00~18:00
장소	DDP 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	DDP 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	DDP 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
주최 · 주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주 계약업체	(주)엠더블유네트웍스	(주)얼트씨	(주)피오커뮤니케이션즈
관람객	412	403	413

* 출처: 서울시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유니버설디자인종합프로젝트, 2017 서울 디자인(백서 2015-2017) 110~111, 나라장터(<http://www.g2b.go.kr>), 2018.11.30 기준

[그림 3-9]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관람객 변화 추이

(단위: 명)



* 출처: 서울시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유니버설디자인종합프로젝트, 2017 서울 디자인(백서 2015-2017) 110~111, 2018.11.30 기준

3-2-3.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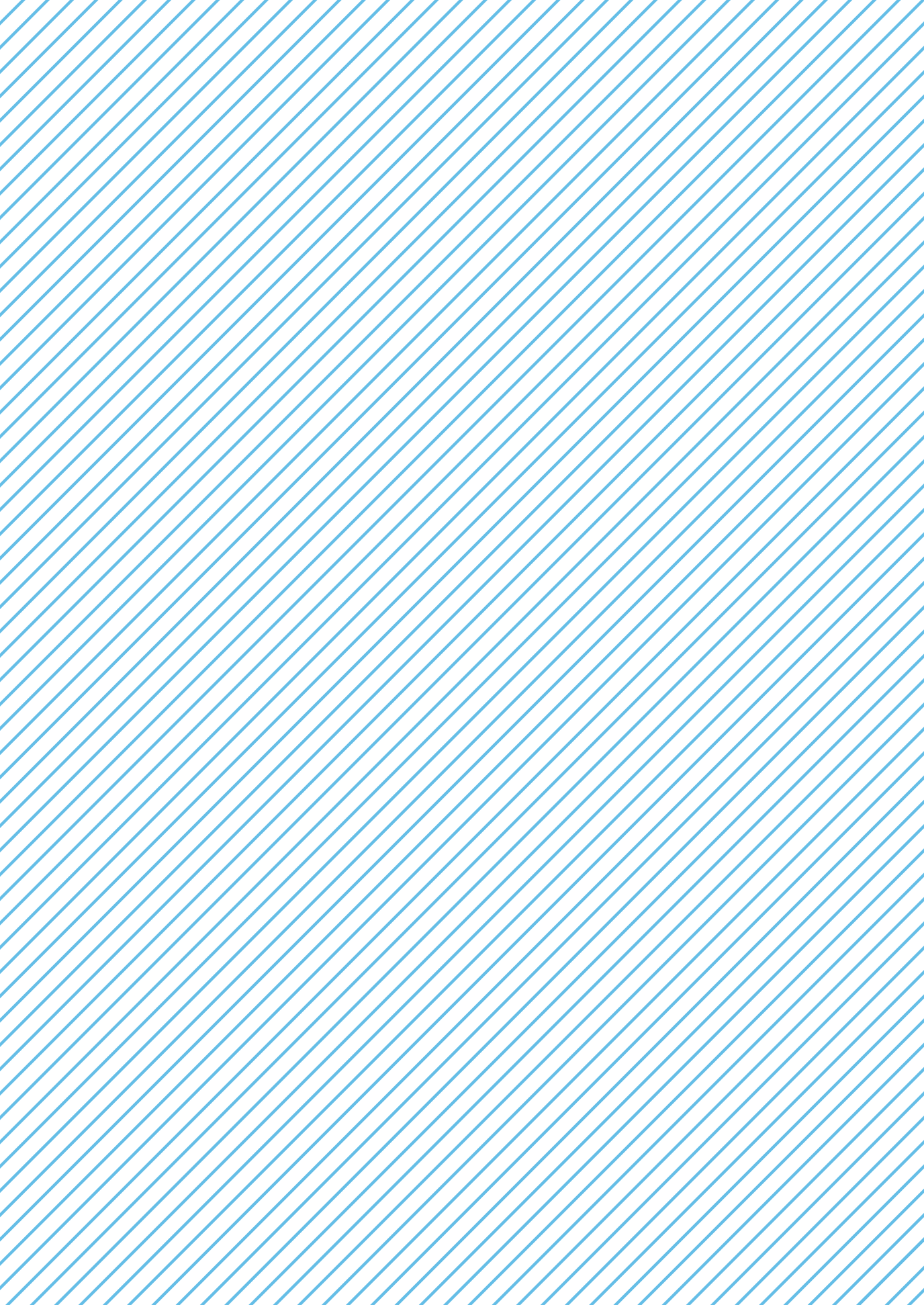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연령과 성별, 국적과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및 생활환경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2006년부터 주제를 정해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한국복지대학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회적기업 웹와치가 후원한다. 2016년 제11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은 제품 및 인터랙션디자인, 환경, 건축 및 실내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등의 ‘자유주제’와, 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한 노부부를 위한 농가라는 ‘특별부문’으로 진행되었는데, 원하는 응모부문 중 1개를 선택하여 접수하는 방식이다. 2017년 제12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은 전년도와 동일한 ‘자유주제’와 함께, 공동주택 주거환경디자인이라는 ‘특별부문’으로 개최되었다. 2018년 제13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에서는 대학·일반부와 중·고등부로 참가자격이 구분되었다. ‘자유주제’는 동일하고, 재난 안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지정주제’로 공모전이 이루어졌다. [표 3-13]은 최근 3년간(2016~2018)의 수상작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3]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구분		제11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2016년)	제12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2017년)	제13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2018년)
자유부문 수상작 / <대학·일반부>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환경> 녹는중-탕이없는 목욕탕	<제품> ONE HAND DISH-WASHING	<제품>SIGNER DOOR-KNOB
	한국복지대학교 총장상	<제품> Uni-band	<환경> 킷킷(Kit It)	<콘텐츠>청각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어플리케이션
	최우수상	<제품> Disposable Milk Powder Pack	<제품> 유아 두뇌발달 및 노인 치매예방 스마트 큐브	<제품>One-touch Safe
		<제품> 복도식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레일형 선반' 디자인	<환경> Dear my Friend,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도서관의 입좌식 휴게공간	<환경>모나지 않을 안
		<콘텐츠> 대형 병원의 대기 시간을 해결해주는 드라 이브 스루	<콘텐츠> ICU COMMUNICATION	
	우수상	<제품> Umbrella Rap	<제품> Blub tongs	<제품>모두가 편한 버스의자
		<환경> Play cube	<제품> Break Fire <환경> FLOW. VARIATION. AVENUE	<환경>빠름에서 바름으로 <지정>Safe Zone-Kit Design
	장려상	<제품> Hook-Hook	<제품> AIR cruise(누구나 탑승 하기 쉬운 고속버스)	<콘텐츠>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식당주문 앱 WWW'주문이지'WWW
		<제품> Step medicine packet	<제품> 시각장애인을 위한 테이블 매트	<제품>Blind Microwave
		<제품> Braille Block	<제품> 파스도 두들겨 보고 붙인다	<제품>휠체어 보조 커버
		<환경> BACK TO BACK	<콘텐츠> 시각장애인의 사용 편의를 위한 카드 디자인	<지정>Safety Flower
	<특별부문 수상작> / <중·고등부>	대상 (한국복지대학교 총장상)	UNIFARM HOUSE 작고 넓은 살기 편한 집	가장 보통의 집
최우수상		流寧齋(유영재)	Change Over Hills-볼리함을 이점으로 전환시키는 공간	<지정>재난안전 픽토그램
우수상		SLOPE HOUSE	마당 더하기	<환경>기왓장
		사과밭 할아버지 사과 익 어가요	내가 사는 특별한 공간	<지정>DLL (Descending Life Line)
장려상		HOUSE A(마당품은 집)	어출림,채	<콘텐츠>일상생활의 안전
			restore beauty (아름다움을 되찾다)	<지정>재난 안전을 위한 픽토그램
		BOUNDLESS HOUSE (경계를 낮추고 허무는 주택)	편. 안. 행	<환경> Flower Bench
		화양연화-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같이의 가치	<지정> HELPER(다용도 비상장치)
		호~해줘	<지정> 산림안전	
따움하우스		따움하우스	<지정>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사항	
Universal Using Bulding 구분 없이 사용가능한 주거				

* 출처: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udcontest.com>), 2018.12.21 기준

** 공모전 수상작은 제목만을 기술한 것임. < >는 수상 분야를 의미함



제4장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4-1.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4-2.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

제4장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디자인 기반 사회 속에서는 세대와 계층 그리고 모든 문화를 통틀어 차별과 구분이 없는 유니버설디자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발맞춰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¹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은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성과 창의성을 키워 더불어 사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및 기반기술의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²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관련 ‘교육’ 상황과 더불어 ‘연구’ 상황을 조사하였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은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과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은 다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기관’과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기관’으로 구분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에 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4-1]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지표체계

구분	영역	지표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협력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수행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용역 수행기관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시민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

1 송예진·장미경. (2016).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서울시 특성화 고등학교 유니버설 디자인 수업 지도안 연구. 조형미디어학, 19(3), 213.

2 정도성. (2013). 유니버설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서울디자인재단, 70-76.

4-1.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최근, 인성·창의성 교육과 관련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공익성과 올바른 인성을 교육하고 창의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다.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과 관련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기관’과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기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4-1-1.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기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은 가능한 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에 교육하기 시작하여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교육하는 정규 교육 기관의 범위를 대학 이전까지 넓혔다.

정규 교육 기관의 유니버설디자인 학과(전공)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교육하는 기관이 매우 적었다. 이에 따라,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조사하였다.

가)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기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요구와, 장애인·노인·여성·어린이·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와 감성을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교육은 물론, 참여자의 현장체험 및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 기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기관 중 유니버설디자인 전공 학과가 있는 곳을 파악하였다. 또한, 서울시 소재 대학(원) 중 교과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이 있는 학과(전공)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유니버설디자인 학과(전공)

학교	학과(전공)	학부/학과 소개	홈페이지	소재지
영신간호비즈니스 고등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 교육부에서 매력적인 직업계고로 선정, 인성을 겸비한 산업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NCS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임	http://www. youngshin.hs.kr	서울 노원구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을 기본으로, 디자인의 개념을 한 차원 높은 ‘모두가 행복한 디자인’을 표방함. 변화하는 정보매체 발달에 부응하고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타 분야와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실천하는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교육 목표를 둠	http://www.knuw. ac.kr	경기 평택시
	유니버설건축과	·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창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사고로 도시 및 건축의 영역에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실천하는 전문 건축인을 양성하는 것		
강남대학교	유니버설비주얼 디자인전공	· 강남대학교의 창학 이념인 경천애인 정신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념인 ‘Design for All’ 즉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교육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함	http://www. kangnam.ac.kr	경기 용인시
국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인클루시브 디자인 전공	·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해결의 실마리를 학습함. 또한 다양한 장애 분야별 디자인의 요구와 디자인원칙을 연구함	http://gsd. kookmin.ac.kr/ site/exam/admission. htm	서울 성북구

* 출처: 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2018.12.17 기준

① 고등학교

고교 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사립)는 교육부에 의해 매력적인 직업계고로 선정된 특성화고교인데, 간호비즈니스 분야 전문 여성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유니버설디자인과를 개설하여 2017년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2018년 현재 보건간호과, 보건뷰티과, 보건비즈니스과, 시각디자인과로 학과가 변경되었다.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졸업생 진학률에 대한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본 자료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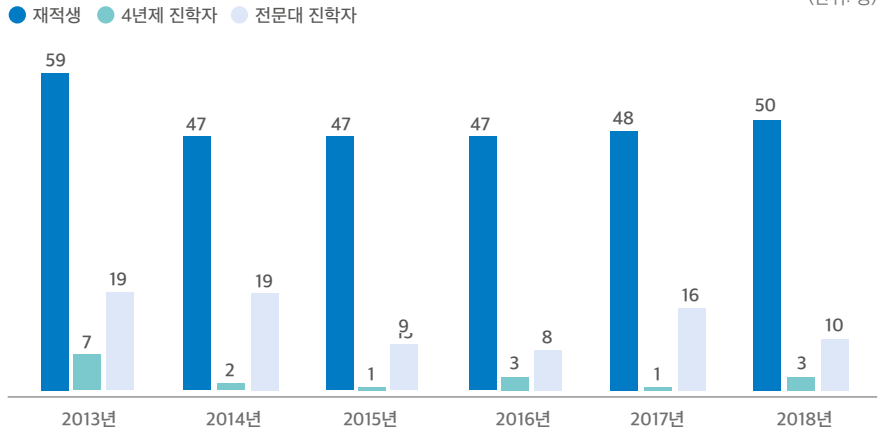
동 고교의 유니버설디자인과 재적생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4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은 평균 5.4%, 전문대학 진학자 비율은 평균 24.8%로 전문대 진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최근 6년간(2013~2018)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졸업생 진학률 (단위: 명, %)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학과	유니버설디자인과					
재적생	59	47	47	47	48	50
4년제 진학자	7(11.8)	2(4.2)	1(2.1)	3(6.3)	1(2.0)	3(6.0)
전문대 진학자	19(32.2)	13(27.6)	9(19.1)	8(17.0)	16(33.3)	10(20.0)

* 출처: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http://www.youngshin.hs.kr>), 특성학교·종합고 마이스터고 편람(2013), 2018.12.17 기준
 ** 2013~2018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그림 4-1] 최근 6년간(2013~2018)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졸업생 진학률 변화 추이 (단위: 명)



* 출처: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http://www.youngshin.hs.kr>), 특성학교·종합고 마이스터고 편람(2013), 2018.12.17 기준
 ** 2013~2018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② 전문대학

한국복지대학교 예체능계열 유니버설디자인과는 ‘변화하는 정보매체 발달에 부응하고, 인문·사회·과학·예술 등 타 분야와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실천하는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 하는 데 교육목표를 둔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을 기본으로, 디자인의 개념을 한 차원 높은 ‘모두가 행복한 디자인’을 표방한다. 모든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으로 전공을 세분화하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실천하는 전문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2018년도 신설된 한국복지대학교 공학계열 유니버설건축과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창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사고로 도시 및 건축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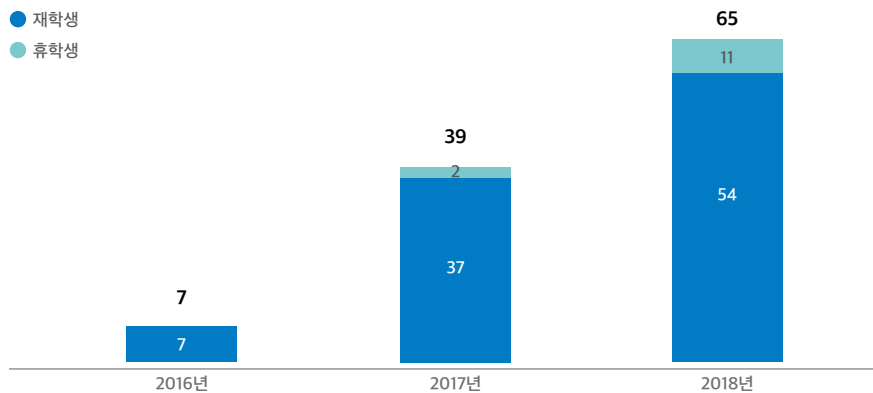
역에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실천하는 전문 건축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2018년도에 신설된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 수 등 자료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2016~2018)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6년 재적생 총 7명(남자 2, 여자 5), 재학생은 총 7명(남자 2, 여자 5)이다. 2017년 재적생은 39명(남자 20, 여자 19), 재학생 37명(남자 19, 여자 18), 휴학생 2명(남자 1, 여자 1)이다. 2018년 재적생은 총 65명(남자 37, 여자 28), 재학생 54명(남자 30, 여자 24), 휴학생 11명(남자 7, 여자 4)으로 뚜렷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4-4] 최근 3년간(2016~2018)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학생 수 (단위: 명, %)

구분 (기준년도)	재적생			재학생			휴학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6년	7 (100.0)	2 (28.5)	5 (71.4)	7 (100.0)	2 (28.5)	5 (71.4)	0 (0.0)	0 (0.0)	0 (0.0)
2017년	39 (100.0)	20 (51.2)	19 (48.8)	37 (100.0)	19 (51.3)	18 (48.7)	2 (100.0)	1 (50.0)	1 (50.0)
2018년	65 (100.0)	37 (56.9)	28 (43.1)	54 (100.0)	30 (55.5)	24 (44.5)	11 (100.0)	7 (63.6)	4 (36.4)

*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공식정보 → 대학별 검색 → 대학검색 → 상세정보(학생, 교육여건, 교육연구성과) 재구성, 2018.12.17 기준
 ** 학생 수는 일반과정인 주간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인 야간을 모두 더한 숫자임
 *** 재적생은 재학생과 휴학생의 합계를 의미함

[그림 4-2] 최근 3년간(2016~2018)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공식정보 → 대학별 검색 → 대학검색 → 상세정보(학생, 교육여건, 교육연구성과) 재구성, 2018.12.17 기준
 ** 학생 수는 일반과정인 주간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인 야간을 모두 더한 숫자임
 *** 진하게 표시된 숫자는 재적생이며 재학생과 휴학생의 합계를 의미함

③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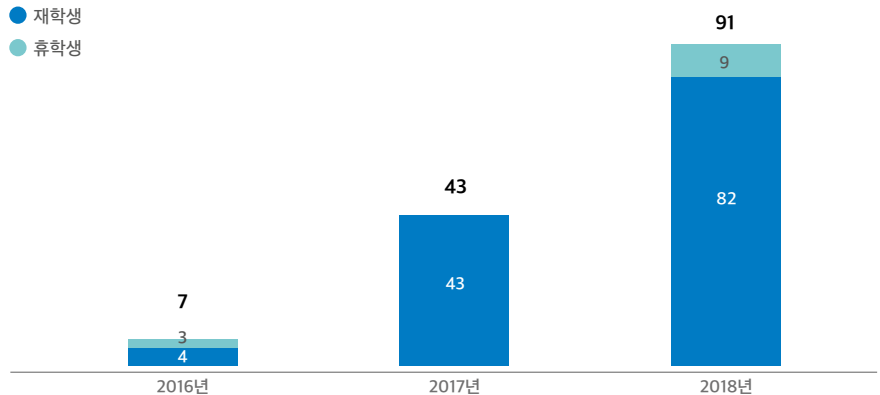
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학과는 강남대학교의 창학 이념인 경천 애인 정신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념인 'Design for All' 즉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의 다양한 대상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물론, 디자인의 세부 전공에만 치우치지 않는 총체적이며 창의적인 융합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6년까지 미래인재개발대학 유니버설디자인공학과가 유지되었다가 2017년부터 복지융합대학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학과로 변경되었다. 최근 3년간(2016~2018)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6년 유니버설디자인공학과 재적생은 7명(남자 3, 여자 4)이며, 재학생 4명(남자 1, 여자 3), 휴학생 3명(남자 2, 여자 1)이다. 2017년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학과 재적생은 43명(남자 7, 여자 36)이며, 재학생은 43명(남자 7, 여자 36)이다. 2018년 재적생은 91명(남자 27, 여자 64)인데, 재학생은 82명(남자 22, 여자 60), 휴학생이 9명(남자 5, 여자 4)으로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4-5] 최근 3년간(2016~2018) 강남대학교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학과 학생 수 (단위: 명, %)

구분 (기준년도)		재적생			재학생			휴학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6년	유니버설 디자인 공학과	7 (100.0)	3 (42.8)	4 (57.2)	4 (100.0)	1 (25.0)	3 (75.0)	3 (100.0)	2 (66.6)	1 (33.3)
2017년	주간 유니버설 비주얼 디자인학과	43 (100.0)	7 (16.2)	36 (83.8)	43 (100.0)	7 (16.2)	36 (83.8)	0 (0.0)	0 (0.0)	0 (0.0)
2018년	주간 유니버설 비주얼 디자인학과	91 (100.0)	27 (29.7)	64 (70.3)	82 (100.0)	22 (26.8)	60 (73.2)	9 (100.0)	5 (55.5)	4 (44.5)

*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공시정보 → 대학별 검색 → 대학검색 → 상세정보(학생, 교육여건, 교육연구성과) 재구성, 2018.12.17 기준
 ** 재적생은 재학생과 휴학생의 합계를 의미함

[그림 4-3] 최근 3년간(2016~2018) 강남대학교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학과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출처: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 공시정보 → 대학별 검색 → 대학검색 → 상세정보(학생, 교육여건, 교육연구성과) 재구성, 2018.12.17 기준
 ** 진하게 표시된 숫자는 재적생이며 재학생과 휴학생의 합계를 의미함

④ 대학원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인클루시브디자인(Inclusive Design) 학과는 디자인을 통해 소외된 다양한 계층을 포용한다는 취지로 인간의 신체적 요구는 물론 심리적·사회적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디자인 솔루션과 가치를 지향한다. 특히,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한 삶의 가치 향상과 새로운 협력을 통해 디자인의 창의성과 공익성에 그 의미를 두고 교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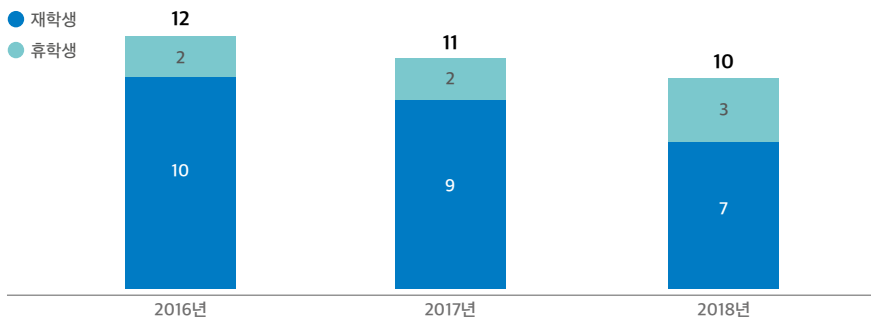
최근 3년간(2016~2018)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6년 재적생은 총 12명(남자 7, 여자 5)인데, 재학생이 10명(남자 5, 여자 5), 휴학생이 2명(남자 2, 여자 0)이다. 2017년 재적생은 11명(남자 7, 여자 4)인데, 재학생은 9명(남자 6, 여자 3), 휴학생이 2명(남자 1, 여자 1)이다. 2018년의 재적생은 10명(남자 5, 여자 5)인데, 재학생이 7명(남자 3, 여자 4), 휴학생이 3명(남자 2, 여자 1)이다.

[표 4-6] 최근 3년간(2016~2018)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인클루시브디자인 전공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기준년도)	재적생			재학생			휴학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6년	12 (100.0)	7 (58.3)	5 (41.7)	10 (100.0)	5 (50.0)	5 (50.0)	2 (100.0)	2 (100.0)	0 (0.0)
2017년	11 (100.0)	7 (63.6)	4 (36.4)	9 (100.0)	6 (66.6)	3 (33.3)	2 (100.0)	1 (50.0)	1 (50.0)
2018년	10 (100.0)	5 (50.0)	5 (50.0)	7 (100.0)	3 (42.8)	4 (57.2)	3 (100.0)	2 (66.6)	1 (33.3)

*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공시정보 → 대학별 검색 → 대학검색 → 상세정보(학생, 교육여건, 교육연구성과) 재구성, 2018.12.17 기준
 ** 재적생은 재학생과 휴학생의 합계를 의미함

[그림 4-4] 최근 3년간(2016~2018)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인클루시브 디자인전공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공시정보 → 대학별 검색 → 대학검색 → 상세정보(학생, 교육여건, 교육연구성과) 재구성, 2018.12.17 기준
 ** 재적생은 재학생과 휴학생의 합계를 의미함

⑤ 교과과정

본 자료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교육통계서비스’가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교육기관은 서울시 소재 대학(사이버대학, 전문대학, 대학교)과 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했다.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를 검색한 결과 서울시 소재 대학은 총 92개가 검색되었다. 본 결과는 92개 대학의 각 홈페이지에서 교과과정을 모두 검색한 결과이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과과정은 [표 4-7]과 같다.

[표 4-7]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과과정

학교	학과명	과목명	내용	소재지
경희사이버대학교	IT·디자인융합학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공공디자인	· 공공디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음(10주차 수업: 유니버설 디자인, 친환경 그린 디자인)	동대문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친환경건축학과	공공 디자인론	· 공공장소에서의 여러 장치나 장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해야만 한다는 개념이 바로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이며, 이에 따른 개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학습함	서대문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그린빌딩과 설비 시스템	· 환경친화형 건축설계에 필요한 제반 기초 이론과 응용 기술을 습득· 터득케 하며, 더 나아가 이를 건물설계에 활용·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노원구
	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1)	· 옥내외 공공환경 디자인의 개념과 요소, 디자인 전개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환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능력을 기름	
서울디지털대학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 전공)	공공디자인	· 통합된 디자인으로서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함 · 이 시대의 화두인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기본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기초함	강서구
	문화예술경영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건축공간 디자인학과	공공환경디자인	· 공공디자인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공공디자인의 트렌드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학습자로 하여금 이해를 돕고자 함	강북구
명지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 과목명에 대한 해설 없음	서대문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인클루시브 디자인전공	유니버설디자인	·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해결의 실마리를 학습함. 또한 다양한 장애 분야별 디자인의 요구와 디자인원칙을 연구함	성북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생활환경학과	범죄예방환경 설계	· 과목명에 대한 해설 없음	종로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실내건축 디자인학과	유니버설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시실적인 환경을 벗어나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이런 환경과 디자인으로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이 수업의 중요한 이슈임	성동구
홍익대학교 디자인론 테크대학원	공간디자인전공	셉티드-인클루시브 디자인	· 과목명에 대한 해설 없음	마포구

*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참조, 2018.12.17 기준

나)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협력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정규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4-8]은 여러 기관의 진행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력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4-8]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협력 프로그램

기관(명)	구분	(교육) 프로그램 명	설명
유니버설 디자인학회 (성동구 소재)	학술대회	2017 춘계학술대회 (2017.4.1)	· 산학연 전문가들이 유니버설디자인학회의 창립을 기념하여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주제는 '차별 없는 사회, 모두를 위한 설계'로서, 유니버설 디자인학회가 주최하였음
		2017 추계학술대회 (2017.11.24)	·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와 공동주최하는 정보접근기술(AT) 컨퍼런스에서 "UD/UX" 세션으로 준비하였고, 주제는 '미래기술과 유니버설디자인'로 진행하였음
		2018 춘계학술대회 (2018.3.31)	·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학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음.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 지능형 기술과 Universal Design'을 주제로 진행하였음
		2018 추계학술대회 (2018.11.30)	· 주제는 '모든 학습자들을 위한 접근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 디자인'으로 진행하였음
한국주거학회 (동작구 소재)	학술지	2015년 논문집	· 공동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실태와 개선 가능성을 공간별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의 공동주택에 반영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문 1편 수록
		2016년 논문집	· 광주광역시와 다섯 개 지방자치단체 구청사 민원실의 이용자가 유니버설디자인 원리가 적용된 실내공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만족도가 배경적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논문1편 수록
		2017년 논문집	· 제도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는 일본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비교를 통해 국가별 환경과 경험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목표를 둔 논문1편 수록
		2018년 논문집	· 재난약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미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공간계획 관련 지침에 나타난 주요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 논문1편 수록)
한국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협회 (마포구 소재)	세미나	2016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한일 공동 세미나 (2016.11.4~11.6)	· 본 기관이 주최하였음. Tokyo Design Week(TDW)관람, barrier프리 코스 체험, 미술관 및 도내 디자인 스팟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 세미나 (2016.9.21)	·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였고, '누구에게나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미'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한국컬러 유니버설디자인 협회 (마포구 소재)	세미나	2017 총계세미나 (2017.6.3)	· 본 세미나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현황과 과제(중앙대 이석현교수)',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적용 사례(목원대 박진수 교수)'를 발표
		2017 동계세미나 (2017.12.8)	· '2017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세미나' 주제로 진행되었음
		2018 하반기 세미나 (2018.11.10)	· 안전한 도시, 함께하는 CUD 주제로 강연과 발표가 개최됨
		2018 싱가포르 국제세미나 및 포스터 전시 (2018.6.28~7.2)	· 싱가포르의 전반적 UD와 고령화 시대의 안전에 대한 주제로 강연과 발표가 진행되었음 (강연1. 고령화시대와 컬러, 강연2. 싱가포르의 유니버설디자인, 발표3. 한국의 아파트 트렌드와 UD)
	워크숍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시민워크숍 (2017.12.8)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와 실천에 관하여 (이호창 소장)' 강연,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불편함 체험,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 불편함 체험, 제품 형태에 따른 불편함 체험을 팀별로 체험해보고 발표를 진행하였음
한국 장애인 인권 포럼 (영등포구 소재)	공모전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매년 행사 진행)	2006년부터 시작된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음

*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2018.12.17 기준

4-1-2.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기관

최근 복지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의 확산 동향을 파악하고, 사회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³ 이에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수행기관과, 그 밖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가)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수행기관

본 조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회, 협회, 연구소·센터 등을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수행기관이라고 정의하였다. 해당 자료는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부문에서 제시한 [표 2-5] 내용을 토대로 그에 해당하는 기관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3 대학신문. (2017.11.19). 유니버설 디자인, 보통의 틀을 깨다

[표 4-9]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기관

구분	기관(명)	내용(소개)	주요업무	사이트	소재지
학회	유니버설 디자인학회	·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편리성과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 양질의 교육 보장, 여가 및 문화생활의 확산, 취업의 기회 확장 등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려하는 사회로의 전진을 추구함	·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2017년부터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출판 등을 진행하고 있음	http://www.ud4all.or.kr	성동구
	한국주거학회	· 한국주거학회는 한국전통건축에서 아파트문화에 이르기까지 주거 관련 전반적인 분야에 관한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학술행사(학술세미나, 학술발표대회, 국제학술대회, 전시회, 현장답사 등) · 2016년 논문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구' · 2018년 논문 '재난약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미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공간계획 관련 지침분석'	http://www.khousing.or.kr	동작구
협회	(사)한국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협회	·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색채를 설계하는 것을 기본이념	·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조사연구사업, 보급개발, 자료제공, 상담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http://www.kcud.or.kr	마포구
	(사)한국 유니버설 디자인협회	·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념과 실천이 건축, 도시, 교통, 조정, 복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연구, 실천, 교류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 2017년 11월 7일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협회 공동협력 협약 체결식' 개최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기술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사업,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관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개발,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유관단체 간 교류·협력	http://www.udkorea.kr	영등포구
	(사)장애인 유니버설디자인협회	· 유니버설디자인과 장애를 없애는 Barrier Free(무장애) 디자인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재활보조공학기기(Assistive Technology)의 홍보와 보급에 앞장서며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함	· Barrier Free(무장애) 디자인의 홍보와 보급사업 및 시설물 등의 장애물 제거 요구, Universal Design(공용화제품 디자인) 홍보, 조사·평가사업,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세계대회 개최	http://universaldesign.or.kr	구로구
연구소 / 센터	(사)생활 환경디자인 연구소	·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사연구 및 실천을 병행함	·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연구 및 컨설팅 사업	http://www.universaldesign.kr	강남구
	유니버설 디자인 이니셔티브 연구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산업체, 정부기관,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상품과 공공환경디자인 연구개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유니버설디자인 정보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복지사회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유니버설디자인 기초연구 및 디자인개발업무 수행, 유니버설디자인 상품개발 및 공공환경개선을 추진 중인 기관들을 위한 컨설팅 및 조사평가업무 수행,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등을 추진함	http://id.seoultech.ac.kr/rnd/universal	노원구

*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2018.12.17 기준

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용역 수행기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시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용역사업 중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 소재의 기관을 파악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분류하였다.

[표 4-10]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시 소재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용역 수행기관

(단위: 원)

구분	계약건명	기관명	총 계약금액	주 계약업체	소재지	계약일자
2016년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 라인 제작	서울시	160,000,000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진구	2016.6.27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 라인 제작	서울시	130,000,000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진구	2016.6.27
	성북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서울시	103,799,300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진구	2016.12.8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 구축 용역	서울시	97,000,000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진구	2016.12.19
	2016 유니버설디자인 DB 기준체계 및 활용방안 연구	(재)서울디자인재단	76,000,0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관악구 / 성북구	2016.7.18
2017년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서울시	226,300,00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대문구	2017.9.12
2018년	2018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을 통한 인성 창의 교육 용역	서울시	44,999,900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영등포구	2018.5.31
	2018 서울디자인서비스 유니버설디자인서비스 연구	(재)서울디자인재단	99,000,000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용산구 / 성북구	2018.10.1

* 출처: 나라장터(<http://www.g2b.go.kr>), 2018.12.31 기준

**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소재지가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따로 기재하지 않음

4-2.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족,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사회구성원의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리적 접근 장애뿐만 아니라, 언어·정보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행정서비스 대상집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의 시설물이나 도로, 교통, 주택건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모든 분야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유니버설디

4 행정안전부. (2018).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4-2-1.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사업

자인 공공 교육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2018년 5월 2일,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차원의 법정계획으로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즉,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고령자·장애인·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정하고 19개의 핵심 과제, 49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은 일반 국민들이 제안한 생활 불편 아이디어를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범용) 디자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⁵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민 교육’과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가) 유니버설디자인 시민 교육

서울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성함양과 더불어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을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통해 인성함양 및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은 사고가 유연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실시한다. 2015년과 2016년은 전문 교육업체를 파견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학교를 찾아가 일회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지만, 2017년부터는 원하는 학교가 직접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이를 지원한다⁶. 본 교육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로

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

⁶ 국제뉴스, (2017.8.25),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진행 <http://www.gukjenu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944>

는 ‘나’와 다른 ‘남’을 배려·존중하는 인성 함양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⁷ 최근 3년간 (2016~2018)의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과 이수학생 수에 관하여는 [표 4-11], [그림 4-5]와 같다. 연도별로 2016년 39개교 928명, 2017년 35개교 2,458명, 2018년 19개교 3,874명이 이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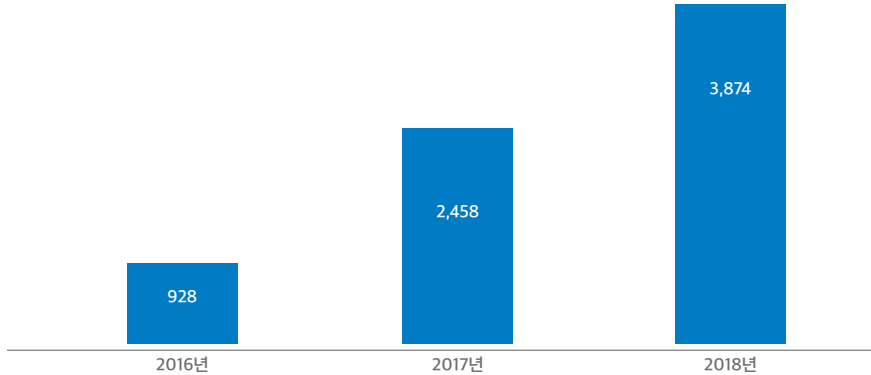
[표 4-11]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 개요 (단위: 원, (학급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명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		
예산	50,000,000	50,000,000	50,000,000
대상	초등학교 4~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결과	39개교, 928명 (4학년 399명, 5학년 529명) 이수	총 35개교 108학급, 총 2,458명 이수	총 19개교 168학급, 총 3,874명 이수
초등학교별 방문현황	양화초 강일초 문현초 금천초 공연초 고은초 영신초 송인초 개롱초 반원초 난향초 남정초 보광초 덕암초 서이초 방산초 월곡초 탑산초 중현초 거원초 원명초 봉천초 상월초 언북초 문창초 염강초 송미초 경동초 남성초 잠현초 우암초 성수초 연희초 중광초 연촌초 백석초 본동초 구로남초 금동초	교대부초 도곡초(1) 신구초(4) 신양초 원명초(1) 묘곡초(1) 성내초 송래초 송전초(8) 등양초 백석초(1) 송정초(2) 영창초(5) 개봉초(2) 당서초(3) 당중초 문래초 신영초(7) 영신초(1) 윤중초(4) 답십리초(2) 목현초 봉화초 신상도초(2) 은로초 누원초(1) 서강초(1) 신도초(1) 흥연초(3) 옥정초(5) 송인초 정덕초(1) 금양초(3) 신용산초(1) 이태원초(3) 12학급은 교육일정 등의 사정으로 2학기내 교육 미실시 (내년 교육 예정 등)	신구초(1) 묘곡초(12) 세류초(7) 토성초 한산초 강서초(9) 신서초 신월초 망우초(1) 공연초(1) 누원초(1) 상천초(4) 신계초 공덕초 신도초(1) 동의초 송신초(1) 개운초(1) 사대부초(28)
방법	전문 교육업체 파견(퍼실리에 이터)	교사연수를 통해 교사가 직접 교육	교사연수를 통해 교사가 직접 교육
용역업체	디자인이즈	디자인이즈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유니버설디자인 인성 창의 체험교육 결과보고, 2017 서울 디자인(백서 2015-2017) 108-109, 2018.12.17 기준

7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 체험교육 결과보고서

[그림 4-5] 최근 3년간(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 이수학생 변화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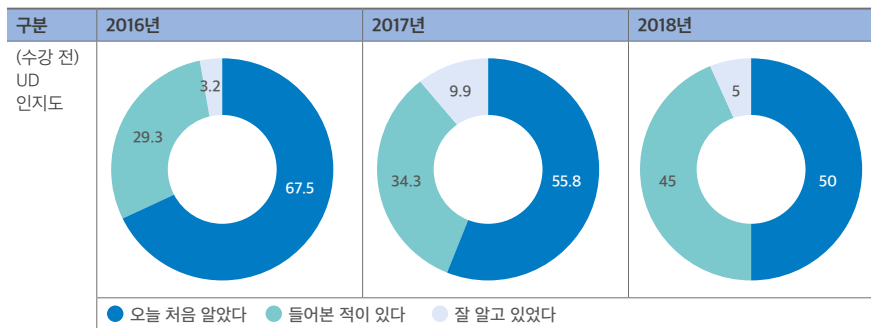
*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유니버설디자인 인성 창의 체험교육 결과보고, 2017 서울 디자인(책서 2015-2017) 108-109, 2018.12.17 기준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을 통해 교육학생 중 96.6% 이상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인식하였고, 97.4% 이상의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에 대한 결과를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면 [그림 4-6], [그림 4-7], [그림 4-8]과 같다.

① 학생들의 유니버설디자인(UD) 인지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2016년 32.5%, 2017년 44.2%, 2018년 50%로서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림 4-6]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단위: %)



*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유니버설디자인 인성 창의 체험교육 결과보고, 2018.12.2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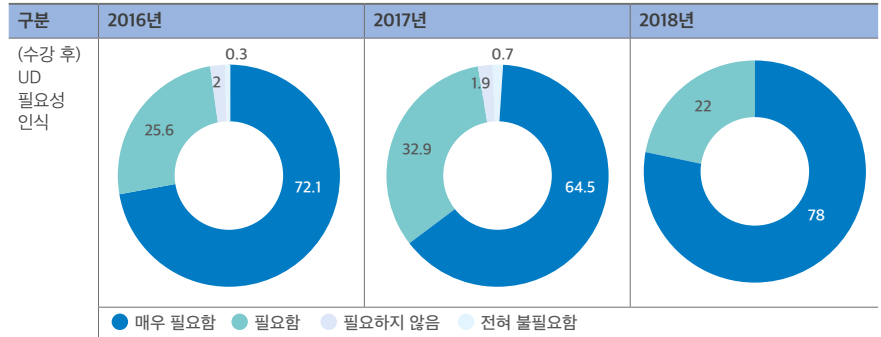
** UD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의미함

*** 인지도는 들어본 적이 있다와 잘 알고 있었다의 합계를 의미함

② 교육 후 유니버설디자인(UD) 필요성 인식: 유니버설디자인이 매우 필요 혹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2016년 97.7%, 2017년 97.4%, 2018년 100%로서 필요성 인식이 매우 높다.

[그림 4-7]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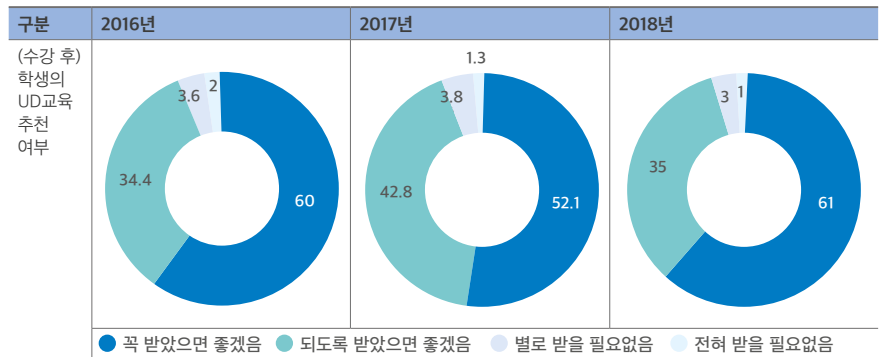


*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유니버설디자인 인성 창의 체험교육 결과보고, 2018.12.28 기준
 ** UD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의미함
 *** 필요성 인식은 매우 필요함과 필요함의 합계를 의미함

③ 교육 후 유니버설디자인(UD) 교육추천: 다른 학생이 교육을 꼭 받았으면 좋겠음 혹은 되도록 받았으면 좋겠음이라 응답한 학생은 2016년 94.4%, 2017년 94.9%, 2018년 96%로서 추천의사가 매우 높다.

[그림 4-8]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추천

(단위: %)



*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유니버설디자인 인성 창의 체험교육 결과보고, 2018.12.28 기준
 ** UD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의미함
 *** 교육 추천 여부는 꼭 받았으면 좋겠음과 되도록 받았으면 좋겠음의 합계를 의미함

[그림 4-9]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



*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유니버설디자인 인성 창의 체험교육 결과보고, 2018.12.17 기준

나)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

서울시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감성을 배려한 사용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 인식 및 실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을 2015년부터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사·자치구 5급 이하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이해,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소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토론, 현장탐방 등 실무중심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과정 교육에 대한 개요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최근 3년간(2016~2018)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과정 교육 개요

구분		2016년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과정	2017년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과정	2018년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과정
기간	1기	2016.5.2~5.3	비공개 문서	2018.3.8~3.9
	2기	2016.6.9~6.10	2017.6.8~6.9	2018.10.22~10.23
	3기	비공개 문서	2017.11.23~11.24	과정 없음
장소	서울인재개발원 제5강의실		서울인재개발원 배움관	서울인재개발원 창의관
교육대상	총 63명		총 52명(1기 교육대상 제외)	총 53명(3기 교육대상 제외)
	[5급 1명, 6급 18명, 7급 31명, 8급 10명, 9급 3명]		[6급 17명, 7급 26명, 8급 8명, 9급 1명]	[5급 1명, 6급 16명, 7급 26명, 8급 2명, 기타 5명, 임기제 3명]
결과 (교육 만족도)	만족도 4.3		만족도 4.4	만족도 4.5
	[교육내용 4.4, 교육방법 4.2, 교육운영 4.4, 강의환경 4.2, 학습효과 인식도 4.3, 시설환경 4.3]		[학습효과 4.5, 교육내용 4.4, 교육방법 4.4, 교육운영 4.4, 시설환경 4.2]	[학습효과 4.5, 교육설계 4.4, 교육운영 4.5, 학습의지 4.6, 시설환경 4.4]

*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과정 운영 결과보고, 2018.12.1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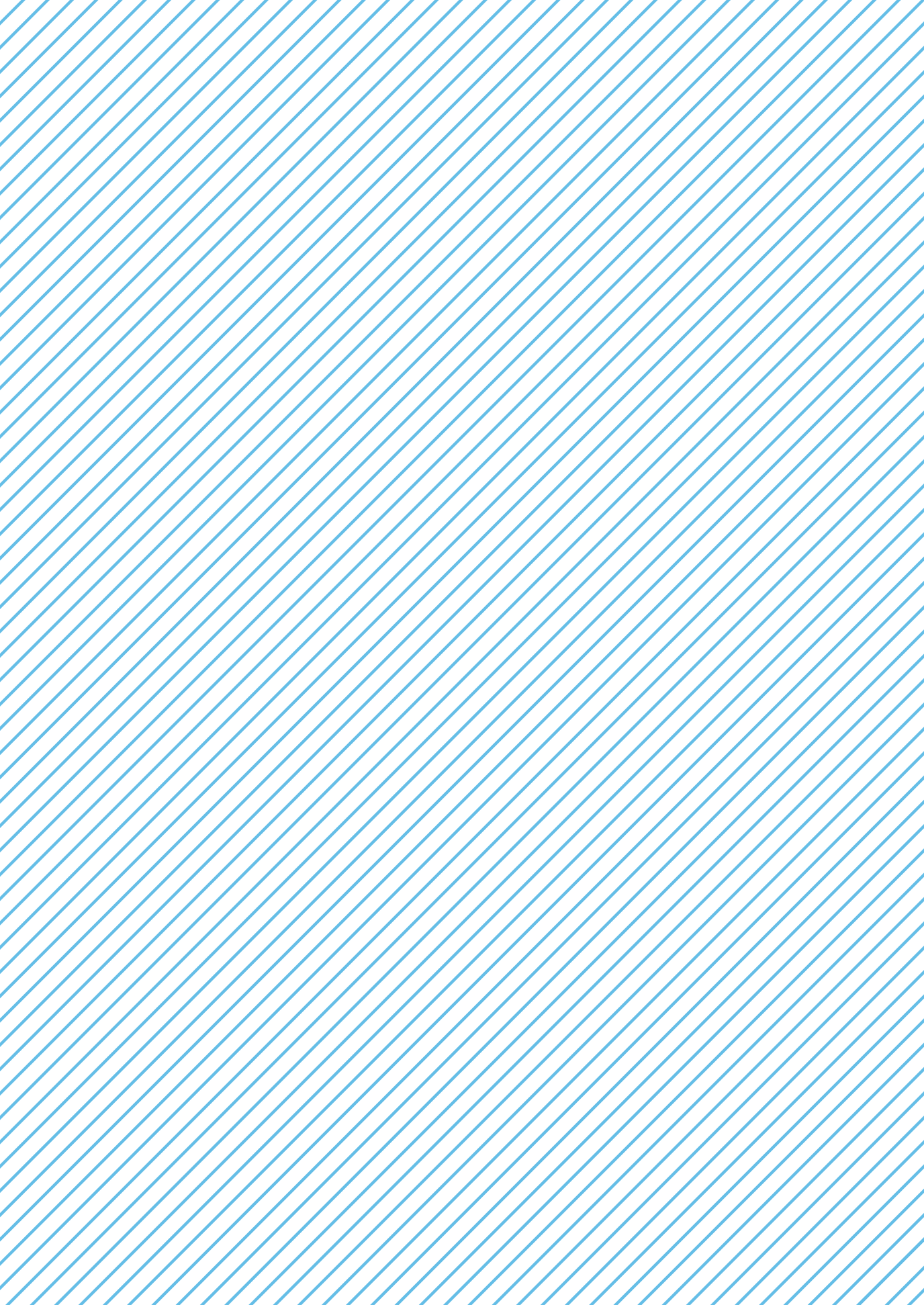
** 2016년 3기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과정, 2017년 1기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과정에 대한 자료는 비공개 문서임

*** 교육 만족도는 비공개 문서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만족도의 평균을 의미함

[그림 4-10]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과정 현장체험



*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과정 운영 결과보고, 2018.12.17 기준



제5장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5-1.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

5-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

제5장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시행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시행, 서울형 가로설계 및 관리 매뉴얼 개발·적용, 도로 다이어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등 35개 사업을 진행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개발과 장애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¹

사회적 약자는 물론 다양한 시민이 동시에 배려되는 인간중심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²

또한, 2018년 12월 26일에 진행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분야의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려는 의욕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행사였다.³

연구팀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은 다시 ‘유니버설디자인 민·관 거버넌스 제도(유니버설디자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사업(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콘텐츠 개발, 서울디자인서베이·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연구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및 리빙랩 조성 기본연구 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는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 및 서울디자인재단 내의 유니버설디자인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이신혜. (2016). 걷는 도시 서울, 서울연구원

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17).

3 2018 유니버설디자인환경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8), 한국장애인개발원.

[표 5-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지표체계

구분	영역	지표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	민·관거버넌스 제도	유니버설디자인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사업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콘텐츠 개발
		서울디자인서비스·유니버설디자인서비스 연구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	유니버설디자인 조직 및 인력	유니버설디자인 조직 및 인력 현황
	유니버설디자인 예산	유니버설디자인 예산 현황

5-1.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례의 목적을 ‘도시 조성’으로 두었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에 공공건축물의 공사비를 명시하는 등 조례 시행의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시디자인위원회나 건축위원회가 각각 공공시설물과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 참여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었다.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령 중 서울시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조례를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표 5-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6840호 / 2018.3.22)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
· 장애인복지법 (제15646호 / 2018.12.1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21호 / 2019.1.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06호 / 2019.1.1)	· 서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제6722호 / 2018.1.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3805호 / 2016.1.1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615호 / 2018.1.3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7호 / 2018.2.9)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 (제6840호 / 2018.3.2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 증에 관한 규칙 (제562호 / 2018.3.28)	·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6145호 / 2015.12.31)
· 교통약자의 이동편 증진법(제15669호 / 2018.12.1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29211호 / 2018.10.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20호 / 2014.8.7)	·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6977호 / 2019.1.3)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4839호 / 2017.7.26)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628호 / 2018.2.9)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호 / 2017.7.26)	·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6829호 / 2018.3.22)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8.12.31 기준

** ()는 공포번호와 공포(시행)일자를 나타낸 것임

4 이슬기·홍성인·임수영. (2017). 국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광역시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9(3), 61-67.

5-1-1. 민·관 거버넌스 제도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서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개별 부처·지자체·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전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관계 부처 간의 협업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추진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2018년 5월 발표하였다.⁵

본 조사에서는 민·관거버넌스 제도에 대하여 서울시(디자인정책과)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 유니버설디자인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시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참여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및 시민체험단(장애인, 여성, 고령자,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시민 등 계층이 참여)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2015년, 2016년, 2018년 ‘유니버설디자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사업을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유니버설디자인 민·관거버넌스 구성·운영 사업 개요

(단위: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8년
사업명	유니버설디자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예산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목적	·사업시작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자문 및 모니터링 등 직접참여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활성화	·사업 전 과정에 자문 및 모니터링 등 직접참여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활성화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시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참여 모니터링 추진
구성체계	서울시민(70인) 전문가 그룹(UD자문단 30인)	서울시민(70인) 분야별 전문가(30인)	서울시민(70인) 분야별 전문가(30인)
주요내용	·2015년 3월 중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발굴된 문제에 대한 개선사례 모니터링 후 유니버설디자인 워크샵 등 개최('15년 말)	·2016년 3~4월 중 민·관거버넌스 구성 예정 ·발굴된 문제에 대한 개선사례 모니터링 후 유니버설디자인 워크샵 등 개최('16년 말)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및 시민 체험단(장애인, 여성, 고령자,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시민 등 계층 참여) 구성 및 운영

* 출처: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종합프로젝트, 2018.2.28 기준

** 2017년 자료는 비공개자료임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5 열린소통포럼. (2018.9.13). 10차 포럼_부처별 검토 의견

http://www.gwanghwamoon1st.go.kr/index.php?mid=archive&document_srl=1456

5-1-2.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사업

서울디자인재단은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UD)평가를 통한 콘텐츠 개발, 유니버설디자인(UD)체험관 및 리빙랩(유니버설디자인 연구실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유니버설디자인시티 및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확산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의 주요성과로는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디자인 개선방안 도출, 유니버설디자인 서베이 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및 리빙랩 콘텐츠 연구 등인데, 이를 통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기반 조성 연구가 기대된다.

5-1.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

본 조사에서는 현재, 서울시(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수행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사업(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평가 및 콘텐츠 개발, 서울디자인서베이·유니버설디자인 서베이 연구 사업,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및 리빙랩 조성 기본연구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평가 및 콘텐츠 개발

서울시(서울디자인재단)는 유니버설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에는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평가 및 콘텐츠 개발’과 ‘시민디자인연구단 운영’ 사업이 있다. 2018년에 진행된 사업대상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주변(G밸리)이 선정되었고,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정리하면 [표 5-4]와 같다.

[표 5-4]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평가 및 콘텐츠 개발 개요

(단위: 원)

사업명	공공환경 UD평가 및 콘텐츠 개발	
예산	223,400,000	
목적	유니버설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대상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주변(G밸리)	
사업기간	2018년 6월 ~ 12월	
구분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평가 및 콘텐츠 개발	시민디자인연구단 운영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체험평가단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모니터링, 디자인 개선안 도출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지 발굴 및 디자인 개선 방안 제안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용 콘텐츠 개발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공감대 형성 목적의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찾는 시민 참여 연구 활동 ·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 평가단 운영 ·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일상 체감 연구주제 도출 및 인식 확산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주요업무보고, 2018.9.30 기준

나) 서울디자인서베이 ·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연구 사업

서울시 디자인정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기반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시(서울디자인재단)는 ‘서울디자인서베이 ·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연구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서울디자인서베이에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를 포함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유니버설디자인(UD)서베이 신규 조사를 통해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책 개념을 인지시키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책인지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사업내용을 정리하면 [표 5-5]와 같다.

[표 5-5] 서울디자인서베이 ·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연구 사업 내용

사업명	서울디자인서베이 ·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예산	99,000,000
목적	유니버설디자인(UD) 서베이 신규 조사를 통해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사업기간	2018년 10월 ~ 2019년 2월
사업내용	·서울시 시정계획과 재단 비전·미션에 따른 조사 축 설정 및 분석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효과 예측과 중장기 방향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서베이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시민디자인인식 확산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주요업무보고, 2018.9.30 기준

다)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및 리빙랩 조성 기본연구 사업

서울시(디자인정책과)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가능한 스마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은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교육 및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확산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및 리빙랩 조성 기본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체험관과 리빙랩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에 조성 중이며,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5-6]과 같다.

[표 5-6]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및 리빙랩 조성 기본연구 사업 개요

(단위: 원)

사업명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및 리빙랩 조성 기본연구 사업	
예산	223,400,000	
목적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교육 및 유니버설디자인산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상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 3층 구 운영사무실 및 DDP 유희공간	
사업기간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구분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400m ²) 및 유니버설디자인리빙랩(400m ²)	
사업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체험관	유니버설디자인(UD)리빙랩
	· 생애주기별 및 장애상황 체험 공간 · 생애주기별 상황 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장애의 대표적 상황 체험 · 상황체험을 통해 개선된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사회 조성 공감	· 시민생활 유니버설디자인(UD)제품, 환경, 서비스 개발 · 시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유니버설디자인제품·서비스의 연구, 실험,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 협력기업과 함께 유니버설디자인제품·서비스의 프로토타입 연구 개발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주요업무보고, 2018.9.30 기준

5-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

공공서비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경영, 특히 사회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디자인 분야의 등장은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해 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과 같이 사회의 공공문화적 특성을 증진시키는 디자인정책은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공통된 목표를 갖고 이에 대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⁶ 이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5-2-1. 유니버설디자인조직 및 인력 현황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계획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⁷ 이를 위해서 먼저, 유니버설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을 파악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및 서울디자인재단 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5-7]은 디자인정책과 내 유니버설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을 나타낸 것이다. 디자인정책과 내의 디자인정책팀, 공공디자인사업팀과, 공공디자인관리팀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5-7] 디자인정책과 내 유니버설디자인 업무 조직 및 인력

구분 (디자인정책과)	직책	업무
디자인정책팀 (5명)	디자인정책팀장	·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 총괄
	주무관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운영 총괄 · 유니버설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지 현황 진단 · 시·자치구 직원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사업 ·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 관련 업무
공공디자인사업팀 (3명)	공공디자인사업팀장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관련 디자인컨설팅 ·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 활용 진단 · 유니버설디자인 우수시설 선정 ·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관련 업무
	주무관	·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관리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 디자인개발팀 사업 총괄 및 국내 외 확산 ·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기획
공공디자인관리팀 (2명)	공공디자인관리팀장	·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3개소) · 공공안전체계 유니버설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 · 유니버설디자인 창의 인성 교육 ·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개최
	주무관	· 공공디자인팀 업무 총괄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업무

*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http://org.seoul.go.kr/org/orgChartView.do>), 2018.12.26 기준

6 김효경. (2012). 디자인정책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1-122.

7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건축, 경보제공, 피난 분야를 중심으로-.

[표 5-8]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내 유니버설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디자인재단 내 사업기획팀 그리고 직속기구인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5-8] 서울디자인재단 내 유니버설디자인 업무 조직 및 인력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팀명	업무
기획본부	사업기획팀 (4명)	· 사업기획팀 업무 총괄
		· UD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사항 · UD체험관 및 리빙랩 운영방안 수립
직속기구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2명)	· 2018 서울디자인서베이 및 UD 연구 운영 ·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조사 및 신규사업 개발 지원
		· 공공환경 UD평가 및 콘텐츠 개발 운영 ·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조사 및 신규사업 개발
		·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업무 총괄 ·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사인물 관련 업무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design.or.kr/page/16/detail?menuId=6>), 2018.12.26 기준

** UD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의미함

5-2-2. 유니버설디자인 예산 현황

서울시(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등)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토대가 된 자료는 디자인정책과에서 매년 공개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는 ‘디자인 복지 프로젝트 추진’(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방침 제281호(2010.6.15)),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계획’(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방침, 디자인정책과-6653호(2012.7.6)),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계획’(문화본부장 방침, 디자인정책과-1004호) 등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공공안내체계 유니버설디자인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서울시 디자인 전담부서인 디자인정책과와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전체 예산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2016년 디자인정책과 예산은 총 332억8319만6000원이고 이중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예산은 8억2000만원(2.5%)이다. 2017년 디자인정책과 예산은 총 418억3174만원이고 이중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예산은 9억9510만원(2.4%)이다. 2018년 디자인정책과 예산은 총 452억9012만2000원이고 이중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예산은 7억6880만원(1.7%)이다.

[표 5-9] 최근 3년간(2016~2018) 디자인정책과 내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예산

(단위: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디자인정책과 총 예산	33,283,196,000	41,831,740,000	45,290,122,000
세부사업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	820,000,000	995,100,000	768,800,000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예산		768,800,000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226,300,000	
사업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민·관거버넌스 구성·운영, 공공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인식·창의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공공안내체계 유니버설디자인 개선 사업,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2018.2.28 기준

** 디자인정책과 총 예산에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예산 및 사업내용은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디자인재단 총 예산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은 총 539억5800만8000원이고 이중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은 6억7000만원(1.2%)이다. 2017년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은 총 604억1740만7000원이고 이중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은 1억9000만원(0.3%)이다. 2018년 디자인정책과 예산은 총 544억5104만4000원이고 이중 유니버설 디자인 예산은 4억4740만원(0.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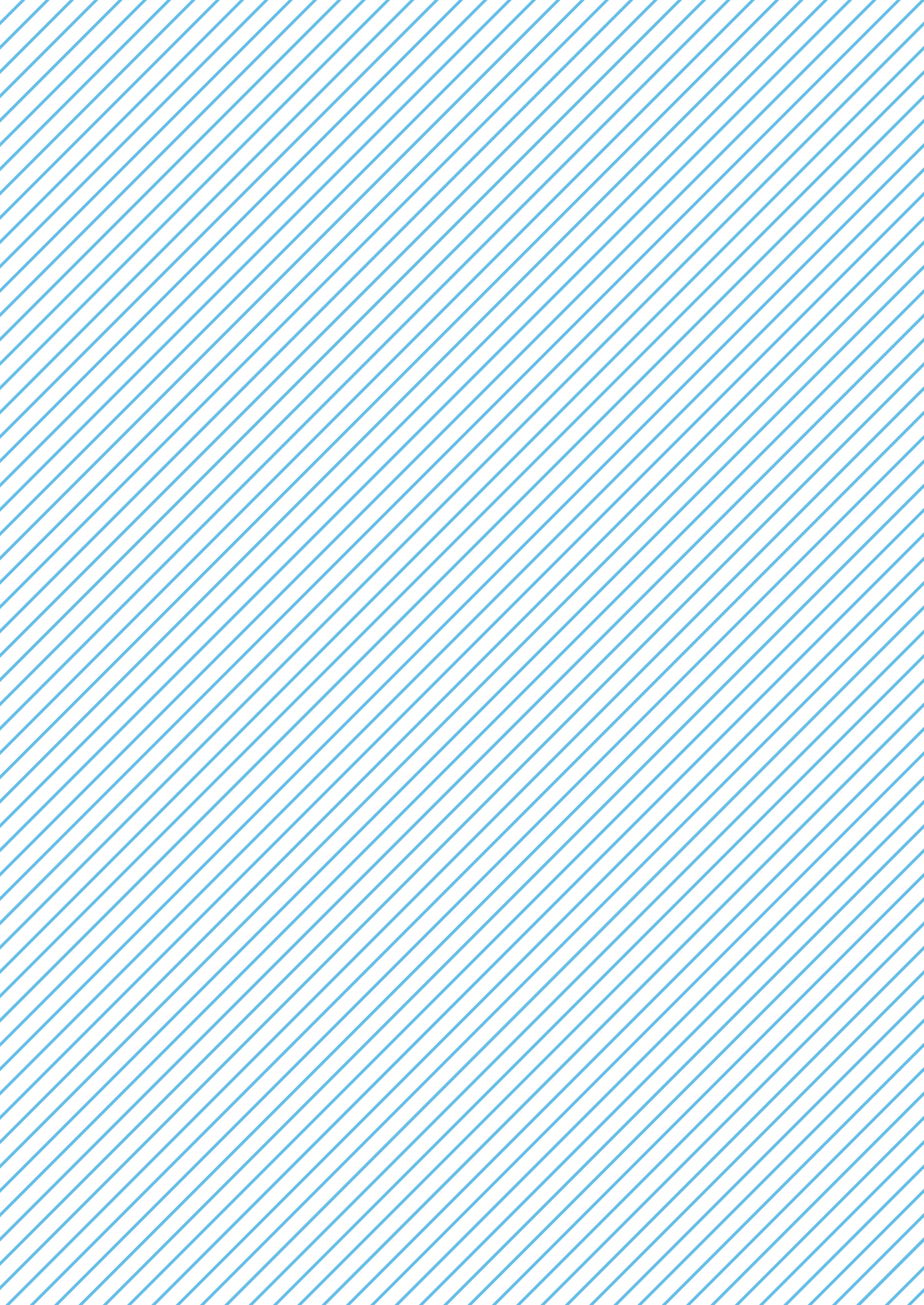
[표 5-10]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디자인재단 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

(단위: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디자인재단 총 예산	53,958,008,000	60,417,407,000	54,451,044,000
세부사업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	670,000,000	190,000,000	447,400,000
사업 내용	300,000,000	90,000,000	99,000,000
도심공공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자동차전용도로안전디자인, 지하도상가안전 디자인)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의 환승이동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서울디자인서베이, 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유니버설디자인 박람회	240,000,000	100,000,000	223,400,000
유니버설디자인 DB 기준 체계 및 활용방안 연구	50,000,000		공공환경 UD평가 및 콘텐츠 개발
버스의 도심이동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연구	80,000,000		125,000,000
			UD체험관 및 리빙랩 조성

* 출처: 서울디자인재단, 2018.10.31 기준

**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은 매년 10월 말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제6장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6-1. 조사 개요

6-2. 조사 결과

제6장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6-1. 조사 개요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및 원칙에 입각해 서울의 공공환경의 현황을 이해하고, 서울시민 중 주로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 그룹(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만족도,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이하 '유니버설디자인 그룹'으로 지칭함). 이를 파악해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6-1-1. 조사 방법

유니버설디자인 그룹 중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의 경우 온라인 조사방법을 통해 조사 수행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패널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제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외국인의 경우 관련 협회 및 기관의 협조를 받아 면접 조사,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¹. 설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폐쇄형 질문 문항의 속성에 따라 '예/아니요' 혹은 4점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조사의 경우 '보통'을 집어넣어 5점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많으나, 본 조사의 경우 시민디자인의식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얻기 위해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6-1-2. 조사 대상 및 기간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는 5개 그룹(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룹별로 각 50명이며, 서울시 거주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일 동안 진행하였다.

6-1-3. 응답자 구성 및 세부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의 그룹별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속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¹ 장애인의 경우 한국시각장애인협회(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교사 모임, 서울시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총연맹, 서울시지체장애인연합회(도봉구 지회), 숙명여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의 협조로 응답자를 모집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외국인의 경우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햇볼트리니티신학교 등 각 대학 내의 서울시 거주 외국인을 모집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6-1]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응답자 구성 및 세부사항 (전체)

(단위: %)

특성		비율(%)
응답자 구분	장애인	20.0
	임산부	20.0
	고령자	20.0
	영유아동반자	20.0
	외국인	20.0
성별	남	30.4
	여	69.6
연령	20대	25.6
	30대	38.8
	40대	9.6
	50대	3.6
	60대 이상	22.4
서울 권역	서북생활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7.2
	도심생활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21.2
	동북1생활권(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10.0
	동북2생활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18.8
	서남1생활권(강서구, 양천구)	9.2
	서남2생활권(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16.4
	서남3생활권(동작구, 관악구)	8.4
	동남1생활권(강남구, 서초구)	3.2
동남2생활권(송파구, 강동구)	5.6	
가구 소득(월)*	300만원 미만	38.0
	300~499만원	29.6
	500만원 이상	32.4
직업	전문/관리	21.6
	사무직	26.0
	기능/노무/판매서비스직	10.0
	학생	17.6
	주부	15.2
	퇴직/무직	9.6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4.8
	전문대 재/졸	13.6
	대재/졸	53.6
	대학원 재/졸	18.0

*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10.0%), 100~199만원(13.6%), 200~299만원(14.4%), 300~399만원(16.0%), 400~499만원(13.6%), 500~599만원(10.4%), 600~699만원(6.8%), 700만원 이상(15.2%)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원활한 분석 및 해석을 위해 300만원 미만, 300~499만원, 500만원 이상의 3개 카테고리 구분을

**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가 14.8%이며, 전문대 이상이 85.2%이므로 유니버설디자인 그룹의 모집단 내에서도 지적 수준이나 언어 이해 수준이 비교적 높은 응답자들이라 할 수 있음

[표 6-2]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응답자 구성 및 세부사항 (그룹별)

(단위: %)

특성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외국인
성별	남	62.0	0.0	76.0	2.0	12.0
	여	38.0	100.0	24.0	98.0	88.0
연령	20대	12.0	24.0	0.0	2.0	90.0
	30대	36.0	76.0	0.0	72.0	10.0
	40대	22.0	0.0	0.0	26.0	0.0
	50대	18.0	0.0	0.0	0.0	0.0
	60대 이상	12.0	0.0	100.0	0.0	0.0
서울 권역	서북생활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8.0	6.0	6.0	6.0	10.0
	도심생활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8.0	6.0	10.0	6.0	76.0
	동북 1생활권(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2.0	12.0	14.0	18.0	4.0
	동북 2생활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42.0	20.0	8.0	16.0	8.0
	서남 1생활권(강서구, 양천구)	8.0	10.0	20.0	8.0	0.0
	서남 2생활권(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6.0	24.0	28.0	24.0	0.0
	서남 3생활권(동작구, 관악구)	18.0	10.0	6.0	6.0	2.0
	동남 1생활권(강남구, 서초구)	4.0	2.0	4.0	6.0	0.0
	동남 2생활권(송파구, 강동구)	4.0	10.0	4.0	10.0	0.0
가구 소득(월)	300만원 미만	84.0	14.0	32.0	10.0	50.0
	300~499만원	12.0	40.0	34.0	42.0	20.0
	500만원 이상	4.0	46.0	34.0	48.0	30.0
직업	전문/관리	26.0	32.0	26.0	14.0	10.0
	사무직	30.0	44.0	6.0	48.0	2.0
	기능/노무/판매서비스직	24.0	6.0	18.0	2.0	0.0
	학생	0.0	0.0	0.0	0.0	88.0
	주부	6.0	18.0	16.0	36.0	0.0
	퇴직/무직	14.0	0.0	34.0	0.0	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30.0	0.0	28.0	6.0	10.0
	전문대 재/졸	10.0	20.0	6.0	32.0	0.0
	대재/졸	50.0	58.0	50.0	52.0	58.0
	대학원 재/졸	10.0	22.0	16.0	10.0	32.0

[표 6-3]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응답자 유형별 세부사항

(단위: %)

그룹	특성	비율(%)		
장애인	장애 유형	시각 장애	40.0	
		청각 장애	38.0	
		지체/뇌병변 장애	22.0	
	이동 수단 및 이동 보조 수단 (중복 응답)	전동 휠체어/수동 휠체어/전동 스쿠터	6.0	
		안내견	4.0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32.0	
		지하철/전철	80.0	
		버스	56.0	
		자가용	20.0	
		기타	18.0	
임산부	이동 수단 (중복 응답)	지하철/전철	74.0	
		버스	70.0	
		자가용	42.0	
		자전거	6.0	
고령자	이동 수단 및 이동 보조 수단 (중복 응답)	지하철/전철	90.0	
		버스	66.0	
		자가용	58.0	
		실버카(보행보조차)	2.0	
영유아 동반자	아이 연령 (중복 응답)	0세 이상 ~ 만 1세 미만	16.0	
		만 1세 이상 ~ 만 2세 미만	10.0	
		만 2세 이상 ~ 만 3세 미만	26.0	
		만 3세 이상 ~ 만 4세 미만	48.0	
		만 4세 이상 ~ 만 5세 미만	14.0	
		만 5세 이상 ~ 만 6세 미만	8.0	
	이동 수단 및 이동 보조 수단 (중복 응답)	만 6세 이상	20.0	
		자가용	82.0	
		버스	70.0	
		지하철/전철	66.0	
		유모차	64.0	
외국인	거주 기간	아기띠/힙시트	32.0	
		자전거	8.0	
		거주 목적	자전거	8.0
			6개월 이내	40.0
	1년 이내		22.0	
	2년 이내		18.0	
	국적*	2년 이상	20.0	
		교육	88.0	
		사업 또는 전문 활동	8.0	
		여가, 위락, 개별휴가	2.0	
	이동 수단 (중복 응답)	친구, 친지 방문	2.0	
		아시아	72.0	
		아프리카	8.0	
		유럽	12.0	
	이동 수단 (중복 응답)	아메리카	8.0	
		지하철/전철	94.0	
버스		52.0		
자가용		6.0		
이동 수단 (중복 응답)	자가용	2.0		

* 응답자의 국적은 다음과 같음 - 아시아(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카자흐스탄, 러시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프리카(케냐, 세네갈, 에티오피아), 유럽(폴란드, 몬테네그로, 영국, 독일, 스웨덴), 아메리카(미국)

[표 6-4]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조사 응답자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단위: %)

2018		(Base)	신체능력	감각능력	언어능력	인지능력	신체조건	해당 없음
전체		(250)	12.8	16.8	13.2	3.2	8.8	45.2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18.0	60.0	12.0	0.0	4.0	6.0
	임산부	(50)	16.0	2.0	4.0	4.0	16.0	58.0
	고령자	(50)	14.0	10.0	2.0	4.0	4.0	66.0
	영유아동반자	(50)	8.0	6.0	8.0	4.0	12.0	62.0
	외국인	(50)	8.0	6.0	40.0	4.0	8.0	34.0

6-1-4. 자료 처리방법

완료된 설문은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작업을 거쳐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해 분석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2\%$)하였다.

6-1-5.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 기본사항(인구통계적 속성), 공공시설 이용 관련,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관련으로 크게 네 가지로 조사하였다. 기본사항(인구통계적 속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가구소득에 대해 조사하였다.

공공시설 이용 관련 문항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정도, 타인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이용 수단, 전년도 대비 서울시 공공시설의 개선감(외국인의 경우 타 국가 도시 대비 만족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문항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칙에 따른 가로, 공원·광장, 공공 건축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평가 관련 질문 등으로 구성하였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관련 문항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활동(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에 대한 인지도, 중요성, 효과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고, 전반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의식 개선사업,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개선활동으로서 가장 중요한 방법과 참여 의사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 일반 시민대상의 시민의식조사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문항을 조사한 결과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당 문항 내에 일반시민 의견도 표시하였으며, 이 경우 일반 시민 의견을 표시하였다.

6-2. 조사 결과

6-2-1. 서울시 공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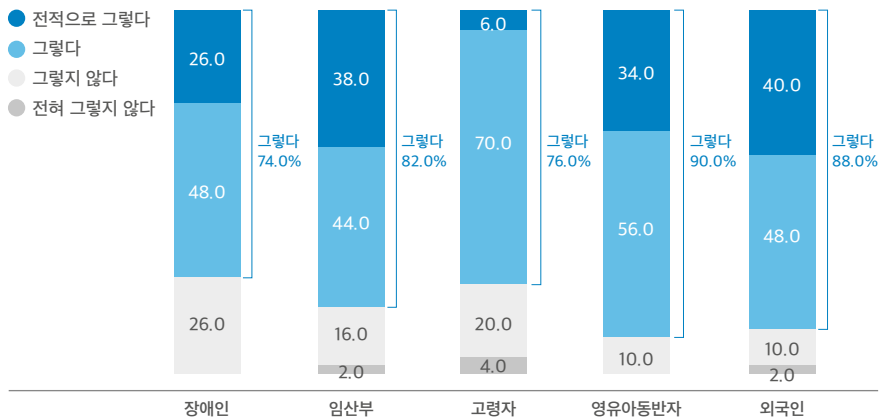
가) 공공시설 이용

① 공공시설 이용 정도

서울의 공공시설(가로, 공원·광장, 공공 건축물)을 자주 이용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2.0%가 '전적으로 그렇다'와 '그렇다'의 응답을 하였으며, 18%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그룹은 영유아동반자(90.0%), 외국인(88.0%), 임산부(82.0%), 고령자(76.0%), 장애인(74.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과 고령자는 이용 비율이 평균(82.0%) 보다 낮다.

[그림 6-1] 공공시설 이용 정도

(단위: %)



[표 6-5] 공공시설 이용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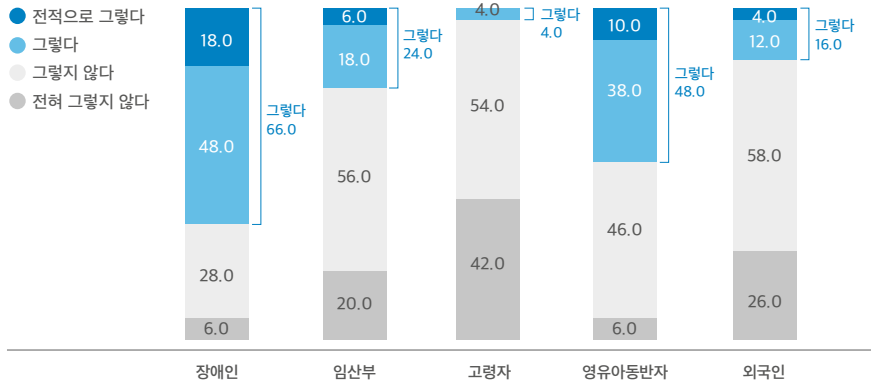
2018년		(Base)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82.0	18.0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74.0	26.0
	임산부	(50)	82.0	18.0
	고령자	(50)	76.0	24.0
	영유아동반자	(50)	90.0	10.0
	외국인	(50)	88.0	12.0

②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

서울의 공공시설(가로, 공원·광장, 공공 건축물)을 이용 시 타인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31.6%는 ‘전적으로 그렇다’와 ‘그렇다’의 응답을 하였으며, 타인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8.4%로 더 높게 나타났다. 타인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장애인이 66.0%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동반자 48.0%, 임신부 24.0%, 외국인 16.0%, 고령자 4.0%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이용 비율과 이용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고령자의 경우에도, 대부분(76.0%)이 공공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고령자들(96.0%)이 타인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비교대상인 ‘타인’을 다른 고령자들로 설정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고령자 그룹의 응답자는 모두 65세 이상 69세 이하에 속해 고령자 그룹 내에서 비교적 원활한 활동이 가능한 대상자들이었다.

[그림 6-2]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단위: %)



[표 6-6]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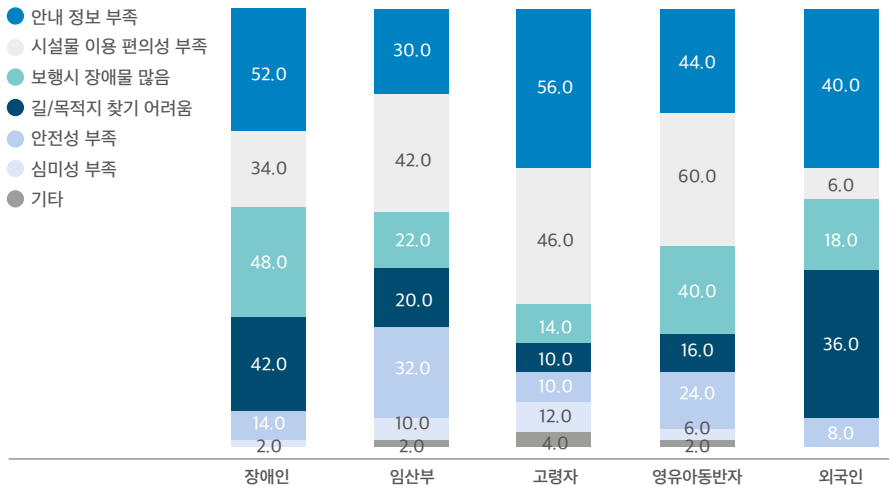
2018년		(Base)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31.6	68.4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66.0	34.0
	임산부	(50)	24.0	76.0
	고령자	(50)	4.0	96.0
	영유아동반자	(50)	48.0	52.0
	외국인	(50)	16.0	84.0

공공시설의 어떤 점이 어려움을 주는지를 8개 보기 및 기타 주관식 응답을 제시하고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안내 정보 부족’이 44.4%로 가장 높았고, ‘시설물 이용 편의성 부족’이 37.6%, ‘보행 시 장애물 많음’이 28.4%, ‘길/목적지 찾기 어려움’이 24.8%, ‘안전성 부족’ 17.6%, ‘심미성 부족’ 6.0%, ‘기타(교통편이 좋지 않음, 위생 상태 등)’ 1.2% 순으로 나타났다. ‘안내 정보 부족’은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시설 혹은 주요 정보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것으로, ‘길/목적지 찾기 어려움’과 차이가 있

다. 장애인은 ‘안내 정보 부족’, ‘보행 시 장애물 많음’, ‘길/목적지 찾기 어려움’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임산부는 ‘시설물 이용 편의성 부족’, ‘안전성 부족’, ‘안내 정보 부족’ 순으로, 고령자는 ‘안내 정보 부족’, ‘시설물 이용 편의성 부족’ 순으로 응답하였다. 영유아동반자는 ‘시설물 이용 편의성 부족’과 ‘안내 정보 부족’을, 외국인은 ‘안내 정보 부족’과 ‘길/목적지 찾기 어려움’을 꼽았다. 전반적으로, 공공시설 이용정도가 가장 낮으며 어려움 또한 크게 느끼고 있는 장애인 그룹의 불편요인을 안내 정보 제공과 보행 환경의 장애물 제거 및 원활한 길/목적지 탐색을 지원한다면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3]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주는 요인

(단위: %)



[표 6-7] 공공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주는 요인

(단위: %)

2018년	(Base)	안내 정보 부족	시설물 이용 편의성 부족	보행 시 장애물 많음	길/목적지 찾기 어려움	안전성 부족	심미성 부족	기타	
전체	(250)	44.4	37.6	28.4	24.8	17.6	6.0	1.2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52.0	34.0	48.0	42.0	14.0	2.0	0.0
	임산부	(50)	30.0	42.0	22.0	20.0	32.0	10.0	0.0
	고령자	(50)	56.0	46.0	14.0	10.0	10.0	12.0	4.0
	영유아동반자	(50)	44.0	60.0	40.0	16.0	24.0	6.0	2.0
	외국인	(50)	40.0	6.0	18.0	36.0	8.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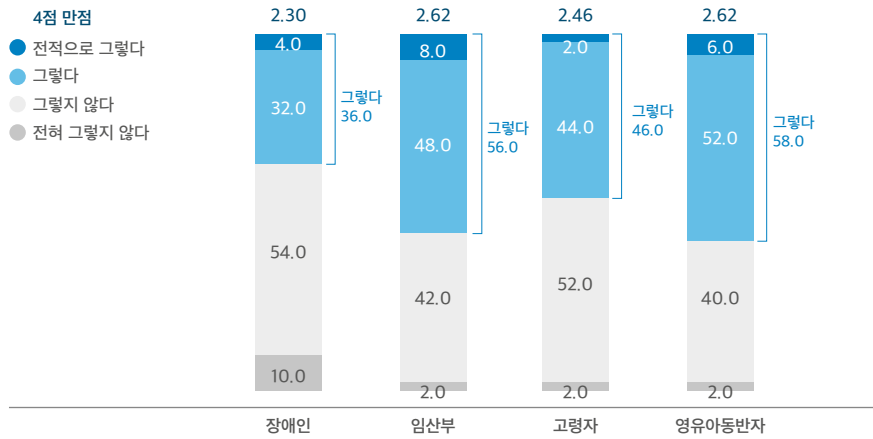
나) 공공시설 개선감 및 만족감

① 전년도 대비 공공시설 개선감

서울의 공공시설(가로, 공원·광장, 공공 건축물)이 작년에 비해 더욱 나아졌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전년도와의 비교가 어려운 응답자이기에 해당 문항은 외국인을 제외한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공공시설이 전년 대비 '나아졌다'는 응답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 전년도 대비 개선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룹별로 살펴보면 영유아동반자 및 임신부는 전년도 대비 나아졌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6-4] 전년도 대비 공공시설 개선감

(단위: %)



[표 6-8] 전년도 대비 공공시설 개선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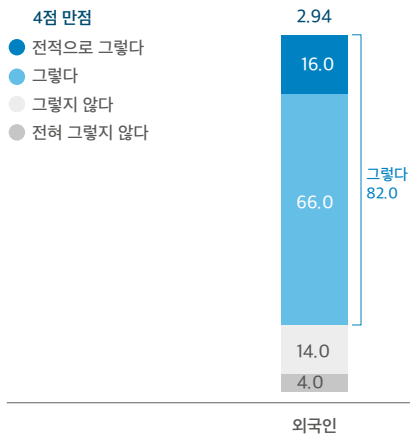
2018년		(Base)	동의	비동의	4점 만점
전체		(250)	49.0	51.0	2.50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36.0	64.0	2.30
	임산부	(50)	56.0	44.0	2.62
	고령자	(50)	46.0	54.0	2.46
	영유아동반자	(50)	58.0	42.0	2.62

② 타 국가 주요도시 대비 공공시설 만족감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타 국가 내 주요도시 대비 서울 공공시설의 만족감을 조사하였다. 전체 외국인 응답자의 82.0%가 서울시의 공공시설이 타 국가 내 주요도시 대비 낫다고 응답하였으며, 4점 만점으로 했을 때 2.94점의 응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국가와의 비교가 아니기에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외국인 응답자들이 자국 내 주요 도시와의 비교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응답자의 출신 국가별 평균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출신 국가별로는 아프리카 응답자의 평균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럽 3.00점, 아시아 2.89점, 아메리카 2.7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서울시 공공시설이 우수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5] 타 국가 주요도시 대비 공공시설 만족감

(단위: %)



[표 6-9] 타 국가 주요도시 대비 공공시설 만족감

(단위: %)

2018년		(Base)	그렇다	그렇지 않다	4점 만점
응답자 구분	외국인	(50)	82.0	18.0	2.94
국적	아시아	(36)	80.6	19.4	2.89
	아프리카	(4)	100.0	0.0	3.50
	유럽	(6)	83.3	16.7	3.00
	아메리카	(4)	75.0	25.0	2.75

6-2-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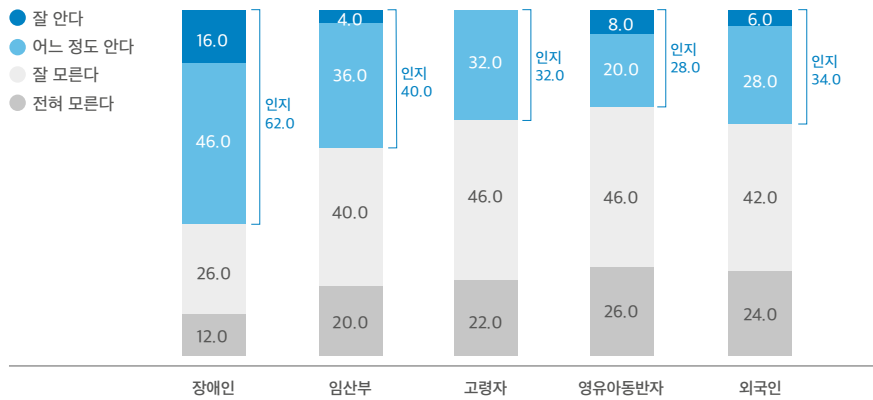
가) 유니버설디자인

①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는 유니버설디자인 그룹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의견 또한 조사하였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먼저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응답자들에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잘 안다’와 ‘어느 정도 안다’라는 응답이 39.2%,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60.8%로 나타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지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장애인(62.0%)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임산부, 외국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6-6]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단위: %)



[표 6-10]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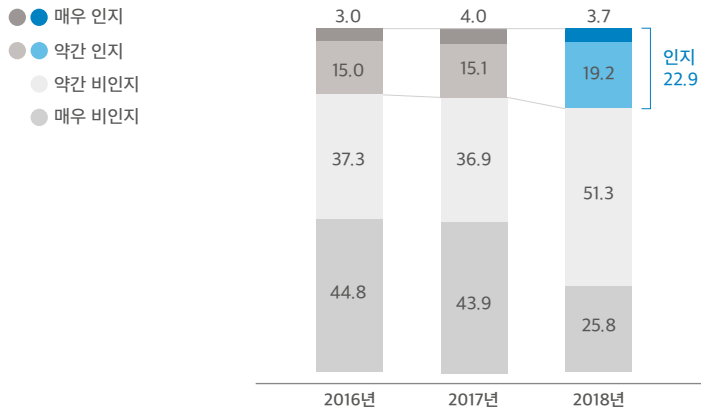
2018년		(Base)	안다	모른다
전체		(250)	39.2	60.8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62.0	38.0
	임산부	(50)	40.0	60.0
	고령자	(50)	32.0	68.0
	영유아동반자	(50)	28.0	72.0
	외국인	(50)	34.0	66.0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9%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느 정도 알거나 혹은 잘 안다’고 답해, 전년 대비 3.8%p 상승했으나, 유니버설디자인 그룹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27.9%, 30대의 25.5%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고 응답해 낮은 연령대에서 인

지의 정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인지의 정도가 높아지는 특성도 내포하고 있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예년 대비 인지 정도를 검증한 결과 전년도의 증가(p=0.006)와 올해의 증가(p=0.00) 모두 유의수준 0.01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7] 유니버설디자인 인지 정도(일반 시민)

(단위: %)



[표 6-11] 유니버설디자인 인지 정도(일반 시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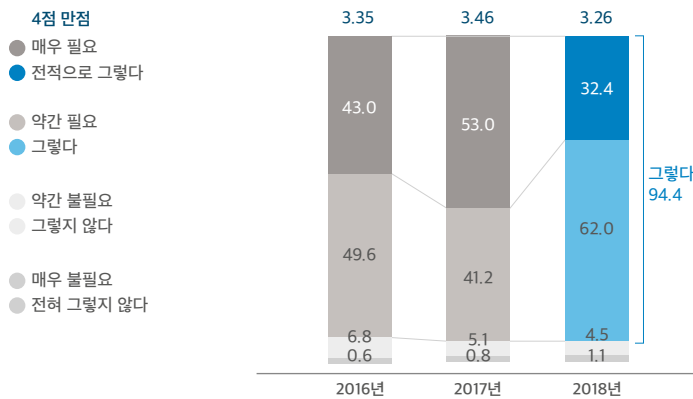
2018년		(Base)	인지	비인지
전체		(2500)	22.9	77.1
성별	남	(1241)	24.5	75.5
	여	(1259)	21.4	78.6
연령	20대	(588)	27.9	72.1
	30대	(631)	25.5	74.5
	40대	(655)	20.8	79.2
	50대 이상	(626)	17.9	82.1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20.2	79.8
	도심생활권	(129)	27.1	72.9
	동북1생활권	(365)	23.3	76.7
	동북2생활권	(411)	20.2	79.8
	서남1생활권	(270)	27.4	72.6
	서남2생활권	(259)	20.5	79.5
	서남3생활권	(239)	20.5	79.5
	동남1생활권	(249)	30.1	69.9
동남2생활권	(281)	21.0	79.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22.2	77.8
	300~499만원	(811)	22.3	77.7
	500만원 이상	(1140)	23.7	76.3

②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니버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응답자의 절대 다수(94.4%)는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체 응답자의 32.4%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를, 62.0%는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는 전년(94.2%)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96.3%)과 30대(96.2%), 동남1생활권(97.6%)에서 큰 필요성을 나타냈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예년 대비 정책 필요성은 92.6%(16년) → 94.2%(17년) → 94.4%(18년)로 증가하였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

[그림 6-8]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필요성(일반 시민)

(단위: %)



[표 6-1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필요성(일반 시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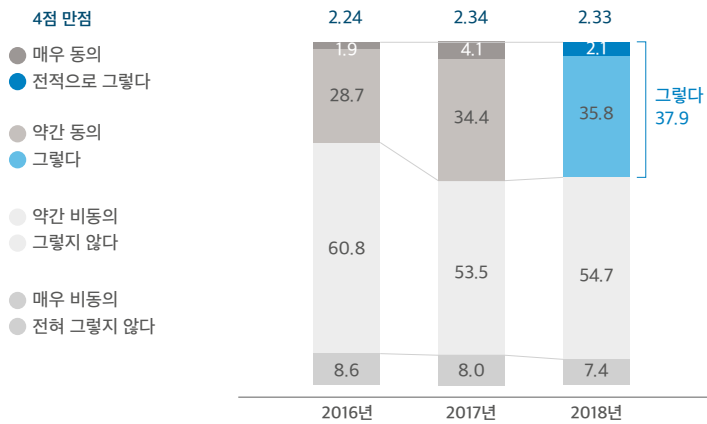
2018년		(Base)	필요	불필요
전체		(2500)	94.4	5.6
성별	남	(1241)	92.4	7.6
	여	(1259)	96.3	3.7
연령	20대	(588)	95.6	4.4
	30대	(631)	96.2	3.8
	40대	(655)	92.2	7.8
	50대 이상	(626)	93.8	6.2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95.3	4.7
	도심생활권	(129)	93.8	6.2
	동북1생활권	(365)	93.2	6.8
	동북2생활권	(411)	94.4	5.6
	서남1생활권	(270)	94.1	5.9
	서남2생활권	(259)	89.6	10.4
	서남3생활권	(239)	95.8	4.2
	동남1생활권	(249)	97.6	2.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91.8	8.2
	300~499만원	(811)	95.4	4.6
	500만원 이상	(1140)	94.9	5.1

③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현재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정도는 어떠할까? 조사결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 수요는 높지만, 현재의 적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7.9%의 응답자만이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정도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전년과 비교했을 경우 0.6%p 하락했다. 집단의 속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많아질수록 적용의 정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예년 대비 적용 정도는 30.6%(16년) → 38.5%(17년) → 37.9%(18년)로 전년도에 증가하였다가 올해 감소하였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분석한 결과 전년도의 증가(p=0.00)와 올해의 감소(p=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9]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일반 시민)

(단위: %)



[표 6-13]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일반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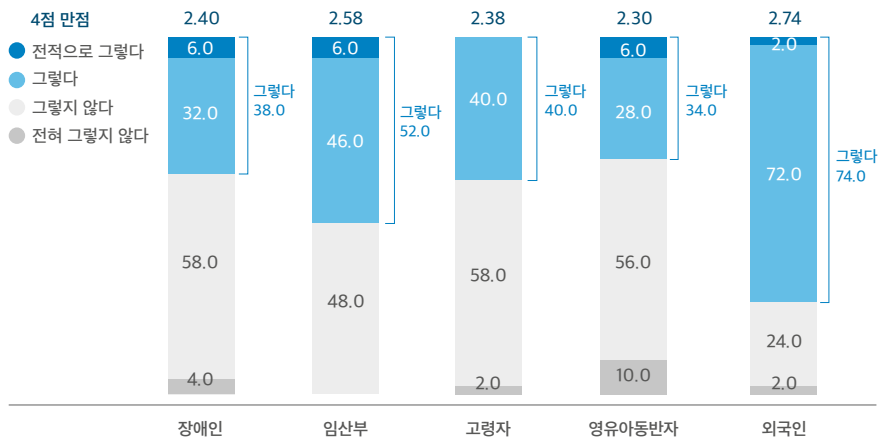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동의	비동의	4점 만점
전체		(2500)	37.9	62.1	2.33
성별	남	(1241)	42.3	57.7	2.38
	여	(1259)	33.6	66.4	2.27
연령	20대	(588)	36.7	63.3	2.29
	30대	(631)	38.0	62.0	2.32
	40대	(655)	35.9	64.1	2.31
	50대 이상	(626)	41.1	58.9	2.38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32.7	67.3	2.26
	도심생활권	(129)	45.7	54.3	2.38
	동북1생활권	(365)	35.9	64.1	2.31
	동북2생활권	(411)	35.5	64.5	2.31
	서남1생활권	(270)	35.6	64.4	2.29
	서남2생활권	(259)	41.7	58.3	2.38
	서남3생활권	(239)	38.1	61.9	2.31
	동남1생활권	(249)	47.8	52.2	2.45
동남2생활권	(281)	35.9	64.1	2.3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34.4	65.6	2.27
	300~499만원	(811)	37.1	62.9	2.33
	500만원 이상	(1140)	40.2	59.8	2.35

이번에는 응답자들에게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공평하게 제품, 건물, 환경 등을 이용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공평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후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니버설디자인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동의하는 응답(47.6%)에 비해 동의하지 않는 응답(52.4%)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응답자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외국인의 경우 74.0%로 동의 수준이 높았고, 임산부 또한 52.0%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동반자(66.0%)와 장애인(62.0%), 고령자(60.0%)의 비동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낮다는 인식이 컸다.

[그림 6-10] 서울 지역 도시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표 6-14] 서울 지역 도시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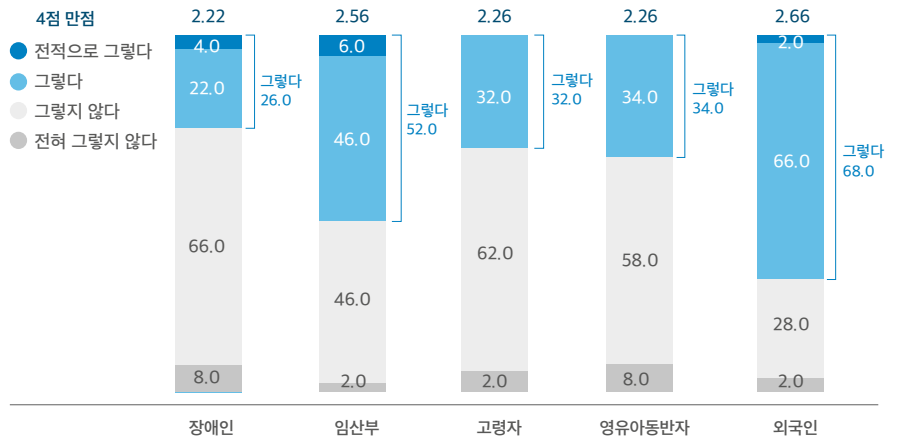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동의	비동의	4점 만점
전체		(250)	47.6	52.4	2.48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38.0	62.0	2.40
	임산부	(50)	52.0	48.0	2.58
	고령자	(50)	40.0	60.0	2.38
	영유아동반자	(50)	34.0	66.0	2.30
	외국인	(50)	74.0	26.0	2.74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외국인이 68.0%로 가장 높았고, 임산부 52.0%, 영유아동반자 34.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동의 수준이 26.0%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북생활권이 61.1%로 가장 높았고, 도심생활권 52.8%, 서남1생활권 52.2%로 높았다. 반면, 동남1생활권의 동의 수준이 0.0%로 가장 낮았고, 서남3생활권 19.0%, 동남2생활권 28.6% 또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6-11] 거주 지역 공공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표 6-15] 거주 지역 공공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2018년		(Base)	동의	비동의	4점 만점
전체		(250)	42.4	57.6	2.39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26.0	74.0	2.22
	임산부	(50)	52.0	48.0	2.56
	고령자	(50)	32.0	68.0	2.26
	영유아동반자	(50)	34.0	66.0	2.26
	외국인	(50)	68.0	32.0	2.66
서울 권역	서북생활권	(18)	61.1	38.9	2.61
	도심생활권	(53)	52.8	47.2	2.49
	동북1생활권	(25)	36.0	64.0	2.36
	동북2생활권	(47)	44.7	55.3	2.45
	서남1생활권	(23)	52.2	47.8	2.43
	서남2생활권	(41)	41.5	58.5	2.39
	서남3생활권	(21)	19.0	81.0	2.19
	동남1생활권	(8)	0.0	100.0	1.75
동남2생활권	(14)	28.6	71.4	2.21	

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을 평가하기에 앞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칙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4원칙에 대한 설명을 읽은 뒤 서울의 가로, 공원·광장, 공공 건축물을 4원칙에 따라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추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칙 제시문은 다음과 같다.

㉓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편리성]

- 연령, 지식, 능력 등에 관계없이 조작이나 이용이 쉽다.
- 필요한 정보를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적절한 곳에서 제공된다.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

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전성]

-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미리 안내한다.
- 조작이나 이용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부주의한 실수에도 안전하다.
- 유해한 환경을 예방하고 개선한다.

㉕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쾌적성]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청결하고 정돈되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한다.
-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호감을 느낄 수 있다.

㉖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선택권]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자세, 동작, 행동 패턴 등의 차이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공한다.
- 수단이나 사용방법이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① 가로(보도 및 차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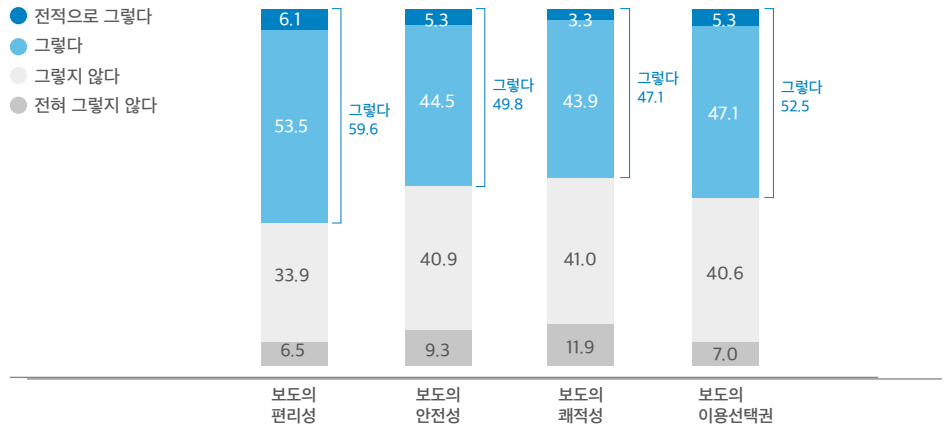
도시의 공공 환경에서 가로(街路)란 ‘넓은 도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차도와 보도로 구분’되어 있다. 이후 보도와 차도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보도 : 보행안전구역, 차량진입구역, 공개공지, 자전거도로, 시설물구역
- 차도 : 국지도로, 횡단보도, 속도저감방안

이후 응답자들에게 가로의 보도, 차도를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 먼저, 가로의 보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도의 편리성은 59.6%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고, 이용선택권 52.5%, 안전성 49.8%, 쾌적성 47.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관해 외국인 그룹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장애인 그룹의 전반적인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는데, 특히 보도의 안전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령자 그룹은 보도의 쾌적성에 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준이 매우 높았다.

[그림 6-12] 가로 보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표 6-16] 가로 보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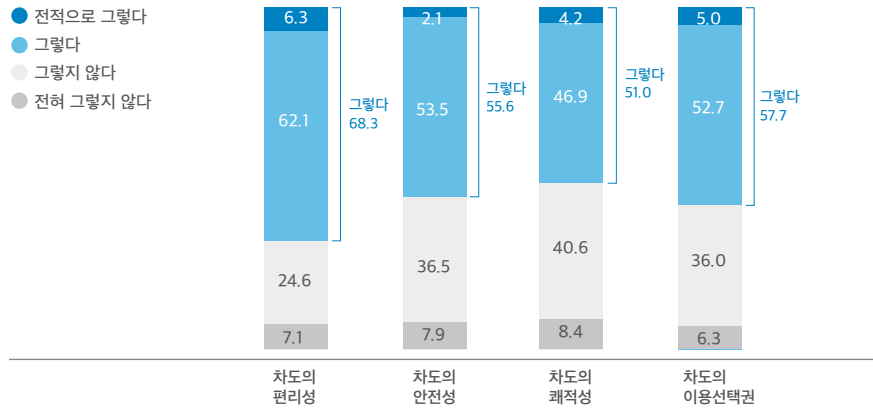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보도의 편리성		보도의 안전성		보도의 쾌적성		보도의 이용선택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59.6	40.4	49.8	50.2	47.1	52.9	52.5	47.5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39.6	60.4	29.2	70.8	38.0	62.0	35.4	64.6
	임산부	(50)	58.0	42.0	46.0	54.0	46.9	53.1	56.0	44.0
	고령자	(50)	57.1	42.9	49.0	51.0	29.8	70.2	46.9	53.1
	영유아동반자	(50)	62.5	37.5	46.0	54.0	44.9	55.1	44.9	55.1
	외국인	(50)	80.0	20.0	78.0	22.0	75.5	24.5	79.2	20.8

가로의 차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차도의 편리성은 68.3%로 가장 높았고, 이용선택권(57.7%), 안전성(55.6%), 쾌적성(51.0%)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외국인 그룹이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차도의 이용선택권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장애인 그룹의 응답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는데 장애인 그룹은 차도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고령자 그룹 또한 차도의 쾌적성 및 이용선택권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였다.

[그림 6-13] 가로 차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표 6-17] 가로 차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2018년	(Base)	차도의 편리성		차도의 안전성		차도의 쾌적성		차도의 이용선택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68.3	31.7	55.6	44.4	51.0	49.0	57.7	42.3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43.5	56.5	38.3	61.7	36.2	63.8	42.2	57.8
	임산부	(50)	68.0	32.0	57.1	42.9	61.2	38.8	66.0	34.0
	고령자	(50)	73.5	26.5	61.2	38.8	32.7	67.3	36.7	63.3
	영유아 동반자	(50)	72.0	28.0	50.0	50.0	51.0	49.0	50.0	50.0
	외국인	(50)	84.4	15.6	71.7	28.3	75.6	24.4	95.6	4.4

② 공원 · 광장(진입, 이동, 위생, 편의, 놀이휴게 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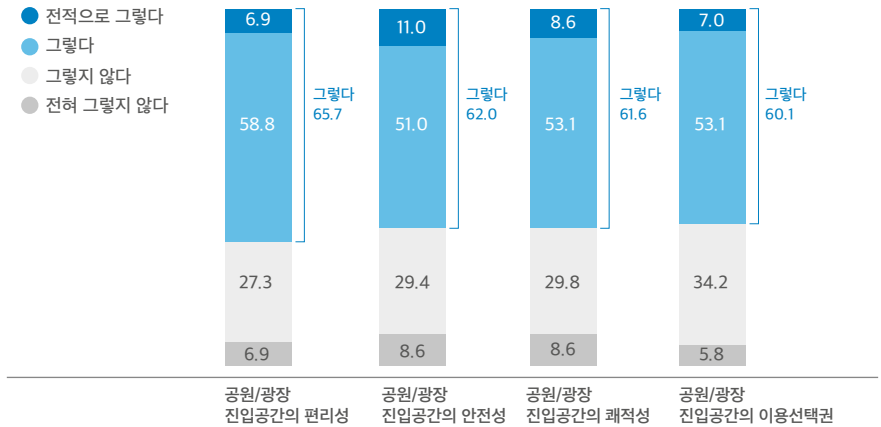
이후 서울의 공원 · 광장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응답자들에게 도시의 공공 환경에서 공원 · 광장은 ‘시민의 휴양 등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빈터’를 의미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공원 · 광장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진입공간 : 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 이동공간 : 산책로
- 위생공간 : 화장실, 영유아동반자 위생시설
- 편의공간 :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매표시설, 반려동물보호시설, 금연구역
- 놀이 휴게공간 : 휴게구역, 놀이터

응답자들에게 공원·광장의 각 공간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에 입각해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먼저 공원·광장의 진입공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리성(65.7%), 안전성(62.0%), 쾌적성(61.6%), 이용선택권(60.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외국인 그룹이 가장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공원·광장 진입공간의 편리성(95.8%)과 이용선택권(93.6%)이 가장 높았다. 반면, 공원·광장 진입공간의 쾌적성이 영유아동반자에 의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용선택권 또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6-14] 공원/광장 진입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표 6-18] 공원/광장 진입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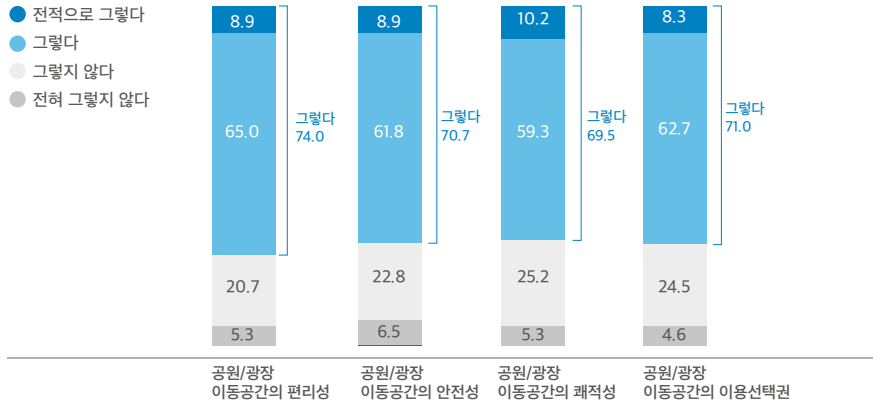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공원/광장 진입공간의 편리성		공원/광장 진입공간의 안전성		공원/광장 진입공간의 쾌적성		공원/광장 진입공간의 이용선택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65.7	34.3	62.0	38.0	61.6	38.4	60.1	39.9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56.3	43.8	52.1	47.9	54.2	45.8	47.9	52.1
	임산부	(50)	66.0	34.0	62.0	38.0	60.0	40.0	58.0	42.0
	고령자	(50)	60.0	40.0	56.0	44.0	58.0	42.0	47.9	52.1
	영유아동반자	(50)	51.0	49.0	49.0	51.0	46.9	53.1	54.0	46.0
	외국인	(50)	95.8	4.2	91.7	8.3	89.6	10.4	93.6	6.4

다음으로는 공원·광장의 이동공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동공간의 편리성이 74.0%로 가장 높았고, 이용선택권(71.0%), 안전성(70.7%), 쾌적성(69.5%)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외국인 그룹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했으며, 외국인의 이용선택권이 97.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장애인 그룹의 응답 수준이 가장 낮았는데, 특히 공원·광장 이동공간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낮은 응답을 나타냈다. 고령자 및 영유아동반자는 이동공간의 쾌적성이 가장 낮았다.

[그림 6-15] 공원/광장 이동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표 6-19] 공원/광장 이동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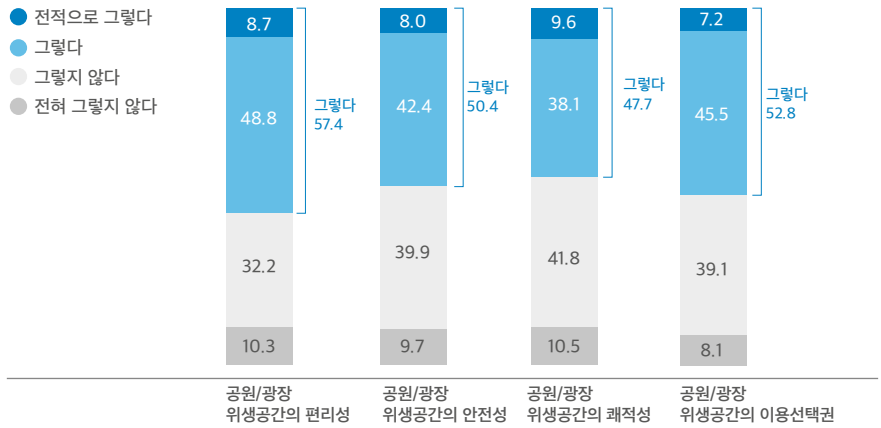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공원/광장 이동공간의 편리성		공원/광장 이동공간의 안전성		공원/광장 이동공간의 쾌적성		공원/광장 이동공간의 이용선택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74.0	26.0	70.7	29.3	69.5	30.5	71.0	29.0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58.3	41.7	54.2	45.8	67.3	32.7	61.7	38.3
	임산부	(50)	74.0	26.0	74.0	26.0	72.0	28.0	73.5	26.5
	고령자	(50)	76.0	24.0	76.0	24.0	58.0	42.0	63.3	36.7
	영유아 동반자	(50)	68.0	32.0	58.0	42.0	55.1	44.9	60.0	40.0
	외국인	(50)	93.8	6.3	91.7	8.3	95.8	4.2	97.8	2.2

다음으로는 공원·광장 위생공간(화장실, 영유아동반자 위생시설)에 대해 조사하였다. 위생 공간은 편리성(57.4%), 이용선택권(52.8%), 안전성(50.4%), 쾌적성(47.7%)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공원·광장 위생공간의 편리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 임산부의 안전성(34.0%), 장애인의 편리성(38.3%)이 낮게 나타났다. 고령자 그룹 및 영유아동반자 그룹은 쾌적성을 낮게 꼽았다.

[그림 6-16] 공원/광장 위생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표 6-20] 공원/광장 위생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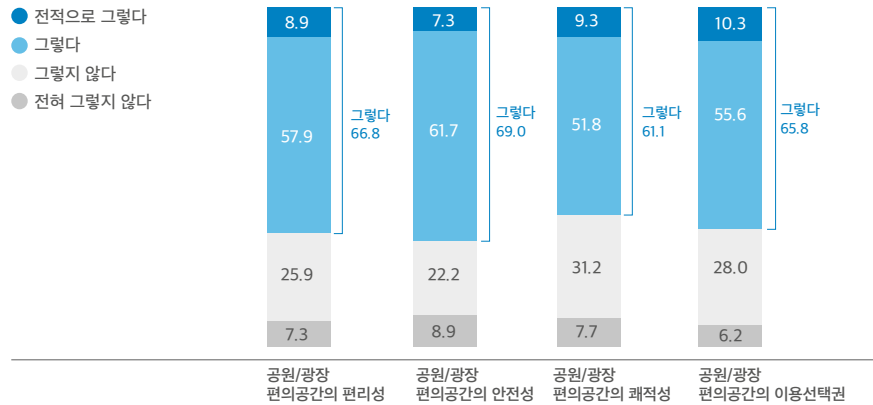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공원/광장 위생공간의 편리성		공원/광장 위생공간의 안전성		공원/광장 위생공간의 쾌적성		공원/광장 위생공간의 이용선택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57.4	42.6	50.4	49.6	47.7	52.3	52.8	47.2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38.3	61.7	39.1	60.9	39.1	60.9	40.9	59.1
	임산부	(50)	48.0	52.0	34.0	66.0	46.0	54.0	48.0	52.0
	고령자	(50)	67.3	32.7	51.0	49.0	43.8	56.3	52.1	47.9
	영유아동반자	(50)	48.0	52.0	45.8	54.2	38.8	61.2	42.0	58.0
	외국인	(50)	87.0	13.0	84.4	15.6	71.7	28.3	83.7	16.3

다음으로는 공원·광장 편의공간(관리사무소, 안내시설, 매표시설, 반려동물보호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공원·광장 편의공간의 안전성이 69.0%로 가장 높았고, 편리성(66.8%), 이용선택권(65.8%), 쾌적성(61.1%)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그룹의 쾌적성 및 이용선택권에 관한 응답이 97.9%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동반자의 쾌적성에 관한 응답이 42.0%로 가장 낮았다.

[그림 6-17] 공원/광장 편의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표 6-21] 공원/광장 편의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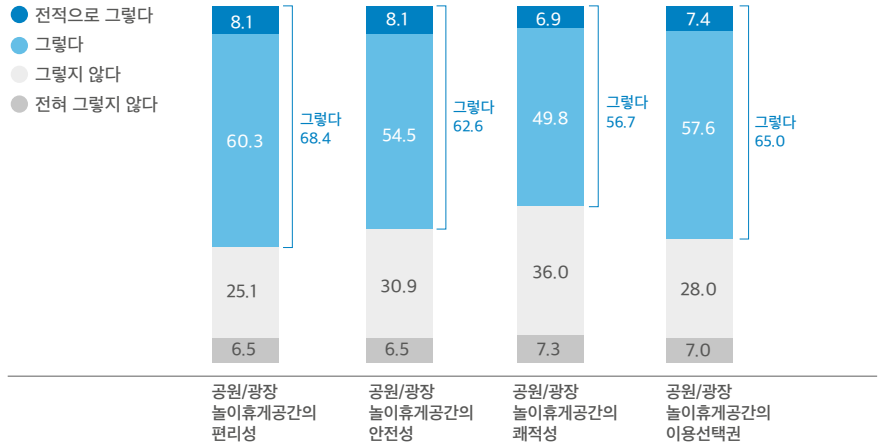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공원/광장 편의공간의 편리성		공원/광장 편의공간의 안전성		공원/광장 편의공간의 쾌적성		공원/광장 편의공간의 이용선택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66.8	33.2	69.0	31.0	61.1	38.9	65.8	34.2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48.0	52.0	54.0	46.0	64.0	36.0	55.1	44.9
	임산부	(50)	68.0	32.0	66.0	34.0	57.1	42.9	66.0	34.0
	고령자	(50)	59.2	40.8	72.0	28.0	46.0	54.0	56.3	43.8
	영유아동반자	(50)	64.0	36.0	58.0	42.0	42.0	58.0	55.1	44.9
	외국인	(50)	95.8	4.2	95.8	4.2	97.9	2.1	97.9	2.1

다음으로는 공원·광장 놀이휴게공간(휴게구역, 놀이터)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공원·광장 놀이휴게공간의 편리성이 68.4%로 가장 높았고, 이용선택권(65.0%), 안전성(62.6%), 쾌적성(56.7%)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그룹의 놀이휴게공간 편리성에 관한 응답이 97.9%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동반자의 놀이휴게공간 쾌적성에 관한 응답이 34.0%로 가장 낮았다.

[그림 6-18] 공원/광장 놀이휴게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표 6-22] 공원/광장 놀이휴게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2018년	(Base)	공원/광장 놀이휴게공간의 편리성		공원/광장 놀이휴게공간의 안전성		공원/광장 놀이휴게공간의 쾌적성		공원/광장 놀이휴게공간의 이용선택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68.4	31.6	62.6	37.4	56.7	43.3	65.0	35.0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65.3	34.7	52.1	47.9	59.2	40.8	56.3	43.8
	임산부	(50)	60.0	40.0	62.0	38.0	58.0	42.0	63.3	36.7
	고령자	(50)	54.0	46.0	62.0	38.0	38.0	62.0	46.9	53.1
	영유아동반자	(50)	66.0	34.0	44.0	56.0	34.0	66.0	64.0	36.0
	외국인	(50)	97.9	2.1	93.8	6.3	95.8	4.2	95.7	4.3

③ 공공 건축물(접근, 진입, 이동, 위생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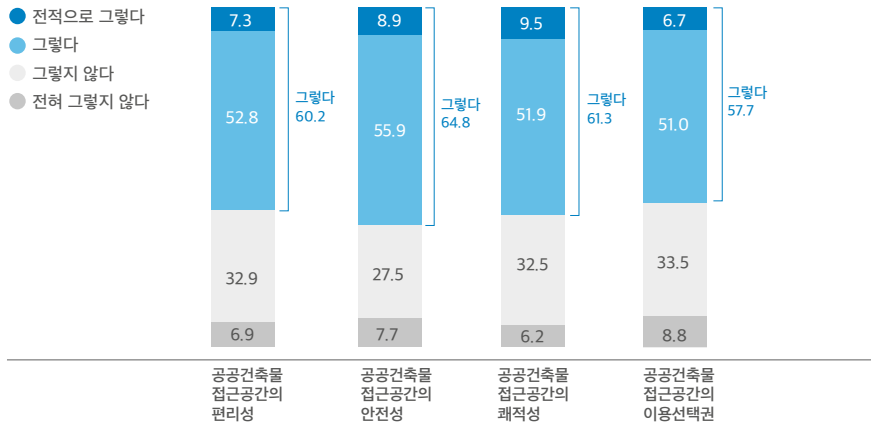
서울의 공공 건축물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사단체가 소유한 건물’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공공 건축물의 정의와 구분을 제시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칙에 입각해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 접근공간 : 부지출입구, 보행접근로, 주차장
- 진입공간 : 주출입구, 로비
- 이동공간 : 복도, 실내출입문,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보 및 피난시설
- 위생공간 :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영유아동반자 위생시설, 욕실·샤워실·탈의실

먼저 공공 건축물 접근공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 건축물 접근공간의 안전성이 64.8%로 가장 높았고, 쾌적성(61.3%), 편리성(60.2%), 이용선택권(5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그룹의 공공 건축물 접근공간의 안전성이 97.9%의 응답으로 가장 높았고, 고령자 그룹의 이용선택권이 34.7%, 영유아동반자의 안전성이 40.0%, 장애인의 편리성이 40.8%로 낮았다.

[그림 6-19] 공공 건축물 접근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표 6-23] 공공 건축물 접근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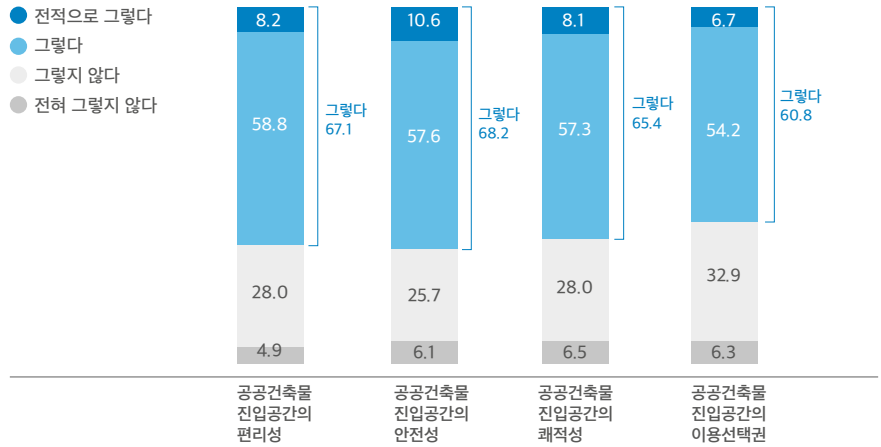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공공건축물 접근공간의 편리성		공공건축물 접근공간의 안전성		공공건축물 접근공간의 쾌적성		공공건축물 접근공간의 이용선택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60.2	39.8	64.8	35.2	61.3	38.7	57.7	42.3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40.8	59.2	63.3	36.7	60.0	40.0	49.0	51.0
	임산부	(50)	54.0	46.0	64.0	36.0	62.5	37.5	58.0	42.0
	고령자	(50)	50.0	50.0	60.0	40.0	42.0	58.0	34.7	65.3
	영유아동반자	(50)	65.3	34.7	40.0	60.0	52.0	48.0	59.2	40.8
	외국인	(50)	91.7	8.3	97.9	2.1	93.3	6.7	92.9	7.1

다음으로는 공공 건축물 진입공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 건축물 진입공간의 안전성이 68.2%로 가장 높았고, 편리성(67.1%), 쾌적성(65.4%), 이용선택권(60.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공공 건축물 진입공간의 쾌적성에 관한 응답이 95.7%로 가장 높았고, 고령자의 이용선택권이 40.8%, 쾌적성이 44.0%로 낮았다.

[그림 6-20] 공공 건축물 진입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표 6-24] 공공 건축물 진입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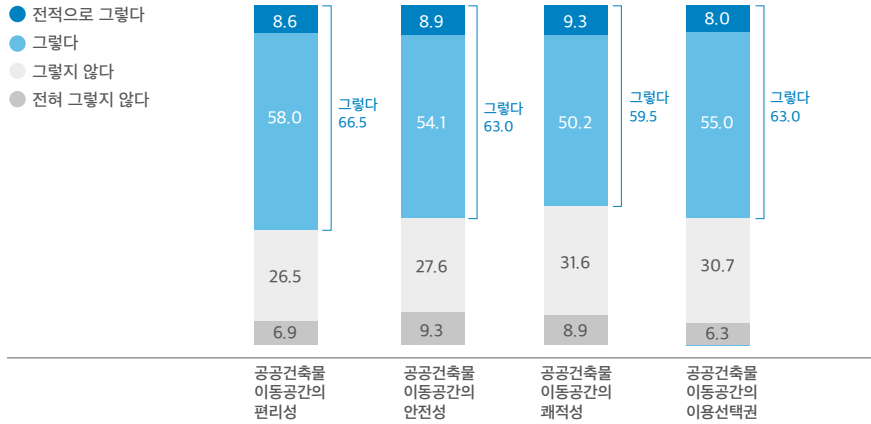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공공건축물 진입공간의 편리성		공공건축물 진입공간의 안전성		공공건축물 진입공간의 쾌적성		공공건축물 진입공간의 이용선택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67.1	32.9	68.2	31.8	65.4	34.6	60.8	39.2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56.3	43.8	56.3	43.8	61.2	38.8	59.2	40.8
	임산부	(50)	72.0	28.0	66.0	34.0	68.0	32.0	64.0	36.0
	고령자	(50)	51.0	49.0	66.0	34.0	44.0	56.0	40.8	59.2
	영유아동반자	(50)	68.0	32.0	64.0	36.0	60.0	40.0	51.0	49.0
	외국인	(50)	89.1	10.9	89.4	10.6	95.7	4.3	93.0	7.0

다음으로는 공공 건축물 이동공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 건축물 이동공간의 편리성이 66.5%로 가장 높았고, 안전성과 이용선택권이 63.0%, 쾌적성이 5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공공 건축물 이동공간 안전성에 관한 응답이 97.8%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동반자의 쾌적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40.0%로 가장 낮았다.

[그림 6-21] 공공 건축물 이동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표 6-25] 공공 건축물 이동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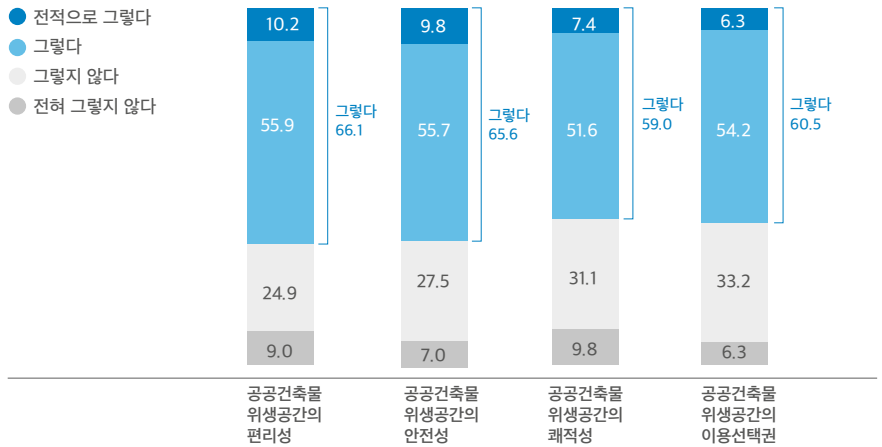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공공건축물 이동공간의 편리성		공공건축물 이동공간의 안전성		공공건축물 이동공간의 쾌적성		공공건축물 이동공간의 이용선택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66.5	33.5	63.0	37.0	59.5	40.5	63.0	37.0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49.0	51.0	54.0	46.0	58.0	42.0	60.4	39.6
	임산부	(50)	80.0	20.0	64.0	36.0	62.0	38.0	64.0	36.0
	고령자	(50)	54.0	46.0	54.0	46.0	46.0	54.0	42.9	57.1
	영유아동반자	(50)	58.0	42.0	48.0	52.0	40.0	60.0	57.1	42.9
	외국인	(50)	93.5	6.5	97.8	2.2	93.6	6.4	95.2	4.8

다음으로는 공공 건축물 위생공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 건축물 위생공간의 편리성이 66.1%로 가장 높았고, 안전성(65.6%), 이용선택권(60.5%), 쾌적성(59.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공공 건축물 위생공간 안전성에 관한 응답이 97.8%로 가장 높았고, 임산부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40.0%로 가장 낮았다.

[그림 6-22] 공공 건축물 위생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단위: %)



[표 6-26] 공공 건축물 위생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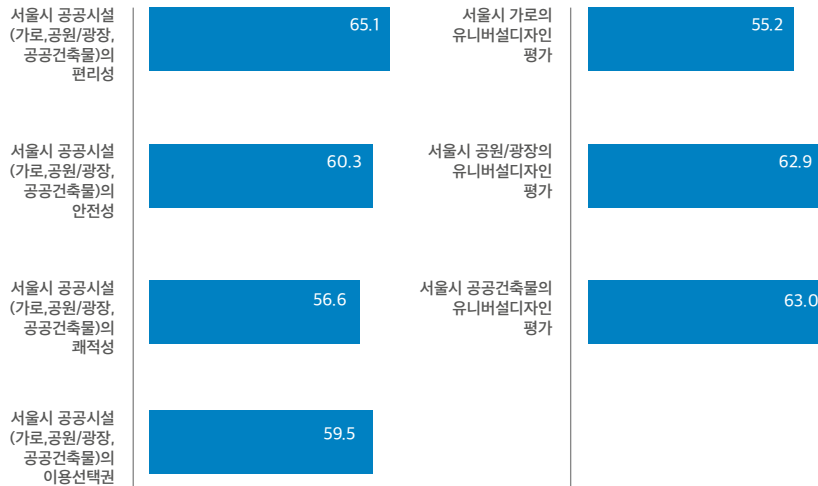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공공건축물 위생공간의 편리성		공공건축물 위생공간의 안전성		공공건축물 위생공간의 쾌적성		공공건축물 위생공간의 이용선택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66.1	33.9	65.6	34.4	59.0	41.0	60.5	39.5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60.4	39.6	64.6	35.4	62.5	37.5	63.8	36.2
	임산부	(50)	54.0	46.0	44.0	56.0	44.0	56.0	51.0	49.0
	고령자	(50)	62.0	38.0	68.0	32.0	52.0	48.0	44.9	55.1
	영유아동반자	(50)	60.0	40.0	56.0	44.0	49.0	51.0	52.0	48.0
	외국인	(50)	95.7	4.3	97.8	2.2	89.4	10.6	95.3	4.7

공공시설별 유니버설디자인 평가를 종합해보면, 공공 건축물이 63.0%로 가장 높았으며, 공원/광장이 62.9%, 가로가 55.2%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원칙별 평가를 종합해보면, 3가지 유형의 공공시설(가로, 공원/광장, 공공 건축물)의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이용선택권의 평균을 산출한 뒤, 가중치를 각 영역별 1/3씩 설정하여 종합 평가한 결과, 편리성이 65.1%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성이 60.3%, 이용선택권이 59.5%, 쾌적성이 56.6%로 가장 낮았다. 추후 평가가 낮은 영역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때 전반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평가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의 쾌적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공공시설별로 보았을 때 가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평가(4대 원칙을 기준으로 한 공공시설 평가)는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대략 6:4 정도라 할 수 있다(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에 해당).

[그림 6-23]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종합

(단위: %)



[표 6-27]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종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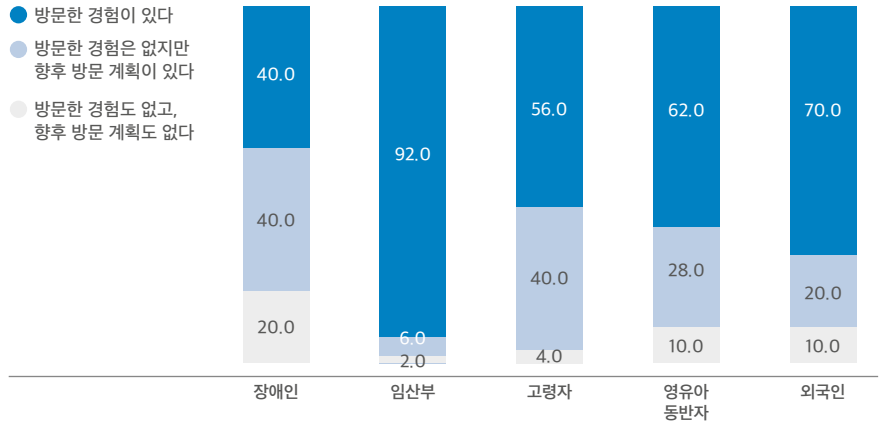
2018년		(Base)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이용선택권	종합
종합		(250)	65.1	60.3	56.6	59.5	60.4
구분	가로	(250)	64.0	52.7	49.1	55.1	55.2
	공원/광장	(250)	66.5	62.9	59.3	62.9	62.9
	공공건축물	(250)	65.0	65.4	61.3	60.5	63.0

④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시설(이동시설, 편의시설, 정보전달시설, 정보전달 서비스)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DDP의 유니버설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 DDP 방문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64.0%는 방문 경험이 있었으며, 방문한 경험은 없지만 향후 방문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26.8%로 확인되었다. 특히 임산부가 92.0%로 가장 높은 방문 경험을 나타냈으며, 외국인(70%), 영유아동반자(62.0%), 고령자(56.0%), 장애인(40.0%)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애인의 40%와 고령자의 40%는 방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장애인의 20%는 방문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6-24]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경험

(단위: %)



[표 6-28]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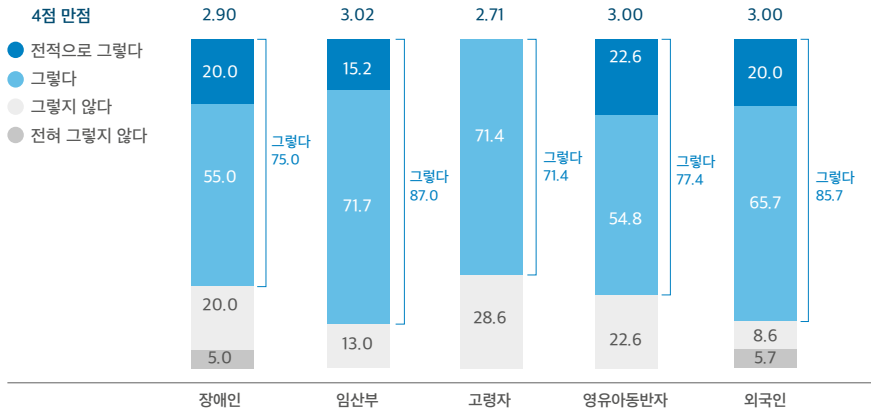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방문한 경험이 있다	방문한 경험은 없지만 향후 방문 계획이 있다	방문한 경험도 없고, 향후 방문 계획도 없다
전체		(250)	64.0	26.8	9.2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40.0	40.0	20.0
	임산부	(50)	92.0	6.0	2.0
	고령자	(50)	56.0	40.0	4.0
	영유아동반자	(50)	62.0	28.0	10.0
	외국인	(50)	70.0	20.0	10.0

DDP 방문 유경험자에 한해 DDP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DDP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이용선택권)이 잘 적용되어 있는냐는 문항에 응답자의 80.6%는 '전적으로 그렇다'와 '그렇다'를 응답했다. 반면, 19.4%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이 중 임산부 87.0%, 외국인 85.7%가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고령자와 장애인의 동의 수준이 낮았다.

[그림 6-25]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표 6-29]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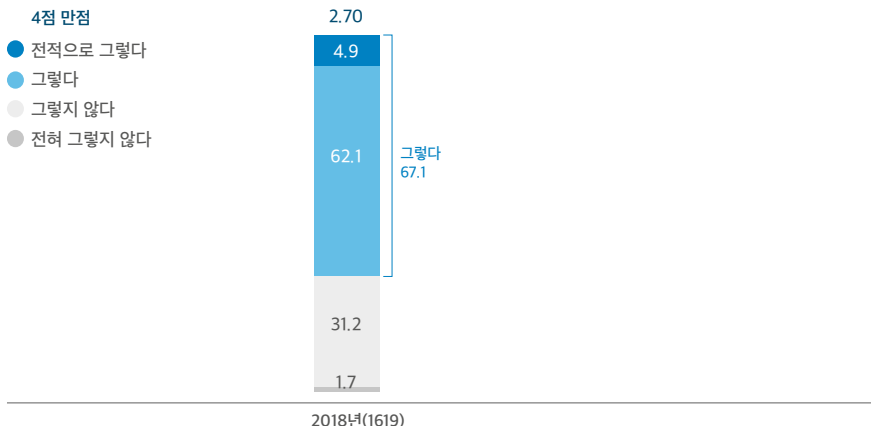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동의	비동의	4점 만점
전체		(160)	80.6	19.4	2.94
응답자 구분	장애인	(20)	75.0	25.0	2.90
	임산부	(46)	87.0	13.0	3.02
	고령자	(28)	71.4	28.6	2.71
	영유아동반자	(31)	77.4	22.6	3.00
	외국인	(35)	85.7	14.3	3.00

본 설문 내 신규 문항으로 DDP 방문 경험자에 한해 DDP 내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의 적용 정도를 물었다. 조사 결과 DDP 방문 경험자의 67.1%는 DDP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남성, 서남2생활권, 동남1생활권 거주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DDP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적용되었다는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림 6-26] DDP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적용 정도 (일반 시민)

(단위: %)



[표 6-30] DDP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적용 정도(일반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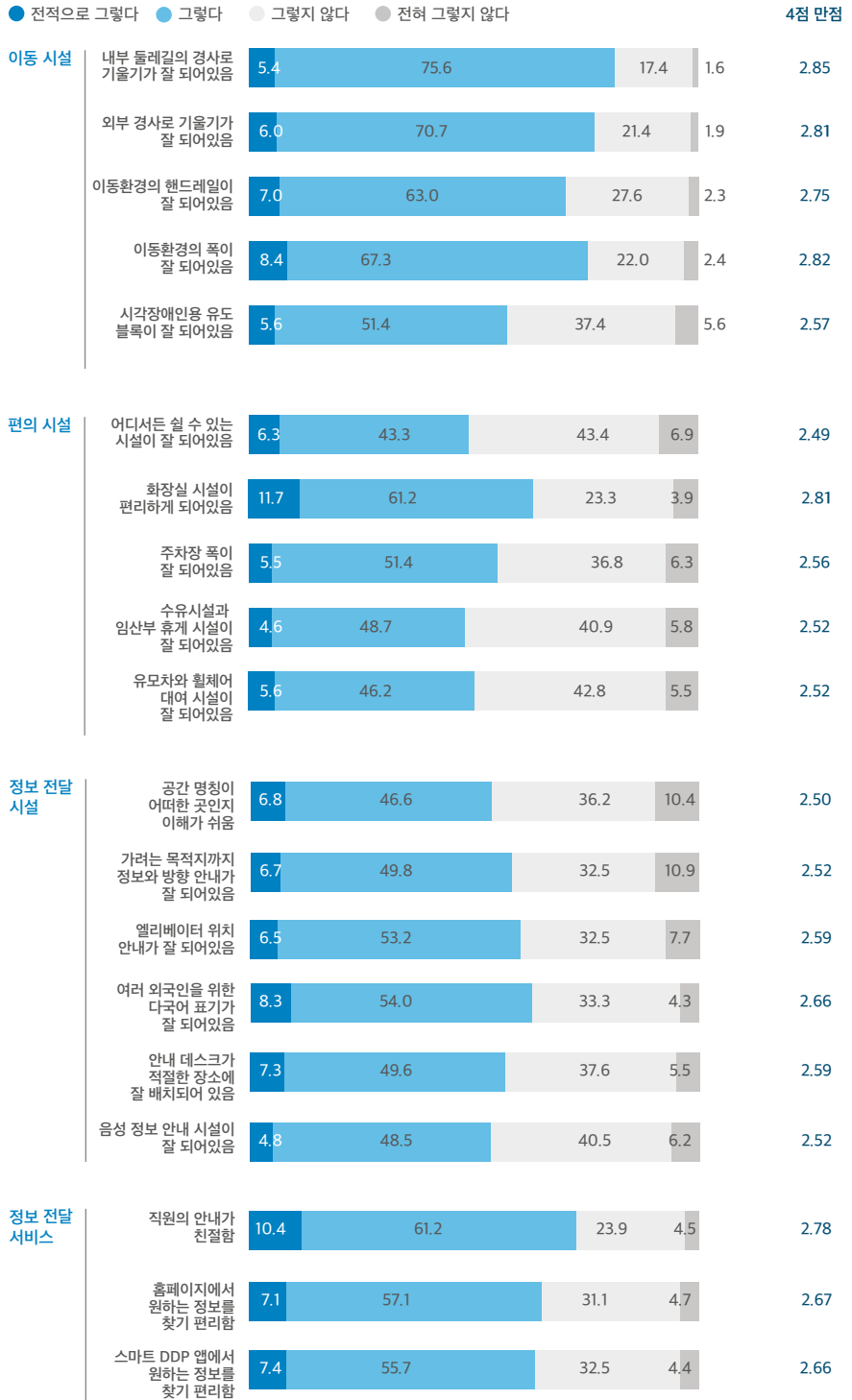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동의	비동의	4점 만점
전체		(1619)	67.1	32.9	2.70
성별	남	(755)	70.6	29.4	2.75
	여	(864)	64.0	36.0	2.66
연령	20대	(443)	68.2	31.8	2.73
	30대	(439)	66.3	33.7	2.71
	40대	(381)	65.4	34.6	2.66
	50대 이상	(356)	68.5	31.5	2.70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08)	62.5	37.5	2.64
	도심생활권	(98)	57.1	42.9	2.58
	동북1생활권	(248)	69.4	30.6	2.72
	동북2생활권	(272)	68.0	32.0	2.73
	서남1생활권	(166)	68.7	31.3	2.76
	서남2생활권	(147)	70.7	29.3	2.72
	서남3생활권	(146)	63.0	37.0	2.65
	동남1생활권	(158)	73.4	26.6	2.77
동남2생활권	(176)	66.5	33.5	2.69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21)	62.9	37.1	2.67
	300~499만원	(536)	67.0	33.0	2.70
	500만원 이상	(762)	68.9	31.1	2.72

보다 구체적으로 DDP 유니버설디자인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내부/외부 둘레길 경사로 기울기’, ‘화장실 시설’, ‘직원 안내’가 잘 되어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DDP ‘공간 명칭이 이해가 쉽다’, ‘가려는 목적지까지 정보와 방향 안내가 잘 되어 있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편리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주차장 폭이 잘 되어있다’의 속성에 대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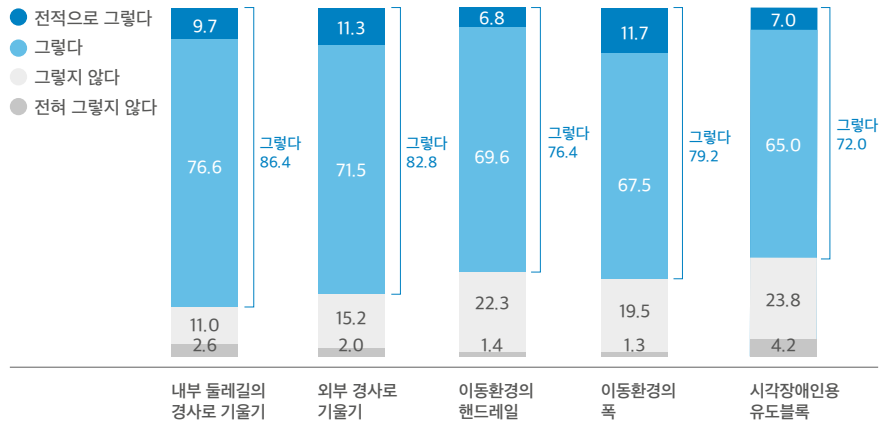
[그림 6-27] DDP 시설별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적용 정도(일반 시민)

(단위: %)



다음은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DDP 내 이동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내부 돌레길의 경사로 기울기(86.4%)’, ‘외부 경사로 기울기(82.8%)’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가 높았고,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72.0%)’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가 낮았다. 특히 외국인 그룹은 ‘외부 경사로 기울기’, ‘이동환경의 핸드레일’, ‘이동환경의 폭’에 대해 모두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장애인 그룹은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에 대해 가장 낮은 적용 정도를 표했다.

[그림 6-28]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동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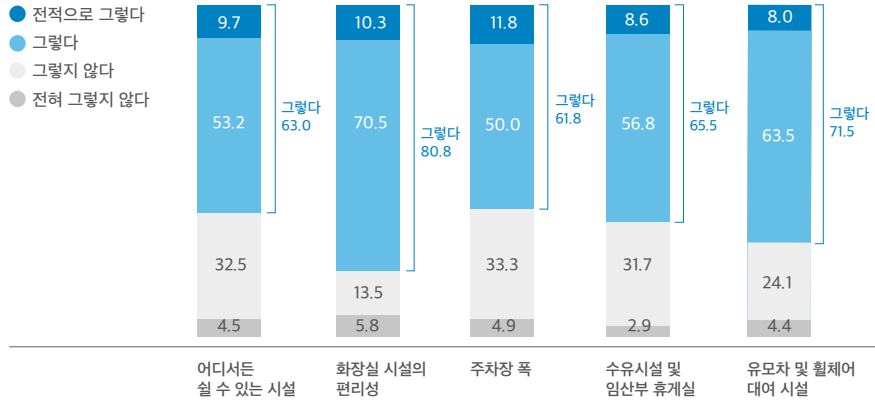
[표 6-3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동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2018년	(Base)	내부 돌레길의 경사로 기울기		외부 경사로 기울기		이동환경의 핸드레일		이동환경의 폭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60)	86.4	13.6	82.8	17.2	76.4	23.6	79.2	20.8	72.0	28.0
응답자 구분	장애인 (20)	89.5	10.5	89.5	10.5	83.3	16.7	77.8	22.2	44.4	55.6
	임산부 (46)	84.4	15.6	80.0	20.0	73.8	26.2	82.6	17.4	80.0	20.0
	고령자 (28)	85.7	14.3	78.6	21.4	57.1	42.9	64.3	35.7	57.7	42.3
	영유아 동반자 (31)	76.7	23.3	67.9	32.1	69.0	31.0	65.5	34.5	65.5	34.5
	외국인 (35)	96.9	3.1	100.0	0.0	100.0	0.0	100.0	0.0	96.7	3.3

다음으로는 DDP 내 편의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화장실 시설의 편리성’이 80.8%로 가장 높았고,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 시설’(71.5%), ‘수유시설 및 임산부 휴게시설’(65.5%), ‘어디서든 쉴 수 있는 시설’(63.0%), ‘주차장 폭’(61.8%) 순으로 나타났다. ‘어디서든 쉴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은 100.0%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나, 고령자는 28.6%로 가장 낮은 응답을 하였다.

[그림 6-29]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편의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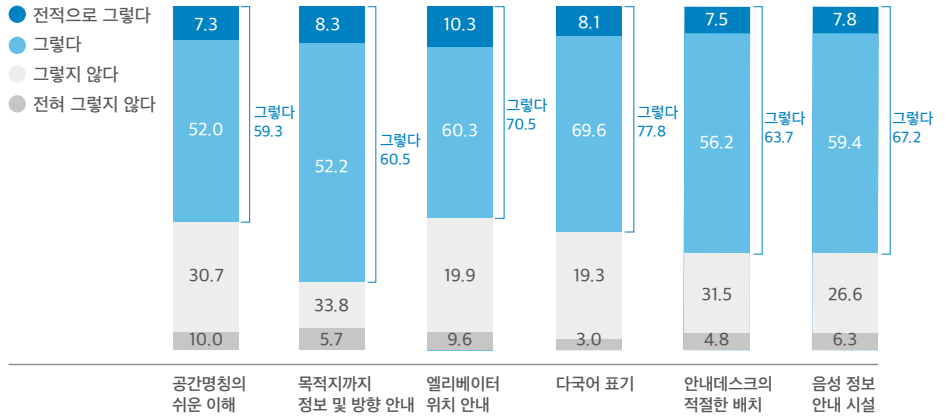
[표 6-32]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편의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2018년	(Base)	어디서든 설 수 있는 시설		화장실 시설의 편리성		주차장 폭		수유시설 및 임산부 휴게 시설		유모차 및 휠체어 대어 시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60)	63.0	37.0	80.8	19.2	61.8	38.2	65.5	34.5	71.5	28.5	
응답자 구분	장애인	(20)	73.7	26.3	63.2	36.8	57.1	42.9	60.0	40.0	60.0	40.0
	임산부	(46)	63.6	36.4	87.0	13.0	59.5	40.5	68.4	31.6	70.0	30.0
	고령자	(28)	28.6	71.4	75.0	25.0	39.3	60.7	56.0	44.0	56.0	44.0
	영유아 동반자	(31)	46.7	53.3	80.0	20.0	59.3	40.7	44.8	55.2	69.2	30.8
	외국인	(35)	100.0	0.0	87.9	12.1	87.9	12.1	90.6	9.4	93.5	6.5

DDP 정보전달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국어 표기’가 77.8%로 가장 높았고,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70.5%), ‘음성정보 안내시설’(67.2%), ‘안내데스크의 적절한 배치’(63.7%), ‘목적지까지 정보 및 방향 안내’(60.5%), ‘공간명칭의 쉬운 이해’(59.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다국어 표기’ 및 ‘안내데스크의 적절한 배치’는 100%로 높은 적용 정도를 나타냈고, 고령자의 ‘공간명칭의 쉬운 이해’가 32.1%로 가장 낮았다.

[그림 6-3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정보전달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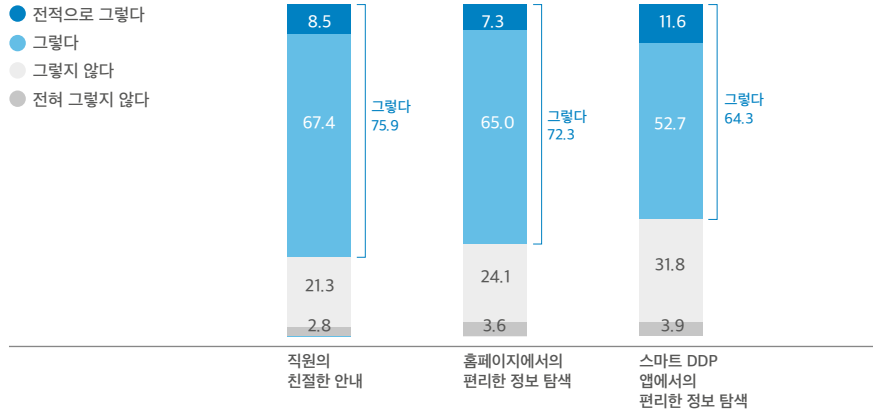
[표 6-33]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정보전달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2018년	(Base)	공간명칭의 쉬운 이해		목적지까지 정보 및 방향 안내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		다국어 표기		안내데스크의 적절한 배치		음성정보 안내 시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60)	59.3	40.7	60.5	39.5	70.5	29.5	77.8	22.2	63.7	36.3	67.2	32.8	
응답자 구분	장애인	(20)	52.9	47.1	50.0	50.0	75.0	25.0	58.8	41.2	63.2	36.8	45.5	54.5
	임산부	(46)	58.1	41.9	58.7	41.3	66.7	33.3	85.0	15.0	58.7	41.3	73.2	26.8
	고령자	(28)	32.1	67.9	50.0	50.0	60.7	39.3	60.7	39.3	46.4	53.6	42.3	57.7
	영유아 동반자	(31)	50.0	50.0	45.2	54.8	53.3	46.7	76.9	23.1	60.0	40.0	64.0	36.0
	외국인	(35)	96.9	3.1	93.8	6.3	97.0	3.0	100.0	0.0	100.0	0.0	96.0	4.0

DDP 정보전달서비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직원의 친절 한 안내’가 75.9%로 가장 높았고, ‘홈페이지에서의 편리한 정보 탐색’이 72.3%, ‘스마트 DDP앱에서의 편리한 정보 탐색’이 64.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그룹의 응답 중 ‘직원의 친절 한 안내’는 100%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그룹의 응답 중 ‘스마트 DDP앱에서의 편리한 정보 탐색’이 가장 낮았다.

[그림 6-3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정보전달 서비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표 6-34]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정보전달 서비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

(단위: %)

2018년		(Base)	직원의 친절한 안내		홈페이지에서의 편리한 정보 탐색		스마트 DDP 앱에서의 편리한 정보 탐색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60)	75.9	24.1	72.3	27.7	64.3	35.7
응답자 구분	장애인	(20)	68.8	31.3	53.3	46.7	33.3	66.7
	임산부	(46)	74.4	25.6	76.7	23.3	65.9	34.1
	고령자	(28)	70.4	29.6	63.0	37.0	53.8	46.2
	영유아동반자	(31)	66.7	33.3	69.2	30.8	60.0	40.0
	외국인	(35)	100.0	0.0	88.5	11.5	92.0	8.0

6-2-3.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가) 유니버설디자인 기존 정책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존 정책 및 사업(컨설팅, 공공공간 적용, 교육, 전시회 및 세미나, 연구)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인지도, 중요도, 효과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①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그림 6-32]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 복지관, 경로당, 요양시설, 도서관 등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이나 취약한 환경의 복지시설에 가이드라인에 맞게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할 때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시민들을 참여시켜 모니터링을 하는 활동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안내데스크 설치



직관적 인지 가능한 디자인 적용



안전을 고려한 놀이공간 조성

먼저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활동에 대해 들어보거나 그 결과물을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 응답자의 36.0%는 ‘안다’, 64.0%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의 중요도에 대해 95.2%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60.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정책의 중요도(95.2%) 대비 효과성(60.0%)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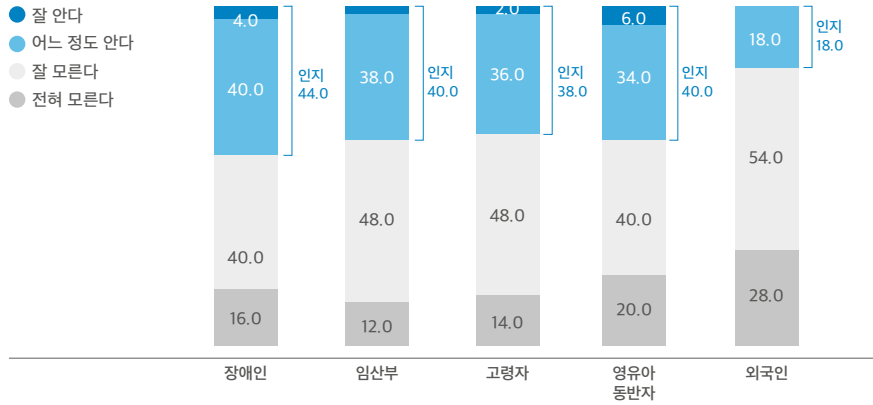
[표 6-35]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인지도/중요도/효과성

(단위: %)

2018년	(Base)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인지도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중요도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효과성		
		안다	모른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36.0	64.0	95.2	4.8	60.0	40.0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44.0	56.0	90.0	10.0	58.0	42.0
	임산부	(50)	40.0	60.0	96.0	4.0	54.0	46.0
	고령자	(50)	38.0	62.0	94.0	6.0	52.0	48.0
	영유아동반자	(50)	40.0	60.0	96.0	4.0	52.0	48.0
	외국인	(50)	18.0	82.0	100.0	0.0	84.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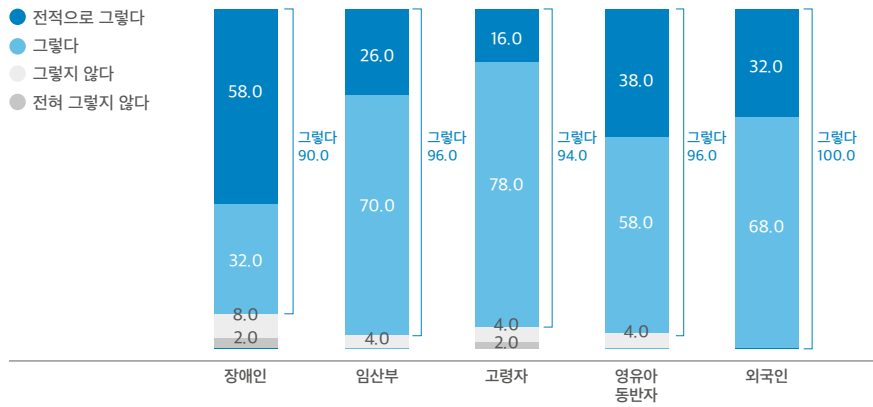
[그림 6-33]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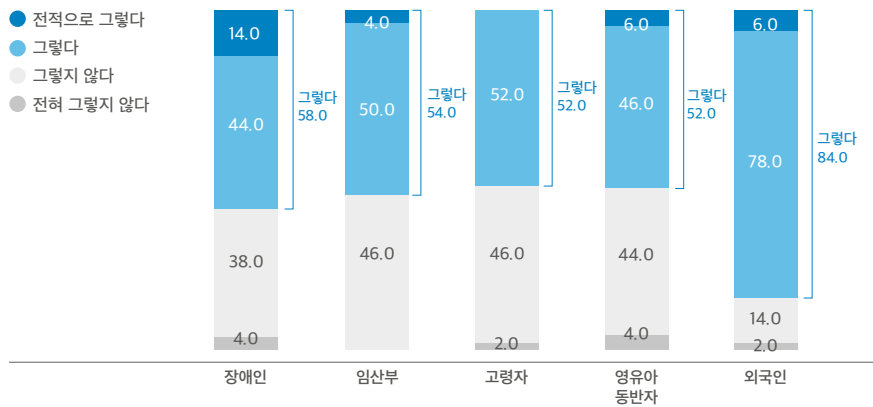
[그림 6-34]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중요도

(단위: %)



[그림 6-35]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효과성

(단위: %)



②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그림 6-36]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하여 설치
- 편리한 길 찾기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함
- 예시 :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2017년 성동구보건소 진입로 및 내·외부 총 15개 공간 디자인 적용



고원식 횡단보도, 보도 평탄화 및 유효폭 확대 등

경사로 확폭(1.8m → 3.5m), 여닫이문 → 자동문 등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해 들어보거나 그 결과물을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 응답자의 43.0%는 ‘안다’, 57.0%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의 중요도에 대해 94.0%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62.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정책의 중요도(94.0%) 대비 효과성(62.2%)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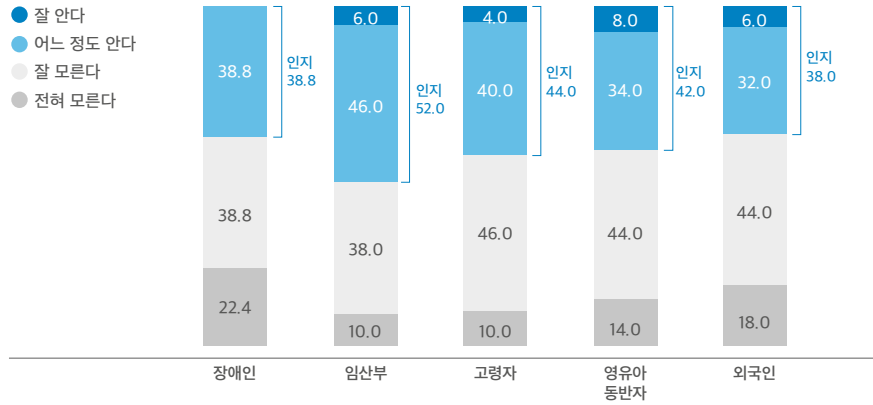
[표 6-36]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인지도/중요도/효과성

(단위: %)

2018년	(Base)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인지도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중요도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효과성		
		안다	모른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43.0	57.0	94.0	6.0	62.2	37.8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38.8	61.2	93.9	6.1	59.2	40.8
	임산부	(50)	52.0	48.0	94.0	6.0	56.0	44.0
	고령자	(50)	44.0	56.0	92.0	8.0	46.0	54.0
	영유아동반자	(50)	42.0	58.0	92.0	8.0	66.0	34.0
	외국인	(50)	38.0	62.0	98.0	2.0	84.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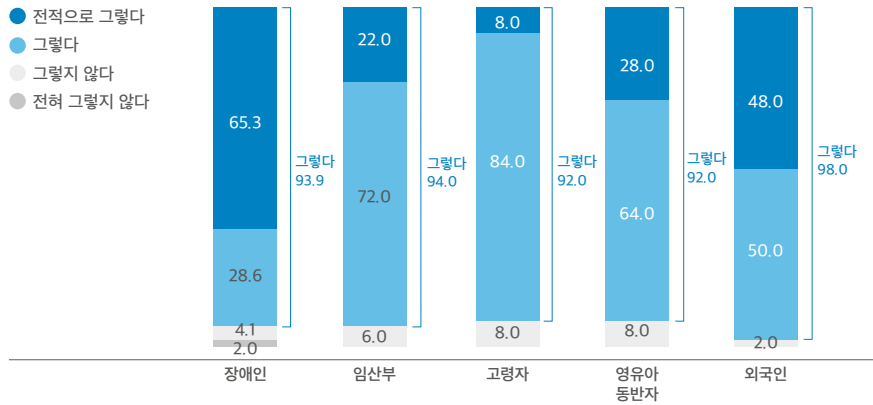
[그림 6-37]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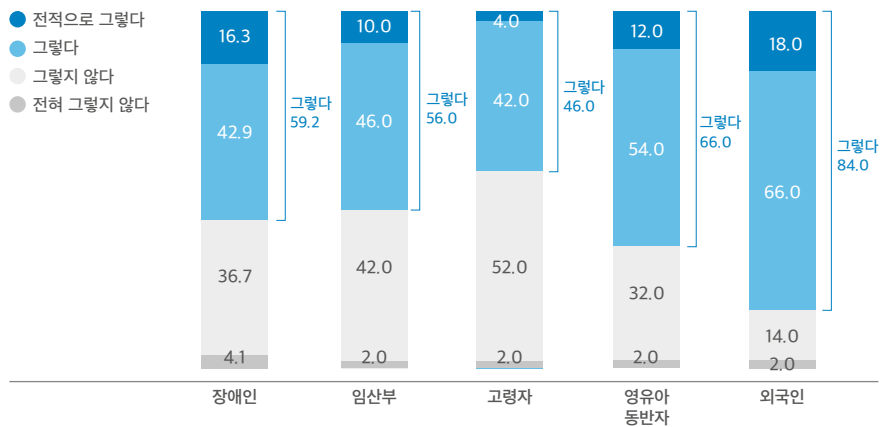
[그림 6-38]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중요도

(단위: %)



[그림 6-39]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효과성

(단위: %)



③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그림 6-40]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 창의 교육(2017)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교육을 진행하거나, 시, 자치구, 사업소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형 교육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함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활동에 대해 들어보거나 그 결과물을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 응답자의 21.3%는 ‘안다’, 78.7%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의 중요도에 대해 92.0%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56.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정책의 중요도(92.0%) 대비 효과성(56.2%)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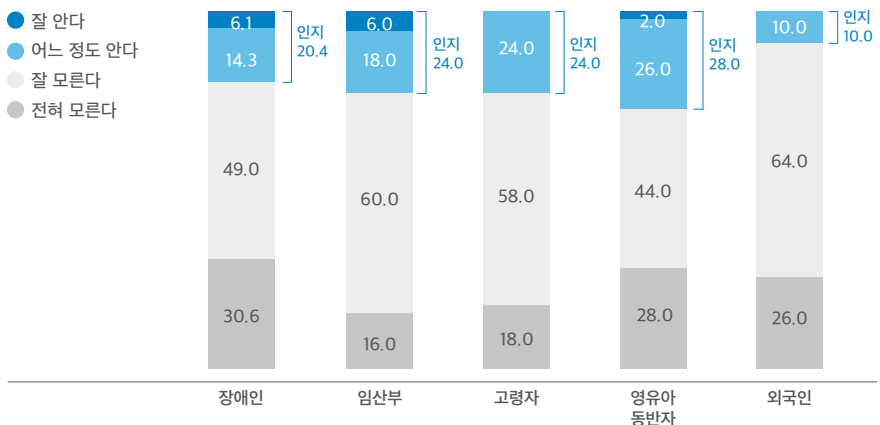
[표 6-37]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인지도/중요도/효과성

(단위: %)

2018년	(Base)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인지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중요도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효과성		
		안다	모른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21.3	78.7	92.0	8.0	56.2	43.8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20.4	79.6	93.9	6.1	59.2	40.8
	임산부	(50)	24.0	76.0	86.0	14.0	46.0	54.0
	고령자	(50)	24.0	76.0	96.0	4.0	46.0	54.0
	영유아동반자	(50)	28.0	72.0	88.0	12.0	52.0	48.0
	외국인	(50)	10.0	90.0	96.0	4.0	78.0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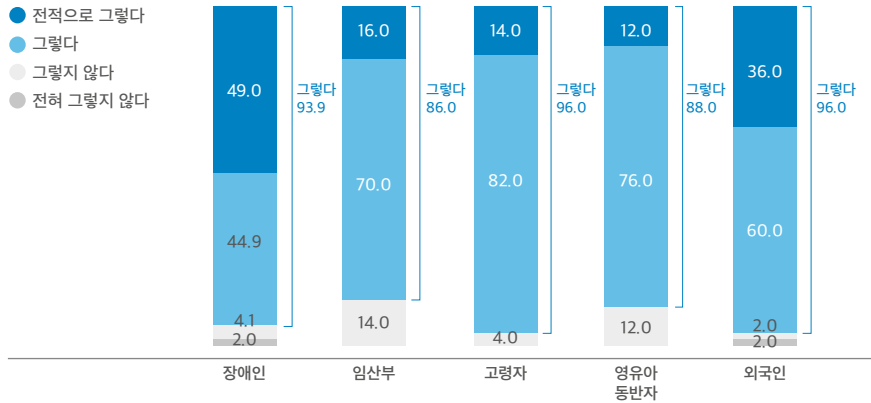
[그림 6-41]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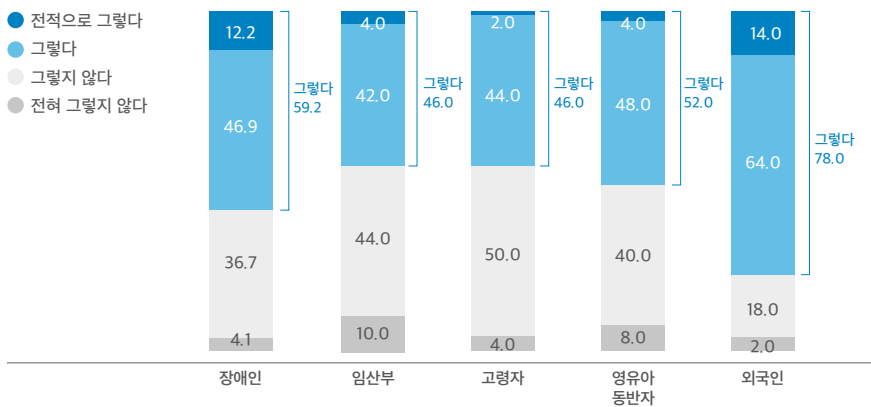
[그림 6-4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중요도

(단위: %)



[그림 6-43]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효과성

(단위: %)



④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그림 6-44]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2017)

- 전시회, 세미나, 박람회를 열어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와 국내외 사례를 공유함
- 유니버설디자인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함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2017)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2017)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활동에 대해 들어보거나 그 결과물을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 응답자의 21.3%는 ‘안다’, 78.7%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의 중요도에 대해 81.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48.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정책의 중요도(81.1%) 대비 효과성(48.6%)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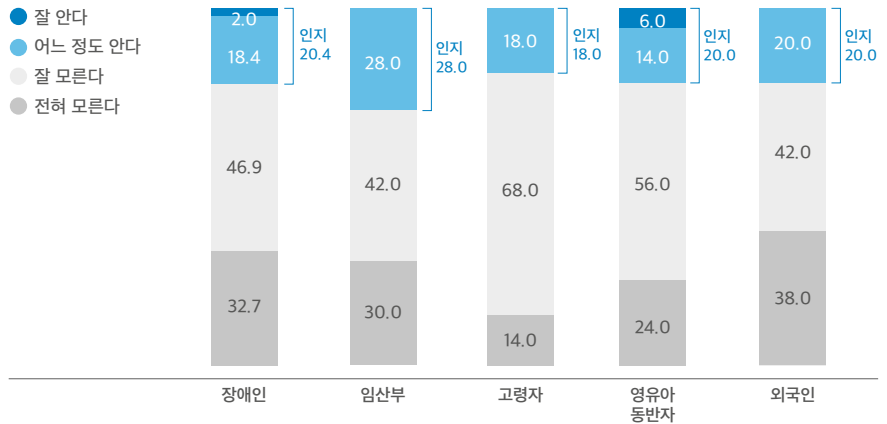
[표 6-38]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인지도/중요도/효과성

(단위: %)

2018년	(Base)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인지도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중요도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효과성		
		안다	모른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21.3	78.7	81.1	18.9	48.6	51.4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20.4	79.6	87.8	12.2	44.9	55.1
	임산부	(50)	28.0	72.0	66.0	34.0	28.0	72.0
	고령자	(50)	18.0	82.0	86.0	14.0	48.0	52.0
	영유아동반자	(50)	20.0	80.0	72.0	28.0	44.0	56.0
	외국인	(50)	20.0	80.0	94.0	6.0	78.0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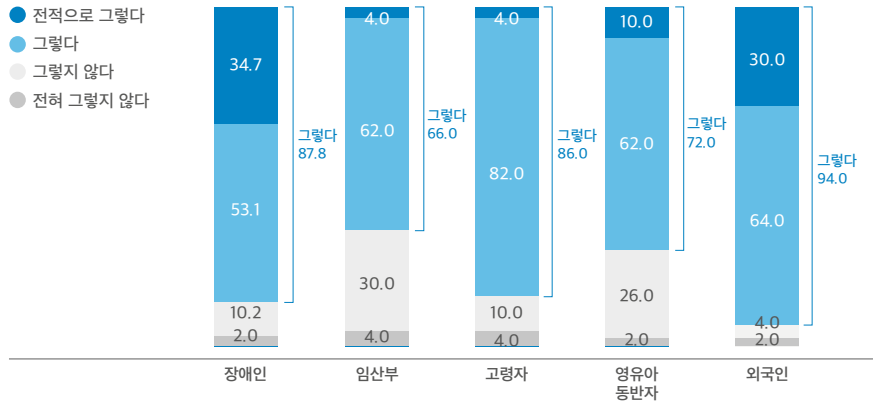
[그림 6-45]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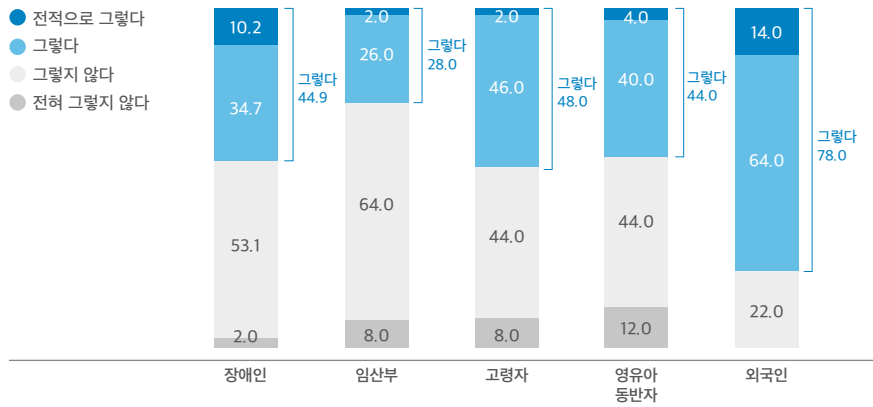
[그림 6-46]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중요도

(단위: %)



[그림 6-47]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효과성

(단위: %)



⑤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그림 6-48] 교통약자를 위해 서울지하철 환승. 이동을 위한 지도 개발 (2017)

-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나 가이드, 온라인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소통형·유니버설디자인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시공모니터링과 사인시스템을 연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개발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활동에 대해 들어보거나 그 결과물을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 응답자의 23.3%는 ‘안다’, 76.7%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의 중요도에 대해 92.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56.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정책의 중요도(92.8%) 대비 효과성(56.2%)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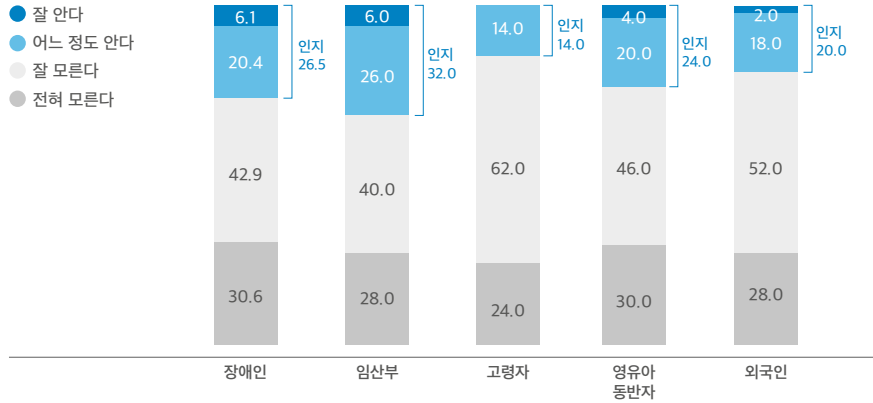
[표 6-39]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인지도/중요도/효과성

(단위: %)

2018년	(Base)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인지도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중요도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효과성		
		안다	모른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250)	23.3	76.7	92.8	7.2	56.2	43.8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26.5	73.5	95.9	4.1	46.9	53.1
	임산부	(50)	32.0	68.0	92.0	8.0	52.0	48.0
	고령자	(50)	14.0	86.0	94.0	6.0	46.0	54.0
	영유아동반자	(50)	24.0	76.0	86.0	14.0	50.0	50.0
	외국인	(50)	20.0	80.0	96.0	4.0	86.0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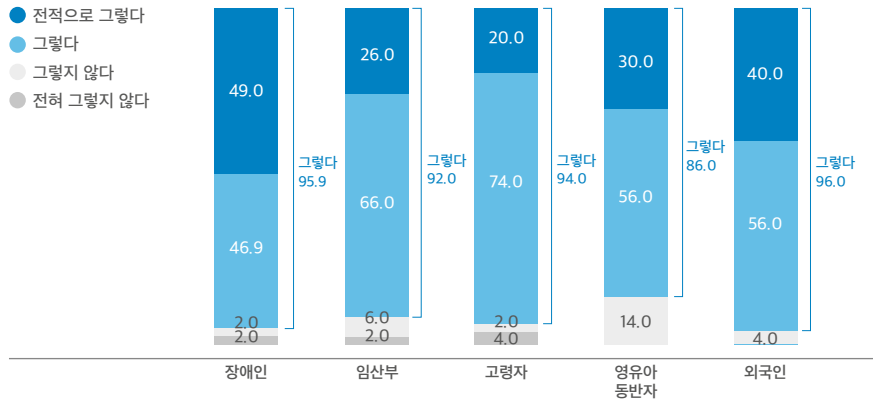
[그림 6-49]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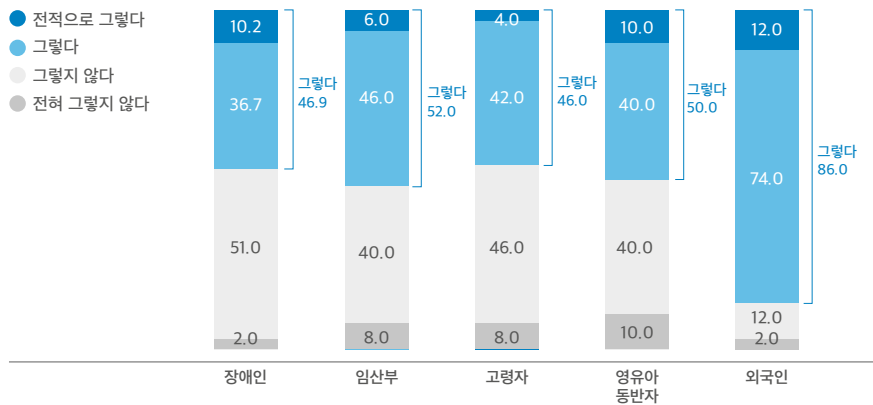
[그림 6-50]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중요도

(단위: %)



[그림 6-51]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효과성

(단위: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지도는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43.0%),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36.0%), 유니버설디자인 연구(23.3%),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21.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

중요도 측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95.2%),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94.0%), 유니버설디자인 연구(92.8%), 유니버설디자인 교육(92.0%),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81.1%)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유니버설디자인 그룹은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보다 덜 인지하고 있으나 중요도는 더 높다고 평가한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62.2%)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다음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60.0%), 유니버설디자인 교육(56.2%) 및 유니버설디자인 연구(56.2%),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48.6%)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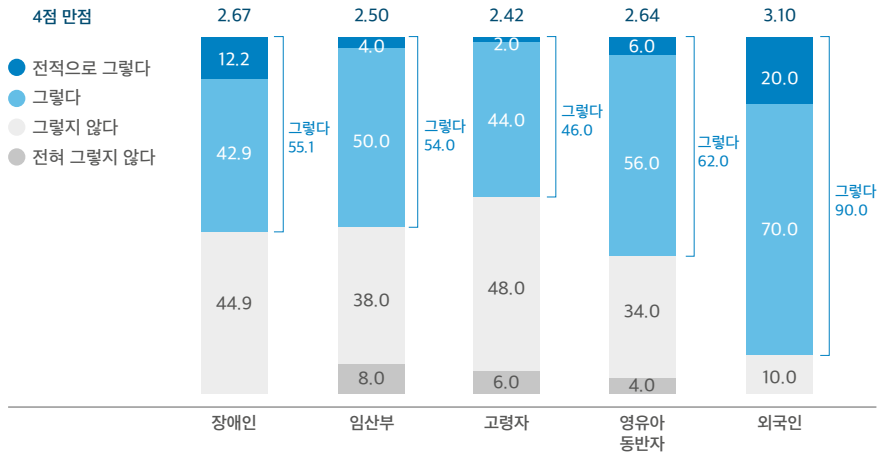
상기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전체적인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려면 각 정책의 중요도를 고려해야한다. 중요도가 큰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도를 가중치로 한 각 정책의 상대적인 효과성(즉, 효과성 x 중요도)은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58.5%),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57.1%), 유니버설디자인 연구(52.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51.7%),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39.4%) 사업 순이다. 이는 정책 전체의 효과성에 대한 각 정책의 기여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⑥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전반의 만족도

위와 같은 서울시 및 서울디자인재단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제시하여 각각 평가한 뒤, 전반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및 정책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4%는 만족하였고, 38.6%는 불만족하였다. 외국인 그룹이 90.0%로 가장 만족하였고, 고령자 그룹이 54.0%로 가장 불만족 정도가 높았다.

[그림 6-5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전반의 만족도

(단위: %)



[표 6-40]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전반의 만족도

(단위: %)

2018년		(Base)	만족	불만족	4점 만점
전체		(250)	61.4	38.6	2.67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55.1	44.9	2.67
	임산부	(50)	54.0	46.0	2.50
	고령자	(50)	46.0	54.0	2.42
	영유아동반자	(50)	62.0	38.0	2.64
	외국인	(50)	90.0	10.0	3.10

나) 유니버설디자인 신규 정책

①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다음의 9가지 보기를 제시한 뒤, 1~3순위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 거리보행 편의시설(인도, 경사로, 횡단보도 등)
- 대중교통시설(버스, 지하철, 택시, 각 정류장 등)
- 공공 시설물(관광안내판, 공중전화, 교통카드 판매기, 엘리베이터 등)
- 공공 청사(주민센터, 우체국, 구청, 시청 등)
- 도시 휴식 공간(공원, 광장, 놀이터, 산책로 등)
- 복지시설(고령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 교육 시설(학교, 도서관 등)
- 문화 시설(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등)
- 상업 시설(음식점, 호텔, 백화점 등 판매시설 등)

조사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시설(27.6%)’, ‘거리보행 편의시설(26.8%)’이 가장 높았고, ‘공공청사 및 상업시설(2.0%)’이 가장 낮았다. 특히 본 문항에서는 그룹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외국인 그룹의 ‘대중교통시설(38.0%)’에 대한 의견과 장애인 그룹의 ‘거리보행 편의시설(38.0%)’에 관한 의견이 가장 높았고, 임산부 또한 ‘거리보행 편의시설(30.0%)’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고령자는 ‘복지시설(26.0%)’에 관한 응답이 높았고, 영유아 동반자는 ‘대중교통시설(22%)’ 및 ‘거리보행편의시설(22%)’에 관한 응답 수준이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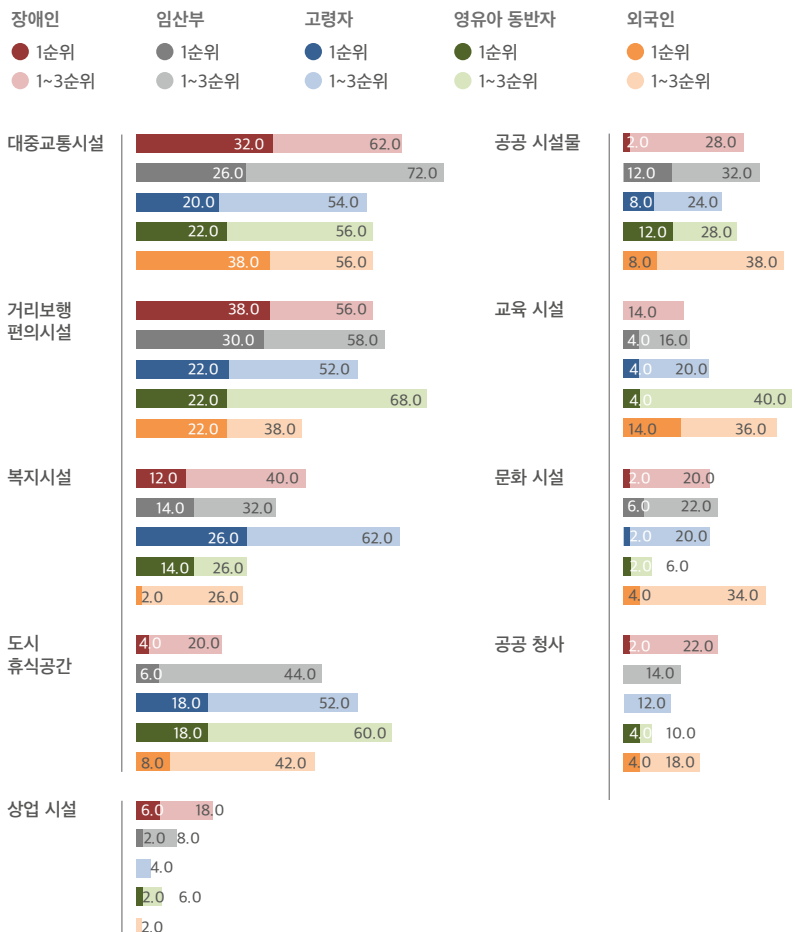
[표 6-41]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

(단위: %)

2018년 1순위 기준		(Base)	대중교통시설	거리 보행 편의시설	복지 시설	도시 휴식 공간	공공 시설물	교육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청사	상업 시설
전체		(250)	27.6	26.8	13.6	10.8	8.4	5.2	3.2	2.0	2.0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32.0	38.0	12.0	4.0	2.0	0.0	2.0	2.0	6.0
	임산부	(50)	26.0	30.0	14.0	6.0	12.0	4.0	6.0	0.0	2.0
	고령자	(50)	20.0	22.0	26.0	18.0	8.0	4.0	2.0	0.0	0.0
	영유아동반자	(50)	22.0	22.0	14.0	18.0	12.0	4.0	2.0	4.0	2.0
	외국인	(50)	38.0	22.0	2.0	8.0	8.0	14.0	4.0	4.0	0.0

[그림 6-53]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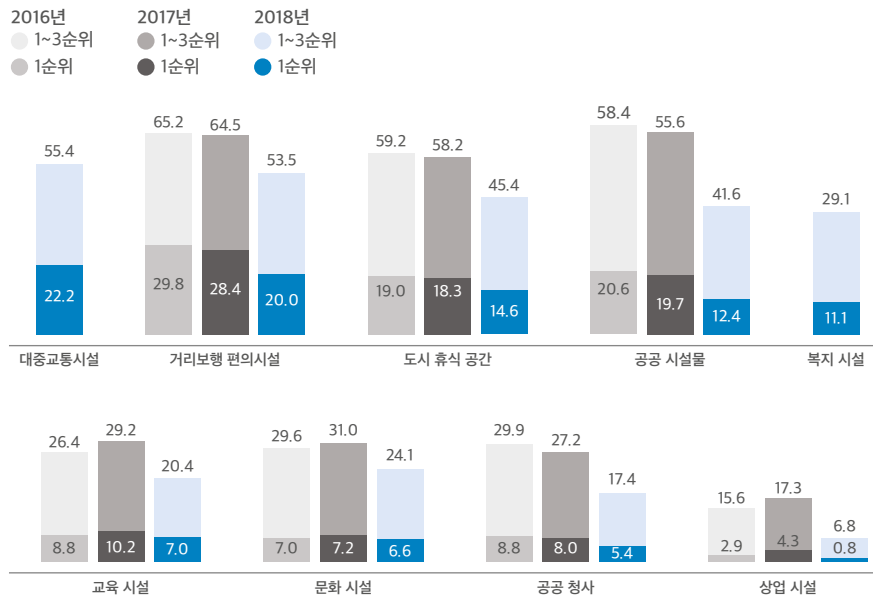
(단위: %)



일반 시민 대상 조사결과, ‘대중교통시설(22.2%)’, ‘거리보행 편의시설(20.0%)’, ‘도시휴식 공간(14.6%)’, ‘공공 시설물(12.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도심생활권 거주자는 ‘거리보행 편의시설’, 서남 3생활권 거주자는 ‘도시 휴식 공간’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복지시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의견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6-54]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일반 시민)

(단위: %)



[표 6-42]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일반 시민)

(단위: %)

2018년		(Base)	대중 교통 시설	거리 보행 편의 시설	도시 휴식 공간	공공 시설물	복지 시설	교육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청사	상업 시설
전체		(2500)	22.2	20.0	14.6	12.4	11.1	7.0	6.6	5.4	0.8
성별	남	(1241)	22.2	17.6	15.1	11.8	10.5	7.0	8.0	7.0	1.0
	여	(1259)	22.2	22.3	14.1	13.0	11.7	7.0	5.2	3.9	0.6
연령	20대	(588)	22.6	19.6	12.9	10.4	11.4	9.2	6.5	6.1	1.4
	30대	(631)	22.5	21.9	14.4	13.2	10.0	6.3	5.5	5.4	0.8
	40대	(655)	22.6	19.5	14.0	11.6	13.4	6.7	6.1	5.5	0.5
	50대 이상	(626)	20.9	18.8	16.8	14.4	9.4	5.9	8.3	4.8	0.6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24.2	23.6	12.5	12.1	11.1	7.7	4.0	4.4	0.3
	도심생활권	(129)	18.6	24.8	16.3	10.1	13.2	6.2	7.8	3.1	0.0
	동북1생활권	(365)	21.9	18.6	17.0	14.2	9.0	7.7	5.2	6.0	0.3
	동북2생활권	(411)	22.1	20.7	13.4	12.9	12.4	6.3	6.8	4.1	1.2
	서남1생활권	(270)	21.1	15.9	14.4	11.9	11.1	7.0	7.8	9.6	1.1
	서남2생활권	(259)	23.9	17.8	11.6	15.4	9.3	8.9	6.9	5.8	0.4
	서남3생활권	(239)	20.1	19.2	17.2	13.0	10.5	5.9	8.4	5.0	0.8
	동남1생활권	(249)	23.3	22.9	15.7	8.4	10.8	6.0	6.4	4.4	2.0
	동남2생활권	(281)	22.1	18.5	14.2	11.4	13.2	6.8	7.5	5.7	0.7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22.8	19.5	12.0	11.7	14.8	7.1	5.6	5.5	1.1
	300~499만원	(811)	21.9	20.5	15.2	12.8	10.6	6.4	6.2	5.9	0.5
	500만원 이상	(1140)	22.0	19.8	15.4	12.5	9.6	7.4	7.4	5.1	0.9

②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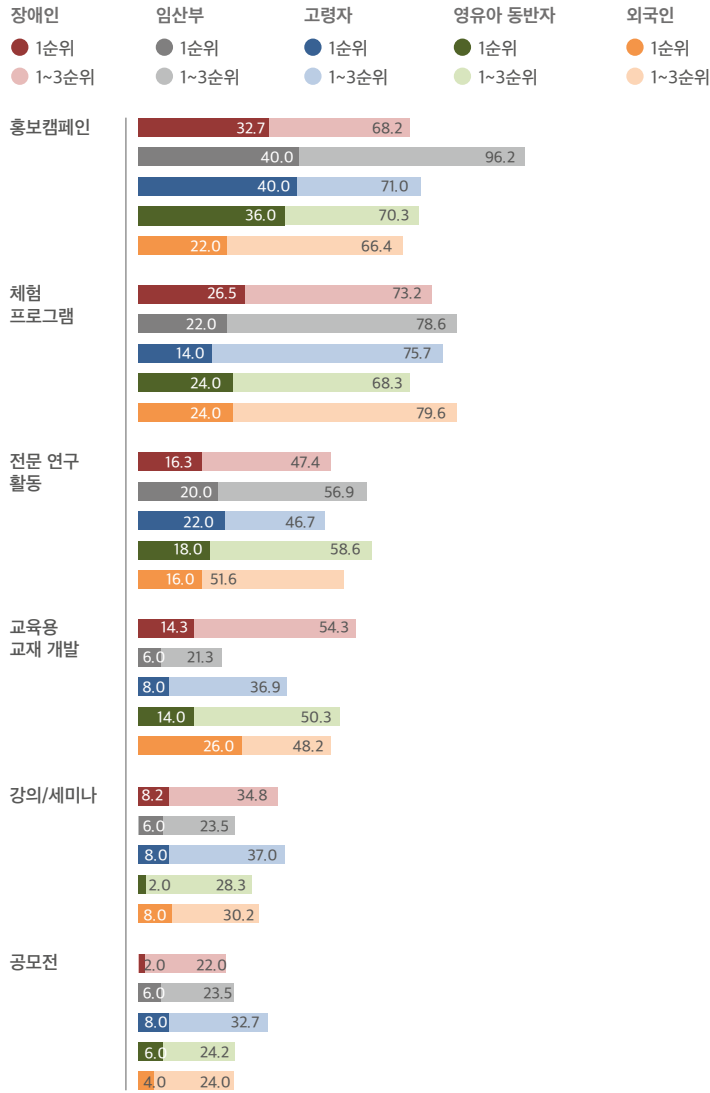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한 6가지 보기를 제시한 뒤, 1~3순위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용 교재 개발(교과서, 교구, 교육 자료 등)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프로그램(전시회, 상설체험관 등)
- 유니버설디자인 강의·세미나
- 유니버설디자인 전문 연구 활동
-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캠페인(공익광고 등)

조사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홍보 캠페인’이 34.1%로 가장 높았고, ‘체험 프로그램’(22.1%), ‘전문 연구 활동’(18.5%), ‘교육용 교재 개발’(13.7%)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모전’(5.2%)과 ‘강의 및 세미나’(6.4%)에 대한 응답은 낮았다.

[그림 6-55]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개선 사업

(단위: %)



[표 6-43]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개선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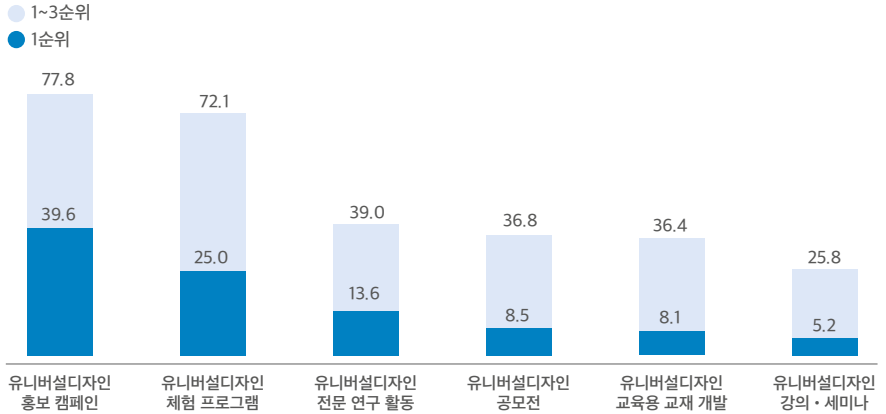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1순위 기준		(Base)	홍보 캠페인	체험 프로그램	전문 연구 활동	교육용 교재 개발	강의·세미나	공모전
전체		(250)	34.1	22.1	18.5	13.7	6.4	5.2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32.7	26.5	16.3	14.3	8.2	2.0
	임산부	(50)	40.0	22.0	20.0	6.0	6.0	6.0
	고령자	(50)	40.0	14.0	22.0	8.0	8.0	8.0
	영유아동반자	(50)	36.0	24.0	18.0	14.0	2.0	6.0
	외국인	(50)	22.0	24.0	16.0	26.0	8.0	4.0

일반 시민 대상의 조사결과,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캠페인(39.6%)’,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프로그램(25.0%)’,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연구 활동(1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식 개선 사업에 대해서 20대는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연구 활동’, 40대는 ‘체험 프로그램’, 50대 이상은 ‘홍보캠페인’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6-56]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개선 사업 (일반 시민)

(단위: %)



[표 6-44]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개선 사업 (일반 시민)

(단위: %)

2018년 1순위 기준		(Base)	홍보 캠페인	체험 프로그램	전문 연구 활동	공모전	교육용 교재 개발	강의 및 세미나
전체		(2500)	39.6	25.0	13.6	8.5	8.1	5.2
성별	남	(1241)	37.6	23.9	13.7	9.7	8.8	6.4
	여	(1259)	41.5	26.1	13.6	7.4	7.4	4.1
연령	20대	(588)	41.2	18.9	17.3	10.2	6.8	5.6
	30대	(631)	36.6	25.5	12.7	11.7	8.6	4.9
	40대	(655)	37.9	28.7	12.5	6.6	9.3	5.0
	50대 이상	(626)	42.8	26.2	12.3	5.8	7.5	5.4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35.7	27.3	14.8	9.8	7.7	4.7
	도심생활권	(129)	34.9	30.2	16.3	10.1	6.2	2.3
	동북1생활권	(365)	43.0	23.8	12.6	9.3	7.4	3.8
	동북2생활권	(411)	38.2	25.5	14.1	9.2	8.8	4.1
	서남1생활권	(270)	40.7	23.3	10.7	7.0	8.9	9.3
	서남2생활권	(259)	41.3	27.0	8.5	5.4	12.4	5.4
	서남3생활권	(239)	37.2	25.1	17.6	9.6	5.4	5.0
	동남1생활권	(249)	40.2	23.3	12.9	8.8	8.8	6.0
동남2생활권	(281)	42.0	21.7	16.7	7.5	6.0	6.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39.5	24.0	14.6	10.2	6.9	4.7
	300~499만원	(811)	39.2	25.8	13.2	8.3	8.9	4.7
	500만원 이상	(1140)	39.8	24.8	13.5	7.9	8.1	5.9

③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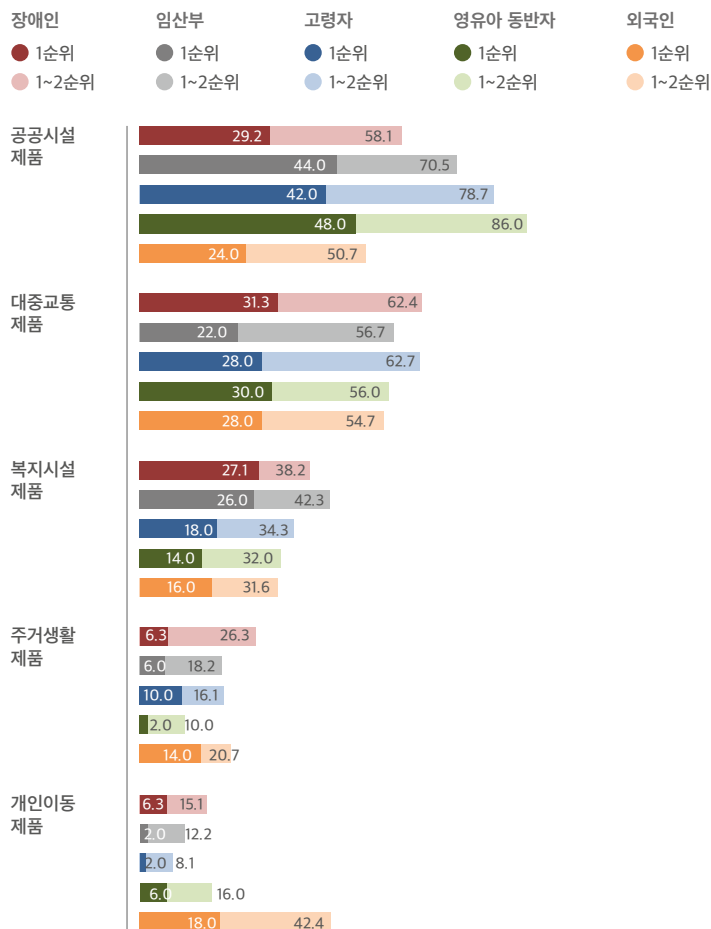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형에 대한 5가지 보기를 제시한 뒤, 1~2순위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 주거생활제품(생활가구,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적용)
- 복지시설제품(고령자 및 장애인 요양시설, 활동 보조기 등 적용)
- 개인이동제품(수동·전동휠체어, 스마트 모빌리티, 자동차 등 적용)
- 대중교통제품(버스, 지하철, 택시의 각 역사 및 정류장 등 적용)
- 공공시설제품(인도·차도, 횡단보도, 엘리베이터, 주민센터, 공원 등 적용)

조사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공공시설제품’이 37.5%로 가장 높았고, ‘대중교통제품’ 27.8%, ‘복지시설제품’이 20.2%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이동제품’(6.9%)과 ‘주거생활제품’(7.7%)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나타냈다.

[그림 6-57]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형

(단위: %)



[표 6-45]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형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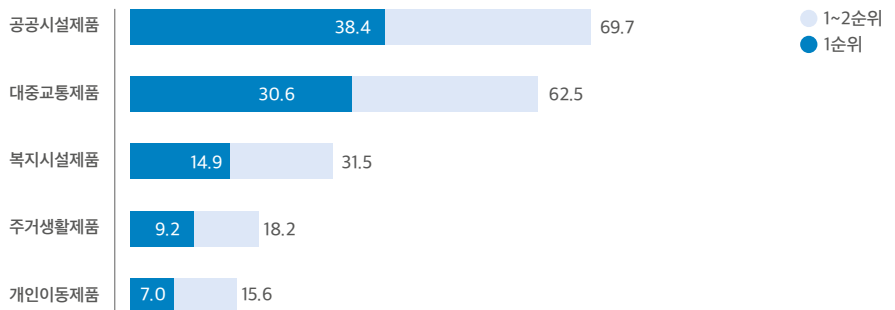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1순위 기준		(Base)	공공시설제품	대중교통제품	복지시설제품	주거생활제품	개인이동제품
전체		(250)	37.5	27.8	20.2	7.7	6.9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29.2	31.3	27.1	6.3	6.3
	임산부	(50)	44.0	22.0	26.0	6.0	2.0
	고령자	(50)	42.0	28.0	18.0	10.0	2.0
	영유아동반자	(50)	48.0	30.0	14.0	2.0	6.0
	외국인	(50)	24.0	28.0	16.0	14.0	18.0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제품을 조사한 결과, ‘공공시설제품(38.4%)’, ‘대중교통제품(3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41.1%)과 동남2생활권(43.4%)의 ‘공공시설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도심생활권(20.9%)에서의 ‘복지시설제품’에 대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6-58]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형 (일반 시민)

(단위: %)



[6-46]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유형(일반 시민)

(단위: %)

2018년		(Base)	공공시설제품	대중교통제품	복지시설제품	주거생활제품	개인이동제품
전체		(2500)	38.4	30.6	14.9	9.2	7.0
성별	남	(1241)	35.5	29.7	15.6	10.9	8.4
	여	(1259)	41.1	31.5	14.2	7.5	5.6
연령	20대	(588)	36.4	31.3	14.6	8.5	9.2
	30대	(631)	38.4	30.4	15.4	8.7	7.1
	40대	(655)	38.8	32.1	14.0	8.1	7.0
	50대 이상	(626)	39.8	28.6	15.5	11.5	4.6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37.7	31.3	13.8	8.8	8.4
	도심생활권	(129)	32.6	32.6	20.9	7.8	6.2
	동북1생활권	(365)	38.1	30.7	15.1	6.8	9.3
	동북2생활권	(411)	38.4	31.9	13.9	10.5	5.4
	서남1생활권	(270)	40.4	29.3	11.9	10.7	7.8

2018년		(Base)	공공시설제품	대중교통제품	복지시설제품	주거생활제품	개인이동제품
	서남2생활권	(259)	35.9	32.8	15.8	8.9	6.6
	서남3생활권	(239)	38.9	30.5	15.1	7.1	8.4
	동남1생활권	(249)	36.5	30.1	14.9	11.2	7.2
	동남2생활권	(281)	43.4	26.7	16.4	10.3	3.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36.8	29.5	16.8	8.4	8.6
	300~499만원	(811)	41.4	29.5	14.3	8.5	6.3
	500만원 이상	(1140)	36.9	31.9	14.4	10.1	6.7

④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 방식 및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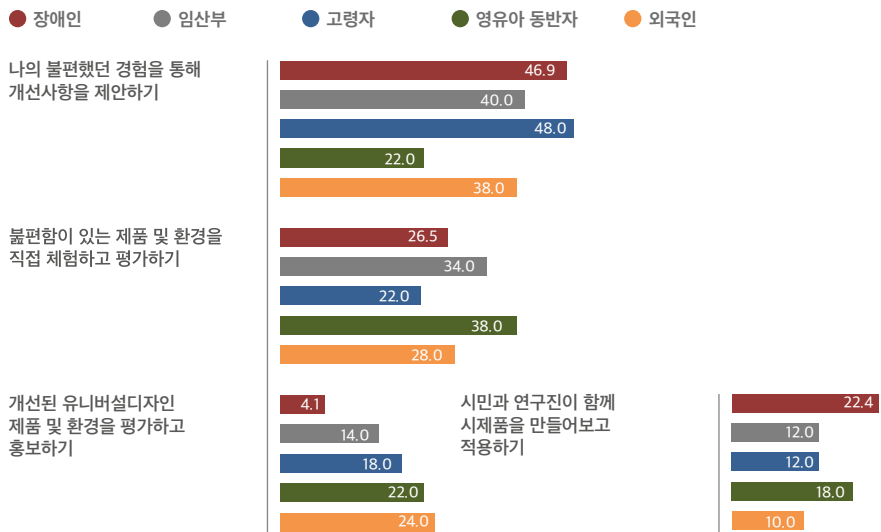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를 통한 개선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 4가지 보기를 제시한 뒤 응답하게 하였다.

-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기
- 시민과 연구진이 함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적용하기
- 개선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환경을 평가하고 홍보하기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39.0%)’를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기(29.7%)’, ‘개선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환경을 평가하고 홍보하기(16.5%)’, ‘시민과 연구진이 함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적용하기(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59]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 방식

(단위: %)



[표 6-47]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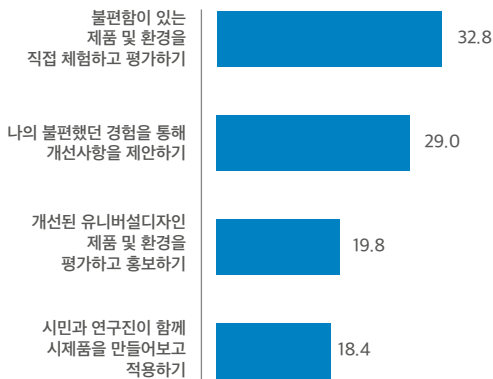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기	개선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환경을 평가하고 홍보하기	시민과 연구진이 함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적용하기	
전체	(250)	39.0	29.7	16.5	14.9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46.9	26.5	4.1	22.4
	임산부	(50)	40.0	34.0	14.0	12.0
	고령자	(50)	48.0	22.0	18.0	12.0
	영유아동반자	(50)	22.0	38.0	22.0	18.0
	외국인	(50)	38.0	28.0	24.0	10.0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조사한 결과,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 개선활동으로 중요한 방법은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체험하고 평가하기(3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선된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및 환경 평가하고 홍보하기’가 시민 참여를 통한 개선활동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6-60]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중요한 시민참여 개선 활동(일반 시민)

(단위: %)



[표 6-48]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일반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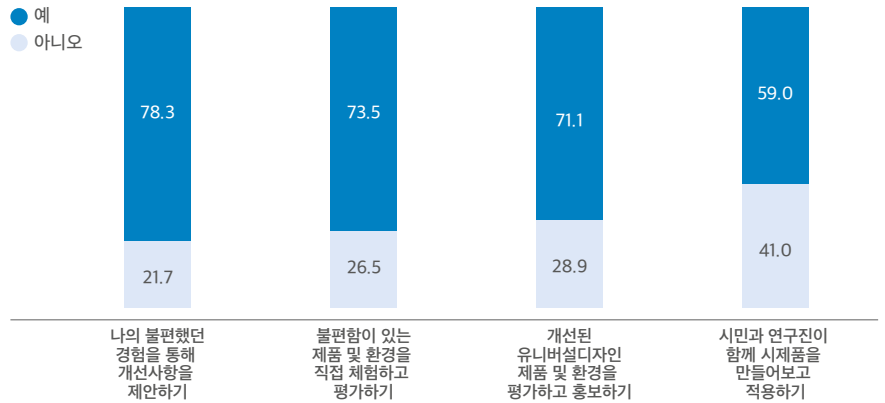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기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개선된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및 환경을 평가하고 홍보하기	시민과 연구진이 함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적용하기
전체		(2500)	32.8	29.0	19.8	18.4
성별	남	(1241)	29.3	30.5	21.1	19.1
	여	(1259)	36.4	27.6	18.4	17.6
연령	20대	(588)	32.8	28.4	19.0	19.7
	30대	(631)	32.5	29.2	19.0	19.3
	40대	(655)	30.7	31.3	19.4	18.6
	50대 이상	(626)	35.5	27.2	21.6	15.8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35.7	28.6	21.2	14.5
	도심생활권	(129)	30.2	28.7	17.8	23.3
	동북1생활권	(365)	34.5	28.2	20.3	17.0
	동북2생활권	(411)	33.1	27.5	19.0	20.4
	서남1생활권	(270)	30.4	28.1	20.7	20.7
	서남2생활권	(259)	35.9	32.0	18.5	13.5
	서남3생활권	(239)	29.3	33.1	16.7	20.9
	동남1생활권	(249)	28.9	30.9	19.7	20.5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33.0	30.1	18.4	18.6
	300~499만원	(811)	33.2	30.0	17.1	19.7
500만원 이상		(1140)	32.5	27.9	22.3	17.3

동일한 보기를 제시한 뒤 시민참여를 통한 개선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민참여 방식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앞 문항에서와 동일한 순서로 개선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나타냈다.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활동에 참여 의향은 78.3%이며,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활동’은 73.5%, ‘개선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환경을 평가하고 홍보하는 활동’은 71.1%, ‘시민과 연구진이 함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적용하는 활동’은 59.0%로 나타났다.

[그림 6-61]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참여의향

(단위: %)



[표 6-49]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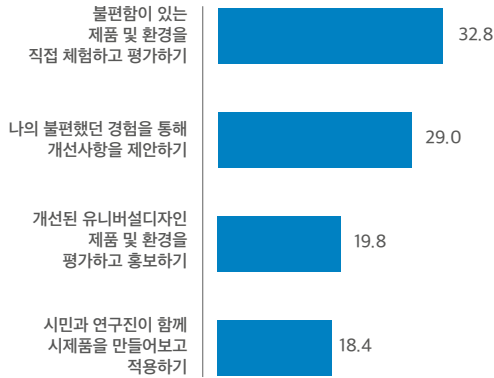
(단위: %)

2018년	(Base)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기		개선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환경을 평가하고 홍보하기		시민과 연구진이 함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적용하기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250)	78.3	21.7	73.5	26.5	71.1	28.9	59.0	41.0	
응답자 구분	장애인	(50)	85.7	14.3	75.5	24.5	65.3	34.7	61.2	38.8
	임산부	(50)	90.0	10.0	84.0	16.0	74.0	26.0	60.0	40.0
	고령자	(50)	72.0	28.0	68.0	32.0	68.0	32.0	56.0	44.0
	영유아동반자	(50)	78.0	22.0	82.0	18.0	76.0	24.0	68.0	32.0
	외국인	(50)	66.0	34.0	58.0	42.0	72.0	28.0	50.0	50.0

일반 시민들에게도 위의 개선활동 중 참여 의향이 있는 활동에 대한 응답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 제안하기(79.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 제안하는 활동’의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6-62]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 개선활동 참여 의향(일반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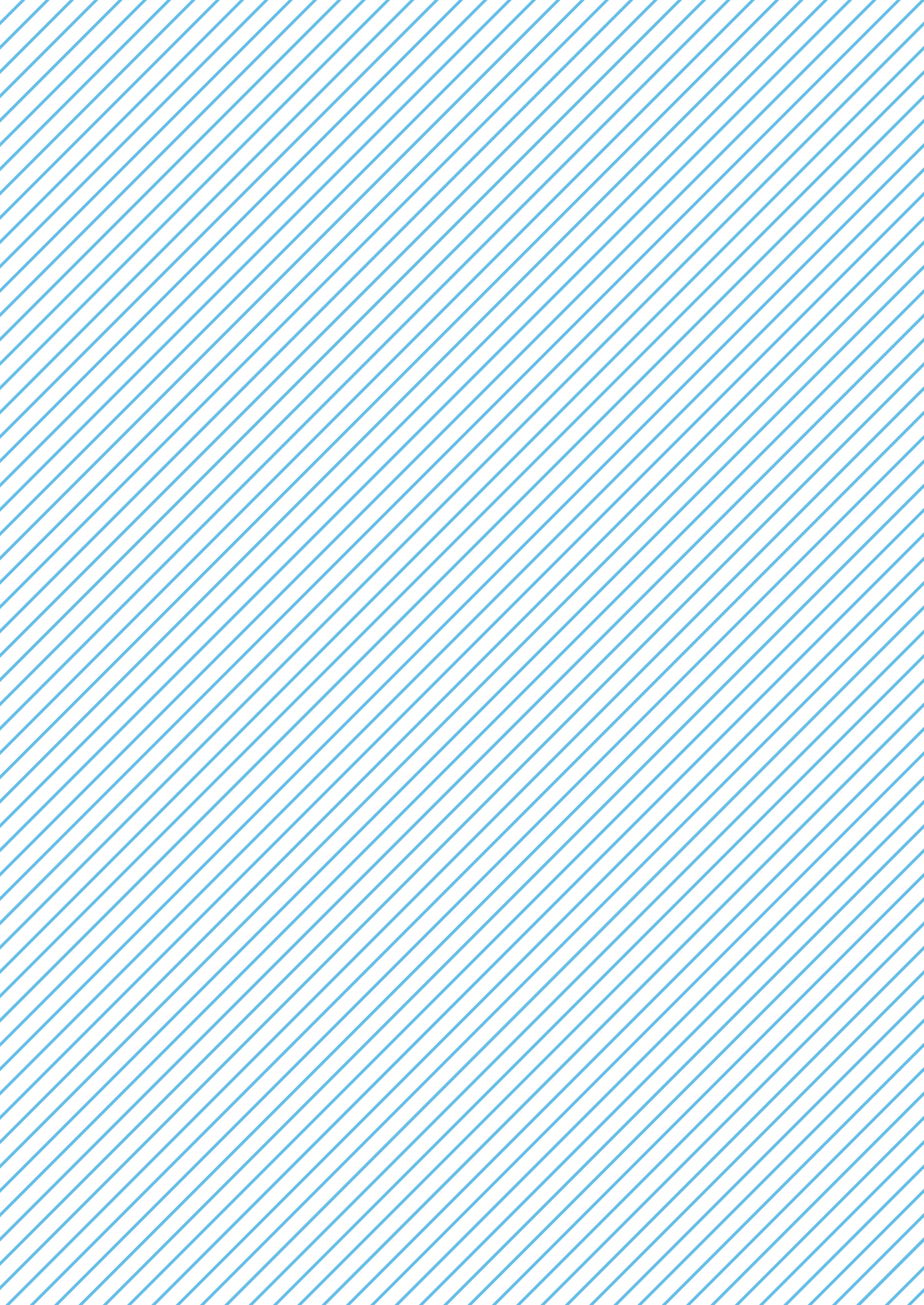
(단위: %)



[표 6-50]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 개선활동 참여 의향(일반 시민)

(단위: %)

2018년	(Base)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 사항을 제안하기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기	개선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환경을 평가하고 홍보하기	시민과 연구진이 함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적용하기	
전체	(2500)	79.8	75.8	66.4	56.4	
성별	남	(1241)	79.5	73.0	63.4	54.4
	여	(1259)	80.1	78.6	69.3	58.3
연령	20대	(588)	83.5	76.5	66.8	57.5
	30대	(631)	82.6	78.4	69.7	60.7
	40대	(655)	77.3	75.4	65.0	52.5
	50대 이상	(626)	76.0	72.8	64.1	55.0
9대 생활권	서북생활권	(297)	81.1	76.1	66.0	54.5
	도심생활권	(129)	80.6	72.1	63.6	55.8
	동북1생활권	(365)	77.5	73.4	59.2	54.5
	동북2생활권	(411)	77.9	77.6	63.7	56.4
	서남1생활권	(270)	82.6	75.2	68.1	56.7
	서남2생활권	(259)	78.8	72.6	68.3	53.7
	서남3생활권	(239)	81.6	78.2	71.5	58.6
	동남1생활권	(249)	81.1	79.9	69.1	59.8
동남2생활권	(281)	79.0	75.4	71.2	58.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9)	75.0	70.1	59.4	54.6
	300~499만원	(811)	81.8	77.2	67.7	56.6
	500만원 이상	(1140)	80.6	77.5	68.9	57.0



제7장

결론 및 제언

7-1. 부문별 소결

7-2. 정책 제언

제7장 결론 및 제언

7-1. 부문별 소결

7-1-1.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업은 다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개발 기업’과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수행 기업’으로 구분해 조사하였다.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개발 기업’은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 수상 기업’과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참가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 특별상을 수상한 제품은 24개이다. 그중 소재지가 서울시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총 8개사로 2016년 3개(75.0%), 2017년 2개(50.0%), 2018년 3개(75.0%)가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는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 중 2016년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에 소개된 제품은 모두 20개 종류, 300여 점으로서, 관련 대표적인 기업들이 참가하였다.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는 총 34개로, 이 중 소재지가 서울시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모두 21개(61.8%)이다.
-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수행 기업’은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니버설디자인 과업을 수행한 서울시 소재 기업이다. 계약업체는 28건으로 2016년 10건(41.7%), 2017년 8건(16.7%), 2018년 9건(23.7%)이다. 또한, 서울시 소재기업의 공공용역 계약금액은 2016년 307만원(60.9%), 2017년 7억2251만원(23.2%), 2018년 10억2668만원(29.6%)이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회’로 구분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소’는 총 5개의 연구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었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협회’는 총 3개의 협회가 파악되었다.

종합해 보면 현재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은 하나의 영역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태동단계이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이나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이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도 없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제도가 없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의 주체들을 파악하고 규정하기가 어렵다.

정책적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반으로 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민간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시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정책 수립이다. 서울시에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활동 등 관련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만큼, 민간과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연구 결과나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비단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주제이다. 관련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등 확장성이 있는 주제를 벤처 창업 아이템이나 중소기업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나 평가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증제 시행은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나 협회 등과의 실무협약, 학계 및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인증제도 시행을 결정해야 하고 평가 기준도 마련하여야 한다. 인증업무 수행할 인증기관도 조속히 지정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7-1-2.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 등 모두가 향유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를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과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자원은 다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편의시설’로 구분하였다.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공간’ 중에는 다양한 사용자로 구성된 시민체험단을 운영하여 공공 공간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공 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이 있다. 그 적용 사업 대상지는 2016년 2개소(종로구 행촌 성곽마을 공공가로, 금천구 독산1동 공공건축물), 2017년 1개소(성동구 보건소), 2018년 1개소(금천구 가산 디지털단지역 일대)가 선정되었다.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 건축물’은 공공 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대상 공공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 등이 있다. 먼저, 취약한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0년 5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53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였다. 2018년은 총 15개

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복지관 내 장애체험장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참여대상자의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을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성된 공원 내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을 2018년 처음 시작하였다.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건축물’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와 함께 유니버설주택 등이 있다. 2008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관련 7개 기관의 서울시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총 402건이다. 그중에서 공공부문 인증실적은 335건(83.3%), 민간부문은 67건(16.7%)으로, 인증실적은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었다. 인증대상별 인증실적은 건축물 382건, 여객시설 14건, 공원 4건, 도로 1건, 도시(구역) 1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권역별로 BF 본·예비인증서 총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서남1생활권(강서구, 양천구)이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북1생활권(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과 동북2생활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이 각 52건이다. 한편,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주거약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주택을 건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현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강서구 화곡동에 유니버설디자인 사회주택인 ‘유디하우스 화곡’을 짓고 있다.
- 서울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은 114,679개(매개시설 44,916, 내부시설 51,059, 위생시설 16,094, 안내시설 1,404, 기타시설 1,206)가 설치되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외국인 등을 위하여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지하철 1~8호선의 편의시설은 총 2,721개(엘리베이터 807, 에스컬레이터 1,733, 무빙워크 20, 휠체어리프트 161)이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행사는 전시회, 세미나, 공모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6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는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300여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으며, 국제세미나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2017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전시되었고, 국제세미나는 ‘공감과 교감’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018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는 ‘스탠다드 파라다이스’로 유니버설디자인을 경험해보는 전시회로 이루어졌고, 국제세미나는 ‘평등과 포용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향하여: 그 가치와 전략은?’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2006년부터 주제를 정해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종합해 보면, 최근 3년간(2016~2018)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투입 예산 또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만 집중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문화와 관련한 원칙의 적용이 아쉬웠다.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화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가 공공부문과 건축물에 편중되어 있다. 이를 민간부문과 다양한 인증대상(여객시설, 공원, 도로, 도시(구역) 등)으로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정보 접근권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문화공간과 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동시에, 문화디자인의 필요성과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개선방안(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교통안전 개선방안,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이 수립되었으나,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특히 문화시설에 적용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고려한 문화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를 홍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나 컨퍼런스 등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지만, 행사의 인지도와 중요도, 효과성의 측면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사와 함께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시민들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시민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우 등 일부 소수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유니버설)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가치를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활동도 전시회, 세미나 등과 같은 문화행위와 협력할 때 효과가 커질 것이다.

7-1-3.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은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과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은 다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기관’과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기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기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기관’과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협력 프로그램’으로 세분화 했다.

-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 기관’은 전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전공 학과가 있는 곳과, 서울시 소재 대학(원) 중에서 교과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이 있는 학과(전공)를 모두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1개, 전문대학 1개, 대학교 2개, 대학원 1개가 파악되었다. ‘교육통계서비스 분류’ 중 ‘예체능’ 대분류 및 ‘디자인’ 중분류에 해당하는 학과와, ‘응용예술’ 중분류 및 ‘공예’ 소분류에 해당하는 학과를 검색한 결과 서울시 소재 대학은 92개가 검색되었다. 이 중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과과정은 8개로 나타났다.
-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협력 프로그램’은 수도권 소재 정규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학술대회, 학술지, 세미나 및 워크숍,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기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수행기관’과, 그 밖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수행기관’은 서울시 소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회, 협회, 연구소·센터 등을 파악하였다. 모두 7개가 있었는데, 학회 2개, 협회 3개, 연구소·센터 2개로 나타났다.
-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나라장터에서 공시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용역사업 중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 소재의 기관을 파악해 분류하였다. 총 7개로, 2016년 3개, 2017년 1개, 2018년 3개이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민 교육’과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유니버설디자인 시민 교육’은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을 조사하였다. 2016년 총 928명, 2017년 총 2,458명, 2018년 총 3,87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 ‘유니버설디자인 공공 교육’은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조사하였다. 2016년 총 63명, 2017년 총 52명, 2018년 총 5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종합해 보면, 사회적 공익성과 올바른 인성을 교육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교육과 공공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시행하는 정규 교육기관은 전국의 4곳(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강남대학교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학과·유니버설디자인공학과,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인클루시브디자인학과)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이 늦게 소개되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을 일반교육의 일부로만 간주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디자인의 일부로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교육하는 학과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을 보다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과나 전공은 매우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및 기술의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사용자 참여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연령 및 계층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의 대상자는 주로 초등학생과 공무원에 국한되어 있다. 앞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식 확대를 위해 보다 폭넓은 대상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우수사례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정규 과목 내지는 전공 신설 등을 지원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삶에서 경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의 애로사항들과 맞닿아 있는 산업 현장의 주체들이 전문적인 관점으로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7-1-4.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현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와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운영은 다시 ‘민·관 거버넌스 제도’와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 ‘민·관 거버넌스 제도’인 ‘유니버설디자인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은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시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참여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행된 사업이다. 서울 시민 70명과 전문가 30명으로 체험단 및 자문단이 구성·운영되고 있다.
-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사업’으로서 먼저,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이 있고 그 사업 대상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주변(G밸리)이 선정되었으며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서울시 디자인정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기반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

디자인서비스·유니버설디자인서비스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2018년) 사업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서울디자인서비스에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비스를 통합한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교육 및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확산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및 리빙랩 조성 기본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체험관과 리빙랩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에 조성 중이며,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및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내의 유니버설디자인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를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는 디자인정책팀(5명), 공공디자인사업팀(3명), 공공디자인관리팀(2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은 사업기획팀(4명), 직속기구인 서울생활용플라자센터(2명)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서울시 디자인 전담부서인 디자인정책과 전체 예산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다. 2016년 디자인정책과 예산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예산은 8억2000만원(2.5%)이다. 2017년에 9억9510만원(2.4%)이고, 2018년 7억6880만원(1.7%)이다.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총 예산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서울디자인재단 예산 중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은 6억7000만원(1.2%)이다. 2017년에 1억9000만원(0.3%)이며, 2018년에 4억4740만원(0.8%)이다

종합해 보면, 2017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따르면, '인간 중심의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2016년 2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정책적으로는 서울시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사례를 도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하지만,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 나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방법론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연구'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민간분야 확산을 위한 연구, 신사업 발굴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육성방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기관들은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문화, 교육 영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 기획되고 있는지를 공유해야 한다. 더 나아가 통합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을 근거리에서 수렴할 수 있는 루트와 채널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관련 부서와 공유함으로써 그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의견 수렴을 위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실제 정책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1-5.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및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시 공공환경의 현황을 이해하고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외국인 등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 그룹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만족도, 요구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병행 조사하였다. 의식조사는 공공시설 이용(빈도, 어려움 정도/요인, 개선도, 외국인의 만족도), 유니버설디자인 일반(인지도, 정책 필요성, 만족도,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적용 동의 정도, 공공시설 영역별 원칙별 평가, DDP 방문율/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적용 동의 정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 이해관계자들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60.8%)는 응답이 ‘안다’(39.2%)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22.9%만이 ‘안다’고 답해, 전년 대비 소폭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그룹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러나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절대 다수(94.4%)가 공감했다. 특히 여성과 30대, 동남1생활권에서 큰 필요성을 나타냈다.
- 이해관계자들이 서울의 공공시설(가로, 공원·광장, 공공 건축물)을 이용할 때 타인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묻는 조사에는 68.4%가 타인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어떤 점이 어려운가를 묻은 결과, ‘안내 정보 부족’(44.4%)을 우선으로 답했지만, 각 그룹별로 관심사와 문제가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의 공공시설이 작년에 비해 더욱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51.0%)는 응답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타 국가의 주요도시와 비교하는 질문에는 82.0%가 서울시의 공공시설이 타 국가 내 주요도시 대비 낫다고 응답하였다.
- 서울 시민의 37.9%가 서울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잘 적용되어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많아질수록 적용의 정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서울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명소이다.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의 DDP 방문 경험에 대해서는, 64.0%가 방문 경험이 있었으며, 향후 방문 계획이 있는 응답자도 26.8%로 확인되었다. 특히 임산부가 가장 높은 방문 경험을 나타냈지만, 장애인의 20%는 장래에도 방문 계획이 없었다. DDP와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원칙(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이용선택권)이 잘 적용되

어 있느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방문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 대부분(80.6%)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시설별로 볼 때 이동 시설 중에서는 ‘내부 둘레길의 경사로 기울기’, ‘외부 경사로 기울기’가 긍정적이었다. 편의시설 중에서는 ‘화장실 시설의 편리성’이 가장 높았고, 특히 외국인 그룹은 ‘어디서든 쉴 수 있는 시설’에 대해 100%가 긍정적이었다. 정보전달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는 ‘다국어 표기’가 가장 높았고, 정보전달 서비스는 ‘직원의 친절한 안내’가 가장 높았다. 한편, 방문경험이 있는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남성, 서남2생활권, 동남1생활권 거주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외부 둘레길 경사로 기울기’, ‘화장실 시설’ 등이 긍정적이었다.

-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존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활동에 대해서는 64.0%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절대다수가 ‘그렇다(95.2%)’고 응답했지만, 현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는 60.0%(효과성)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해서도 57.0%는 ‘모른다’고 응답하여, 정책의 중요도(94.0%) 대비 효과성(62.2%)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활동,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활동,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활동 등도 비슷했다. 종합적으로, 인지도는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43.0%),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등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중요도 측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95.2%),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유니버설디자인 이해관계자 그룹은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보다 덜 인지하고 있으나 중요도는 더 높다고 평가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62.2%)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려면 각 정책의 중요도를 고려해야 한다. 중요도가 큰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도를 가중치로 한 각 정책의 상대적인 효과성(즉, 효과성X중요도)은 공공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사업 순이다. 이는 정책 전체의 효과성에 대한 각 정책의 기여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61.4%) 수준이었다.
-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의 9가지 보기를 제시한 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선택하라고 요청한 결과, ‘대중교통시설’, ‘거리보행 편의시설’이 가장 높았고, ‘공공청사’ 및 ‘상업시설’이 가장 낮았다. 그룹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외국인 그룹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의견과 장애인 그룹의 ‘거리보행 편의시설’에 관한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일반 시민의 경우, 도심 생활권 거주자는 ‘거리보행 편의시설’, 서남 3생활권 거주자는 ‘도시 휴식 공간’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복지시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개선에 대한 6가지 보기를 제시한 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선택하라고 요청한 결과, ‘홍보 캠페인’과 ‘체험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고, ‘공모전’과 ‘강의 및 세미나’에 대한 응답은 낮았다. 일반 시민의 경우, 연령대별로 20대는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연구 활동’, 40대는 ‘체험 프로그램’, 50대 이상은 ‘홍보캠페인’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공공시설제품’과 ‘대중교통제품’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개인이동제품’과 ‘주거생활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시민참여 방식 및 참여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를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일반 시민의 경우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체험하고 평가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선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환경 평가하고 홍보하기’가 시민 참여를 통한 개선활동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보기를 제시한 뒤 시민참여를 통한 개선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활동에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았는데, 일반 시민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7-2. 정책 제언

(1) 서울시민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캠페인과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 서울시민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지도는 20~30%대이며(서울시민 약 23%, 이해관계자 약 39%), 일본 60%대(Prajapati & Asai, 2013), 대만 40%대(Yang, 2006) 등에 비해 낮음(부록 참조)
- 더 많은 시민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 가치를 공감하여 관련 정책이 호응과 동력을 얻을 뿐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 문화기반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서울시민들은 홍보캠페인과 체험프로그램을 의식개선 방안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은 태동 단계이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필요성과 기회의 인식을 환기하는 데는 생생한 사례와 경험을 접하는 것이 효과적임
- 서울시의 전시회, 공모전 등에 해외의 선구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기업을 특별 초청하여 사례, 경험 및 제품을 소개하면,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관계자에게 신선한 자극과 함께 벤치마킹의 기회가 될 것임

(3) 서울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은 고등교육과정 수준의 정규교육이 강화되고,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산업과 교육 분야에서 협력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학(원) 수준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함
- 이를 위해 대학(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정규과목, 학과와 전공 신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등 관련 학회, 협회, 연구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4) 서울시 공공시설 개선을 위해 안내정보와 이용편의성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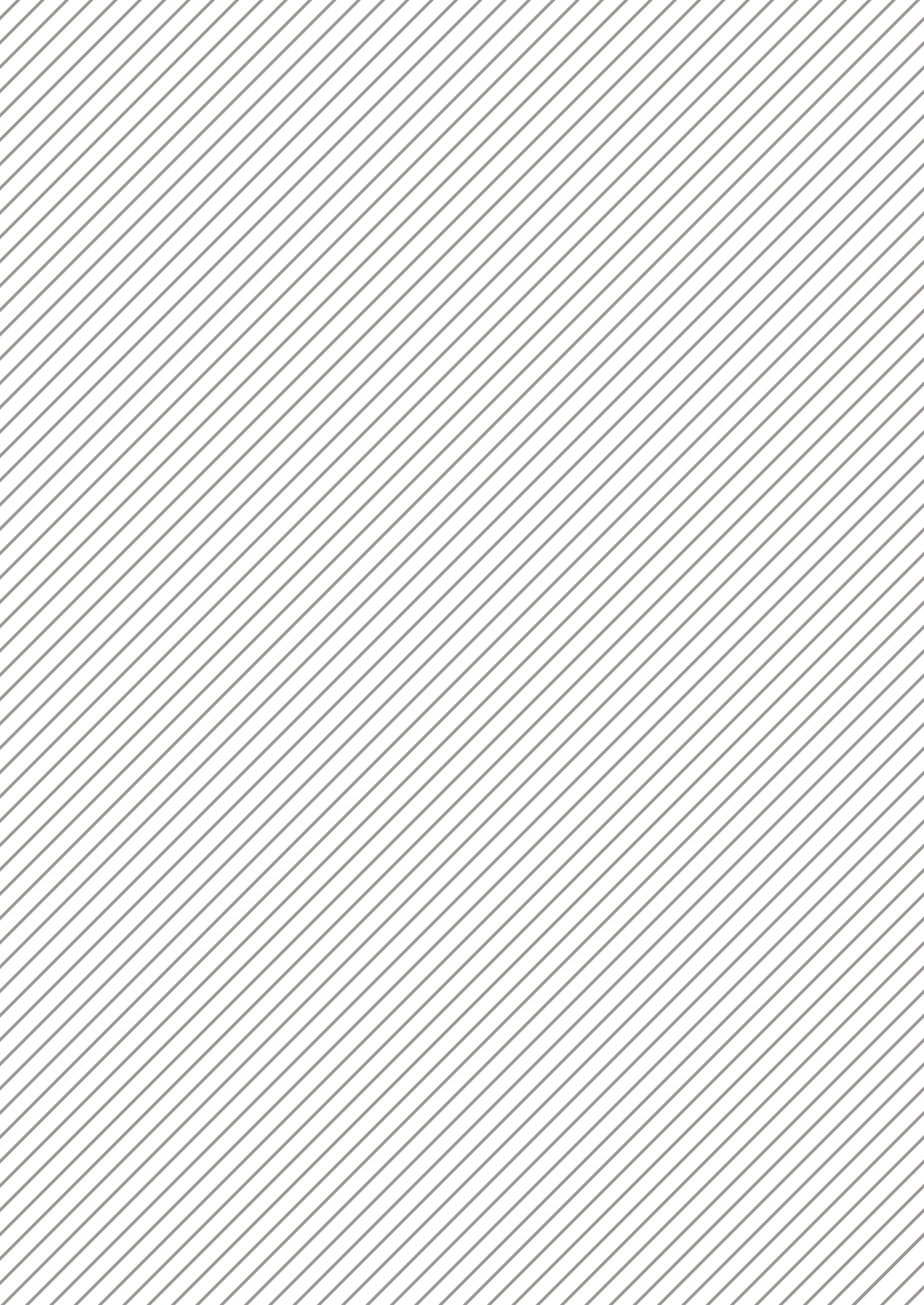
- 서울시 도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잘 적용되어있다고 본 외국인은 많으나(74%), 내국인 이해관계자는 절반이 되지 않음(약41%)
-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이 선호하는 서울시 공공시설 우선 개선사항은 안내정보와 이용 편의성의 개선임

(5) 서울시 공공시설 중 대중교통시설, 거리보행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3대 개선대상은 대중교통시설, 거리보행 편의시설, 복지시설임
-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1순위 개선대상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야 함.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는 ‘거리보행 편의시설’, 고령자는 ‘복지시설’, 외국인, 영유아동반자는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제일 원함

(6)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게 되어있는 바, 이 센터는 우리나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싱크탱크와 같은 역할과 위상을 갖추어야 함
- 센터는 유니버설디자인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부서를 연결·통합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감당해야 함
- 센터의 소속 및 거버넌스, 조직구조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부록

-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설문지(국문)
-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설문지(영문)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입법 및 국제회의
- 참고문헌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설문으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조사명 : <2018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식조사

○ 조사기간 : 2018. 11. 30 ~ 12. 7

○ 조사 소요 시간 : 약 15분

○ 조사 주관기관 : (재)서울디자인재단

○ 조사 수행기관 : ㈜마크로밀 엠브레인

A. 기본사항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남자 ② 여자

A.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 세)

[PROG : 만 20세 이상 조사 진행]

A.3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⑰ 세종

[PROG : 1번 응답자만 조사 진행]

A.3.1 귀하가 서울에서 거주하는 구는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① 종로구 ② 중구 ③ 용산구 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⑦ 중랑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⑪ 노원구 ⑫ 은평구 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⑮ 영등포구 ⑯ 강서구
⑰ 양천구 ⑱ 구로구 ⑲ 금천구 ⑳ 동작구 ㉑ 관악구 ㉒ 강남구 ㉓ 서초구 ㉔ 송파구 ㉕ 강동구

C.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C.1 귀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④ 잘 안다
- ③ 어느 정도 안다
- ② 잘 모른다
- ① 전혀 모른다

C.2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공평하게 제품, 건물, 환경 등을 이용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공평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C.2.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C.3 다음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칙입니다. 아래 설명을 읽고 제시되는 문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편리성]

- 연령, 지식, 능력 등에 관계없이 조작이나 이용이 쉽다.
- 필요한 정보를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적절한 곳에서 제공된다.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

2)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전성]

-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미리 안내한다.
- 조작이나 이용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부주의한 실수에도 안전하다.
- 유해한 환경을 예방하고 개선한다.

3)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쾌적성]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청결하고 정돈되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한다.
-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호감을 느낄 수 있다.

4)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선택권]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자세, 동작, 행동 패턴 등의 차이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공한다.
- 수단이나 사용방법이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C.3.1 도시의 공공 환경에서 가로(街路)란 “넓은 도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차도와 보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서울시의 가로가 어떻습니까? [행별 1개 선택]

항목		전적으로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할 수 없다	
가로	A. 보도 (보행안전구역, 차량진입구역, 공개공지, 자전거도로, 시설물구역)	1) 가로의 보도는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가로의 보도는 안전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가로의 보도는 쾌적하다	⑤	④	③	②	①
		4) 가로의 보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B. 차도 (국지도로, 횡단보도, 속도저감방안)	1) 가로의 차도는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가로의 차도는 안전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가로의 차도는 쾌적하다	⑤	④	③	②	①
		4) 가로의 차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C.3.2 도시의 공공 환경에서 공원·광장은 “시민의 휴양 등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빈터”를 의미합니다. 귀하에게는 서울시의 공원·광장이 어떻습니까? [행별 1개 선택]

항목		전적으로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할 수 없다	
공원·광장	A. 진입공간 (접근로, 주 출입구, 주차장)	1) 공원·광장의 진입공간은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공원·광장의 진입공간은 안전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공원·광장의 진입공간은 쾌적하다	⑤	④	③	②	①
		4) 공원·광장의 진입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B. 이동공간 (산책로)	1) 공원·광장의 이동공간은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공원·광장의 이동공간은 안전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공원·광장의 이동공간은 쾌적하다	⑤	④	③	②	①
		4) 공원·광장의 이동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C. 위생공간 (화장실, 영유아동반자 위생시설)	1) 공원·광장의 위생공간은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공원·광장의 위생공간은 안전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공원·광장의 위생공간은 쾌적하다	⑤	④	③	②	①
		4) 공원·광장의 위생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D. 편의공간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매표시설, 반려동물보호시설, 금연구역)	1) 공원·광장의 편의공간은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공원·광장의 편의공간은 안전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공원·광장의 편의공간은 쾌적하다	⑤	④	③	②	①
		4) 공원·광장의 편의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E. 놀이 휴게 공간 (휴게구역, 놀이터)	1) 공원·광장의 놀이 휴게공간은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공원·광장의 놀이 휴게공간은 안전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공원·광장의 놀이 휴게공간은 쾌적하다	⑤	④	③	②	①	
	4) 공원·광장의 놀이 휴게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C.3.3 도시의 공공 환경에서 공공건축물이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사 단체가 소유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귀하에게는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이 어떻습니까? [행별 1개 선택]

항목		전적으로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할 수 없다	
공공 건축물	A. 접근공간 (부지출입구, 보행접근로, 주차장)	1) 공공건축물의 접근공간은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공공건축물의 접근공간은 안전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공공건축물의 접근공간은 쾌적하다	⑤	④	③	②	①
		4) 공공건축물의 접근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B. 진입공간 (주출입구, 로비)	1) 공공건축물의 진입공간은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공공건축물의 진입공간은 안전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공공건축물의 진입공간은 쾌적하다	⑤	④	③	②	①
		4) 공공건축물의 진입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C. 이동공간 (복도, 실내출입문,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보 및 피난시설)	1) 공공건축물의 이동공간은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공공건축물의 이동공간은 안전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공공건축물의 이동공간은 쾌적하다	⑤	④	③	②	①
		4) 공공건축물의 이동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D. 위생공간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영유아동반자 위생시설, 욕실·샤워실·탈의실)	1) 공공건축물의 위생공간은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2) 공공건축물의 위생공간은 안전하다	⑤	④	③	②	①
		3) 공공건축물의 위생공간은 쾌적하다	⑤	④	③	②	①
		4) 공공건축물의 위생공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C.4 귀하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를 방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① 방문한 경험이 있다
- ② 방문한 경험은 없지만, 향후 방문 계획이 있다
- ③ 방문한 경험도 없고, 향후 방문 계획도 없다

C.4.1 (C.4 ①을 선택한 경우) DDP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이용선택권)이 잘 적용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C.4.2 (C.4 ①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DDP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구분	항목	전적으로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할 수 없다
A. 이동시설	1) DDP 내부 둘레길의 경사로 기울기가 잘 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DDP 외부 경사로 기울기가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3) DDP 이동환경의 핸드레일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4) DDP 이동환경의 폭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5)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B. 편의시설	6) DDP 어디서든 쉴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7) 화장실 시설이 편리하게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8) 주차장 폭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9) 수유시설과 임산부 휴게시설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10) 유모차와 휠체어 대여 시설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C. 정보전달 시설	11) 공간명칭(살림터, 배움터, 알림터)이 어떠한 곳인지 이해가 쉽다.	⑤	④	③	②	①
	12) 가려는 목적지까지 정보와 방향안내가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13) 엘리베이터 위치안내가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14) 여러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표기가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15) 안내데스크가 적절한 장소에 잘 배치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16) 음성정보 안내시설이 잘 되어있다.	⑤	④	③	②	①
D. 정보전달 서비스	17) DDP 직원의 안내가 친절하다.	⑤	④	③	②	①
	18) DDP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19) 스마트 DDP 앱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편리하다.	⑤	④	③	②	①

D.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서울시 및 서울디자인재단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D.1 귀하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활동에 대해 들어보거나 그 결과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복지관, 경로당, 요양시설, 도서관 등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이나 취약한 환경의 복지시설에 가이드라인에 맞게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할 때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시민들을 참여시켜 모니터링을 하는 활동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안내데스크 설치



직관적 인지 가능한
디자인 적용



안전을 고려한 놀이공간 조성

- ④ 잘 안다
- ③ 어느 정도 안다
- ② 잘 모른다
- ① 전혀 모른다

D.2 귀하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D.3 귀하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D.4 귀하는 서울시가 공공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해 들어보거나 그 결과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하여 설치
- 편리한 길 찾기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함
- 예시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2017년 성동구보건소 진입로 및 내·외부 총 15개 공간 디자인 적용



고원식 횡단보도, 보도 평탄화 및 유효폭 확대 등



경사로 확폭(1.8m → 3.5m), 여닫이문 → 자동문 등

- ④ 잘 안다
- ③ 어느 정도 안다
- ② 잘 모른다
- ① 전혀 모른다

D.5 귀하는 공공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서울시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D.6 귀하는 공공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서울시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D.7 귀하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활동에 대해 들어보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교육을 진행하거나, 시, 자치구, 사업소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형 교육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함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 창의 교육(2017)

- ④ 잘 안다
- ③ 어느 정도 안다
- ② 잘 모른다
- ① 전혀 모른다

D.8 귀하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D.9 귀하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 및 세미나>

D.10 귀하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세미나에 대해 들어보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전시회, 세미나, 박람회를 열어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와 국내·외 사례를 공유함
- 유니버설디자인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함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2017)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2017)

- ④ 잘 안다
- ③ 어느 정도 안다
- ② 잘 모른다
- ① 전혀 모른다

D.11 귀하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세미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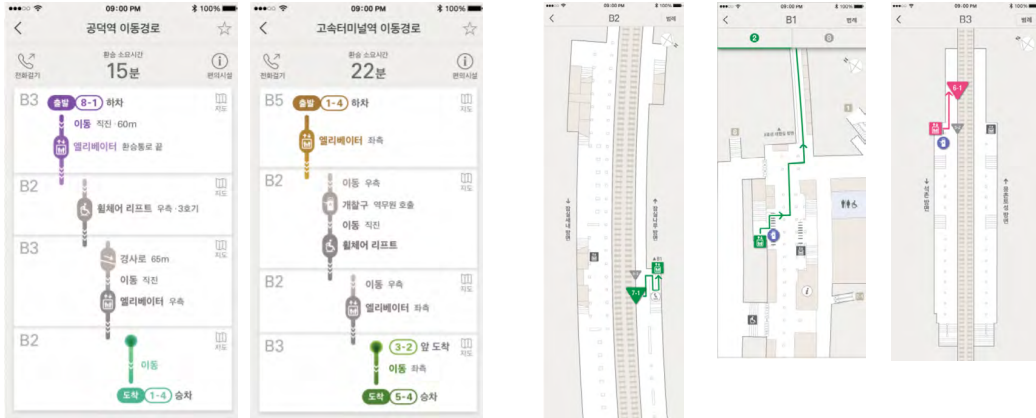
D.12 귀하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전시회·세미나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D.13 귀하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활동에 대해 들어보거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나 가이드, 온라인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소통형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시공모니터링과 사인시스템을 연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개발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운영



교통약자를 위해 서울지하철 환승. 이동을 위한 지도 개발(2017)

- ④ 잘 안다
- ③ 어느 정도 안다
- ② 잘 모른다
- ① 전혀 모른다

D.14 귀하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D.15 귀하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D.16 귀하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및 정책에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 ④ 전적으로 그렇다
- ③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D.17 귀하는 아래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사업 중 서울시가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3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번호	분야
①	거리보행 편의시설(인도, 경사로, 횡단보도 등)
②	대중교통시설(버스, 지하철, 택시, 각 정류장 등)
③	공공 시설물(관광안내판, 공중전화, 교통카드 판매기, 엘리베이터 등)
④	공공 청사(주민센터, 우체국, 구청, 시청 등)
⑤	도시 휴식 공간(공원, 광장, 놀이터, 산책로 등)
⑥	복지시설(고령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⑦	교육 시설(학교, 도서관 등)
⑧	문화 시설(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등)
⑨	상업 시설(음식점, 호텔, 백화점 등 판매시설 등)

D.18 귀하는 아래의 유니버설디자인 의식 개선 사업 중 서울시가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3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번호	분야
①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용 교재 개발(교과서, 교구, 교육 자료 등)
②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프로그램(전시회, 상설체험관 등)
③	유니버설디자인 강의·세미나
④	유니버설디자인 전문 연구 활동
⑤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⑥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캠페인(공익광고 등)

D.19 서울디자인재단은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래 중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2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번호	분야
①	주거생활제품(생활가구,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적용)
②	복지시설제품(고령자 및 장애인 요양시설, 활동 보조기 등 적용)
③	개인이동제품(수동/전동휠체어, 스마트 모빌리티, 자동차 등 적용)
④	대중교통제품(버스, 지하철, 택시의 각 역사 및 정류장 등 적용)
⑤	공공시설제품(인도/차도, 횡단보도, 엘리베이터, 주민센터, 공원 등 적용)

D.20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활동은 시민 참여를 우선으로 합니다. 다음 중 시민참여를 통한 개선 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 ②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기
- ③ 시민과 연구진이 함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적용하기
- ④ 개선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환경을 평가하고 홍보하기

D.20.1 귀하는 다음의 시민참여를 통한 개선활동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행별 1개 선택]

항목	예	아니오
① 나의 불편했던 경험을 통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①	②
② 불편함이 있는 제품 및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기	①	②
③ 시민과 연구진이 함께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적용하기	①	②
④ 개선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환경을 평가하고 홍보하기	①	②

D.21 귀하의 입장에서 그 밖에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_____)

E. 개인 관련 사항

E.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학 재학/중퇴/졸업
- ③ 4년제 대학 재학/중퇴/졸업 ④ 대학원 재학/중퇴/졸업

E.2 귀하는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① 관리직 ② 전문직·준전문직 ③ 사무직
-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임·어업직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⑧ 장치·기계조작·조립직
- ⑨ 단순노무직 ⑩ 직업군인 ⑪ 퇴직
- ⑫ 주부 ⑬ 학생 ⑭ 무직

E.3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1개 선택]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만원 이상

<2018 Seoul Universal Design Survey>

A Survey on Universal Design Consciousness

The Seoul Design Foundation is conducting a survey in order to effectively pursue Universal Design policies. We know you are busy, but we hope you will give us your valuable feedback. Information and data obtained from this survey are protected under Section 33 of the Statistics Act, and will not be used for other purposes.

- Title: Survey on Universal Design Consciousness (2018 Seoul Universal Design Survey)
- Period of investigation : 11/30-12/14/2018
- Time to complete : Approximately 15 minutes
- Organized by : The Seoul Design Foundation
- Administered by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Team

A. Basic Information

A.1 What is your gender? [Select 1]

- ① Male ② Female

A.2 What is your age? (_____)

A.3 Are you currently staying or living in Seoul? [Select 1]

- ① Yes ② No

A.3.1 (If you selected A.3) How long have you been in Seoul? [Select 1]

- ① Less than 1 week ② 1 week to 1 month
③ 1 to 6 Months ④ 6 months to 1 year
⑤ 1 to 2 years ⑥ 2+ years

A.3.2 (If you selected A.3) What is the purpose of your stay in Seoul? [Select 1]

- ① Leisure, Recreation, Vacation
② Beauty, Health, or Medical Treatment
③ Religion or Pilgrimage
④ Shopping
⑤ Visiting Friends or Family
⑥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⑦ Education (Language Programs, Training, etc.)
⑧ Other (_____)

B.3 Do you think Seoul's public facilities are bett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capitals?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C. On Universal Design

C.1 Do you know about Universal Design? [Select 1]

- ④ Yes, I know it very well
- ③ Yes, I'm aware of it
- ② No, not really
- ① No, not at all

C.2 The definition of "Universal Design" is as follows.

Universal Design refers to the design of **"products, buildings, environments, etc. to make them accessible to all, without discriminating against gender, age, nationality, or disability."**

Seoul City is pursuing a Universal Design policy to ensure that public facilities are accessible to everyone. Do you think the overall urban environment in Seoul effectively employs "Universal Design"?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C.2.1 Do you think that "Universal Design" is reflected in the neighborhood in which you are currently residing?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C.3 The following are the four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in Seoul.

- 1) Convenient to use [Convenience]**
 - The product/service is easy to manipulate or use regardless of age, intellect, and ability.
 - The product/service can be understood intuitively and instructions can be provided as needed.
 - The product/service can be processed through various senses, such as vision, hearing, and touch.
- 2) Safe to use [Safety]**
 - Taking specific users into consideration, dangers are either removed or warned of in advance.
 - The product/service poses no danger to use or operate, even if careless mistakes are made.
 - Prevents and improves upon harmful environments.
- 3) Pleasing to use [Attractiveness]**
 - Harmonizes well with its surroundings.
 - Provides a sense of order and stability.
 - Leaves a favorable impression through appeals to sight, hearing, and touch.
- 4) Can be used in multiple ways [Flexibility]**
 - Users can choose how to use the design according regional characteristics.
 - Accounts for differences and changes in user attitudes, actions, and behavioral patterns.
 - Users can choose how to use the product/service depending on the situation.

C.3.1 In a city, a street means a wide road, usually divided into roadways and sidewalks. What are the streets of Seoul like for you? [Select 1 per row]

Category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I don't know
Streets	A. Sidewalks (walkways, driveways, open spaces, bicycle lanes, street facilities)	1) The sidewalks are convenient.	⑤	④	③	②	①
		2) The sidewalks are safe.	⑤	④	③	②	①
		3) The sidewalks are pleasant.	⑤	④	③	②	①
		4) The sidewalk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⑤	④	③	②	①
	B. Roadways (local roads, crosswalks, speed bumps)	1) The roadways are convenient.	⑤	④	③	②	①
		2) The roadways are safe.	⑤	④	③	②	①
		3) The roadways are pleasant.	⑤	④	③	②	①
		4) The roadway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⑤	④	③	②	①

C.3.2 In a city, parks and squares mean large spaces where people can gather for recreation. What are the parks and squares of Seoul like for you? [Select 1 per row]

Category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I don't know
Parks · Squares	A. Entrances (entryways, main entrances, parking lots)	1) Entrances to the parks/ squares are convenient.	⑤	④	③	②	①
		2) Entrances to the parks/ squares are safe.	⑤	④	③	②	①
		3) Entrances to the parks/ squares are pleasant.	⑤	④	③	②	①
		4) Entrances to the parks/ square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⑤	④	③	②	①
	B. Walkways (trails)	1) The walkways of the parks/squares are convenient.	⑤	④	③	②	①
		2) The walkways of the parks/squares are safe.	⑤	④	③	②	①
		3) The walkways of the parks/squares are pleasant.	⑤	④	③	②	①
		4) The walkways of the parks/square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⑤	④	③	②	①
	C. Sanitary facilities (restrooms, baby changing/feeding stations)	1) The sanitary facilities of the parks/ squares are convenient.	⑤	④	③	②	①
		2) The sanitary facilities of the parks/ squares are safe.	⑤	④	③	②	①
		3) The sanitary facilities of the parks/squares are pleasant.	⑤	④	③	②	①
		4) The sanitary facilities of the parks/ square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⑤	④	③	②	①
	D. General facilities (administrative offices, information booths, ticketing, pet care, non-smoking areas)	1) The general facilities of the parks/ squares are convenient.	⑤	④	③	②	①
		2) The general facilities of the parks/ squares are safe.	⑤	④	③	②	①
		3) The general facilities of the parks/ squares are pleasant.	⑤	④	③	②	①
		4) The general facilities of the parks/ square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⑤	④	③	②	①

	E. Play and rest areas (resting areas, playgrounds)	1) The play and rest areas of the parks/squares are convenient.	⑤	④	③	②	①
		2) The play and rest areas of the parks/squares are safe.	⑤	④	③	②	①
		3) The play and rest areas of the parks/squares are pleasant.	⑤	④	③	②	①
		4) The play and rest areas of the parks/square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⑤	④	③	②	①

C.3.3 Public buildings are buildings owned by countries, municipalities, public institutions and similar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of public use. What are the public buildings of Seoul like for you?

[Select 1 per row]

Category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I don't know
Public buildings	A. Access points (entrances to the site, access ramps, parking lots)	1) The access points of public buildings are convenient.	⑤	④	③	②	①
		2) The access points of public buildings are safe.	⑤	④	③	②	①
		3) The access points of public buildings are pleasant.	⑤	④	③	②	①
		4) The access points of public building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⑤	④	③	②	①
	B. Entrances (main entrances, lobbies)	1) The entrances to public buildings are convenient.	⑤	④	③	②	①
		2) The entrances to public buildings are safe.	⑤	④	③	②	①
		3) The entrances to public buildings are pleasant.	⑤	④	③	②	①
		4) The entrances to public building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⑤	④	③	②	①

	C. Interiors (hallways, doors, ramps, stairs, elevators, escalators, wheelchair lifts, alarms and emergency shelters)	1) The interiors of public buildings are convenient.	⑤	④	③	②	①
		2) The interiors of public buildings are safe.	⑤	④	③	②	①
		3) The interiors of public buildings are pleasant.	⑤	④	③	②	①
		4) The interiors of public building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⑤	④	③	②	①
	D. Sanitary facilities (toilets, accessible toilets, child toilets, shower rooms, changing rooms)	1) The sanitary facilities of public buildings are convenient.	⑤	④	③	②	①
		2) The sanitary facilities of public buildings are safe.	⑤	④	③	②	①
		3) The sanitary facilities of public buildings are pleasant.	⑤	④	③	②	①
		4) The sanitary facilities of public building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⑤	④	③	②	①

C.4 Have you ever visited the Dongdaemun Design Plaza (DDP)? [Select 1]

- ① Yes, I have.
- ② No I haven't, but I plan to.
- ③ No I haven't, nor do I plan on going.

C.4.1 (If you selected C.4) Do you think the Universal Design principles (e.g. convenience, safety, comfort, and flexibility) are reflected in the DDP?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C.4.2 (If you selected C.4) To what extent would you agree with the following comments about the DDP? [Select 1 per row]

Category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I don't know
A. Walkways	1) The angle of the main ramp inside the DDP is satisfactory.	⑤	④	③	②	①
	2) The angles of the ramps outside the DDP are satisfactory.	⑤	④	③	②	①
	3) The handrails inside the DDP are well installed.	⑤	④	③	②	①
	4) The walkways at the DDP are sufficiently wide.	⑤	④	③	②	①
	5) Tactile ground surface indicators for the visually impaired are well installed.	⑤	④	③	②	①
B. Visitor Guidance	6) One can take a rest anywhere at the DDP.	⑤	④	③	②	①
	7) The bathrooms are comfortable and clean.	⑤	④	③	②	①
	8) The parking lot is sufficiently large.	⑤	④	③	②	①
	9) Rooms for nursing mothers and pregnant women are well installed.	⑤	④	③	②	①
	10) Stroller and wheelchair rental facilities are well installed.	⑤	④	③	②	①
C. General facilities	11) Facilities are properly named (Art Hall, Museum, Design Lab).	⑤	④	③	②	①
	12) Directions and signs are readily available.	⑤	④	③	②	①
	13) Locations of elevators are clearly indicated.	⑤	④	③	②	①
	14) Information is available in multiple languages.	⑤	④	③	②	①
	15) Information desks are appropriately placed.	⑤	④	③	②	①
	16) Announcement systems are well installed.	⑤	④	③	②	①
D. Communication	17) The DDP guides are friendly.	⑤	④	③	②	①
	18) It is easy to navigate the DDP homepage for desired information.	⑤	④	③	②	①
	19) It is easy to navigate the DDP mobile app for desired information.	⑤	④	③	②	①

D. Seoul's Universal Design Polic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eoul Design Foundation are implementing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Universal Design.

<Universal Design Consulting>

D.1 Have you heard of or seen the results of Universal Design Consulting activities in Seoul? [Select 1]

- Support the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principles to new public buildings or centers such as community centers, senior centers, nursing homes, and libraries.
- Consult experts or pursu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when implementing Universal Design policies.



- Installing information desks that are accessible to wheelchair users



- Intuitive, recognizable designs



- Constructing safe playgrounds

- ④ Yes, I know it very well
- ③ Yes, I'm aware of it
- ② No, not really
- ① No, not at all

D.2 Do you think Universal Design Consulting activities in Seoul are important?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D.3 Do you think Universal Design Consulting activities in Seoul are being effectively pursued?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to Public Spaces>

D.4 Have you heard of or seen the result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pplying Universal Design principles to public spaces? [Select 1]

- Apply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 to spaces popular with the public.
- Make destinations easier to find and reach,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public facilities.
- Example: Universal Design was applied to a total of 15 locations, including the entrance, at the Seongdong Public Health Center in 2017



Pedestrian overpasses,
leveling and expanding sidewalks, etc.

Access Ramp Extension
(1.8m -> 3.5m), manual doors -> automatic doors, etc.

- ④ Yes, I know it very well
- ③ Yes, I'm aware of it
- ② No, not really
- ① No, Not at all

D.5 Do you think applying Universal Design to public spaces in Seoul is important?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D.6 Do you think the city of Seoul is effectively applying Universal Design to public spaces?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Universal Design Education>

D.7 Have you heard of or seen Universal Design Education activities in Seoul? [Select 1]

·Provide opportuniti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learn about Universal Design through activities, raise awareness about Universal Design amongst civil servants through activities at city, municipal, and business sites.

·Example: Building Character and Fostering Creativity through Universal Design (2017): teachers were trained to run a Universal Design program, taught in 120 fifth-grade classrooms.



Building Character and Fostering Creativity through Universal Design (2017)

- ④ Yes, I know it very well
- ③ Yes, I'm aware of it
- ② No, not really
- ① No, Not at all

D.8 Do you think Universal Design Education in Seoul is important?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D.9 Do you think Universal Design Education activities in Seoul are being effectively pursued?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Universal Design Exhibitions and Seminars>

D.10 Have you heard of Universal Design exhibitions and seminars in Seoul? [Select 1]

- Hold exhibitions, seminars, and expos to convey the importance of Universal Design,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 Creat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Universal Design firsthand.



Universal Design
International Seminar (2017)



Universal Design Exhibition (2017)

- ④ Yes, I know them very well
- ③ Yes, I'm aware of them
- ② No, not really
- ① No, Not at all

D.11 Do you think Universal Design exhibitions and seminars in Seoul are important?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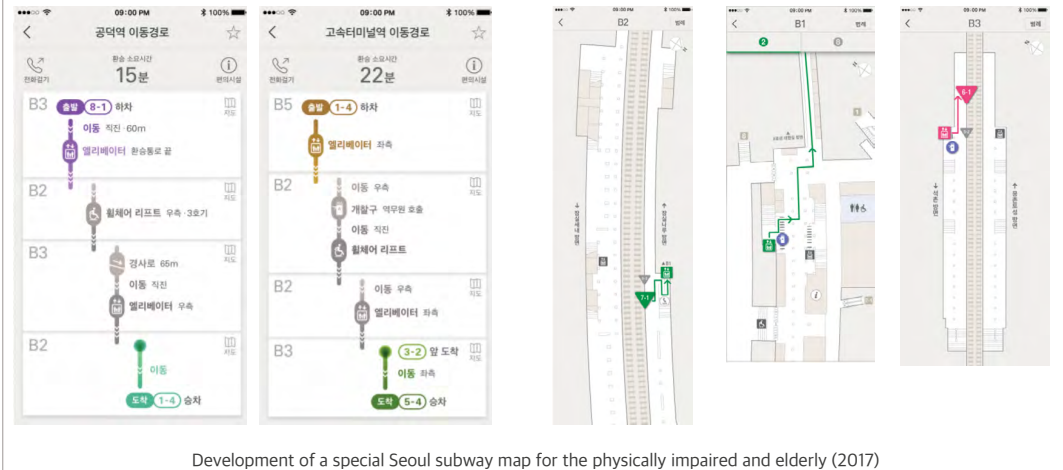
D.12 Do you think Universal Design exhibitions and seminars in Seoul are being effectively pursued?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Research on Universal Design>

D.13 Have you heard of or seen the city of Seoul conducting research on Universal Design? [Select 1]

- Establish standards for evaluating Universal Design, as well as a comprehensive information platform providing case studies, guides, and online courses on Universal Design in Seoul.
- Research a Universal Design construction monitoring and signing system, as well as run a research center that can research and implement new Universal Design projects.



Development of a special Seoul subway map for the physically impaired and elderly (2017)

- ④ Yes, I know it very well
- ③ Yes, I'm aware of it
- ② No, not really
- ① No, Not at all

D.14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for Seoul to research Universal Design?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D.15 Do you think research on Universal Design is effectively being pursued in Seoul?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D.16 Are you satisfied with the Universal Design projects/policies of the city of Seoul and the Seoul Design Foundation? [Select 1]

- ④ Absolutely
- ③ Yes
- ② No
- ① Not at all

D.17 Which of the following Universal Design projects should the city of Seoul prioritize? Please rank up to 3 projects. [Choose 1-3]

(1: _____) (2: _____) (3: _____)

Num.	Type
①	Walking facilities (sidewalks, ramps, crosswalks, etc.)
②	Public transportation (buses, subways, taxis, and their respective stops, etc.)
③	Public facilities (tourist information boards, public telephones, vending machines selling transportation cards, elevators, etc.)
④	Public buildings (community centers, post offices, district offices, city halls, etc.)
⑤	Urban rest areas (parks, plazas, playgrounds, trails, etc.)
⑥	Welfare facilities (centers for the elderly, disabled, etc.)
⑦	Educational facilities (schools, libraries, etc.)
⑧	Cultural facilities (art galleries, museums, movie theaters, etc.)
⑨	Commercial facilities (restaurants, hotels, department stores, etc.)

D.18 Which of the following Universal Design Consciousness Improvement Projects should the city of Seoul prioritize? Please rank up to 3 projects. [Choose 1-3]

(1: _____) (2: _____) (3: _____)

Num.	Type
①	Development of Universal Design Teaching Materials (textbooks, teacher guides, educational materials, etc.)
②	Universal Design Experience Program (exhibitions, permanent experience centers, etc.)
③	Universal Design Lectures and Seminars
④	Universal Design Research
⑤	Universal Design Competitions
⑥	Universal Design Promotion Campaigns (public interest ads, etc.)

D.19 The Seoul Design Foundation hopes to develop Universal Design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future. Which of the following projects should the Seoul Design Foundation prioritize? Please rank up to 2. [Choose 1-2]

(1: _____) (2: _____)

Num.	Type
①	Homes (furniture, kitchen appliances, bathroom products, etc.)
②	Welfare centers (elderly and disabled care facilities, activity aids, etc.)
③	Personal mobility (manual/electric wheelchairs, smart mobility, automobiles, etc.)
④	Public transportation (stations and stops for buses, subways, and taxis)
⑤	Public facilities (sidewalks/roads, crosswalks, elevators, community centers, parks, etc.)

D.20 The development of Universal Design products and services prioritizes participation of the public.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most important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Choose 1]

- ① Suggesting improvements to current products and environments
- ② Evaluating problematic products and environments after experiencing them firsthand
- ③ Working together with researchers to create prototypes
- ④ Spreading the word about improved Universal Design products and environments

[부록]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입법 및 국제회의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입법 및 추진 사례

유니버설디자인은 보편성 혹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정부 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공공 정책을 펼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도적으로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추진근거로서 관련 법률을 갖추고 있다. 국가 차원뿐 아니라 UN 차원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성이 깊은 협약이 만들어져 있다. 2006년 12월13일 UN은 총회에서 장애인인권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을 채택했다¹. 현재 187개국이 서명하고 177개국이 비준(법적구속력 발생)한 상태이다². 이 협약은 당사국에게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상황별로 필요한 곳에서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조정 혹은 특수제작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환경,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먼저, 국가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근거 법률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 - 재활법 508조(Section 508, Rehabilitation Act of 1973), 수정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ndments Act of 2008)
- 칠레 - 법률 제20,422호 “장애인의 동등한 기회와 사회적 포용에 관한 법”(Ley n° 20.422, Establece Normas Sobre Igualdad de Oportunidades e Inclusion Social de Personas con Discapacidad)
- 호주 -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2)
- 일본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인디아 - 장애인법(동등한 기회, 권리보호 및 전적참여)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Protection of Rights & Full Participation) Act of 1995)
- 영국 -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 and 2005), 평등법 (Equality Act of 2010)
- 아일랜드 - 장애법(Disability Act of 2005)
- 프랑스 - 법률2005-102호(2005년 2월 11일) 장애인의 참여와 시민권, 권리와 기회를 위한 법률 (Loi n°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 노르웨이 - 차별과 접근가능성법(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of 2009)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1990년 처음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504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후 2008년에 수정장애인법(ADA Amendments Acts; ADAAA)을 제정했는데, 수정의 최대 주안점은 장애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1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natl/korea.doc>

2 <https://fra.europa.eu/en/theme/people-disabilities/ratified-crpd> (2019년 1월 25일 검색)

국가의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그 관련 사업 시행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게 되는데, 뉴욕 시는 뉴욕 시 빌딩조례(Building Code)의 접근성 조항(Accessibility Provisions, 소위 Local Law 58)을 마련하였고, 시장직속 장애인실(Mayor's Off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OPD)을 1973년에 설치하였다. MOPD는 뉴욕 시 설계건축부와 함께 뉴욕주립대학교(SUNY at Buffalo)의 포용설계 및 환경적접근 연구소(Center for Inclusive Design and Environmental Access; IDEA)의 도움을 받아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인 “Universal Design New York(2001)”, “Universal Design New York 2(2003)”를 간행하였다³. 이를 통해 MOPD가 목적하는 바는 첫째,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실행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예시를 제공하며, 셋째, 유니버설디자인 채택을 장려하는 것이다(Universal Design New York, 2001).

일본은 정부 주도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처음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시작한 때는 건설성(현재 국토교통성)이 통지 “보도 및 입체횡단시설의 구조에 대하여”(문서번호 “건설성 都街發 제16호”)를 발표한 197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아키야마, 2018; 일본 국토교통성 고시·통달일람)⁴. 이것이 보행로의 배리어프리화에 토대가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단차해소(보도와 차도 간의 바닥 높이 차이를 없앴)와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 설치 등이다. 폭넓은 개념의 교통약자를 본격적으로 고려한 내용은 1981년 운수정책 심의회의의 “장기전망에 기초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의 기본방향”에 담겨있다.

1983년에 일본 최초의 가이드라인인 “대중교통 터미널의 신체장애이용 시설정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1994년에 “대중교통 터미널의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시설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발전되었다. 이듬해 2000년에는 “고령자, 신체장애인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소위 “교통 배리어프리 법”)이 시행되기 에 이른다.

교통 배리어프리 법은 2000년 5월11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11월15일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동법은 고령자·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자립을 보충하기 위하여 철도 등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자 등은 대중교통기관의 여객시설(철도역 등), 차량 등의 구조 및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역 및 그 주변의 기본구상을 수립해야 하는데, 2010년까지 1일 평균 5,000명이 상이 이용하는 역을 대상으로 하고, 범위는 철도역과 그 주변 500m~1km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는 정비지구를 중심으로 일체적 정비를 추진하며, 크게 대중교통사업(철도, 버스, 선박, 공항), 도로사업(단차, 유도형 블록), 교통안전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나누어 기본구상을 수립하였다.

2006년 12월 20일에는 대상을 모든 장애인(신체·지적·정신적·발달 장애인)과 고령자로 확대하고, 대상 시설도 도로, 건축물 및 대중교통기관 뿐 아니라 야외주차장, 도시공원, 복지택시 등을 포함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소위 “배리어프리 新法”)을 시행한다. 이는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여객시설 및 차량 등에 철도, 버스, 선박, 공항 뿐 아니라 복지택시를 포함시킨 것이다. 도로는 주요 여객시설 및 그 도보 권역, 즉 주변의 주요 도로를 말하는 것이다. 건축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도시공원은 이동을 원활화해야 할 공원으로, 주차장, 화장실을 포함한다.

일본 정부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된 배경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그리고 특히 패럴림픽 개최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가 “유니버설 디자인 2020”이라는 주제로 연결회의를 개최하여 도쿄 및 일본 전역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도쿄 지역에서는 경기장 및 주변지역, 철도역과 터미널, 나리타공항과 하네다 공항 국제선 터미널, 버스와 택시 등의 배리어프리화에 중점을 두었다.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예는 노르웨이 국가장애위원회(Norwegian State Council on Disability)가 1997년 간행한 “Universal Design: Planning and Design for All”(home.online.no/~bringa/universal.htm), 노르웨이 어린이·평등부(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가 2009년에 발행한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 싱가포르 빌딩 건설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이 2006년 간행한 “Universal Design Guide(Commercial Building)”, 캐나다 캘거리 시의 접근가능성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Accessibility)가 2010년 간행한 “Universal Design Handbook”, 캐나다 워니펙 시의 유니버설디자인실(Universal Design Office)이 2015년 간행한 “Winnipeg Accessibility Design Standards” 등 다양하다.

4 아키야마 테츠오, “일본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작부터 도달점까지,” 2018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자료집,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11.9, 59-111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IPC)는 접근성 가이드라인(“IPC Accessibility Guide”)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는 올림픽·패럴림픽 경기장에 적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리어프리 기준이다.⁵ 이를 바탕으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부 관계부처, 도쿄都,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2017년 3월 “Tokyo2020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수립·발표하였다(Tokyo 2020 Accessibility Guidelines, 2017). 관련이 있는 일본 국내법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아키야마, 2018).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동 등을 배려하는 건축설계표준”
(高齢者・障害者等の円滑な移動等に配慮した建築設計標準)
- “대중교통기관의 여객시설에 관한 이동 등의 원활화 가이드라인”
(公共交通機関の旅客施設に関する移動等円滑化ガイドライン)
- “이동 등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도로의 구조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省令”
(移動等円滑化のために必要な道路の構造に関する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IPC가이드의 공평, 존엄, 기능성 등 3개 기본원칙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내용은 크게 기술사양과 접근성 훈련 분야로 구분되어있고, 세부적으로 기술사양은 접근 및 이동, 편의시설, 호텔 및 기타 숙박 시설, 간행물과 커뮤니케이션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접근성 훈련 분야는 장애인 등에 대한 에티켓과 인식 훈련, 대회/임무별 접근성 훈련, 대회장 고유의 접근성 교육 부분으로 되어있다. 기술 사양 중에서 수치적인 기준은 의무사항인 표준기준과 추천사항인 권장기준으로 구별해 놓았다. 예를 들어, 복도의 폭에 대한 기술사양은 표준기준으로 1,800mm 이상, 권장기준으로 2,000mm 이상이다.

2.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회의

세계 여러 나라의 유니버설디자인 실무자, 학자,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각국의 법제 및 정책, 기업 사례, 연구 논문, 전문 의견, 개선 아이디어 등을 교환하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를 소개한다. 4개의 국제회의 중 셋은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일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⁶. 각 국제회의의 주최기관, 개최 주기 및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1) Include Conferences

- 홈페이지 www.rca.ac.uk/research-innovation/helen-hamlyn-centre/knowledge_exchange/include-conferences/
- 격년으로 개최되는 인클루시브 디자인 관련 국제회의
- Royal College of Art의 Helen Hamlyn Centre for Design이 주최
- 2017년 6월 홍콩에서 제9차 국제회의 개최

(2) CWUAAT(Cambridge Workshop on Universal Access and Assistive Technology)

- 홈페이지 www-edc.eng.cam.ac.uk/cwuaat
- 격년으로 개최되는 유니버설디자인·지원도구 기술(assistive technology) 관련 워크숍

5 IPC, IPC Accessibility Guide, 3rd Ed., September 2015. (https://www.paralympic.org/sites/default/files/document/160307102314920_IPC+Accessibility+Guide.pdf)

6 John Clarkson, Roger Coleman, Ian Hosking, and Sam Waller, Inclusive Design Toolkit, Engineering Design Centre, University of Cambridge, 2007, 1.44쪽을 보완하여 작성함

- 캠브리지 대학교의 Engineering Design Centre가 주최
- 2018년 4월 제9차 워크숍 개최

(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iversal Design

- 홈페이지 2012년 ud2012.no, 2014년 ud2014.se, 2016년 ud2016.uk, 2018년 www.udheit2018.com
- 2년마다 유럽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회의
- 유럽 여러 국가들의 대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
- 2018년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더블린에서 제4차 국제회의를 개최 (Higher Education in Transformation과 공동으로 개최)

(4)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Universal Design(ICUD)

- 홈페이지 www.iaud.net/global/
- 2~4년마다 개최되는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회의
- 일본의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Universal Design(IAUD)이 주최
- 2016년 12월 제6차 국제회의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
- 2019년 3월 제7차 국제회의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할 예정

3. 일본 국제유니버설디자인협회(IAUD) 주최의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회의(ICUD)

대표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회의 중 하나인 ICUD는 2002년 요코하마 국제회의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매 4년마다, 최근에는 매 2년마다 개최되어, 지금까지 통산 6회째를 기록하고 있다. 각 회의마다 철학과 사상, 산업디자인, 주택, 다양한 건물유형, 공항·자동차·대중교통, 도시계획, 표지판·GUI·정보시스템, 시민참여,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와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회의의 개최이력과 함께, 발표된 여러 편의 사례 및 논문 중 각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수준이나 유니버설디자인 성과평가·측정 등을 다룬 몇몇 논문을 발췌해 간략히 소개한다⁷⁾.

(1) 제1차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회의 (일본 요코하마, 2002)

- 주제 “For All, For Everybody
- Toward a Better Life of Tomorrow“
- 발표 논문 101편, 포스터 3편

Wolfgang F.E. Preiser, “유니버설디자인 기준 조작화의 과제”

- Elaine Ostroff와 함께 Universal Design Handbook(2001) 공저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상이한 문화권에 타당성 상실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지적
- 여러 빌딩 유형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의 이상을 구현한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가 난해함을 주장
- 기존 빌딩의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 모델인 유니버설디자인 평가(UDE) 모델을 논의

Hally El Kony & Gary Scott Danford, “유니버설디자인 감사의 개발”

-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에 따라 공공장소의 디자인 속성을 평가한다는 발상

⁷⁾ ICUD Proceedings (CD), 2002~2016.

- 이에 따라 개발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감사(UDA; Universal Design Audit) 도구를 설명
- 빌딩의 이용가능성을 평가하는 2개의 척도로 구성
 - 기능성과 척도(Functional Performance Measure)
 - 환경효용성 척도(Environmental Utility Measure)
- 9가지의 빌딩 이용활동이 평가 대상
 - 빌딩 접근, 빌딩 입장, 수평 순환, 수직 순환, 대기실/휴게실 이용, 구내매점 사용, 공공시설 (공중전화, 음수대, ATM 등) 이용, 빌딩 퇴장, 출발 등

(2)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회의 (일본 교토, 2006)

- 주제 “Considerate and Decisive – Listen to the Users and Deliver”
- 발표 논문 130여 편, 포스터 20편

Masayoshi Kubo,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99-106

- 일본 응답자 수 3175명 (남녀 비율 44.8:55.2, 연령 평균 39.3세)
-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을 약 80% ; 용어와 그 의미를 모두 안다(45.8%), 용어만 안다(34.7%)

Yuhsiu Yang, “대만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 조사”, 137-142

- 대만 응답자 수 313명 (남녀 비율 54.6:45.4, 연령 평균 31.3세))
-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을 약 40.3% ;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들어봤고, 무엇인지 안다(17.6%), 들어봤지만 무엇인지는 모른다(22.7%)

Hidekazu Sawada & Shiro Nitandai, “사무실을 위한 종합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성과 평가” 시스템(CASU-DA: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s of Universal Design Achievements), 559-565

- 공익사단법인 일본퍼실리티매니지먼트협회(Japan Facility Management Association)의 사무실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주요 평가항목 332개를 선별
- 평가항목은 크게 필수사항과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으로 구별
 - 필수사항은 법, 안전, 건강 등의 이유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은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에 입각,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 종합지표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332개 각 항목은 하나의 영역에 소속됨
- 3개 영역과 332개 항목 각각에 대한 가중치(중요도)는 AHP(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방법론을 사용해서 정함
- 332개 평가항목은 3점 내지 5점 척도로 평가

(3) 제3차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회의 (일본 하마마쓰, 2010)

- 주제 “For the People and the Earth of Tomorrow
- Toward a Sustainable Co-existence”
- 발표 논문 98편, 포스터 35편

Aina Olsen & Oddvin Farestveit, “유니버설디자인 국가지표 개발의 과제”, 7-14

- 노르웨이 델타센터(장애인의 참여와 접근가능성을 위한 국가자원센터)가 2년간 추진한 국가지표 개발노력 공유

- 1997년 노르웨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도입
 - 노르웨이 환경부가 주도한 모두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all) 프로젝트와 연관 있음
 - Norwegian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 of 2008에 반영됨
- 국가지표 개발과정
 - ①지표의 주요 카테고리 결정; 빌딩(학교, 시청, 박물관), 대중교통(버스, 기차, 트램, 비행기), 야외공간(공원, 놀이터, 여가공간), ICT(셀프서비스 기기, 웹사이트, 학습관리 시스템)
 - ②국가지표 결정; 예를 들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대중교통 시설(nodes/ junctions)의 비율
 - ③접근/사용을 위해 연결되어야 할 기능 영역을 정의; 접근/사용 활동의 주요 단계(vital stops)
 - ④접근성을 판단할 기준을 정의; 평가척도의 개발
 - ⑤자료수집 방법을 결정; 최대한 기존자료 활용하고 추가 수집의 비용과 용이성을 고려
- 의견 수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하향식 접근법, 정부부처 간의 조정 등을 제안

Nisha Prajapati & Tatsuo Asai, “남아시아와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비교 연구”, 757-766

- 남아시아 4개국(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스리랑카)과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태도를 비교
- 두 집단, 즉 남아시아 응답자(150명)과 일본 응답자(150명)를 통계적으로 비교분석
- 두 집단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식(awareness)에는 차이는 없음
 - 두 공저자의 다른 논문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친근하거나 약간 친근하다는 남아시아 응답자의 비율이 약 66%(Prajapati & Asai, 2013)⁸
- 두 집단의 유니버설디자인 실행 수준과 추가가격 지불용의에는 차이가 있음
 - 실행수준은 일본이 남아시아보다 높음
 - 추가가격 지불용의는 남아시아가 일본보다 높음

Einar Lund, “노르웨이 계획건축법의 주요 목표인 유니버설디자인”, 777-783

- 노르웨이 계획건축법(2009년과 2010년에 개정)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
 - “2025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된 노르웨이(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라는 국가비전을 수립
 - 노르웨이 환경부가 계획하고 지방정부 · 지역개발부가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공
 - 특정 빌딩을 정한 기한까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개선할 것을 강제함
- 국가비전 실현계획인 “유니버설디자인과 향상된 접근가능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2009-2015”를 통해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국가비전에 참여
 - 지방 및 도시에서의 검토사항 및 지구지정에 관한 규정을 담음

(4) 제4차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회의 (일본 후쿠오카, 2012)

- 주제 “Safety and Security
- Thinking about the Foundations of Universal Design”
- 발표 논문 41편, 포스터 43편

Yasuko Takayana, Satoshi Kose, Sawako Hayashi, Kayo Nomura, “일본 초중고등학교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의 효과성 조사”, 11-20

- 시주오카府, 미야기府 등지의 대학 세 곳에서 무장애(barrier-free)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

⁸ Nisha Prajapati and Tatsuo Asai, “Implementation of Universal Design in South Asia and Japan,” Contemporary Management Research, 9(2), June 2013, 109-136.

- 시주오카府를 비롯한 인근 지방정부의 기존 서베이 결과를 보면 약 70%의 사람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응답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홍보 노력과 더불어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때문
- 90% 이상의 일본 중등 교과서에 무장애 디자인이 언급되어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언급이 있는 일본 중등 교과서는 30% 정도에 머물고 있음
- 조사대상 대학 세 곳 중 한 곳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르는 응답자가 약 20%에 이르고, 다른 두 곳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르는 응답자가 거의 없음

Onny Eihaug, “유니버설디자인의 세계적인 발전”

- 노르웨이 디자인위원회(Norway Design Council)의 프로그램리더
- 10월13일 오전 9시 제1세션의 키노트연설
-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9가지 잘못된 신화를 지적
 - ①유니버설디자인은 돈이 많이 든다.
 - ②유니버설디자인은 재미가 없다.
 - ③유니버설디자인은 서비스가 아닌 물체나 제품에 관한 것이다.
 - ④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가 아닌 오직 장애인이나 특별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다.
 - ⑤유니버설디자인은 지원도구 기술(assistive technology)의 일종이다.
 - ⑥유니버설디자인은 나나 우리 기업, 우리가 하는 일에는 관계가 없다.
 - ⑦유니버설디자인은 미적요소 도외시키고 기능적인 관점만 강조한다.
 - ⑧유니버설디자인은 새로운 시장이 아닌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위한 것이다.
 - ⑨유니버설디자인은 디자인의 새로운 추세가 아니라 일시적 유행(buzzword)일 뿐이다.

(5) 제5차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회의 (일본 후쿠시마, 도쿄, 2014)

- 주제 “Glocalized Development for Universal Design
- Toward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 발표 논문 46편, 포스터 18편

Satoshi Kose,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때 외국손님을 맞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유니버설디자인된 도쿄를 향하여”, 1-7

- 일본의 배리어프리 新法과 국제표준기구의 ISO 21542-2011을 소개
- 영국은 2012년 하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주관청(Olympic Delivery Authority)에서 포용 디자인표준(Inclusive Design Standards)을 제정함
 - . 동 표준에 따라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고사항(예; 더 넓고 큰 수차들)이 마련됨
 - . 그 배경에는 1995년의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있음
- ISO 21542는 건축환경의 접근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을 다룸
 - 기존과 신축 건축물 및 시설에 적용되는 표준
 - 각국의 기존 표준이나 준수사항을 인정
 -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있음
- 일본의 배리어프리 新法
 - 1994년 고령자와 신체장애인을 위한 지정건축물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や身体障害者指定建築物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세칭 “하트(Heart)빌딩법”을 제정
 - 1994년에 제정된 “교통 배리어프리법”은 2000년에 강제적인 준수사항이 보완됨
 - 2002년 하트빌딩법이 개정되면서 건축허가 단계에서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이 추가되고,

- 지방정부가 때로 더 높은 기준의 자체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부여됨
- 2006년에 “하트빌딩법”과 “교통 배리어프리법”이 통합되면서 “배리어프리 新法”이 됨
- 신법의 사상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일반원칙”(국토교통성, 2006)에 구체화됨
-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은 일생일대의 사건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현하여 외국손님을 환대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Asiah Abdul Rahim 외 4인, “교통허브 접근가능성 조사: 런던에서의 개선”, 107-116

- 영국의 Built Environment Professional Education Project 소개
- 영국 정부와 런던시(Greater London Authority)의 합작 사업인 Paralympic Legacy Project
- 런던시는 1995년에 제정된 장애차별법을 근거로 교통전략을 실행함
- King’s Cross 역이 재개발 사업에 선정됨
- 남쪽 구역을 폐쇄하고, 런던 올림픽/패럴림픽이 개최된 2012년에 서쪽 구역(Western Concourse)을 신축·개통함
- 새로운 건축은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맞춤

(6) 제6차 유니버설디자인 국제회의 (일본 나고야, 2016)

- 주제 “Creating Shared Value through Universal Design”
- 발표 논문 29편, 포스터 17편

Kazunari Tanaka 외 3인, “시간측정법을 사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시설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 69

- 기차역의 유니버설디자인을 평가하는 방법론
- 시간차이를 측정해서 전체 시설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수준을 계량화
- 비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용시간과 이동거리를 측정
- 도움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측정
-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경사길 등을 모두 측정
- 간사이 지역의 10개 역을 분석(5개 역은 심층분석)
- 새로운 유니버설디자인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

Carlos Diaz de Leon Zuloaga 외 3인, “버스 노선도 정보설계 평가: 과달라하라 51번 노선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경우”

-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51번 (51-A, 51-B 등 두 노선 운영) 버스노선도(세 종류)의 사용용이성(유니버설디자인)을 평가
- 평가도구는 수정된 PSSUQ(Post-Study System Usability Questionnaire)⁹
- 40명 참여자의 자료를 분석
- 40.5%의 참여자만 출발지와 목적지를 노선도 상에서 정확히 찾음
- 제안사항을 도출
- 노선도를 더 크게 만들고, 색상을 사용하며, 명확하게 표시할 것
- 환승정보 제공할 것
- 매 정류장마다 노선도를 비치할 것

9 Lewis, J.R.,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Post-Study System Usability Questionnaire: The PSSUQ”, Proceedings of the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Annual Meeting, 36(16), 1992, 1259-1260.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서베이 참고문헌

제1장 개요

- 서울디자인재단 (2008), 서울디자인서베이
서울디자인재단 (2015), 서울디자인서베이
Boulding, K. E. (1956), "General systems theory—the skeleton of science," *Management Science*, 2(3), 197–208.
Churchman, C. W. (1979), *The systems approach and its enemies*, Basic Books.
Koontz, H. (1980), "The management theory jungle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2), 175–188.

제2장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 행정안전부 (2018),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남궁윤재 (2011),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 분석을 통한 개념 재정립," *한국디자인포럼*, 31, 371–380.
손석우 · 정도성 (2015), "유니버설디자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1), 539–548.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http://www.universaldesign.kr>)
(사)장애인유니버설디자인협회 (<http://universaldesign.or.kr>)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 연구소 (<http://m.cafe.daum.net/moinpeople>)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http://www.udkorea.kr>)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http://www.ableforum.com>)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http://www.kcud.or.kr>)
굿디자인 (<http://gd.kidp.or.kr>)
나라장터 (<http://www.g2b.go.kr>)
노스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유니버설디자인센터 (<http://www.csun.edu/universal-design-center>)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
유니버설디자인 이니셔티브 연구소 (<http://id.seoultech.ac.kr/rnd/universal>)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www.koddi.or.kr>)

제3장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 국회입법조사처 (20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1–12.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015),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016),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018),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018), 2018 디자인정책과 업무바인더 및 예상질의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018), 2018년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018), 2018년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추진계획
서울디자인재단 (2017), 2017 서울 디자인(백서 2015–2017)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2018),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 사업계획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체험장 설치계획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건축, 정보제공, 피난 분야를 중심으로-
안상락, 고영준 (2013),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문화시설접근성과 위생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35, 1–13.
최운진, 박병은 (2017), "장애인편의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논문집, 48, 119–128.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http://socialhousing.site/221326151587>)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http://www.udcontest.com>)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 (<http://bf.koddi.or.kr>)

제4장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서울디자인재단 (2013), 유니버설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016~2018),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 체험교육 결과보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2016~2018),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과정 운영 결과보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특성화고·종합고 마이스터고 편람
행정안전부 (2018),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송예진, 장미경 (2016),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서울시 특성화 고등학교 유니버설 디자인 수업지도안 연구,”
조형미디어학, 19(3), 213-222.

강남대학교 (<http://www.kangnam.ac.kr>)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http://www.aurum.re.kr>)
경희사이버대학교 (<http://www.khcu.ac.kr>)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http://gsd.kookmin.ac.kr>)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http://www.scau.ac.kr>)
명지전문대학 (<http://www.mjc.ac.kr>)
상명대학교 대학원 (<http://www.mjc.ac.kr>)
서울과학기술대학교 (<http://www.seoultech.ac.kr>)
서울디지털대학교 (<http://www.sdu.ac.kr>)
서울사이버대학교 (<http://www.iscu.ac.kr>)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http://www.youngshin.hs.kr>)
유니버설디자인학회 (<http://www.ud4all.or.kr>)
한국복지대학교 (<http://www.knuw.ac.kr>)
한국주거학회 (<http://www.khousing.or.kr>)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http://www.kcud.or.kr>)
한양대학교 대학원 (<http://www.grad.hanyang.ac.kr>)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http://dgc.hongik.ac.kr>)
대학신문, “유니버설 디자인, 보통의 틀을 깨다,” 2017.11.19.
국제뉴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체험교육 진행,” 2017.8.25.

제5장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2017),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015),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016),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018),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서울연구원 (2016), 걷는 도시 서울
열린소통포럼 (2018), 10차 포럼_부처별 검토 의견, 2018.9.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디자인정책 발전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2018 유니버설디자인환경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이슬기, 홍성인, 임수영 (2017), “국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9(3), 61-6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제6장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조사

서울디자인재단 (2017), 2017 서울지하철 환승·이동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서울시 (2017),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018), 2018년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서울시 문화본부 (2018),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Seoul Design
Foundation

I·SEOUL·U



9 788998 664862 ISBN 978-89-98664-86-2

9 3 6 1 0
₩12,000